



Animal



Plant



Geology



Scenic Site

자연

유산

대

천연기념물
명승

Natural Monument
Scenic Site

관

자연유산대관

천연기념물 명승

총괄 천연기념물과장 황권순
기획 천연기념물과 변지현
이달희
이희영
김기일
강민표
정대영
윤지현
홍동기
서정희
김소현
이광자
신용운
김민지

사진협조 국립문화재연구소
(기관배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강원도청
강릉시청
군산시청
보은군청
양양군청
창녕군청
제주관광공사

원고집필 **동물**
(가나다순) 김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이완옥 상지대학교 교수
최석규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식물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지질
공달용 국립문화재연구소
김 련 (사)한국동굴연구소
손영관 경상대학교 교수
황재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명승
김학범 한경대학교 명예교수
신상섭 우석대학교 교수
신현실 우석대학교 교수
최종희 배재대학교 교수

- 1 「자연유산 대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이 지정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86건을 수록하였음.
- 2 책의 끝(부록)에는 대관 발간 대상('10년~'19년) 자연유산 종류별 목록과 지금까지('20년 12월 말 기준) 지정 또는 해제된 자연유산 전체 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자연유산대관

천연기념물 명승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자연유산대관
천연기념물·명승

발간을 축하하며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누구나 손쉽게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자연유산대관’을 발간합니다.

이번 ‘자연유산대관’에는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명승 대관을 발간한 이래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와 ‘당진 면천 은행나무’ 등 총 86건의 자연유산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생생한 영상과 소리, 관련 정보와 삽화도 함께 담았으며, ebook·오디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연유산은 백악기 공룡 발자국에서부터 우리 선조들이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곳곳의 명승지, 오늘 이 순간의 일상을 함께하는 산천의 동·식물들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그 자체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인류의 최대 자산입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 훼손,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연유산을 관리하는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재청은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도 전국 어디서나 황새를 보고 용문사 은행나무와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해줘야 한다는 가슴 묵직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문화재청에서는 자연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일대 혁신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이 각자 본연의 모습으로 생동할 수 있도록 숨결을 불어넣고, 나아가 모든 분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현하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펼치는 한 분 한 분이 주변의 자연유산을 아끼고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연유산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문화재청장 정재숙

목 차

Table of contents

발간사	004
개관	010

동물

028

01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532호	030
02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533호	032
03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제540호	036
04 제주 흑우 천연기념물 제546호	040
05 제주 흑돼지 천연기념물 제550호	044

식물

048

06 제주 물장오리 오름 천연기념물 제517호	050
07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제518호	054
08 영양 무창리 산돌배 천연기념물 제519호	058

09 강릉 방동리 무궁화 천연기념물 제520호	062
10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천연기념물 제522호	066
11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천연기념물 제523호	068
12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524호	072
13 독도 사철나무 천연기념물 제538호	076
14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천연기념물 제539호	080
15 제주 강정동 담팔수 천연기념물 제544호	084
16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545호	088
17 당진 면천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551호	092
18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천연기념물 제553호	096
19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제554호	100
20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천연기념물 제555호	102
21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천연기념물 제558호	106

지질

110

- 22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112
천연기념물 제525호
- 23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116
천연기념물 제526호
- 24 의성 빙계리 얼음굴 120
천연기념물 제527호
- 25 밀양 만어산 압괴류 124
천연기념물 제528호
- 26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128
천연기념물 제529호
- 27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132
천연기념물 제530호
- 28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136
천연기념물 제531호
- 29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140
천연기념물 제534호
- 30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 144
천연기념물 제535호
- 31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148
천연기념물 제536호
- 32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152
천연기념물 제537호
- 33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156
천연기념물 제542호

- 34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160
천연기념물 제543호
- 35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164
천연기념물 제547호
- 36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168
천연기념물 제548호
- 37 정선 용소동굴 172
천연기념물 제549호
- 38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176
천연기념물 제552호
- 39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182
천연기념물 제556호
- 40 정선 화암동굴 186
천연기념물 제557호

명승

190

- 41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192
명승 제70호
- 42 남해 지족해협 죽방림 198
명승 제71호
- 43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202
명승 제72호

44	태백 검룡소 명승 제73호	206
45	대관령 옛길 명승 제74호	210
46	영월 한반도 지형 명승 제75호	216
47	영월 선돌 명승 제76호	220
48	제주 서귀포 산방산 명승 제77호	224
49	제주 서귀포 쇠소깍 명승 제78호	228
50	제주 서귀포 외돌개 명승 제79호	232
51	진도 운림산방 명승 제80호	236
52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명승 제81호	240
53	안동 만휴정 원림 명승 제82호	244
54	사라오름 명승 제83호	248
55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명승 제84호	252
56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명승 제85호	256

57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명승 제86호	260
58	밀양 월연대 일원 명승 제87호	264
59	거창 용암정 일원 명승 제88호	268
60	화순 임대정 원림 명승 제89호	272
61	한라산 백록담 명승 제90호	276
62	한라산 선작지왓 명승 제91호	280
63	제주 방선문 명승 제92호	284
64	포천 화적연 명승 제93호	288
65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명승 제94호	292
66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명승 제95호	298
67	설악산 토왕성폭포 명승 제96호	302
68	설악산 대승폭포 명승 제97호	306
69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명승 제98호	310

70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명승 제99호	314
71	설악산 울산바위 명승 제100호	318
72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명승 제101호	322
73	설악산 용아장성 명승 제102호	326
74	설악산 공룡능선 명승 제103호	330
75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명승 제104호	334
76	청송 주산지 일원 명승 제105호	338
77	강릉 용연계곡 일원 명승 제106호	342
78	광주 환벽당 일원 명승 제107호	346
79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명승 제108호	350
80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명승 제109호	354
81	괴산 화양구곡 명승 제110호	358
82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명승 제111호	364

83	화순 적벽 명승 제112호	368
84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명승 제113호	374
85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명승 제114호	380
86	강진 백운동 원림 명승 제115호	384

부록

388

동물 개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1916년 7월에 최초로 제정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라는 법령에 따라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 그 후 1933년 8월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정하여 고적, 유물 등의 조사, 등록과 그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154건(미수복지 포함)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 146건은 일제강점기때 지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2년 1월 10일에 법률 제961호 문화재 보호법을 최초로 제정 공포하고, 12월 7일 구법에 의하여 30년간 지정하였던 것을 재지정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지정하여 2020년 현재 동물류는 101건에 이른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및 지정기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중 동물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서식처
2. 석회암지대·사구·폭포의 소·온천·하구 등 특수 지역이나 환경에 서식하는 특유한 동물, 동물군 및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것 및 서식지
4. 우리나라 특유의 축양동물
5. 저명한 동물의 분포가 되는 곳

6. 유용한 동물의 원산지

7. 귀중한 동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동물을 크게 5개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조류

특별한 장소에서 서식하는 희귀한 종이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종, 계절에 따라 특정 지역에 도래하거나 집단번식 하는 종으로 민속적·문화적 및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류는 모두 68건으로, 그 내용은 서식지 : 2건, 도래지 : 5건, 번식지 : 14건 그리고 종으로 지정된 것 47건(가금 1종 포함) 등이다.

2. 포유류

지구상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 산악과 같은 험준한 고준지대에서 서식하는 종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축양동물 등으로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포유류는 모두 14건으로, 귀신고래의 회유해면 : 1건, 종으로 지정된 것 : 13건(축양동물 포함) 등이다.

3. 어류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된 신종을 포함하여 서식분포가 한정된 희귀한 종 등으로 이들은 학술적 특히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류는 모두 10건으로 서식지 : 6건, 종으로 지정된 것 : 4건 등이다.

4. 곤충류

분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희귀종, 특수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종 등으로 특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곤충류는 모두 5건으로, 서식지 : 2건, 종으로 지정된 것 : 3건 등이다.

5. 기타

파충류 : 1건, 거미류 : 1건, 해양동물 : 2건, 연산호 균락 : 1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식물 개관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의 역사와 가치가 담긴 자연유산으로, 오랜 역사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사상, 신앙 및 문화활동이 담겨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이 처음 지정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8월 9일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법령인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16건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는데 이 중 식물은 ‘달성의 측백수림(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등 11건이었다. 이후 1943년까지 146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으며,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우리의 천연기념물은 계속 이 법령에 의해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1962년 1월 10일에야 문화재를 관리할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그 해 12월 7일에는 그 동안 지정된 천연기념물 146건 중 북한지역에 있거나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을 제외한 98건을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중 식물은 108건 중 31건을 제외한 77건이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식물분야의 자원은 총 266건이다. 여기에는 1962년 당시 북한에 있던 ‘맹산의 만주흑송수림’과 ‘개성의 백송’ 등 16건과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와 ‘용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등 자연고사했거나 각종 재해로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어 해제된 64건을 합하면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모두 346건이 된다(표 II-1).

표 II-1 1933~2020, 천연기념물 식물 지정·해제 현황

지정건수	해제건수				현존건수
	계	‘62 북한 소재	‘62 재지정안함	이후 가치상실	
346	80	16	17	47	266

■ 식물 지정 기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식물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
2.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3.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4.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5.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6.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7.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9.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식물분야 천연기념물은 한 개체가 지정된 것과 군락이 지정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개체가 지정된 것은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나 ‘보은 속리 정이품송’처럼 종을 대표할 만한 노거수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식물군락의 경우는 노거수처럼 범위를 나누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수림지·마을숲·희귀식물 군락·분포한계선상에 있는 식물이나 자생지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은 해당 식생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데 의의가 있기에 군락의 성격에 따라 수림지·마을숲·희귀식물·자생지·분포한계지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수림지는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숲을 말하며 상록수림·동백나무 숲·난대림·단풍나무 숲 등이다.

마을숲은 원시적 신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성황림이나 당숲, 그리고 풍수설에 근거하여 만들

어지고 유지되어온 비보숲 등이다.

그리고 희귀식물·자생지·분포한계지는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 중 자체보다도 그곳의 환경적 요건이 더욱 중요시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는 파초일엽 자체보다도 이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삼도의 환경조건이 중요한 것이고,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의 경우도 동백나무가 생육하는 지역 범위를 보호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북한지와 자생지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와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는 자생지이며 동시에 북한계지인 것이다.

현재의 천연기념물 식물 266건을 지정 유형별로 보면 노거수가 172건(소나무류 36건, 은행나무 23건, 느티나무 18건, 기타 49종 95건)으로 6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나치게 노거수 위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2).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관습이나 민속과 관련된 식물종·군락·숲의 보존과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발굴 등 지정 유형을 확대하고 있다.

표 II-2 천연기념물 식물 유형별 지정현황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계
					유용식물	자생북한지	
지정건수	172	24	24	19	14	13	266
구성비	64.7%	9%	9%	7.1%	10.2%		100%

천연기념물 지정의 편차는 종류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포에서도 뚜렷하다.

천연기념물 식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거수가 특히 많은 경상북도로서 56건(21.1%)에 이른다. 다음은 전라남도 46건(17.3%),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27건(10.2%) 순이고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1건씩 지정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유형별로 보면 수림지에서는 총 24건 중에서 전라남도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특별자치도 7건 순이다. 마을숲은 경상북도가 9건, 전라남도 8건, 경상남도가 4건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희귀식물의 경우는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3건, 전라남도가 2건, 충청남도가 1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생지·북한계지 등 특정식물의 자생지는 전라북도 5건, 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각각 4건, 충청북도 2건, 강원도·충청남도·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에 각각 1건이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도·경기도에는 노거수 천연기념물만 분포하고 있다(표 II-3).

표 II-3 천연기념물 식물 시도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노거수	11	3	5	-	1	1	1	1	15	12	11	9	17	23	38	19	5	172
수림지	-	1	-	-	-	-	2	-	-	-	-	1	2	9	2	-	7	24
마을숲	-	1	-	-	-	-	-	-	2	-	-	-	-	8	9	4	-	24
희귀식물	-	-	-	-	-	-	-	-	-	-	5	1	3	2	3	-	5	19
자생지· 분포한계지	-	-	1	1	-	-	-	-	1	-	2	1	5	4	4	4	4	27
계	11	5	6	1	1	1	3	1	18	12	18	12	27	46	56	27	21	266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는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을 고유성, 향토성, 역사성, 문화성, 학술성이 큰 동물·식물·지형·지질·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희귀한 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었을 때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학술적 가치가 큰 희귀식물자원을 보존을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많은 식물자원들이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순수한 학술적 가치만으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환경 보전법, 야생 동·식물 보호법, 산림에 관련된 법 등 희귀식물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요즘은 단순한 학술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에 무게를 두어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다.

■ 노거수

「조선거수노수명목지朝鮮巨樹老樹名木誌」(1919)에는 당시 주변에서 흔히 자라는 수종 가운데 46건의 나무에 대한 크기, 소유자, 전설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1933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에도 이 문헌자료가 활용되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는 172건이고 수종은 55종류다. 가장 많은 수가 지정된 종류는 은행나무로서 23건이고 다음이 18건의 느티나무, 15건의 소나무, 10건의 향나무 순이다. 나머지는 각각 1~6건씩이다. 이 가운데 단 한 건씩만 지정된 종류는 조각자나무, 배롱나무, 소태나무 등 29종류다.(표 II-4)

표 II-4 노거수 수종별 지정현황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은행나무	23	매실나무	4	청실배나무	2	갈참나무	1	전나무	1
느티나무	18	후박나무	4	산돌배나무	2	생달나무	1	밤나무	1
소나무	15	푸조나무	3	뽕나무	2	철쭉	1	소사나무	1
향나무	11	왕버들	4	고욤나무	2	송악	1	멀구슬나무	1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수종명	지정 건수
이팝나무	6	읍나무	3	올벚나무	1	호두나무	1	개비자나무	1
곰솔	6	비자나무	3	조각자나무	1	개오동나무	1	동백나무	1
반송	6	등나무	2	배롱나무	1	주목	1	호랑가시나무	1
백송	5	팽나무	2	소태나무	1	회양목	1	사철나무	1
회화나무	5	탱자나무	3	다래나무	1	황칠나무	1	무궁화	1
처진소나무	4	망개나무	2	촉백나무	1	감나무	1	담팔수	1
굴참나무	4	물푸레나무	2	모과나무	1	굴나무류	1	오리나무	1
소 계					55종 172건				

이를 다시 지역별로 보면(표 II-5)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에 전체 노거수의 약 22%에 이르는 38건이 소재하고, 전라남도에 23건, 경상남도에 19건, 전라북도에 17건의 순으로 나타난다. 경상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대구광역시에는 1건도 존재하지 않아서 대조를 이룬다.

표 II-5 천연기념물 식물 노거수 시도별 현황

시도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정건수	11	3	5	-	1	1	1	1	15	12	11	9	17	23	38	19	5	172

노거수 천연기념물은 수백 년에서 천 년을 넘겨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자연유산이다. 한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짧게 살다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 나무에 신이 깃든 것으로 알고 지켜왔다. 심어진 유래와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고, 몸이 아픈 가족이 낫도록, 떠나간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빌어왔다.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으로 모시며 농가사 잘되고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 밖에도 왕이나 선비가 심은 나무, 향교나 서당에서 심어 경치를 아름답게 하는 나무 등 노거수는 이 땅의 옛사람들이 함께 해온 문화·역사적 가치가 아주 큰 자연유산이다.

■ 수림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림지는 총 24건이며 특수한 지역에 발달하는 식물의 군락이나 희귀한 종류, 특수한 습성을 가진 식물의 군락을 보존하고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숲이다. 수림지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수목의 종류 수에 따라 단일종으로 구성된 단순림과 여러 종으로 구성된 혼효림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혼효림이다. 단순림으로 된 것은 비자나무 숲이 가장 많다. 그러나 생

육환경의 변화와 자연현상에서 오는 식생의 천이로 지정당시의 의도와는 다른 식생구조로 변화한 경우도 많다.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같은 경우는 혼효림의 한 예로서 출발은 성황림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상록활엽수림대 식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연기념물 수림지의 시도별 분포(표 II-6)를 보면 전라남도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특별자치도가 7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렇게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지역 특성상 동백나무나 비자나무 같은 남부지역 자생 수종들의 군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표 II-6 천연기념물 수림지의 시도별 분포 현황

시도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정건수	-	1	-	-	-	-	2	-	-	-	1	2	9	2	-	7	24

■ 마을숲

마을숲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주변에 조성되어 관리되어 온 숲이다. ‘당숲’, ‘성황림’, ‘서낭숲’ 등의 토착신앙적 문화와 관련되어 조성되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지리관이라 할 수 있는 풍수지리설을 배경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마을숲은 마을의 운명을 주관하는 성스러운 숲이며, 마을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인 성림^{聖林}, Sacred grove이다. 또한 마을숲은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와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하는 풍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마을 지세의 과부족 요소를 조정 보완하여 풍수적 경관의 완성을 도모하는 풍수문화의 대표적 비보^{裨補}시설로 이용되는 숲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토착적이고 전통 문화적인 의미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숲은 무성한 녹음과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쉼터로 활용되기도 하는 전통적 마을공원이다. 아울러 마을숲은 동제^{洞祭}, 굿과 같은 마을 제사를 수용하는 제의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지신밟기, 씨름, 그네 등과 같은 전통놀이를 수용하는 장소이다.

마을숲은 대부분 마을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에 조성되고, 마을숲 스스로가 수려한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마을숲에는 연못과 정자 등의 공원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빼어난 모습의 마을숲은 성리학적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그들의 여가를 담는 장소로, 혹은 시작^{詩作} 및 경관감상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 문화경관이다.

표 II-7 천연기념물 마을숲의 시도별 분포 현황

시도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정건수	-	1	-	-	-	-	-	2	-	-	-	-	8	9	4	-	24

❑ 희귀식물, 자생지 및 분포한계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일부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종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 희귀식물은 보호를 받지 않으면 멸종될 우려가 있는 종류이며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군락’,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등 19건의 천연기념물이 이 범주에 속한다. 자생지는 특정 식물이 한정된 장소에서 자랄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이다. 천연기념물 제1호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이나 강원도의 ‘양구 개느삼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14건이 여기에 속하며, 이 경우는 생육하는 식물 종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환경적 요건이 더욱 중요시되는 지역이다.

식물의 분포역은 극지를 제외한 거의 지구의 전역이지만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식물의 종 특성에 따라 종별로 그 분포범위가 정해지게 마련이다. 특히 제반 환경조건 가운데서도 기후조건은 식물의 분포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의 종류별로 자연스럽게 분포 남한계나 북한계가 설정되게 되고 그 한계선상에 생육하고 있는 개체나 집단은 그 종류의 환경 적응 한계를 보여주는 자료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전라북도 진안의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등 13건이 여기에 속하며, 북한지역의 식물분포 자료가 부족한 탓으로 분포 남한계지 보다는 대부분 분포 북한계지가 지정되어 있고, 시도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많다(표 II-8).

표 II-8 천연기념물 희귀식물의 시도별 분포 현황

시도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희귀식물	-	-	-	-	-	-	-	-	-	5	1	3	2	3	-	5	19
자생지·분포한계지	-	-	1	1	-	-	-	1	-	2	1	5	4	4	4	4	27

지질 개관

지구는 크게 고체지구(固體地球, Solid Earth)와 유체지구(流體地球, Fluid Earth)로 구분한다. 딱딱한 고체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물질을 광물(礦物, Mineral)이라고 하며,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광물의 집합체가 곧 암석(岩石, Rock)이다. 지구에는 딱딱한 고체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나 물과 같이 잘 흘러가는 유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이를 유체지구라 한다. 고체 지구와 유체지구 사이에는 항상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하고 있다. 지구의 껍질에 해당하는 지각(地殼, 두께 평균 30~40km)을 포함하여 딱딱하고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성질을 가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암권(岩圈, 두께 평균 80~100km),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대기권(大氣圈, 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수권(水圈)이라 부른다.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생활의 기본 터전이 되는 지표는 암권이나 지각의 표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지형(地形, Landform)이란 그 지역의 지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하천·바다·바람·빙하·지하수·호소 등과 같은 영력(營力)에 의하여 침식→운반→퇴적작용을 받은 결과로 지표 표면에 나타나 있는 형태 즉, 지표의 기복(起伏, Relief)을 말한다. 따라서 지형의 발달은 그 지역에 분포된 지질의 특성과 어떠한 작용을 받았는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질(地質, Geology)이란, 이러한 암권의 근본이 되는 물질의 성질·상태·종류·구조 등을 말한다. 따라서 지질학이란 지각이나 암권의 구성 물질, 그 물질의 분포 상태와 구조, 지각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영력, 이들 영력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 화석(古生物) 등을 연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역사 즉, 지구자연사를 밝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천문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의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생물을 제외하고, 인류를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들의 근본 생활 터전이 되는 지표→지각→암권→고체지구는 46억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화하고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록 즉, 지구자연사는 고스란히 암석이나 지층 속에 기록되어 있거나 지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과거사를 밝힐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구의 미래

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 즉, “현재는 과거에 대한 열쇠다!”라는 제임스 허턴^{James Hutton}(1726~1797, 영국)의 명언은 지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질학의 격언으로 삼고 있다.

지질학적 변화는 화산폭발이나 지진, 홍수 등과 같이 때로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이 느끼지 못 하는 가운데, 장구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질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도 없고 재생도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지질다양성^{Geodiversity}’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질다양성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지질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암석·광물·토양·지질구조·화석·지형 등 개개의 지질학적 대상이며, 이 중에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질유산^{地質遺産, Geoheritage}’이라고 한다. 산업이 발달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질수록 우리들은 때가 묻지 않은 원시 자연의 경승지나 오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의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요소는 지질유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지질유산과 관련된 천연기념물 지정기준

1.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경계선
가. 지판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나. 지구내부의 구성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와 그 분포지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가.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나. 지질시대의 퇴적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다.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과 그 산지
라.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산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3. 한반도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질구조 : 습곡·단층·관입·부정합·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 연흔·건열·사층리·우흔 등

다. 기타 특이한 구조의 암석 : 베개용암·어란암(魚卵岩, Oolite)·구상(球狀)구조나 구과상(球顆狀)구조를 갖는 암석 등

4.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가. 구조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고위 평탄면,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나.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 : 단성화산체·화구·칼데라(Caldera)·기생화산·화산동굴·환상복합암체 등

다. 침식 및 퇴적작용에 의한 지형 : 사구·해빈·갯벌·육계도·사행천·석호·카르스트 지형·석회동굴·돌개구멍(Pot hole)·침식분지·협곡·해식애·선상지·삼각주·사주 등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 토르(Tor)·타포니(Tafoni)·암괴류 등

마. 기타 한국의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5.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희귀한 자연현상

가. 얼음굴, 풍혈

나. 샘 : 온천·냉천·광천

다. 특이한 해양현상 등

6.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7. 자연현상 :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형유산과 지질유산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야	지정건수	백분율(%)
화석산지	22	25.9
동굴	21	24.7
암석	7	8.2
지형·지질 일반	35	41.2
계	85	100

2020년 12월 현재 총 85건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화석산지 22건 25.9%, 동굴 21건 24.7%, 지형·지질 일반 35건 41.2% 및 암석 7건 8.2% 순이다. 특히 화석과 동굴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883년 한반도를 처음으로 탐사한 독일의 곳체Gottsche는 “한반도는 지질박물관 같다”라고 했듯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호주 등과 같이 대규모의 웅장한 지질유산을 갖고 있기 보다는 대부분 아기자기한 소규모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공사나 훼손이 이루어지더라도 쉽게 눈에 띄이고, 자연스럽고 조화롭던 모습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질유산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과 좀 더 세심하고 특별한 배려를 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질유산을 문화재 즉,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2007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의 이름으로 유네스코UNESCO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귀중한 지질유산의 가치가 더욱 많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화석

화석이란 과거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또는 인상^{인상}이 암석에 보존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화석으로 남아 있는 생물들은 대부분 멸종되었으나, 과거 지질시대에 출현하여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생물들은 ‘살아 있는 화석^{Living Fossil}’으로 불린다. 화석은 크게 체화석^{體化石, Body Fossil}과 흔적화석^{痕跡化石, Trace Fossil}으로 나뉜다. 체화석은 고생물의 골격 같은 몸 자체가 화석이 된 경우를 말하며, 몸체는 없고 생물의 행동이나 생활흔적이 퇴적층에 보존되어 화석이 된것을 흔적화석 또는 생흔화석^{生痕化石}이라고 한다. 흔적화석에는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 기어간 자국, 주거나 피난 또는 휴식을 목적으로 생물이 뚫은 구멍 및 생물의 배설물 화석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의 대부분이 공룡 발자국이나 새발자국 같은 흔적화석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질유산 85건 중 화석분야는 22건(25.9%)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대별로는 중생대가 18건(81.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신생대가 2건이고 선캄브리아대와 고생대는 각각 1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공룡 관련 화석산지가 12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룡화석은 1972년 경남 하동군 금남면 수문리 해안에서 공룡알 화석 파편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973년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에서 초식공룡 용각류의 팔뚝이 발견되었고, 1982년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공룡 관련 화석은 1990년대들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룡 화석산지로는 처음으로 경북 의성군 제오리의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1993년 6월 1일 「의성 제오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로 지정되었다. 공룡 관련 화석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보고 되었으며 특히,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익룡발자국 화석이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익룡 관련 화석은 해남 이외에도 하동군, 사천시, 거제시에서 보고되었다. 중생대 백악기 익룡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9개 나라에 불과하고 그 중 한국과 스페인이 가장 많다. 또한 1969년에 발견되어 1970년 4월 2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 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222호)」의 새발자국은 ‘함안에서 발견된 한국 새’라는 뜻을 가진 코리아나오르니스 함안엔시스(*Koreanaornis hamanensis*)라는 신속(New Genus)·신종(New Species)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두 번째 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중생대 백악기 새발자국 화석은 총 27종이며, 이 중 8종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보고될 정도로 한반도는 새발자국 화석 연구에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나라 공룡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많은 화석산지(14건)가 천연기념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 중 공룡 관련 화석산지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4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18호)」 및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74호)」등 총 8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많은 화석들은 보존상태의 우수성과 풍부한 다양성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암석

암석이란 광물의 집합체다. 생물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 한다면 광물은 딱딱한 고체지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물질이다. 암석은 생성과정에 따라 크게 화성암(火成岩), 퇴적암(堆積岩), 변성암(變成岩)으로 나눈다. 화성암은 뜨거운 액체 상태인 마그마(Magma)나 용암이 식어 굳어진 암석이며, 퇴적암은 지표에서 암석이 풍화작용→침식작용→운반작용→퇴적작용을 받아 두텁게 쌓인 후 암석으로 변한 것이고,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진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변한 암석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85건의 지질유산 중 암석은 7건이며, 이 중에서 화성암 4건, 퇴적암 2건, 변성암 1건이지만 변성암도 기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성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암석이 갖는 다양한 특징 중에서 독특한 구조로 인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광물들이 모여 공과 같이 둥근 모양의 구조를 갖는 구상구조가 3건으로 대표적이다.

지형·지질 일반

지형·지질 일반은 동굴, 화석, 암석을 제외한 분야를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지질유산 전체 천연기념물 85건 중, 35건이 지정되었다. 지형 일반의 대표적인 것은 해안지형·화산지형·하식지형 등이며, 지질 일반에는 단층·습곡·절리·퇴적구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밀양 얼음골과 의령 빗방울 자국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화산지형 중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은 용암동굴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동굴

일반적으로 동굴이란 ‘자연적으로 지하에 형성된 공동(空洞)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는 ‘갱도’ 또는 ‘터널’이라고 부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21건 중 13건이 석회암동굴(석회동굴, 석회동 또는 종유동)이고 8건이 용암동굴이다. 육지의 동굴은 모두 석회암동굴이며, 제주도의 동굴은 모두 용암동굴이다.

석회암동굴은 탄산칼슘(CaCO_3)으로 이루어진 석회암이나 대리암에 발달하는 동굴로서, 생성원인은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H_2CO_3)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중탄산칼슘($\text{Ca}(\text{HCO}_3)_2$)이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물에 녹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을 용식작용(溶蝕作用)이라 한다. 또한 물속에 녹아있던 중탄산칼슘은 다시 분해되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면서 굳어져 석회암동굴 내부에는 각양각색의 동굴생물들이 발달하게 되어 신비롭고 아름다운 지하 세계를 만든다.

용암동굴은 화산활동이 일어나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흘러 갈 때, 용암의 표면은 먼저 식어 굳어지지만, 내부의 굳지 않은 용암은 계속 흘러내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동이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동굴이다. 그러나 동굴이 형성된 이후에도 새로운 용암이 분출하여 동굴 속을 흐르게 되면, 뜨거운 열에 의하여 동굴의 바닥이나 벽 등이 녹아 흘러나가거나, 흐르는 용암에 의해 깎여 나가기 때문에 동굴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복잡한 구조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열식작용(熱蝕作用, Thermal Erosion)이라 한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용암동굴 속으로 새로운 용암이 흘러 새로운 동굴을 만들게 되면 2층 구조, 3층 구조 등의 다층 구조를 갖는 용암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용암동굴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지는 화산동굴의 한 종류이다. 한편 용암동굴이 만들어진 이후, 동굴 내부로 석회질 성분이 유입되어 침전되면 석회암동굴의 특징도 함께 갖게 되는 특이하고 아름다운 용암동굴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하여 제주도의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명승 개관

명승(名勝)은 ‘이름난 경치’를 말한다. 비단에 금으로 수를 놓은 듯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나라는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 매우 많다. 이러한 명승을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景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명승의 종류는 다양하다. 높은 산, 깎아지른 절벽, 파도치는 바닷가, 타는 노을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나는 자연물도 있지만, 구곡동천(九曲洞天)이나 전설이 남아있는 것처럼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곳도 명승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어진 작은 정자와 정원도 명승이고 저수지, 옛길과 같은 조상의 손길이 녹아있는 곳도 역시 명승이다. 세계자연유산 중에서 아름다운 곳도 명승에서 빠질 수 없다.

좋은 곳이 이렇게 많지만 모두가 명승이 될 수는 없다. 바위의 웅장함과 강물의 도도함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 해야 한다. 정자와 누각은 산과 호수와 마을이 잘 보여야 한다. 인물이나 사건, 종교와 전설이 있던 곳은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 어떠한지가 나타나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며 살던 곳이어야 한다. 정원은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승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생기고 8년 뒤에야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제1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40년이 흐른 2002년까지도 명승 문화재는 전국에 겨우 9곳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을 다니며 산, 계곡, 폭포, 섬, 정원, 구곡, 논, 옛길은 물론이고 옛 사람들이 그림과 시로 남긴 아름다운 경관까지 일괄로 조사하며 지정 보존하였다. 지금 전국의 명승은 115곳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명승 개념으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명승 지정건수는 우리의 3배가 넘고, 북한 역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을 통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보존하고 있다. 우리 역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법에 충분히 담기 어려운 자연유산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승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천만이 지속가능한 활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드넓은 갯벌과 갈대군락,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 저문 해를 지고 구부러진 물길을 돌아오는 작은 배의 풍경은 숨을 멎게 하는 아름다움이다. 어떻게 많은 관광객이 연중 방문하면서도 자연유산이 훼손되지 않는 걸까? 순천만과 시내의 사이에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있는데, 이 곳은 도시의 확장으로부터 명승 순천만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유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명승은 그 명승이 상표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탐방객이 오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를 미리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오래된 것’에서 ‘우리 것’으로 바꾸어주면 이 땅의 명승은 다음 세대로 이어가며 모두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자연유산 자원 중 명승으로 지정하는 구체적인 가치기준은 다음 네 가지다.

자연물, 혹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경관적 가치

- 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날 것
- 나. 자연 속에 구현한 조경 공간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을 것
- 다.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일 것

2. 역사적 가치

- 가. 종교·사상·전설·사건·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되어 역사성이 인정될 것
- 나.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
- 다.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

3. 학술적 가치

- 가.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 나.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을 것
- 다.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을 것
- 라. 역사적 인물·사건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자연물·인공물이 존재 할 것
- 마. 위치, 구성과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할 것

4. 기타

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
에서 관상적 또는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가질 것

명승으로 지정하는 대상은 위와 같은 지정가치를 가진 다음 대상들이다.

1. 자연경관 :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물

- 가. 산악, 구릉, 고원, 화산 등 산지 지형
- 나. 하안^{河岸}, 평원 등 하천 지형
- 다. 호수, 늪 등 습지 지형
- 라. 사빈, 사구, 암석해안, 간석지, 도서 등 해안 지형
- 마. 동물·식물의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 바. 일출·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2. 자연인문경관 :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 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의미를 부여한 자연경관 :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바위,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 나.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3. 역사문화경관 :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인공물과 자연물이 결합된 곳

-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등 저명한 조형물이 있는 인공경관
- 나.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인공림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 다. 사찰, 향교,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4. 세계유산 : 세계자연유산 중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곳

동물 Animal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경주개 동경이

제주 흑우

제주 흑돼지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Habitat of Golden Mandarin Fish

01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2호 | 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 지정일 2011년 9월 5일 | 학명 *Siniperca scherzeri* Steindachner, 1892

문화재 현황

황쏘가리는 농어목 꺾지과에 속하는 담수어류인 쏘가리와 같은 종의 변이로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유선형이며, 주둥이가 길고 뾰족하고 위턱보다 아래턱이 길다. 입은 크고 이빨이 날카롭고 등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로 된 지느러미인 극조와 부드러운 지느러미인 연조로 되어 있다. 쏘가리는 표범과 같이 얼룩무늬가 발달되어 있지만, 황쏘가리는 몸 전체가 황금색이거나 군데군데 갈색의 반점이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크기는 60cm 이상 자라지만, 보통 20~40cm까지 자라면 산란할 수 있는 어미가 된다. 몸의 색은 황금색이나 흰색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쏘가리와 비슷하지만 희미한 무늬를 가지는 개체들도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알비노(Albino)와는 다른 유전적 채색변이로 보인다. 모든 개체들의 채색이 달라 다양한 무늬로 발현이 가능하여 관상어로 개발도 가능하다. 부화 후 만 1년이 지나면 10cm 내외로 자라고, 산란이 가능한 20cm까지 3~4년이 소요되지만, 인공적으로 사육하면 만 1년에 20cm까지 자라기도 한다.

물이 맑고 깨끗하며 자갈이나 바위가 많은 곳을 선호하는 쏘가리는 큰 강의 중상류에서 주로 서식하지만, 단독생활을 하고 세력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희소하다. 특히 황쏘가리는 한강에 서만 분포하고 쏘가리보다 개체수가 희소하여 직접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서식처를 보면 강의 하폭이 50m 이상 되고, 수심도 2m 이상이며 깊은 소와 넓은 여울이 발달된 중상류에 주로 서식하지만 큰 댐 호에서도 많이 살고 있다. 사는 곳은 커다란 바위가 넓게 깔려있는 수심 1m 이상인 물이 느리게 흐르는 곳을 중심으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세력권을 가지는데, 산란은 수심 1m 이상인 여울이나 댐 호의 돌무더기에서 5월에서 6월까지 수온이 20°C 내외 일 때 암컷 한



황쏘가리서식처 평화의담 상류



황쏘가리



마리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따라다니면서 산란한다. 산란된 수정란은 수온 20℃에서 일주일이면 부화되고 부화 직후 어린개체부터 다른 물고기의 치어를 먹으며 자라는데 생애 전체 주기 동안 어류만 먹는 어식성 어류이다. 따라서 서식에 필요한 공간에 많이 필요하여 희소하게 발견된다.

자연·인문환경

쏘가리는 한강, 임진강, 금강, 섬진강 등과 북한의 대동강, 압록강 등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큰 강에 분포하고 국외에는 중국에 자연 분포하지만, 체색이 황금색으로 아름다운 황쏘가리는 한강 수계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한강의 중·상류와 충주호, 소양호, 화천호, 춘천호와 평화의 댐 등에만 발견되는데, 최근에 인공적인 종묘 생산이 성공하면서 다른 강에도 방류되어 대청호와 낙동강 중·상류에서도 간혹 발견되고 있다. 분포지역 중에 북한강의 화천호와 평화의 댐 줄기에 가장 많은 황쏘가리가 자연분포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제532호인 화천의 황쏘가리 서식지는 가장 많은 황쏘가리가 서식하는 핵심 분포수역이다. 화천호 상류 수역인 평화의 댐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북한강 중상류 수역에서 DMZ 까지는 많은 수의 황쏘가리가 확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90호인 “한강의 황쏘가리”는 한강 전역에서 보호되고 있었지만, 쏘가리와 유사한 중간 형질의 체색을 가지는 개체들이 다수 출현하고, 보호구역이 한강 전체로 넓어 보호구역의 의미가 떨어지고 있어서 보호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금강과 낙동강 중상류 수역에서 황쏘가리가 발견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황쏘가리의 종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이 검토되었고, 보호구역도 핵심 분포수역인 북한강 상류인 강원도 화천군으로 제한하여 지정하므로 보호대책 마련이 용이하도록 새롭게 지정하였다. 또한 본 보호구역이 북한강의 DMZ구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곳에 대한 보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정하였다.

화천군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황쏘가리 복원을 위하여 지정 구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대량으로 생산하여 방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황쏘가리 대량 생산 연구를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수행하여 대량생산 된 어린 황쏘가리 약 7만 마리를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강에 여러 수역에 방류하기도 하였다.

문화재적 가치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는 민물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적으로 핵심종 역할을 하는 황쏘가리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장소이고, 생물다양성 보고인 DMZ과 연계하여 북한강 상류 수역의 다양한 담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상징적 의미와 이곳에 핵심종인 황쏘가리 유전자원의 서식지내 보존 역할을 수행한다.

본 서식지에 포함된 DMZ내 북한강 중상류인 오작교 위에서 보면 낮에도 황쏘가리가 다수 보였지만 갈수록 확인되는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여러 어류학자들과 민간인들에 의해 제안되어 이를 문화재청이 수용하였고 화천군이 적극적으로 서식지보호를 추진하였다.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02

Habitat of Miho Spine Loaches in Jicheon Stream at Buyeo and Cheongyang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3호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청양군 장편면

지정일 2011년 9월 5일 | 학명 *Cobitis choii* Kim et Son, 1984





문화재 현황

미호종개는 잉어목 미꾸리과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 담수어류로 몸이 날렵하고 긴 리본형 어류이다. 머리는 작고 주둥이는 뾰족하며 입이 바닥을 향해 있다. 입에는 세 쌍의 수염이 있고, 입 주변에 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머리 위쪽에 작은 눈이 있다. 가슴지느러미는 수컷이 크고 골질반이 세장형으로 톱니모양의 거치가 있어 미꾸리과의 다른 유사한 종들과 구분된다. 몸의 길이는 7~10cm 정도이며, 몸의 색은 연한 황갈색이고, 배쪽이 더 밝은 색이다. 유사종과 비교하여 몸의 중앙이 굽고,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가면서 가늘어진다. 몸의 측면의 중앙에 12~17개의 반원형 또는 역삼각형 형태의 반점이 배열되어 있고, 측면 위쪽과 등쪽에는 불규칙한 얼룩무늬가 있다. 산란행동은 한 마리의 암컷에 2~3마리의 수컷이 같이 산란행동을 하는데, 바닥에서 표층으로 올라가면서 수컷이 암컷의 몸을 조여 알을 배출하고, 여기에 수컷이 정액을 뿌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알의 크기는 1.1~1.3mm이고, 25도 수온에서 24시간 후에 부화되며, 부화자어의 크기는 3.3~4.1mm이고, 30일간 사육하면 20mm까지 성장한다. 2~3년이면 어미로 성장하여 산란에 참여한다.

미호종개는 물이 맑고 깨끗하며, 연중 유량이 풍부하면서 물의 흐름이 일정한 강의 바닥이 2mm이하의 모래와 2~10mm의 잔자갈이 강 전체에 깔려있는 종류에 서식한다. 사는 곳의 강폭은 100~200m내외이고, 물이 흐르는 유속이 10m이상이며, 수심도 20~120cm이고 유속이

20~50cm/sec이내인 곳에 주로 서식한다. 산란시기는 5~7월 사이로 알려져 있다. 모래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먹이를 먹기 위하여 모래위로 나와 모래 속에 있는 유기물과 규조류, 갈따구 유충 등을 먹는다. 특히 모래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면 바닥을 파고들어 숨을 수가 없어서 생존이 불가하므로 사는 곳의 모래의 직경이 매우 중요하다. 본 보호지역인 지천의 현장의 서식조사에서 수질이 용존산소가 8.42mg/L, pH는 7.12, 전기전도도가 154.9 μ m Ω /cm일 때, 최대 72마리/m²까지 서식이 확인된 수역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역에서 0~9마리/m²가 포획되었고, 지금은 점차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미호종개는 우리나라의 하천 중에 금강 수계에 만 분포하는 고유종이다. 처음 미호천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백곡천, 대전 갑천 그리고 부여·청양의 지천에서만 소수 개체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갑천은 도시화로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고, 백곡천도 백곡저수지의 보와 독 높이기 사업으로 분포지역이 수몰되어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본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가 가장 양호한 분포지역 이지만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주변 오염원의 유입이나 공사가 분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는 금강의 본류로 유입되는 하천인 지천의 하류 수역으로 금강의 중류에 해당한다. 미호종개는 금강의 본류로 유입하는 대부분의 중류 하천에 널리 분포하였고, 처음 미호천에서만 발견되었고, 많이 분포하여 “미호종개”란 이름으로 1984년 신종으로 당시 서원대학교 손영목 교수와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에 의하여 알려졌다. 이후 미호천을 비롯한 금강 중류는 도시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폐수와 유기물로 오염되고 도로와 하천의 공사로 주요 서식지에서 모래가 유실되어 대부분의 수역에서 절멸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미호천에서는 미호종개를 발견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백곡천과 대전 갑천, 부여·청양의 지천에서 미호종개가 소수 발견되었고, 이중에 미호종개 서식에 적합하고, 개체수가 많이 출현한 지천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53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호종개는 2005년 2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원 서식처인 미호천에서 한 마리도 출현하지 않는 것이 알려졌고, 백곡천과 대전 갑천 그리고 부여·청양의 지천에서 일부 개체가 출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곳 서식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였다. 다행히 2011년 9월 5일 “부여·청양의 지천의 서식처”를 천연기념물 제533호로 지정하여 서식처 보호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호종개는 2006년 환경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으로 생활사와 인공증식 기술이 확립되어, 인공증식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본 서식지에 수차례 방류하는 등 복원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많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문화재적 가치

부여·청양의 지천의 미호종개 서식지는 금강의 중류지역의 모래바닥인 장소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종이며, 멸종위기종 1급으로도 보호되고 있는 미호종개 서식처이다. 특히 본 서식처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전혀 출현하지 않거나 극히 희소하게 출현하는데 반하여 지속적으로 출현이 확인되고 있어 종뿐 아니라 서식처도 보호가 필수적인 장소이다. 또한 본 서식지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도 같이 출현하고 있어 멸종위기종 1급 2종을 보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 보호구역이다.

본 서식지는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동시에 출현하는 장소이며, 주변이 농경지이고

접근이 어려워서 개발압력이 높지 않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본 서식처 하류에 보가 설치되고, 본류에서 모래를 다수 준설하여 본 서식처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였다. 또한 멸종위기종이며 종이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와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2종 모두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여러 어류학자들과 민물고기보존협회 회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이를 문화재청이 수용하여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지만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주개 동경이

Donggyeongi Dog of Gyeongju

03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0호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38-14 | 지정일 2012년 11월 6일 | 학명 *Canis lupus familiaris*





문화재 현황

경주개 동경이는 꼬리가 없거나 짧으며, 모색은 황구, 백구, 흑구와 호구이며, 단모종 중형견으로 북방견에 속한다. 외관은 다리 부위가 몸통 부위보다 길고, 체장비율이 체고비율보다 다소 긴 장방형이다. 두상과 균형 잡힌 체구로 근육은 강하고 견고하다. 친화성이 뛰어나고, 명석하여 훈련성이 우수하다. 수컷의 체고는 47~49cm, 체장은 52~55cm, 체중은 16~18kg이며, 암컷의 체고는 44~47cm, 체장은 49~52cm, 체중은 14~16kg이다. 두개장의 길이가 안면장의 길이보다 다소 길고, 입은 뾰족하지 않고, 눈은 둥근형이며, 눈동자는 검거나 검은 갈색이며, 전비심과 전비폭의 길이는 비슷하다. 귀는 종긋하게 앞을 향하며, 꼬리는 선천적으로 단미, 무미이며, 무미는 미추골이 1~4마디까지 이며, 단미는 5~9마디이다.

경주개 동경이의 임신기간은 평균 60.2 ± 2.8 일이며, 교배적기일은 12.5 ± 2.3 일이다. 번식계절은 4~6월과 9월~11월이며, 산지수는 4~5마리이다. 태어남과 동시에 후각과 청각은 열려있고, 2주가 되면 눈을 뜨고, 3주가 되면 비틀거리면 걷고, 2개월부터 사람과의 친화가 급진전되며, 생후 4개월부터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암컷은 8개월이 되면 생리를 하고, 수컷은 1년이 되면 성견이 된다. 경주개 동경이의 품성은 사람과의 친근도가 높아 누구에게도 친밀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바로 친화가 가능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크게 짖지 않는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전성과 훈련성도 뛰어나다. 훈련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없으나, 쥐와 고양이 같은 소형 동물에 대한 사냥능력은 탁월하다. 깨끗한 성격으로 잠자리 주변에는 대소변을 보지 않고, 자견의 관리에 남다른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경주개 동경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동경잡기東京雜記』(1669),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의 문헌과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동경이 토우와 토기 장식 동경이 토우에 의해 신라시대 이전부터 경주 주변 지역에서 사육된 토종개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의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소재)에서 300여두, 경주시민인 위탁회원이 60여두, 양동, 용명, 대곡리 등의 동경이 마을에서 20두, 견사호인 서라벌대학 사육장, 동경이 사업단에서 100여두 등 총 500여두가 경주지역에서 보호되어 보존되고 있다.

경주개 동경이는 잡종화되어 멸종위기 처하자 농가 사육자들과 경주시 축산과에서 서라벌대학 최석규교수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고, 최석규교수 연구팀(성기창, 박순태, 이은우)에 의해 역사적 기원과 혈통고정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1회 경주시민의 날(2008년 6월 8일)에 동경이 명명과 품종 표준을 발표 하였고, 연구팀의 혈통고정화사업의 결과에 의해 2012년 11월 6일 천연기념물 540호로 지정되었다. 동경이東京狗라는 이름은 『동경잡기東京雜記』(1669)에 “경주에 살고 있는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東京狗라 한다”라는 기록이 최초이며, 동경구東京狗의 동경東京은 고려시대 경주의 옛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다.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경주 주변지역에 많이 사육되었던 토종개이므로 지역명을 사용하여 ‘경주개 동경이’, 한문표기는 ‘東京狗’(동경구), 영문표기는 ‘Gyeongju Donggyeong Dog’로 명명한다.

2009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 회원들이 경주개 동경이 혈통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또 경주개 동경이 사업단은 동경이 마을 만들기, 동경이 훈련학교, 동경이 품평회(12회) 진도, 삽살개, 동경이 국전대회(8회), 천연기념물 국견 학술대회(8회) 등을 매년 개최하여 경주개 동경이와 천연기념물 국견의 홍보와 우수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주개 동경이의 친화성 특성을 활용하여 경주시립 노인요양원, 지적장애 청소년, ADHD 증후군 학생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치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는 동경이 토우가 장식된 토기파편



동경구란 이름이 기록된 최초 고문서

문화재적 가치

경주개 동경이는 우리 나라 토종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과 가장 많은 고문헌을 가지고 있으며, 신라시대 고분군의 동경이 토우와 삼국사기, 동경잡기 등 20편의 문헌과, 1930년대의 동경이 실물사진(울산학성관 종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등이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잡종화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경이의 기원을 정립하고 혈통을 고정화한 동경이 306두는 2011년 3월 3일 경상북도 천연기념물 문화재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28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되어, 4월 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으나, 4월 9일 서라벌대학의 갑작스런 소유권 주장의 법적 소송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무산과 동경이 보존에 위기를 맞았고, 경주개 동경이 보존 협회와 경주시 축산과(김영죽계장)의 대처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1월 6일에 천연기념물 540호 지정되었다.

천년의 수도와 함께한, 경주 동경이



경주개 동경이는 삼국사기, 동경잡기에도 등장하는 우리나라 토종개 중에 문헌상 가장 오래된 개입니다. 동경이라는 이름은 경주의 옛날 이름인 동경에서 온 것입니다. 옛 문헌에 '경주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경이의 가장 큰 개성은 꼬리가 짧거나 없다는 점이다. 매우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동경이는 반갑거나 즐거울 땐 엉덩이를 흔들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주 흑우

Jeju Black Cattle

04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6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비마을길 13(제주 축산진흥원 내)

지정일 2013년 7월 22일 | 학명 *Bos taurus Coreanae*





문화재 현황

제주 흑우는 전신의 털색이 흑색이다. 일반 한우와 달리 털색이 검은 색인 형태로 선사시대 이후 제주도에서만 사육되어 온 소이다. 안면은 다소 평평하고 길쭉하다. 코는 역시 검은 색이다. 귀는 짧고 세워져 있는 형태이다. 등이나 허리 부분에도 흰색이나 황색 반점이 없다. 제주 흑우 체형의 특성으로서 체장은 짧고 이마는 넓다. 사지도 짧고 가는 편이다.

제주 흑우는 다 자란 성축의 체중이 일반 한우보다 100~200kg가량 적다. 나이 3세 정도의 흑우 암소는 평균적으로 키(체고)가 124.9cm, 길이(체장) 138.5cm, 체중은 378kg이며, 수소는 체고 137.2cm, 체장 153.8cm, 체중 595kg으로서 암소보다 크고 무겁다.

제주 흑우는 일반 한우에 비해 체구가 작으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다. 또한, 질병적응력이 높고 진드기에도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사의 부산물과 산야의 풀을 먹고도 건강하게 자라고 혹한에도 잘 견딘다. 방목하여 사양하는데 잘 적응이 되어 있다.

흑우 암컷의 성성숙 시기는 7~18개월령인데 영양섭취 상태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영양 수준이 좋을수록 일찍 발정이 온다. 발정주기는 20~21일(17~24일)의 간격을 갖는다. 발정이 발현되어 지속되는 시간은 평균 18~20시간(10~27시간)이다. 첫 종부는 보통 20~24개월에 시킨다. 임신기간은 평균 282~285일이다. 제주 흑우는 매년 새끼를 잘 낳는 편이지만 번식간격이 18~20개월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만 후 발정은 분만하고 나서 30~50일에 주로 나타난다. 이유시기는 보통 분만후 3~4개월령이다.



자연·인문환경

제주도에서 제주 흑우는 고대유적에 1,100~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뼈가 발견되었고, 유전자 분석결과 제주흑우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대 문헌에서 제주목사 이형상이 기술한 ‘탐라순력도’(숙종 28)에는 제주흑우 763두를 사육한 기록이 있고, 1918년 김석익이 저술한 ‘탐라기년’에도 영조 26년(1750) 제주 가파도 흑우장에서 50두를 사육한 기록이 있다. 제주흑우는 1963년 1만여두가 제주도에 사육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멸종위기까지 도달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흑우 보존 및 산업화를 추진하여온 결과 1993년 23두에서 2019년 후반기 97개 농가에서 1,270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흑우는 1900년대 중반 이후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나 제주 축산진흥원은 1992~1993년 제주흑우의 순종관리 및 증식을 위하여 제주도 전역에서 수집한 순종 흑우 10두를 제주 축산진흥원에서 사육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2020년에는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200여두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흑우는 2004년에 FAO에 우리나라 지역 재래가축으로 등재되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제207조)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흑우 보호 육성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주흑우 생육과 정액 및 수정란 등은 제주도 밖으로 반출이 제한된다.

문화재적 가치

제주흑우는 고문헌과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 사육된 것이 인정되어 제주 고유의 가축으로 보존가치가 크다. 제주흑우 사육기록 이외에도 제주흑우가 제향 및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세종 20년, 인조 16년, 영조 21년, 정조 8년 등), 일성록(정조 3년), 탐라지(효종 4년), 승정원일기(인조 5년) 등 고문헌에 많은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제주 흑우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에서 생존해온 고유의 소로서 제주도민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형성해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정이 관리해온 가축이므로 2013년에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바 있는 제주 향토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축양동물이다.

제주의 검은 보물, 제주 흑우



제주 흑우는 임금님께 바치는 무척 귀한 소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하고, 고기는 왕실의 제사에 쓰일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흑우는 중요한 제사에 바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보물인 흑우는 이름 그대로 몸이 까만색입니다. 입 주위에 얼룩이 있거나 몸에 흰색 또는 황색 반점이 있는 다른 소와는 달리 몸 전체가 까만색입니다. 몸집이 작아 힘은 약하지만 질병에 강하고 끈기도 무척 강합니다.



제주 흑돼지

Jeju Black Pig

05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0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비마을길 13(제주축산진흥원 내) | 지정일 2015년 3월 17일 | 학명 *Sus scrofa* Linnaeus





문화재 현황

제주 흑돼지의 몸 전체의 모색은 흑색이며 모발은 굵고 길며 거칠다. 얼굴의 입과 코는 가늘고 길며, 코 끝은 좁고 흑색이다. 귀는 짧고 세워져 있는 형태이다. 이마에는 산 모양의 안면 주름이 있으며, 콧등에는 길게 세로 주름이 잡혀있다. 복부에도 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배는 쳐져 있다. 엉덩이는 협소하고 빈약하다. 체형과 체구의 크기는 암·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암컷의 경우 키(체고)가 71.5cm, 길이(체장)는 86.8cm이며 꼬리의 길이는 16.6cm이다. 수컷은 체고가 70cm, 체장은 93cm, 꼬리의 길이는 18.5cm이다. 몸 길이와 꼬리의 길이가 수컷이 암컷보다 더 길다. 제주 흑돼지 자돈의 생시 체중은 1kg로서 일반종의 1.4kg보다 약간 적다. 제주 흑돼지의 발육은 4주령에서 체중 6kg, 6개월령에서 73kg으로서 일반 돼지의 60~70%수준이어서 일반 돼지보다 왜소한 편이다. 등 지방 두께는 3~4cm로 두꺼운 편이다.

제주도 흑돼지는 제주도 특유의 비와 바람이 많은 기후와 풍토에 적응해 오면서 일반돼지보다 체구는 작지만 강건한 체질을 갖고 있고 또한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아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사육방법은 돼지 흑돼지에게 음식찌꺼기와 인분을 주어서 사육하였다. 그만큼 사람에게 익숙하여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온다. 성격도 비교적 온순하다. 음식은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을 나타낸다.

제주 흑돼지는 개량종 돼지와 비교하여 번식능력과 발육능력이 다소 낮다. 성숙시기는 일반종과 비슷하여 5~6개월령이지만 번식이 가능한 발정시기는 7~8개월령이다. 발정주기는 평균 21일이며, 발정지속 시간은 58시간이다. 어미의 임신기간은 111~113일이어서 일반 돼지와 큰 차이가 없다. 분만 시 평균 새끼 수는 7.3두이어서 개량종의 9~13두보다 산자수가 적다. 포유기간은 평균 40일이어서 개량종의 평균 24일보다 길다.

자연·인문환경

제주도에서 돼지 사육은 선사시대 유적지에 돼지 뼈가 다수 발굴된 점에 근거하여 볼 때 선사시대부터 사육된 증거가 있으며, 제주 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년), 해동역사(1823년) 등과 같은 옛 문헌에서 제주도에서 이미 기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 축산진흥원은 제주 흑돼지의 복원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주 농가에서 흑돼지의 사육을 장려하여 2005년에는 57농가에서 1만 9천두가 사육된 기록이 있다. 2020년 현재는 114농가에서 137,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61년 이시돌목장에서 외국산 버크셔 종의 유입, 그 후 1970년대 랜드레이스, 듀록, 요크셔 등이 제주도에 도입되면서 제주도의 흑돼지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자 제주 축산진흥원은 1980년대 중반 우도 등 제주도 전 지역에서 흑돼지 5마리를 구입하여 1986년부터 순수계통 번식 사업을 시작하였고 제주 흑돼지 복원 사업을 통해 250두 이상을 상시 보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현재 350여두의 천연기념물인 순종 흑돼지를 보존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에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즉, 제주 흑돼지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 농가와 함께 생활하며 키워진 동물이다. 제주 흑돼지는 돼지사육장소(일명 : 돛통)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인분을 먹으며 사육되었고, 돼지의 분변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료로 활용되어 생태 순환의 고리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흑돼지 고기는 훈례, 상례 등에서 중요한 음식재료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 제주도 특유의 문화재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제주 흑돼지는 본토와 떨어진 제주도의 독립 환경에서 다른 품종의 돼지와 계통이 섞이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한 제주 고유의 재래 가축으로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에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바 있는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뛰어난 축양동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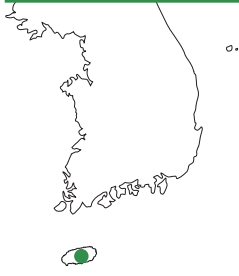
제주 토박이, 제주 흑돼지



제주 흑돼지는 오랫동안 제주도에서만 살아온 제주 토박이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제주도에서 살아왔습니다. 검은 피부에 몸집은 작고 두 귀는 하늘로 쭉 솟아 있는 제주 흑돼지는 거친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체질이 튼튼해서 섬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담을 두른 변소에서 사육되곤 했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집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음식 재료입니다. 맛이 좋아서 제주도의 대표 별미로도 유명합니다.

식물 Plant

제주 물장오리 오름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영양 무창리 산돌배
강릉 방동리 무궁화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독도 사철나무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제주 강정동 담팔수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당진 면천 은행나무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제주 물장오리 오름

Muljangorioreum Volcanic Cone, Jeju

06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17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 등 | 지정면적 53,813m² | 지정일 2010년 10월 28일





문화재 현황

물장오리 오름의 산정 화구호에 형성된 늪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작약과 제주지역의 특산 식물인 새끼노루귀를 비롯하여 금새우란, 천마, 송이고랭이, 골풀, 큰고랭이, 세모고랭이, 물고추나물 등이 자라고 있다. 늪지 주변은 낙엽활엽수림대의 전형적인 식생인 개서어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 산개벚나무, 곰의말채, 서어나무, 산딸나무, 팔배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주요 군락으로는 골풀군락, 송이고랭이군락, 여뀌군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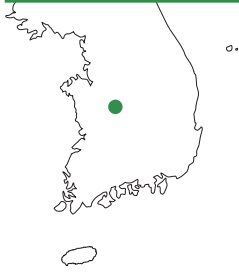


자연·인문환경

물장오리 오름은 한라산 동쪽 산록에 위치하며, 표고 937m의 산정 화구호이다. 물장오리 오름 분화구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직경은 260~290m, 깊이는 2~58m에 이르며, 물이 낀 최대 직경은 140m, 수면적은 1.06ha이다. 늪지는 기생화산에 의해 생긴 분화구에 내린 빗물이 유입되어 물이 잘 통하지 않는 점토질 바닥에 고인 후, 적은 증발량으로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유지된다. 물장오리 오름은 예로부터 제주도민들이 한라산, 오백나한과 더불어 3대 성산의 하나로 신성하게 여긴 곳이다. 또한 제주도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이 깃들인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이 잘 마르지 않는 이 산정 화구호 늪지는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기도 했다. 기우제를 지낸 흔적은 화구호 경사면에 남아 있는 기단석이나 기우제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기우제와 관련된 이들 흔적은 제주의 민속 신앙과 생활문화를 증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적 가치

물장오리 오름은 한라산 주변에 생성된 저수성 오름의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인간의 간섭 없이 높은 자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희귀 늪지 식물과 낙엽활엽수림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이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았다. 늪지 주변에는 제주도 낙엽활엽수림의 전형적인 식생구조를 나타내는 개서어나무, 산딸나무, 고로쇠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습지 식생으로 송이고랭이 군락이 대부분 지역에서 우점하고, 골풀, 여뀌, 큰고랭이 등이 부분적으로 군락을 형성한다. II급 멸종위기야생식물 산작약은 물론이고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등의 특산식물과 금새우란, 보춘화, 옥잠난초 따위의 다양한 난과식물을 포함하여 180여 종의 관속식물이 자생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또한 3대 성산의 하나로, 개벽 전설의 여신 '설문대할망'의 설화처럼, 제주도민의 토속 신앙의 발원지로서의 민속학적 가치도 매우 크다.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Date Plum of Yonggok-ri, Boeun

07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18호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등 | 지정면적 620m² | 지정일 2010년 11월 22일





수종(학명) : 고욤나무
 학명 : Diospyros lotus L.
 과명 : 감나무과

수령 : 250년(추정)
 규모 : 나무높이 : 18m, 가슴 높이 둘레 : 2.83m,
 수관폭 : (동서)22m, (남북)22m

문화재 현황

원줄기는 똑바로 자랐으나 지상 1.5m 높이에서 부러지고, 6개의 가지가 방사상으로 발달했다. 이 나무는 외줄기로 자라는 고욤나무의 일반적 수형과는 달리 6개의 줄기가 사방으로 뻗은 모습이 특이하고, 수피의 일부에는 주피층이 두껍게 발달한 모습도 보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최초의 고욤나무이다.

자연·인문환경

용곡리 고욤나무는 회인면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다. 고욤나무가 자라는 장소는 해발 약 175m의 남동사면 산록으로, 옛날 청주로 넘어 다녔던 세목길 고개 옆이다. 나무 주변 남동쪽 10여m 거리에는 현월암(玄月庵)이 있고, 남서쪽으로 인접해서 등산로와 개울이 있다. 고욤나무 주변에는 때죽나무, 인동, 짚레꽃 등이 자라고, 서쪽 4m 거리쯤에는 느티나무가 이 고욤나무와 수관을 맞대고 있다. 나무 동쪽에는 가슴높이둘레 87cm의 고욤나무 1주가, 그리고 남쪽 1m 거리에는 높이 1.5m의 돌무더기가 하나 있다. 이 나무가 세목길 고개의 돌무더기 옆에 있고 당당한 수형의 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마을의 당산목으로 추앙받았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용곡리 고욤나무는 약 300년 전에 형성된 용곡리 우래실마을의 경주 김씨 집성촌과 가까운 세목길 고개에 있다. 이 고욤나무는 마을의 통로인 세목길 고갯마루를 지키는 신목으로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빌었던 주민의 염원을 지켜본 노거수이며 마을 당산목으로 한동안 음력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오기도 했다. 고욤나무는 예로부터 감나무를 접목하여 번식할 때, 대목(밑나무)으로 쓰였던 유용한 나무였기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더욱 각별하였으리라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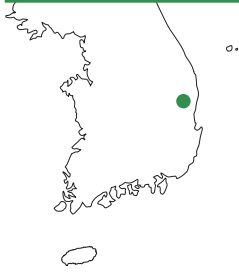


문화재적 가치

고욤나무는 감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상에게로부터 흉년에 식량을 대신했던 구황식품이나 생약으로 사용한 친숙한 나무이며, 제사상에 제물로 올렸던 곶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접붙이용 밑나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목이 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용곡리 고욤나무는 현재 알려진 고욤나무 중 수형과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아 자연학술적 가치가 크며, 오랜 세월 마을의 신목으로 보존되어 오는 등 역사적·민속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영양 무창리 산돌배

Sand Pear of Muchang-ri, Yeongyang

08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19호 |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 지정면적 3,544m² | 지정일 2010년 11월 22일





수종(학명) : 산돌배
 학명 : Pyrus ussuriensis Maxim.
 과명 : 장미과

수령 : 200년(추정)
 규모 : 나무 높이 : 16.5m, 뿌리 근처 줄기 둘레 : 2.8m,
 수관폭 : (동서)19.6m, (남북)20.4m

문화재 현황

줄기는 지상 1m 높이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갈라졌고, 남서쪽 줄기가 다시 지상 1.5m 높이에서 세 줄기로 갈라졌는데, 가장 아래쪽 줄기는 수평으로 길게 자란다. 줄기 아래쪽에서 여러 줄기로 갈라진 덕분에 크고 둥근 수형을 형성했으나, 나무의 남쪽에서 크게 자란 소나무와의 수관 경쟁 때문에 남쪽으로 뻗은 큰 가지와 북동 방향과 중앙의 큰 가지 두 개가 고사한 상태이다.



자연·인문환경

무창리 산돌배는 영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무창리 지무실 마을 뒤편 산자락에 있다. 나무가 자라는 장소는 지무실 마을의 해발 290m 북동쪽 사면으로, 산지와 경작지가 이어지는 곳이다. 경작지는 묵밭의 상태로 관목과 초본이 무성하다. 나무 주변의 산지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혼생하는 2차림지역으로 물푸레나무, 가막살나무, 산팽나무, 생강나무, 작살나무, 박쥐나무, 개웃나무, 국수나무, 싸리, 고광나무 등이 자란다. 토양은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다. 산돌배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돌배의 가지 뺨음에 방해가 되는 주변 수목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수관 성장을 촉진 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다.

문화재적 가치

무창리 산돌배는 산촌에서 발견된 재래종 유실수로 산돌배 중에 규모가 매우 크고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도 양호하여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오랫동안 당산목으로 숭배되어 왔고 마을에 흥사가 생겼을 때 제사를 지내거나 나무의 꽃 피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쳐온 사례가 있는 등 민속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강릉 방동리 무궁화

Rose of Sharon of Bangdong-ri, Gangneung

09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0호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46 | 지정면적 331.6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수종(학명): 무궁화
 학명: Hibiscus syriacus.
 과명: 아욱과
 수령: 110년(추정)

규모: 나무 높이: 4.0m
 가슴 높이 둘레: (서쪽)0.43m, (중앙)0.58m, (동쪽)0.48m
 수관폭: (동서)5.7m, (남북)5.9m
 뿌리 근처 줄기 둘레: 1.46m, 지하고: 1.6m

문화재 현황

이 무궁화의 품종은 홍단심계로, 수세는 건강한 상태이며, 개화 상태도 좋다. 수관은 동북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자란다. 줄기는 지상 0.2m 높이에서 2갈래로 갈라졌고, 0.85m 높이에서 다시 3갈래로 갈라졌으며, 중앙의 줄기는 1.6m 높이에서 남북 방향으로 갈라졌다. 갈라진 북쪽 가지가 다시 동서 방향으로 갈라졌으나 갈라진 부위가 쪼개져서 두 가지 모두 부러질 우려가 있다. 줄기의 남쪽 지상 약 0.47m 높이에 폭 6cm, 길이 10cm 정도의 공동이 있고, 0.84m 높이에도 폭 9cm, 길이 21cm 정도의 공동이 줄기 길이 방향으로 나 있다.

자연·인문환경

방동리 무궁화는 동해안 사천해변에서 서쪽으로 1.7km, 강릉 아산병원에서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강릉 박씨 재실 안에 있다. 강릉 박씨 재실은 낮은 구릉지 남향 끝자락에 자리 잡았으며, 무궁화는 재실 담장 안 모퉁이에서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자란다. 생육공간은 넓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재실의 특성과 양지바른 담장 안의 입지 환경이 무궁화가 100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무궁화는 줄기가 동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자랐기 때문에 동북쪽



담장에 기댄 상태이지만 무궁화의 우듬지 가지 높이가 남쪽 담장 높이보다도 높고, 수관이 담장 너머로 발달해 있어서 햇볕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나무 주위에 보호 울타리는 없고, 나무의 서쪽으로 0.76m, 북쪽으로 1.35m 거리에 시멘트 블록으로 경계석을 놓아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과 경계로 삼고 있으나 뿌리 부근의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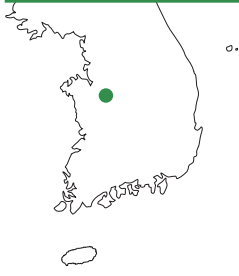
방동리 무궁화에 대한 전래 기록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무궁화가 자라는 곳이 강릉박씨의 증시조 삼가 박수량(1475~1546) 선생의 종중 재실임에 비추어 볼 때, 문중에서 심은 나무로 추정된다. 무궁화의 일반적 수명이 50~60년으로 알려졌지만 이 무궁화의 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 무궁화의 나이를 10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강릉 박씨 종부가 시집왔을 때 이미 꽤 나이 먹은 무궁화나무를 봤던 사례와 마을 노인들도 어릴 때 이 무궁화를 보았다는 증언, 150여cm에 달하는 뿌리 부근의 줄기 굵기 등에서 추정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화재적 가치

방동리 무궁화는 무궁화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나이임에도 나무의 수형이 아름답고,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다. 우리나라 국화로서 국민적 공감을 받는 문화적 가치와 함께 강릉 박씨 증시조의 재실에서 백 년 이상의 세월 동안 생육해온 점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민속적 가치가 크다.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Quince of Yeonje-ri, Cheongju

10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2호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7 | 지정면적 399.09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수종(학명) : 모과나무
 학명 : Pseudocdonia sinensis.(Thouin) C.K.Schneid.
 과명 : 장미과

수령 : 500년(추정)
 규모 : 나무 높이 : 12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 3.34m
 수관폭 : (동서)13m. (남북)13m

문화재 현황

원줄기와 원줄기 밑둥치에서 갈라진 4줄기에서 뻗어나온 다수의 가지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반원형의 수형을 이루고 있다. 줄기는 모과나무 특유의 심한 요철이 그대로 나타나며, 표면의 점박이 특징도 잘 나타난다. 이 모과나무는 옛날에는 마을 안에 있었으나 오늘날은 새롭게 개발 조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모과공원에 있다.

자연·인문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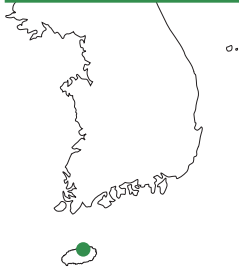
연제리 모과나무는 옛 모과울마을의 상징나무였으나, 지금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새롭게 개발 조성된 모과공원에 있다. 나무는 해발 약 55m의 언덕에 자라며 주변이 개방된 상태여서 모과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끼칠 입지 변화는 크지 않다. 모과나무 주변에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 수목들이 무리 지어 자란다.

연제리 모과나무는 오송생명과학단지로 개발되기 전, 모과울 밀양 박씨의 집성촌에서 자라던 나무였다. 조선 초 이곳에 은거하던 류윤 선비가 단종이 스스로 임금의 자리를 물러났을 때, 세조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모과나무를 가리키며 본인을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부름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세조는 그런 류윤 선비에게 친히 ‘무동처사’라는 어서를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늘날 비록 모과울마을은 사라졌지만, 장구한 세월 동안 마을의 상징으로 밀양 박씨의 집성촌에서 아껴온 나무이기에 나무와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화재적 가치

연제리 모과나무는 모과나무 고유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가슴높이 둘레가 3.34cm나 되는 등 규모 면에서도 희귀성이 높아 자연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모과울 마을의 역사와 함께 진퇴의 처신이 분명한 무동처사 선비 류윤에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Mandarin Orange Trees of Doryeon-dong, Jeju

11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3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2244-2 등 | 지정면적 2,039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수종(학명): 귤나무류
학명: Citrus sp.
과명: 운향과
수령: 100~200년(추정)

규모: 당유자: 나무 높이 7.0m, 뿌리주변 줄기 둘레 120cm, 분지가 3개 있음
 당유자: 나무 높이 6.0m, 뿌리주변 줄기 둘레 190cm, 분지가 3개 있음
 병 굴: 나무 높이 4.5m, 뿌리주변 줄기에서 4개의 줄기가 갈라짐
 병 굴: 나무 높이 6.0m, 3개의 줄기가 있음
 산 굴: 나무 높이 6.5m, 뿌리주변 줄기 둘레 134cm, 분지가 4개 있음
 진 굴: 나무 높이 6.0m, 뿌리주변 줄기에서 3개의 줄기로 갈라짐

문화재 현황

도련동 귤나무의 나이는 나무의 규모로 약 100~200년으로 추정한다. 현 재배지에는 원래 당유자, 병굴, 산굴, 진굴의 4종류 7그루가 자랐으나, 최근 가장 굵은 산굴 한 그루가 고사하여 현재는 4종류 6그루만 자란다. 현재까지도 이들 귤나무에서 궤이 열리지만 결실량은 각각 다르다.

자연·인문환경

도련동 귤나무는 연삼로의 도련교에서 1.5km 떨어진 마을 한가운데 평탄지에서 재배되던 재래종 귤나무이다. 재래종 귤나무의 종류는 당유자와 병굴이 2그루씩, 산굴과 진굴이 1그루씩으로 모두 6그루이며 민가의 마당이나 밭에서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귤나무의 생육 장소는 최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근처에 있던 가건물을 철거하여 생육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넓어진 상태이다. 나무 주위는 돌담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사람의 출입은 자유로운 상태이다. 나무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무의 크기 등을 근거로 약 100~200년 정도로 추정한다.



제주도 귤나무에 대한 기록은 ‘제주의 감귤을 가져왔다’는 일본 역사책 ‘고사기’의 내용과 ‘백제 문무왕(476년) 시절 탐라에서 지역 특산물로 헌상했다’는 고려사의 내용이 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주도에서 귤을 재배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금귤과 유감과 동정귤이 상품이고, 감자와 청귤이 다음이며 유자와 산귤이 그다음’이라는 조선 세조 때의 기록이나 당귤^{唐橘}, 왜귤^{倭橘}, 황감^{黃柑} 등 여러 이름의 재래종 귤과 함께 14종의 재래귤이 언급된 ‘제주 풍토기’를 참고하면, 예로부터 제주에는 다양한 재래종 귤이 재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종의 재래종 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나타나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 온주밀감만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원래 재배했던 제주의 재래종 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도련동 귤나무류는 당유자와 병귤이 2그루씩, 산귤과 진귤이 1그루씩으로 모두 4종류 6그루이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주에서 재배되어 온 재래종 귤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생물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재래종 귤의 흔적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 4종류 6그루의 재래종 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은 학술적 가치는 물론, 제주 특산 과일 of 전통과 재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에서 교육적 가치도 크다.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Uponeup Wetland Natural Reserve, Changnyeong

12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4호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 지정면적 3,438,056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창녕 우포늪은 낙동강의 지류인 토평천에 형성되어 있으며 우포(소벌), 목포(나무개벌), 사지포(모래늪), 쪽지벌의 4개의 늪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소의 늪과 이와 연결되는 토평천에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수생식물이 36종류, 습생식물이 96종류, 그리고 육상식물이 218종류로서 총 350종류(302종, 42변종, 6품종)이다. 습지별로 나누면 우포에서 256종류, 목포에서 242종류, 사지포에서 265종류, 쪽지벌에서 177종류, 토평천 상류에서 201종류, 토평천 하류에서 180종류가 출현한다. 우포늪에서 우세한 수생식물 군락으로서는 정수식물로서 줄근락, 갈대군락, 부엽식물로서 자라풀군락, 가시연꽃군락, 부수식물로서 마름군락, 생이가래군락, 침수식물로서 붕어마름군락을 들 수 있다. 습생식물로서는 물억새군락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가시연꽃과 매화마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종이다.

동물중에서 포유류로는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두더지, 다람쥐 등 16종이 출현한다. 조류는 논병아리,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등 180종 이상이 출현한다. 환경부 멸종위기동물 1급 조류 7종, 2급 조류 23종, 천연기념물 지정 조류 25종 등 총 36종의 조류가 법적 보호종에 해당한다. 겨울철새로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쇠기러기, 고방오리, 청둥오리, 알락오리, 가창오리 등이 있다. 양서류로서는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등 5종이 있으며, 파충류로서는 남생이, 자라, 줄장지뱀, 유헤목이, 무자치, 살모사 등 7종이 있다. 어류로서는 뱀장어, 모래무치, 누치, 메기, 가물치, 잉어, 각시붕어, 배스 등 28종이 있다. 수서곤충으로서는 연못하루살이, 왕잠자리, 장구애비, 소금쟁이 등 55종이 있으며 논우렁이, 물달팽이, 말조개 등 민물패류 10종이 출현한다. 식물플랑크톤은 269종, 동물플랑크톤은 84종이 보고되었다.

토평천은 화왕산(757m) 등의 산지에서 시작하여 동에서 서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우포늪은 낙동강 합류지점에서 7.3km 상류의 토평천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 홍수가 나면 토평천

에서 발생한 홍수가 낙동강으로 완전히 배수되기도 전에 낙동강의 홍수가 역류하여 수위가 상승하며, 심할 경우 낙동강 홍수의 역류와 토평천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의 순류가 중첩되어 일시에 높은 홍수위가 형성된다. 우포늪은 토평천 자체의 홍수와 낙동강 본류의 홍수 범람으로 매년 적게는 1회, 많게는 4~5회의 주기적인 범람이 일어나며 홍수가 늪의 생태계를 유지시켜 준다. 홍수시 우포늪의 수위는 4~5m 상승하며 길게는 10여일 동안 높은 수위가 유지되어 육상식물을 쫓아내고 습지식물의 우점을 유지시켜 준다.



자연·인문환경

우포늪에서는 멸종되었던 철새인 따오기의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습지센터와 우포늪생태관이 건설되어 습지와 관련된 연구와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포늪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하면서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계시키는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포늪의 자연은 우포8경을 지정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 생태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수문과 더 이상의 제방의 축조를 금지하여 우포늪의 자연적 홍수를 유지시키게 되면 이는 뛰어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포늪이 낙동강의 배후습지로서 홍수시 낙동강 탁수를 일시 저장하는 저류지 역할을 수행하여 홍수피해 완화와 탁수의 수질 정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우포늪은 약 15,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한 후 낙동강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성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 유적으로서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발자국이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형성된 고분군이 분포한다. 과거에는 습지를 불모지로 생각하고 농경지로 개간해 왔는데 우포늪에서도 1930년대에 대대제방을 비롯한 인공적인 제방을 쌓아 습지가 논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 우포늪의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에도 1970년대까지 크고 작은 제방이 축조되어 습지의 면적은 계속 줄어들었고 남아 있는 습지들도 독으로 인하여 서로 분리되었다. 우포늪 서쪽의 토평천 하류의 습지들은 족지벌을 제외하고 모두 농경지로 변하였고 목포와 사지포의 습지도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우포늪은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다. 해방이후 우포늪은 1962년에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고니를 비롯한 도래하는 철새 수의 감소로 1973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다. 그 후 주민, 시민단체와 정부가 더 이상의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1998년에는 우포늪을 국제 람사르습지로 등록시키게 되었고 2008년에는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가 우포늪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에는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

문화재적 가치

우포늪은 낙동강의 배후습지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내륙습지이다. 습지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생태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습지는 20세기에 대부분 농경지로 전환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우포늪은 살아 남은 배후습지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우포늪은 습지에만 서식하는 많은 멸종위기 및 희귀 식물종의 서식지이다. 우포늪은 또한 습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 수서곤충, 민물 패류, 어류, 그리고 동식물플랑크톤의 서식지이다. 이러한 생물들의 높은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멸종위기 및 보호 동식물이 서식지로서 우포늪은 생태계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는 여름철 몬순으로 인한 홍수시 메콩강이 역류하여 10m까지 수위가 상승하는데 우포늪도 습지형성 원리가 톤레삽과 유사하다. 또한 톤레삽 호수와 우포늪은 모두 생태계의 생산성과 생물다

양성이 높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설악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의 여러 천연보호구역은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자연을 보전한다. 그러나 우포늪은 수천년동안 주변 마을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 왔기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연을 보전하는 즉, 지속가능발전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해야만 자연이 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천연보호구역과 구별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리, 교육, 협조를 필요로 한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으로, 2011년 1월 13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천연기념물 524호)되었고, 2012년 2월 8일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98년 3월 2일 람사르 협약 국제습지로 등록되었고 2018년 10월 25일에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았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지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포늪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또한 독특한 지형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습지로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증명한다. 우포늪은 홍수로 유지되므로 수문이나 배수갑문, 제방의 축조로 홍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기존에 농경지로 전환되었던 곳의 일부는 제방을 없애고 습지로 복원시키고 단절된 습지들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독도 사철나무

Spindle Tree of Dokdo Island

13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8호 |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 | 지정면적 200m² | 지정일 2012년 10월 5일





수종(학명) : 사철나무
 학명 : *Euonymus japonicus* Thunb.
 과명 : 노박덩굴 과

수령 : 100년(추정)
 규모 : 나무 높이 : 0.5m, 뿌리 부근 줄기 둘레 : 0.25m,
 수관둘레 : 7m

문화재 현황

동도의 천장굴 급경사지 위쪽 끝부분에서 자란다. 강한 해풍이 부는 곳 이기에 암벽에 낮게 붙어 자라며, 그래서 나무의 키는 50cm에 불과하다. 키는 작지만, 수관폭은 넓게 퍼져서 암벽을 덮고 있는 형상이다.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추정되며, 독도의 지형이나 생태적 특성으로 볼 때 가치가 매우 큰 나무이다.

자연·인문환경

이 사철나무가 자라는 독도는 해양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90여 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섬 전체가 화산암과 화산 쇄설성 퇴적암류로 구성되었기에 지표 토양이 빈약하며, 강한 해풍이 불기 때문에 식물 생육환경은 척박하다. 이 사철나무는 동도 중앙부에서 원형 수직으로 해수면까지 이어지는 천장굴의 서북 벽 위쪽 끝부분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나무에 접근할 수는 없으며, 주변으로 규모가 작은 사철나무 2그루가 더 있다. 사철나무는 동도와 서도에서 생육하지만, 분포 구역은 좁고 개체 수도 많지 않다.



독도 사철나무와 관련한 전설 등은 알려진 것이 없으나, 1949년 8월 한국산악회가 주관한 독도 학술탐사 당시 이미 이 사철나무의 존재는 확인된 바 있다. 사철나무의 수령을 약 100년으로 추정할 배경은 고 이영노 교수의 독도 식물상 조사보고서(독도식물 채집기, 1952)에 강한 해풍과 유기물이 빈약한 건조한 토양 등 극히 불리한 생육환경에서 자란 나무의 뿌리 부근 줄기 둘레가 25cm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독도 사철나무는 경상북도에서 2008년 7월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문화재적 가치

독도 사철나무는 생육환경이 지극히 불량한 독도에 사는 나무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나이는 100년 이상으로 추정하지만, 나무 높이는 50cm에 불과하다. 거센 바닷바람과 열악한 생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높이 자라는 대신에 땅바닥 가까이 넓게 퍼져서 자라는 생존 전략의 결과이다. 독도의 대표 수종으로서의 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에서 100년 이상 살아온 나무로 영토적 상징적 가치도 크다.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Population of Red Leaf Willows in Chunghyo-dong, Gwangju

14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9호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등 | 지정면적 2,469m² | 지정일 2012년 10월 5일





수종(학명) : 왕버들 군

학명 : *Salix chaenomeloides* Kimura.

과명 : 버드나무과

수령 : 430년(추정)

규모 : 1번목 : 나무 높이 8.0m, 가슴높이둘레 8.35m, 수관폭 (동서)22.6m, (남북)18.1m

2번목 : 나무 높이 9.0m, 가슴높이둘레 6.95m, 수관폭 (동서)13.4m, (남북)17.7m

3번목 : 나무 높이 13.0m, 가슴높이둘레 8.10m, 수관폭 (동서)24m, (남북)26.6m

문화재 현황

1번목(가장 북쪽 나무) : 이 나무의 원줄기는 약 3m 높이에서 잘려 나간 후 곁가지의 발달로 현재의 수형을 이루었으며, 지면에서 약 3m까지의 밑동 남쪽 부분이 넓게 충전처리 되어 있다.

2번목(북쪽에서 2번째 나무) : 이 나무는 지상 약 4m 높이에서 원줄기와 가지들이 잘리고 북서쪽의 곁가지 1개가 발달해서 현재의 수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접한 1번 목과 수관 대부분이 겹쳐 자라는 상태이다. 지면에서 원줄기가 잘린 부분까지 충전처리 되어 있다.

3번목(가장 남쪽 나무) : 2번 목의 남쪽 약 18m 거리에 있다. 원줄기는 지상 약 1.5m 높이에서 잘려 나갔고 이 부분에서 곁가지 2개가 발달해 현재의 수관을 형성한다.

이 왕버들 군의 수령 430년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측정치(2012.5.18.)를 참고하였다.



자연·인문환경

충효동 왕버들 군은 광주호 남쪽에 조성된 광주호수생태원의 동쪽 경계부분에 있다. 긴 타원형 평탄지에 3그루의 왕버들이 무리지어 자라는데, 이 평탄지는 도로에 의해 광주호수생태원과 분리되어 있다. 원래 숲을 조성할 당시에는 소나무 1그루와 매화나무 1그루, 왕버들 5그루가 있었으나 광복 이전에 매화와 왕버들 1그루가 고사했고, 1970년대 마을 앞 도로 확장으로 소나무와 왕버들 1그루가 제거되어 현재는 왕버들 3그루만 남았다. 왕버들 군 바로 앞에는 김덕령 장군 일가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충효동정려비각이 있으며, 근처에는 명승으로 지정된 환벽당과 식영정이 있다.

충효동 왕버들 군은 광주호 동쪽 호안과 충효동 마을 사이에 마을의 상징 숲이자 비보의 목적으로 조성된 숲의 일부이다. 이 숲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16세기 말에 조성되었으며, 숲을 조성할 당시에는 소나무 1그루와 매화나무 1그루, 왕버들 5그루를 심어서 ‘1松 1梅 5柳’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나무를 심게 된 배경에는 마을 앞 광주호 건너편에 있는 구신狗腎 바위와 마을 내 우물(샘)을 풍수지리상 음택지陰宅地의 형국으로 보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 번영’을 위하여 비보의 목적으로 심었다고 한다. 또한 비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왕버들 이외에 ‘말 무덤’을 만들고, ‘입석’을 세웠다고 한다.

충효동에선 이 왕버들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수합하여 권을 휘하에서 왜적의 호남진출을 막은 이 고장의 충신 김덕령 장군의 탄신 기념으로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그래서 ‘김덕령나무’라고도 불린다.



문화재적 가치

충효동 왕버들 군은 16세기 말 마을의 안녕과 평온, 번영을 위하여 비보 숲으로 조성되었으며 함께 심은 소나무와 매화나무가 훼손되어 사라졌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역사와 함께 보존되어왔으며 김덕령나무라고 불리는 등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 등이 잘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또한 수형이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우며, 수령이나 규모면에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왕버들과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다.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충효동 마을에는 마을의 상징 숲이자 비보의 목적으로 조성된 왕버들 군이 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앞 광주호 건너편에 있는 구신狗腎 바위와 마을 내 우물(샘)이 풍수지리상 음택지陰宅地의 형국이라 본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평온, 번영’을 위해 비보의 목적으로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마을에서 ‘김덕령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수합하여 권율 휘하에서 왜적의 호남진출을 막은 이 고장의 충신 김덕령 장군의 탄신 기념으로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제주 강정동 담팔수

Elaeocarpus of Gangjeong-dong, Jeju

15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4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 | 지정면적 15,357m² | 지정일 2013년 4월 26일





수종(학명): 담팔수
학명: *Elaeocarpus sylvestris* var. *ellipticus*(Thunb.) H. Hara
과명: 담팔수과
수령: 500여년(추정)

규모: 나무 높이: 11.5m, 뿌리 주변 줄기 둘레 전체: 10.5m,
 북쪽 줄기: 4.7m, 남쪽 줄기: 4.4m,
 북쪽 줄기 가슴높이 둘레: 3.7m,
 남쪽 줄기 가슴높이 둘레: 2.7m,
 수관폭: (동서)15m, (남북)12m

문화재 현황

뿌리 부분이 약 2m 정도 노출되어 있으며 노출된 뿌리 부분에 충전 흔적이 있다. 줄기는 거의 땅과 맞닿은 부분에서 둘로 갈라져 V자 수형을 이루며, 가지가 잘려 나간 자리에 상처 처리한 충전 흔적이 있다. 강정천 하류의 둔치 바위틈에 뿌리 내려 자란다. 둔치의 특성상 홍수 때마다 상류에서 유기물이 실려 내려오므로 입지의 토양은 비옥하며 통기성도 좋아 나무가 자라는 데는 양호한 조건이다. 다만 독립수가 아니고 숲속에 다른 나무들과 섞여 자라므로 햇볕을 더 받기 위한 수관 경쟁이 심한 상태이다.

자연·인문환경

강정동 담팔수는 강정천 내길이소^淵 30m 아래쪽에 있는 ‘내길이소당’의 신목이다. 당집을 대신하는 이 당나무는 강정천 서편의 둔치 비탈에서 자라며, 홍수 때마다 쌓이는 유기물 토양 덕분에 생육환경은 비옥하다. 주변에 담팔수 이외에도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머귀나무 등이 무성하여 수목 상호 간에 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하다. 담팔수 주변 하층에는 까마귀쪽나무, 광나무, 마삭줄, 백량금 등의 관목과 다양한 초본 식물들도 자란다. 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중문관광단지과 천제연 폭포, 서쪽으로 약 6km쯤에 천지연 폭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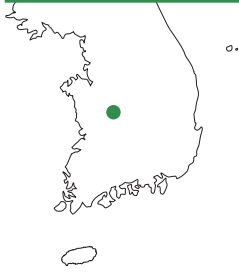
제주의 신목이 대부분 팽나무인 것에 비하여 담팔수가 신목인 경우는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강정동 담팔수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보존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을 주민이 믿고 의지하는 ‘내길이소당’의 당산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토양 유기물이 주기적으로 쌓여 나무의 생육에 도움이 된 강정천 둔치의 장소적 이점, 담팔수의 자생복한지에 해당하는 지리적 위치 등으로 담팔수가 장구한 세월동안 자라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문화재적 가치

담팔수는 난대성 상록활엽수로서 제주도 서귀포 일대가 분포 북한계에 해당되며, 현재 천연기념물 제163호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노거수로서 지정된 것이 없다. 이 강정동 담팔수는 담팔수 자생복한지에서 살아남은 노거수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신성하게 숭배해온 내길이소당의 당산목으로 제주지역에서 흔히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는 팽나무가 아닌 담팔수 신목이라는 점에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of Goegok-dong, Daejeon

16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5호 |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지정면적 문화재구역 389m², 문화재보호구역 4,687m² | 지정일 2013년 7월 17일





수종(학명) : 느티나무
 학명 : Zelkova serrata(Thunb.) Makino
 과명 : 느릅나무과

수령 : 700여년(추정)
 규모 : 나무높이 : 16m, 뿌리부근 줄기 둘레 : 9.2m,
 수관폭 : (동서)23m, (남북)29m

문화재 현황

마을 인근에 정자목의 형태로 자라고 있다. 나무의 규모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느티나무에 미치지 못하나 나무에 얽힌 다양한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자연·인문환경

괴곡동 느티나무는 가수원역에서 약 2km 떨어진 괴곡동 새뜸마을 입구의 평탄지에 있다. 느티나무는 주변에 다른 큰 나무가 없이 홀로 자란다. 나무 남쪽에는 정자가 있고, 작은 수로가 남쪽으로 이어진다. 나무 주변에 목재 펜스와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나무의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인가가 이어지지만, 나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무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무의 북서쪽 80m 지점에는 호남선 철로가 지나며, 200m 지점에는 지방도로가 있다. 철로와 지방도로 서쪽의 괴곡동 마을에는 파평윤씨 서운공파 고택을 포함하여 40여 호의 인가가 있다.



괴곡동 느티나무는 홍수로 갑천 물이 불었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온 어린 느티나무에서 유래 되었다거나 이 마을 괴곡동 지명처럼 느티나무가 자라는 골짜기에서 유래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그밖에 마을의 지형이 버드나무로 만든 고리^{柳圈}를 닮았다하여 고리골로 불리던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괴곡동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서 어느 설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느티나무에 귀 달린 큰 구렁이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구렁이를 나무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보호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느티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칠월 칠석에 느티나무에 칠석제를 지내왔으며, 느티나무의 잎이 피는 상태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문화재적 가치

괴곡동 느티나무는 매년 칠월칠석이면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 칠석제를 지낼 만큼 마을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신목이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귀 달린 구렁이를 비롯하여 잎의 상태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 이야기가 오늘날도 전해진다. 장구한 세월 동안 마을 수호신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던 점에서 문화적·민속적 가치가 크며, 나무의 규모나 수령, 아름다운 수형 등 학술적 가치도 크다.







당진 면천 은행나무

Ginkgo Tree in Myeoncheon-myeon, Dangjin

17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1호 |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72-1 등 | 지정면적 930m² | 지정일 2016년 9월 6일





수종(학명) : 은행나무
 학명 : Ginkgo biloba L.
 과명 : 은행나무과

수령 : 1000년(추정)
 규모 : 1번목 : 나무높이 20m, 가슴높이둘레 6.1m
 2번목 : 나무높이 19m, 가슴높이둘레 6.2m

문화재 현황

1908년에 개교한 옛 면천초등학교(현 면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정의 동쪽에 자라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이다. 북쪽에 자라는 1번 나무의 키가 2번 나무보다 조금 더 크고, 두 나무의 줄기 굵기는 비슷하다. 두 나무가 좁은 공간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1번 나무는 북향의 가지 자람이 왕성하고, 2번 나무는 남향의 가지 자람이 왕성하다. 면천초등학교를 건립할 때 나무가 자라던 주변을 흙으로 메워 나무의 높이가 2~3m 묻혔다고 전한다.

자연·인문환경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라는 곳은 면천 읍성 내의 옛 면천초등학교 동편 교정이다. 면천초등학교 건립 당시, 동편 언덕에 자라던 나무였는데,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나무 주변을 2~3m 흙으로 메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무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은행나무의 북쪽에 있던 옛 초등학교가 철거되어서 나무



일제강점기 면천국민학교에 있는 은행나무

의 생육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 서쪽과 남쪽은 자연적인 지형을 따라 향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

면천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로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할 때 공을 세운 복지겸 장군과 그의 딸 영랑과 관련된 설화를 빠트릴 수 없다. 복지겸이 노후에 고향인 면천으로 돌아와 원인 모를 병으로 앓게 되었고, 그의 어린 딸 영랑이 날마다 아버지의 병을 고쳐 달라고 신령께 빌었다. 그러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은행나무 두 그루를 구해다가 뜰에 심고, 앞산으로 올라가 진달래 꽃잎을 따와서 안샘 물로 술을 담가 그 술을 백일동안 익혀서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딸은 산신령의 지시대로 만든 술을 아버지께 드렸더니 복지겸 장군은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 딸의 효심이 깃든 이런 설화 덕분에 마을 주민은 은행나무에 모여 해마다 목신제(木神祭)를 지내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면천 은행나무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 장군과 관련된 전설을 간직한 나무이다. 전설에 의하면 약 1,0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나무라 할 수 있다. 나라 곳곳에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당산제나 서낭제가 점차 사라져 가는 오늘날, 면천은행나무회는 20년 전부터 매년 목신제를 지내고 있다. 복지겸 장군 부녀에 얽힌 설화, 마을 공동체 주최의 목신제가 갖는 민속학적 의미와 두 그루 은행나무의 학술적 특징을 고려하면 역사적, 문화적, 민속학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Chinese Juniper of Songgokseowon Confucian Academy, Seosan

18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3호 |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4 | 지정면적 2,975m² | 지정일 2018년 5월 3일





수종(학명): 향나무
 학명: Juniperus chinensis L.
 과명: 측백나무과

수령: 3600년(추정)
 규모: 1번목: 나무높이 11.1m, 가슴높이둘레 5.6m, 뿌리부근 줄기 둘레 4.6m
 2번목: 나무높이 8.1m, 가슴높이둘레 5m, 뿌리부근 줄기 둘레 4.4m

문화재 현황

송곡서원 입구의 양쪽에 향나무 2그루가 마주 보는 형태로 서 있다. 태극과 음양을 상징하는 특이한 배식 형태가 독특하다. 서원에서 입구 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왼편의 향나무는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자라며, 오른편의 향나무는 외줄기로 자랐다. 나무의 가지는 동서방향 보다는 남북방향으로 더 왕성하게 뻗었으며, 가지 뻗음 그 자체가 향나무의 아름다움으로 잘 표출되고 있다. 수세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자연·인문환경

이 향나무 2그루는 송곡서원 입구 양쪽의 평지에 있다. 송곡서원은 서산 시청에서 남서 방향으로 8km 정도 떨어진 649번 지방도 옆에 있으며, 근처 북동쪽 50m 거리에는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관측관이 있다. 향나무 주변은 한때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고, 서쪽 약 30m 지점에 송곡서원이 자리 잡고 있다. 입구에서 서원 쪽으로는 약한 오르막 경사가 있으나 향나무 주변은 작은 동산 형태의 원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향나무 주변의 부지는 오랫동안 경작지로 사용하면서 평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 뒤쪽은 소나무숲이 무성한 구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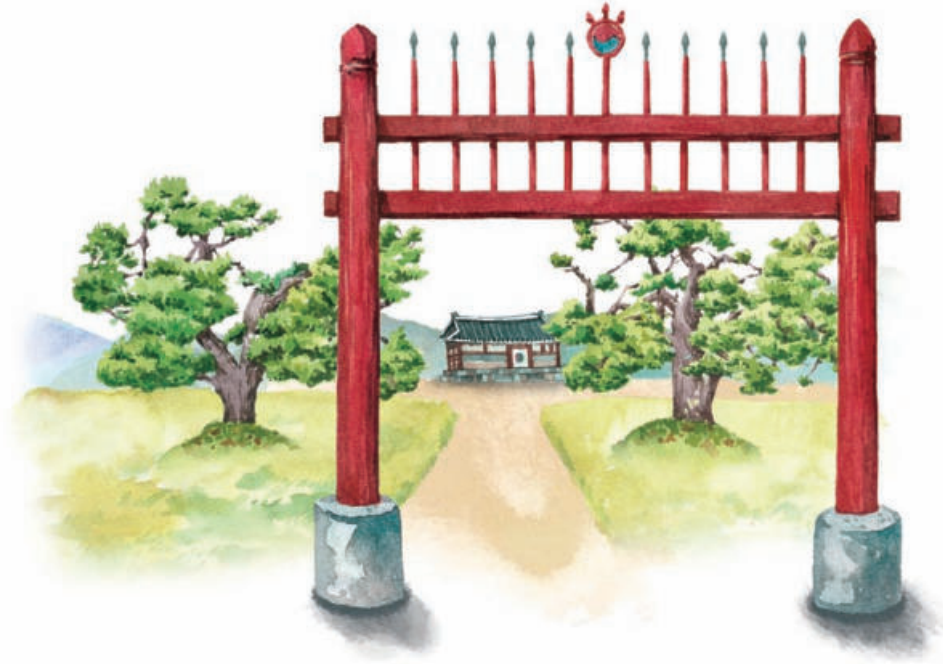
서령 류씨 집안에 의하면, 무동처사 류윤(~1476년) 선비가 단종이 임금 자리를 스스로 사양했을 때, 낙향하여 이 향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를 근거로 식재되었다면 약 600년으로 추정되며, 서원 창건(1753년, 영조 29) 당시 식재했으면 30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류윤은 본관이 서령이지만 서산에 거주하기보다는 청주 부근 모과울에 살았고, 후손들도 청주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그런데도 그가 서산의 송곡서원에 배향된 것은 일차적으로 서령 류씨 집안에서 내외에 내세울 만한 절의를 지킨 선비였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향나무’ 관련 전설도 그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이 향나무의 식재 양식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대칭 식재의 형태이기에 우리나라 서원의 수목 배식 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재적 가치

송곡서원 향나무는 서원 입구에 좌우 대칭의 형태로 식재되어 태극太極, 음양陰陽 사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특이한 배식 사례로 학술적 가치가 크며 류운 선생이 단종이 임금의 자리를 스스로 사양했을 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심었던 나무라는 전설을 고려하면 민속적 가치를 지닌 노거수라 할 수 있다.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송곡서원 향나무는 서령 류씨 집안에 의하면, 무동처사 류운(~1476년) 선비가 단종이 임금 자리를 스스로 사양했을 때, 낙향하여 이 향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 입구에 좌우 대칭의 형태로 식재되어 태극太極, 음양陰陽 사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특이한 배식 사례이며, 우리나라 서원의 수목 배식 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Date Plum of Hyeonnae-ri, Gangneung

19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4호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 등 | 지정면적 3,802m² | 지정일 2018년 8월 29일





수종(학명) : 고욤나무
 학명 : Diospyros lotus L.
 과명 : 감나무과

수령 : 250년(추정)
 규모 : 나무높이 : 19m, 가슴높이둘레 : 2.86m,
 뿌리주변 줄기 둘레 : 5.6m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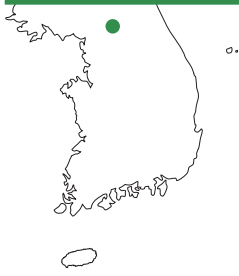
현내리 고욤나무는 줄기가 동쪽으로 5도 정도 기울어져 자란다. 나무의 외형적 규모는 전국의 고욤나무 중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다. 뿌리부근의 줄기는 월등하게 굵고, 수세도 왕성하다. 가지 뻗음은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서쪽으로 뻗은 가지의 숫자는 적다. 그래서 수관은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자연·인문환경

현내리 고욤나무는 옥계면사무소에서 1km 떨어진 옥계로와 현내안길 도로변에 있다. 나무가 있는 장소는 현내1리 마을회관 옆으로, 나무 남쪽에는 성황당이 연결해 있다. 성황당과 고욤나무는 도로보다 약 1m 정도 높은 독립된 부지에 있으며, 나무 주변에는 농지와 도로가 나 있고, 몇몇 주택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주택이 나무의 생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요인은 많지 않다. 오히려 나무 뒤편에 바짝 붙어 있는 성황당의 존재가 나무의 정상적인 생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성황당 뒤편에는 작은 정원 형태의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고욤나무 주변으로 목책보호책과 바닥은 호박돌로 깔려있다. 현내리 고욤나무는 현내리 마을 성황당의 신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숭배한 나무이다. 매년 성황제를 지내는 등 지역 문화재로써 역사성을 간직하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 동안 주민들이 보호했다. 고욤나무의 열매는 약용과 식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차례상의 재물인 곱감을 생산하는 감나무의 대목(밑나무)으로도 역시 중요했다. 수목의 유용성과 당산목의 특성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장구한 세월을 견뎌낸 나무이다.

문화재적 가치

현내리 고욤나무는 현내리 성황당의 당산목으로,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오늘날도 주민들은 정월 대보름과 음력 동지에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등 민속 문화적 요소와 고욤나무의 잎과 열매가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어 생활 문화적 가치가 있다.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조형물이 없어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보존상태와 생육환경 등 양호한 상태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주변이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Alder Tree of Chogwa-ri, Pocheon

20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5호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 등 | 지정면적 9,885.7m² | 지정일 2019년 9월 5일





수종(학명) : 오리나무
 학명 : Alnus japonica(Thunb.) Steudel
 과명 : 자작나무과

수령 : 230년(추정)
 규모 : 키 : 21.7m, 가슴 높이 둘레 : 3.4m,
 뿌리 부근 줄기 둘레 : 3.93m, 직경 1.1m

문화재 현황

초과리 오리나무는 마을 입구 경작지 한가운데 홀로 자라는 나무로 수관 발달이 좋고, 외과수술 흔적이 일부 있으나 수세는 건강한 상태이다. 수고, 뿌리부근 줄기 둘레, 수관폭, 수령 등의 규격을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월등하게 클 뿐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도 잘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마을 주민의 정자목으로 이용되었기에 경관적 가치도 높다.

자연·인문환경

초과리는 남쪽 끝의 고남산에서 북으로 뻗어나간 산지 좌우로 평야가 있어 마을과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87번 국도와 387번 지방도로가 교차하며 북쪽 끝이 관인면사무소 소재지인 탄동리와 접하고 있으며, 초과리 오리나무는 마을 앞 경작지 한 가운데 홀로 서 있다. 이 나무의 주변 지역도 키가 큰 나무나 관목은 자라지 않는 농경지이다. 과거에는 나무 주변을 농사철의 휴식 장소로 이용할 만큼 넓고, 나무 옆으로는 도랑이 흘렀으나 주변의 정지작업으로 인해 현재는 도랑이 메워졌고 나무 주위의 공간도 겨우 수관 넓이 정도만 남아 있다.

이 오리나무의 유래는 이 고장 지명과 관련이 있다. 초과리^{初栗里}는 예부터 배와 복숭아가 많이 생산된 마을로 유명했는데, 제일 먼저 열린 크고 좋은 과일을 원님께 먼저 바쳤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비롯됐다고 한다. 어느 해 흉년으로 과일 공납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나가던 스님이 과일나무가 모두 오리나무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 예언 후 실제로 모든 과일나무가 오리나무로 변하여 이후 관청에 과일 바치는 공납이 면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리나무는 제기나 목기 등의 재료로 많이 쓰였고, 그 외 껍질이나 열매는 적갈색에서 흑갈색의 염색 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오리나무는 나무 타령에 ‘십 리 절반 오리나무’라는 구절처럼 이정표 나무로,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정절의 상징으로 가져가는 나무 기러기의 재료로 우리 전통 생활과 친숙한 나무였다.





문화재적 가치

초과리 오리나무는 나라 전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리나무로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쉼터로서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등 자연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초과리 오리나무의 유래는 이 고장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과리(初果里)는 예부터 배와 복숭아가 많이 생산된 마을로 유명했는데, 제일 먼저 열린 크고 좋은 과일을 원님께 먼저 바쳤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어느 해 흉년으로 과일 공납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나가던 스님이 과일나무가 모두 오리나무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후 실제로 모든 과일나무가 오리나무로 변하여 이후 관청에 과일 바치는 공납이 면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오리나무는 나무 타령에 ‘십 리 절반 오리나무’라는 구절처럼 이정표 나무로,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정절의 상징으로 가져가는 나무 기러기의 재료로 우리 전통 생활과 친숙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

21

Trifoliate Orange at the Head House of the Jangsu Hwang Clan, Mungyeong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8호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등 | 지정면적 2,823m² | 지정일 2019년 12월 27일





수종(학명): 탕자나무
학명: Poncirus trifoliata(L.) Raf.
과명: 운향과

수령: 400년(추정)
규모: 나무 높이 : 6.3m, 가슴높이둘레 : 96cm, 261.5cm,
 수관폭 : (동서)9.2m, (남북)10.3m

문화재 현황

종택의 탕자나무는 2그루로 종택 앞뜰에 있다. 동쪽과 서쪽 탕자나무는 뿌리 가까이서 큰 가지 3개와 4개로 각각 갈라져 자라기에 마치 한 그루 처럼 반원형을 이룬다. 동쪽 탕자나무는 밑동이 약간 썩었지만, 서쪽 탕자나무는 큰 상처가 없다. 이들 탕자나무는 수고, 수관폭, 수령 등 규격 면에서 크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택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노거수로서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크다.

자연·인문환경

탕자나무가 있는 종택의 서쪽은 얇은 동산이며, 동남쪽에는 금천이 흐른다. 금천과 종택 사이에는 59번 지방도(금천로)가 지난다. 탕자나무 2그루는 문경 장수황씨 종택의 안마당 정원에 자리며, 주변에 배롱나무 등 조경 수목도 함께 식재되어 있다. 종택 정원은 담장으로 경계를 이루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북동 측 약 900m 지점에는 장수황씨 사정공파 중중 소유의 문경 대하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426호)도 있다.



문경 장수황씨종택의 탕자나무

이 종택은 문경지방의 양반가옥 중 하나로 장수황씨의 종가이다. 종가의 탕자나무는 황희 정승의 고손자 황시간^{黃時幹}(1558~1642) 선생이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며, 우리나라 최고령 탕자나무(나무 나이 400년 이상)로 추정된다.

선비들이 특별히 탕자나무를 정원에 심은 이유는 ‘귤나무는 회수 남쪽에 심으면 꺾이 열리지만, 회수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열린다’는 중국의 <안자춘추^{晏子春秋}>에 나오는 고사와 연관 짓기도 한다. 탕자나무에 얽힌 이 고사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탕자나무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로부터 성벽 주위나 울타리용으로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



재로 사용되었다. 탕자나무는 우리 역사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유용한 수종이어서 이미 강화도에 있는 두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재적 가치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는 수고, 수관폭, 수령 등 나무의 규격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이나 약재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가 오래된 종택과 장구한 세월 함께 해온 노거수로서 식물적·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크다.



지 질 Geology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의성 빙계리 얼음굴

밀양 만어산 암괴류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정선 용소동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정선 화암동굴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22

Tuff and Volcanogenic Structure on Jageundaeseom Island, Sinan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5호 | 소재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등 | 지정면적 8,421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우리나라에서 백악기 화산암은 주로 남부 지역에 분포한다. 비금면 작은대섬의 화산암도 후기 백악기에 있었던 화산활동의 산물이다. 지금은 섬의 모습이지만 화산활동기에는 해양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대섬의 화산암류는 물과 접촉하여 형성되는 암석들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노두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해수의 물리, 화학적 풍화와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들도 있다.

화산활동은 마그마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며, 분출 환경에 따라서도 화산 생성물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규소 성분이 높으면 폭발성이 강하고, 낮으면 유동성 용암의 분출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용암 분출형 화산에서는 조용한 용암의 분출로 용암 대지를 형성한다. 반면 폭발성 화산에서는 많은 양의 크고 작은 암석 파편들을 분출하여 여러 형태의 응회암을 형성한다.

작은대섬은 산성화산활동에 기인하는 산성응회암으로 이루어진다. 섬을 이루는 응회암을 분출한 화산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응회암은 결정질응회암과 리식라필리^{lithic lapilli}응회암, 회류응회암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유문암과 화강반암도 분포하고 있으며 응회암에 포획된 퇴적암편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한반도 남서단에 분포하는 넓은 화산암 분포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작은대섬의 응회암에 발달하는 여러 가지 1차 내지 2차 화산성구조들과 유동구조 등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징적으로 다양하게 발달한다. 화쇄류의 냉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냉각절리의 발달이라든가 냉각절리의 간극을 충전하는 후기 응회암, 다양한 규모의 부가화산력(accretionary lapilli)을 포함하는 응회암, 전형적인 유상구조를 보여주는 유문암 등 다양한 화산성구조들이 형성되어 있다. 섬이 되면서 풍화 침식작용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풍화 저항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타포니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세한 규모의 요철이 많은 특징적인 차별풍화 양상을 가지는 유문암질 세맥의 망상 발달은 일반적인 풍화양상과는 다른 희귀성을 보여준다.

자연·인문환경

비금도 남서쪽에 위치하는 작은 무인도로 3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다. 작은대섬은 이들 중 가장 큰 섬이나, 전체 면적 10,000m² 미만의 작은 섬이다. 대부분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섬 중앙에 제한적으로 얇은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어 소수의 소나무와 초본류가 식생을 이루고 있다. 섬 전체가 산성응회암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화산성구조들이 발달되어 있다. 섬 전역에 걸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구조들을 발달시키고 있으나, 특별한 화산성구조들은 노출 면적이 넓은 섬의 서쪽과 작은대섬 북쪽 작은 섬의 남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발달을 보여준다. 인접하는 대섬이나 털섬에서는 이러한 구조들의 발달을 보기 어렵다.



문화재적 가치

전체적으로 암반 노두에 발달하는 현상들이므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나 화산회의 암석화로 형성되는 응회암의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강한 풍화와 침식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노두에 발달하는 미세한 구조나 조직들은 소멸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다양한 화산활동 동시성구조들과 화산활동 이후 여러 가지 지질조건들과 관련되어 발달하는 지질 구조들의 집약적 산출은 우리나라 후기 백악기 화산활동과 지질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학술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구조들은 국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로 희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지역에 격렬한 화산활동과 천부 화성활동에 기인하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어 화산활동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자연사적, 교육적 가치도 매우 높다.

섬이라는 해양환경에서 강한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발달하는 타포니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암석의 종류와 조직 등의 영향으로 다양하고 특징적인 형태들이 형성되어 있다. 응회암 내부에 발달하는 휘발성 물질들이 형성하는 기공과 단면, 침식으로 요철이 심한 망상 세맥들의 발달은 일반적인 풍화양상과는 차별화 되는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Yongmeori Coast in Sagye-ri, Jeju

23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6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등 | 지정면적 51,132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은 용머리응회암과 산방산조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용머리응회암은 수성화산체의 분출에 따라 현무암질 마그마와 물이 만나 폭발적으로 반응할 때 발생한 화산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응회환^{tuff ring}의 일종으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산방산 남쪽으로 약 500m 가량 뻗어 있다. 화산에서 터져나온 화산재는 화산가스와 함께 지면을 따라 흐르면서 판상층리, 파동층리, 거대연흔과 사층리 등의 다양한 퇴적구조를 남겼다. 또한, 화산재가 물과 섞여 반죽 상태로 만들어진 렌즈상의 괴상층도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조는 화산재가 물에 흠뻑 젖을 정도로 매우 습한 상태에서 화산분출이 일어났음을 지시한다. 용머리는 비교적 오래 전 분출한 화산으로 원지형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용머리응회암이 세 개의 지층단위로 나뉘며, 각기 다른 화구로부터 분출된 화산쇄설물이 중첩되어 쌓인 것임이 밝혀졌다. 즉, 용머리가 연약한 지반 위에 형성되다보니, 화산분출 도중 수 회 붕괴되어 화구의 위치가 이동되면서 용머리 화산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용머리의 생성시기는 약 100만년 내외로 추정되어 80만년 전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진 산방산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용머리 주변에 우뚝 솟은 산방산은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질 용암이 지표로 분출 후,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계속 누적되면서 반구상으로 솟아오른 용암돔^{lava dome}이다. 이러한 산방산(해발고도 395m)은 장축이 약 1,250m, 단축이 약 750m, 둘레가 약 6.1km에 달하며, 지름이 2m에 이르는 주상절리가 100여 m 가량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용암돔 내부에서는 부채꼴 형태의 절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수직의 주상절리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용암돔의 가장자리 부분이 침식되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관광공사, Visitjeju.net 제공

자연·인문환경

바닷가로 돌출되어 있는 용머리해안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 전 형성된 수성화산체로서, 오랜시간 해침의 영향으로 분포 면적은 매우 작다. 하지만 북쪽으로 우뚝 솟은 산방산, 서쪽(설림바당 해안)과 동쪽(황우치 해변)으로 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풍화에 의한 다양한 침식지형(파식대지, 타포니, 노치 등)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용머리해안 전설



문화재적 가치

용머리는 오랜 시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원래의 화산지형이 많이 사라졌으나 오히려 화산의 내부구조가 잘 드러나게 되어 수성화산체의 형성 과정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이는 성산일출봉, 수월봉 등과 함께 수성화산의 지질구조를 잘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수성화산 분화 도중 발생한 화구이동 현상이 최초로 보고된 장소로서 뛰어난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으며, 17세기 조선에 표류한 하멜 일행이 난파 후 상륙한 장소로서의 역사적 의미도 가진다.

또한, 용머리 주변에 위치한 산방산은 해안 저지대에 우뚝 솟은 지형을 갖고 있어, 외국의 용암돔(주로 성층화산의 정상부에 형성)과 비교하여도 그 웅장감이 뛰어나, 용머리해안과 함께 제주 남서부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용머리에는 재미있는 고종달의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의 진시황 시절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시황은 천하를 얻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외적이 꿈쩍 못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무소불위의 제황으로서 그 권력은 하늘을 찌렀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에 제왕감이 태어난다면 마음 놓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웃 나라에서 제왕감이 태어나고 있거나 않을까 항상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천하의 권력을 얻은 진시황은 영생과 장수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는 신험한 약초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전국뿐만 아니라 멀리 이웃나라에도 보내었습니다. 이웃나라에 보낸 사람들에게는 불로장생 약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세도 알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불로장생 약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갔던 사람들은 제주도에 장차 제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기운이 가득하다고 알렸습니다.

제주도에 왕후지지가 있어 제왕이 태어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진시황은 제주에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곧 풍수예다 술법이 능한 고종달을 보내어 그 맥을 끊어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고종달은 제주도에 들어와 왕후지지를 찾아 헤매다가 며칠만에 용의 기운이 서린 산방산에서 왕후지지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는 산방산을 끌고 바다로 향하는 용을 보고 그 혈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엄청난 용의 기운이 감도는 산방산 일대를 샅샅이 돌며 끊어야 할 맥이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용머리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용이 살아 있기 때문에 왕후지지가 되는 것이니 요놈만 끊어 버리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종달은 먼저 용의 꼬리 부분을 한 칼로 끊고 이어서 잔등 부분을 두어번 끊어 버렸습니다. 끊자마자 바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산방산은 며칠동안을 처절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리하여 제주도에 용의 기운이 끊어져 버려 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용머리는 꼬리 부분과 잔등이 부분의 바위가 묘하게도 가로로 똑똑 끊어져 있는데, 이 것이 그때 고종달이 끊어버린 자국이라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의성 빙계리 얼음골

Eoreumgol Ice Valley in Binggye-ri, Uiseong

24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7호 |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등 | 지정면적 101,158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쌍계천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험준한 산형을 이루는 곳에 빙계리 얼음굴이 위치한다. 얼음굴 주변은 백악기 후기에 분출한 여러 가지 화산암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빙산(얼음산)으로 부르는 빙계리 서측 산사면에는 유문암이나 유문암질 응회암, 안산암질 응회암 그리고 현무암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암괴들이 발달해 있다. 대부분 직경 1~2m에 이르는 이 암괴들은 기계적 풍화작용으로 본 암체들로부터 분리되어 쌓인 것으로 애추^{talus}의 형태를 이룬다. 애추의 형성은 대체로 최후 빙하기 이후로 인식되고 있으며, 암괴의 분리는 화산암류에 발달하는 다양한 절리들과 중력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거력의 애추는 암괴들이 성글게 쌓이게 되고, 암괴들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을 작은 암편들이나 토양으로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암괴들 사이의 공간이 의성 빙계리 얼음굴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열전도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암석들의 열 흡수나 방출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진다. 높은 온도로 달구어진 암석이 매우 느리게 식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암석은 높은 열 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빙계계곡에 쌓여있는 암괴들도 하절기에 높은 기온으로 달구어진다. 반면 동절기에는 낮은 온도로 냉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축적된 온기나 냉기가 계절이 바뀌어도 아주 서서히 방출되는 것이 얼음굴의 독특한 자연현상이다.

이러한 얼음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추를 형성하는 암괴가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어야 하고, 암괴들 사이에 원활하게 공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통기성이 우수한 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 빙계리 얼음굴의 경우 집적된 암괴는 지표보다 지하로 깊게 형성되어 있어 열이 더 잘 보



존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빙계리에는 하절기에 얼음이 만들어지는 냉혈 이외에 곳곳에 냉기를 발산하는 풍혈이 발달하고 있다. 풍혈들은 빙계리 일대 산사면에 쌓여 있는 대형 암괴들 사이로 만들어지는 틈에서 쉽게 냉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반대로 동절기에는 대기의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따뜻한 공기가 나와 주변에 이끼류 등 특별한 식생이 형성되기도 한다.

자연·인문환경

얼음골 현상은 빙계리 마을 서쪽에 위치하는 산체(빙산)의 동남 사면에서 나타난다. 이 산의 뒤편에는 양지저수지가 산줄기와 평행하게 위치한다. 빙혈 혹은 풍혈이 나타나는 얼음골 현상은 거력의 애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에 한정되며 대략 폭 200m, 연장 300m 정도의 구간에서 나타난다. 이 구간 안에서도 얼음골 현상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 쌓여있는 거력의 심도가 깊지 않은 곳에서는 얼음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변에 거력이 산재하는 산사면이라도 지표에만 분포하는 경우 또는 암괴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얼음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재적 가치

일반적으로 애추는 절벽이나 암반이 드러난 험준한 산체의 하부에 잘 발달된다. 암반에 발달하는 층리나 편리 또는 여러 방향의 절리들을 따라 암편이 분리되고 중력의 힘으로 절벽의 하부에 쌓여 만들어진다. 보통은 암편들의 크기가 다양하고 암편 사이의 결속력도 없으므로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의성 빙계곡 얼음굴도 이러한 일반적인 형성 원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애추의 한 형태이나, 구성 암석들이 직경 1m 혹은 그보다 큰 암괴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독특하다. 다량의 대형 암괴들이 두껍게 쌓이면서 암괴들 사이에 많은 개방된 공간을 형성하였고, 이 공간들은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얼음굴의 거력들이 동절기에 빙점 이하로 냉각될 수 있는 조건도 이러한 공기 통로에 기인한다. 축열성이 매우 높은 이 지역의 암석 특성에 따라 동절기에 많은 냉기가 암괴들에 축적되고, 축적된 냉기는 외기 온도가 상승하는 계절이 되어서도 아주 서서히 방출되면서, 하절기에 암괴의 틈 사이에 얼음이 얼게 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흔하지 않은 자연현상으로 암괴들이 제거되거나,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메꾸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밀양 만어산 암괴류

Block Stream in Maneosan Mountain, Miryang

25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8호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등 | 지정면적 115,149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주빙하기 이후에 형성된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적인 지형 발달현상의 하나로 대체로 남부 지방 몇몇 곳에서 암괴류들이 발견된다. 대형 암괴들의 집합체를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사면에 위치하는 것을 암괴류라 하고,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는 것을 암괴원이라 하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모호하다. 암괴류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형성된다. 주빙하기 이후 지속적인 동결파쇄작용으로 형성되는 상대적으로 원마도가 높지 않은 암괴류와 온난다습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핵석류들이 지표에 노출되고 이동하여 형성된 상대적으로 원마도가 양호한 암괴류가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주된 암괴화 과정이 전자의 경우 지상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후자의 경우 지하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르면 만어산 암괴류는 동결파쇄작용에 의해 주로 형성되었고 지금의 위치로 이동하여 안정화한 암괴들에 해당한다.

밀양 만어산 암괴류는 만어산 서쪽 기슭의 표고 540m 지점으로부터 산 아래로 표고 350m 지점

까지 발달하고 있다. 암괴류가 있는 만어산은 백악기 후기의 세립화강섬록암 혹은 섬록암으로 이루어지고, 풍화에 강한 암석의 특성으로 높은 산릉을 형성하고 있으나, 흔히 간격이 넓은 격자형 절리들을 발달시키고 있다. 이러한 암석의 특성에 따라 쉽게 분리된 암괴들이 산 사면에 애추의 형태로 집적되어 암괴류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암괴류를 구성하는 암괴들도 만어산과 동일한 화강섬록암 혹은 섬록암으로 이루어지며, 암괴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여 직경 수십cm에서 장경이 10여m에 이르기도 한다. 암괴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암괴류 형성이후 장기간 지속된 풍화작용에 의한 박리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만어산 암괴류의 형성 시기는 적어도 38,00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진다. 이 암괴류의 동쪽으로 만어산 남사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암괴류들이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포면적이나 규모가 만어사 부근에 발달한 암괴류에 미치지 못한다.



자연·인문환경

만어산 서사면의 중턱에 위치하는 사찰 만어사에 인접하여 발달하는 암괴류는 산기슭 아래로 대략 600m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암괴류의 말단부는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소멸되고, 상단은 부분적으로 토석으로 피복되어 식생이 형성되어 있다. 암괴류의 폭은 만어사 부근 상부에서는 대략 120m에 달하나 하부로 내려가면서 점차 좁아져 중간 부분은 60m 내외로 줄어들었다 다시 넓어져 100m 이상의 폭을 가지면서 사라진다. 분포 하단의 농경지 일부에도 하부에 암괴류가 연장분포될 것으로 보인다. 상부 분포지로부터 60여m 동남쪽에 또 다른 소규모의 암괴류가 발달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우리나라에서 암괴류는 주빙하기 후기에 발달하는 특징적인 지형으로 주로 남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밀양 만어산 암괴류는 대략 38,00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동결파쇄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상대적으로 원마도가 높지 않은 암괴들로 이루어진다. 화강섬록암들로 이루어지는 암괴들은 다양한 크기를 보인다. 수십cm에서 최대 10여m에 이르는 대형암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분포 규모가 크고 토석이나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지 않아 암괴들의 노출이 양호하다.



분포지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주빙하기 이후 한반도에서의 특징적인 지형 발달과 물리, 화학적 풍화작용의 역할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규모 암괴류는 자체로도 뛰어난 경관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여준다. 분포지에 인접하여 만어사 사찰에 있고, 대형 암괴들로 이루어져 있어 훼손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암괴류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괴류 분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말단부에 근접하여 도로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분포지 중간에 개설된 도로의 경우 암괴류가 도로 하부에 연속되고 있다.

밀양 만어산 암괴류



밀양 만어산 암괴류는 한반도 빙하기가 끝난 후 많은 비가 내려 이곳의 암석들이 양파가 벗겨지듯 침식·풍화되며 생성된 암괴류로, 700m이상 길게 펼쳐지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등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이 다한 것을 알고 신통한 스님의 조언대로 길을 떠나자 수많은 물고기 떼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왕자가 머물러 쉰 곳이 만어산이었는데, 왕자는 그 뒤 큰 미륵불이 되었으며 수많은 물고기 떼는 크고 작은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변해서 된 돌이라고 하여 만어석이라 부릅니다. 용왕의 아들이 변해서 됐다는 미륵바위는 풍화 때 부서지지 않고 남은 돌알입니다.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Osaegyaksu Mineral Water in Osaek-ri, Yangyang

26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9호 |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등 | 지정면적 400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바다나 육지의 하천 혹은 호소에 있는 물은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증발하고, 수증기는 강우의 형태로 육지나 바다로 회귀하는데 이를 물의 순환이라 한다. 약수는 육지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특별한 지질조건이 되면 다시 지표로 용출하는 지하수의 일종이다. 지하로 스며든 지하수는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은 암반에 발달하는 여러 형태의 공극들과 이 공극들을 연결하여주는 연결 구조를 따라 이루어진다. 물을 포함할 수 있는 암석의 공극이 크고 많아도 공극들을 연결해주는 구조가 없으면 지하수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단열이나 절리, 단층 등과 같은 지질구조가 지하수의 이동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지표에서 스며든 것이 대부분이나, 미량의 마그마 기원 초생수가 혼합될 수도 있다. 용출하는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미량의 무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특정 성분이나 여러 종류의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를 광천수라 구분하며 흔히 약수라 부른다. 무기물들은 지하수의 이동 경로 중에 거치게 되는 암반의 종류라든가, 열수의 존재라든가 하는 다양한 지질조건에 따라 성분과 함량이 달라진다. 보통 유기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기물이 포함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표 천부에서의 유입에 기인한다.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는 한계령과 설악산 서부능선, 망대암산에서 발원한 하천들이 합류하여 형성하는 오색천의 오색리 하상에서 용출한다. 약수가 용출되는 곳을 포함하여 모두 흑운모화강암들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약수터 북쪽으로 대략 500m 이내지역으로 한계령단층이 통과한다. 약수의 이동 통로가 되었을 화강암에 발달하는 절리나 단열들 중 일부는 이 단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색약수는 하천 바닥에 드러난 화강암반에서 용출되므로, 주간에 햇볕으로 암반이 가열되어 일 반적인 경우보다 약수와 대기온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함량은 낮 으나 탄산과 철분이 포함되어 약수는 약산성을 띠며, 고형용존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은 다소 높 게 나타난다. 규소, 알루미늄, 철, 망간, 황, 칼륨, 나트륨, 칼슘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으며, 타 약수에 비해 나트륨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칼슘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자연·인문환경

양양에서 한계령을 오르는 중간에 위치하며, 약수터 주변에는 여러 종 류의 상업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한계령에서 발원하여 양양으로 흐르 는 오색천 중간 하상의 백악기 화강암 암반에서 약수가 용출된다. 암반 에 발달한 단열을 따라 솟아나는 기반암 용출형 약수로, 용출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계절 변화는 미미하다. 하상에 위치하므로 계절적으로 하천의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침수된다. 인접한 지역 여러 곳에서 다양한 양의 약수가 용출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구역뿐 아니라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800m 오색천 상류에서도 약수가 용출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오색약수는 오색천 하상의 화강암반에서 용출되는 약수이며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또 암반의 노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약수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흔하지 않은 암반에서 용출하는 광천수로 암반에 발달하는 단열을 따라 유출된다. 단열의 발달은 약수터에서 약 500m 북쪽을 통과하는 한계령단층의 단층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악산의 지구조운동과 지하수의 유동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천연기념물 제171호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에 위치하여 경관적 가치도 뛰어나다. 조선 중기에 오색약수로부터 오색천 상류쪽으로 직선거리 약 500m에 위치하는 사찰 오색석사(현재의 성국사)의 한 스님이 처음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오색약수란 이름은 성국사 후원의 다섯 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나무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약수에서 다섯 가지의 맛이 난다하여 붙여진 것이라 하는 설이 있다.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Sambongyaksu Mineral Water in Gwangwon-ri, Hongcheon

27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0호 |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 지정면적 150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수권, 기권, 암권을 순환한다. 바다와 육지의 하천이나 호소에 있는 물은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이동하고, 다시 수증기는 강우의 형태로 육지나 바다로 회귀한다. 육지에 내리는 강수량의 약 25%는 바다로 유입되고 75%는 증발하거나 지하수로 유입된다. 약수는 이렇게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여러 가지 지질조건에 따라 이동하였다가 다시 지표로 용출되는 지하수의 일종에 해당한다. 서서히 움직이는 지하수는 이동과정에서 암석의 여러 가지 성분을 용해하여 동반한다. 지하수의 이동은 지하수를 함유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극들과 이 공극들을 연결하여주는 통로가 형성될 때 가능해진다. 연결통로 역할은 암반 중에 발달하는 단열들로 절리와 단층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경우 지하수의 이동은 아주 서서히 일어나므로 빗물이 다시 용출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용출수의 성분은 보통 지표에서 스며든 지표수와 대등하나 일부는 미량의 무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특정 성분이나 여러 종류의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 광천수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약수라 한다. 무기물들은 지하수의 이동 경로 중에 거치게 되는 암석의 종류 등 다양한 지질조건에 따라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포함되지 않고, 유기물이 포함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표로부터의 유입에 기인한다.

가칠봉 서쪽 계곡 하천의 호상흑운모편마암 기반암과 산록에 형성된 암설층의 경계부에서 용출되

는 광원리 삼봉약수는 산사면의 두터운 산록층 하부에서 산록층을 통과하는 지하수와 암반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섞여 용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약수는 하이드로탄산과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약산성을 띄우는 탄산광천에 해당한다. 철분 함량이 높아 약수에 용해된 산화철이 붉은색 침전물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용존 무기물과 유기물의 함량은 보통이고, 규소, 알루미늄, 철, 망간, 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미량 포함되며, 철분과 칼슘의 함량이 비교적 높다. 약수는 대체로 대기 온도보다 10℃ 미만 낮은 수온을 보이고 있으며, 용출량은 많지 않다.



자연·인문환경

삼봉약수는 가칠봉에서 발원하여 실튼계곡이라 불리는 계곡을 흘러 계방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의 상류에 위치하며, 삼봉국립자연휴양림 구역 내에 있다. 계곡사면의 하단부와 하천의 경계부에서 산록의 암설층과 기반암과의 경계부에서 용출된다. 산사면의 산록층 하부를 흐르는 상부 지하수와 암반에서 유출되는 암반지하수가 혼합되어 용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수터를 정비하기 이전에는 3곳에서 용출되었으나 정비과정에서 2곳은 폐쇄되어 현재에는 한곳에서 용출된다. 약수터 하류에 새로운 용출수가 확인되는데 탄산과 무기물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용출량은 많다.

문화재적 가치

삼봉약수는 산록 암설층을 통과하며 암설 성분의 무기물과 철분 등을 용해하여 유출되는 지하수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반암으로부터 유출되는 지하수도 혼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량의 탄산과 철분을 함유하는 탄산광천수이며, 높은 철분의 함량으로 인하여 용해된 산화철이 붉은색 침전물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외에도 가칠봉 산중 계곡에 위치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적 가치도 높은 자연유산이다.

삼봉국립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인위적인 약수터 정비 과정에서 과도한 원형 훼손과 시설물들이 자연유산적 가치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계곡변에 위치하여 일시적으로 계곡의 유량이 급증하면 침수될 수도 있다. 암설층이 있는 산사면과 상류에 오염원이 없고, 식생의 발달이 양호하여 오염의 위험도 높지 않다.

조선조 5대 왕 문종의 왕비 현덕왕후의 아버지인 권전이 단종 폐위 후 내면에 은거하던 중 날개를 다친 학이 계곡물에 날개를 적신 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봉이란 명칭은 각각 독특한 맛을 내는 약수가 3개의 구멍에서 나온다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 또는 약수터 주변의 3개의 큰 산 가칠봉, 새양봉, 가가봉에 근거한다는 설도 있다.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Gaeinyaksu Mineral Water in Misan-ri, Inje

28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1호 |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 지정면적 400m² | 지정일 2011년 1월 13일





문화재 현황

물의 순환 과정에서 빗물의 형태로 지표에 도달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암반이나 토양 속을 흘러내리고, 다시 지표로 솟아나는 것이 샘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하수면과 지표면이 접하는 특별한 조건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성분은 보통 지표수와 대등하나 일부는 미량의 무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특정 성분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를 광천으로 분류하며 흔히 약수라 한다. 지하수의 유동은 암석이나 단층, 절리 등 여러 가지 지질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서서히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는 암석의 무기물들을 용해하여 포함하게 되므로 약수에는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약수는 선캄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편마암이 넓게 분포하는 방태산 줄기에서 발원하는 소하천의 상류계곡 산사면 암설층 하부에서 용출하는 약수이다. 산사면에 형성되어 있는 산록층 아래를 흘러내린 지하수가 산록층의 분포가 끝나는 계곡에 이르러 솟아나는 것이다. 약수의 구성성분으로 미루어 산록층 하부에 있는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단열로부터 유출되는 암반 지하수가 산록층을 통과하며 복류하던 지하수와 혼합되어 용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물의 용해작용은 매우 낮은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수의 더딘 유동이 요구되나 산록층 아래에서의 지하수 유동은 무기물을 충분히 용해시킬 만큼 느린 속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 등의 수화물, 탄산염, 중탄산염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어 약알칼리성을 띄우는 것이 보통이다. 개인약수는 광천으로 약산성을 띄는데, 이는 용해되어 있는 다량의 하이드로탄산과 철분의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철분 함량으로 약수가 용출되는 부근에 산화철의 침전물들이 형성되어 인근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용존 무기물과 유기물의 함량은 보통정도이다. 규소, 철, 망간, 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과 미량의 불소와 구리가 검출된다. 철분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나트륨 함량은 다소 낮은 특징을 보인다.



자연·인문환경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에 위치하여 미산약수로도 불린다. 인제군 기린면과 상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방태산릉 1411m 고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내린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의 상류 해발 1000m의 계곡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약수는 계곡 입구 산장으로부터 약수골 계곡을 따라 대략 2km 상류에 위치한다. 약수터 계곡 사면에는 암설층이 형성되어있고 암설층 하단이 하상 암반과 접하는 부위에서 약수가 용출된다. 계곡의 상류와 하류에서도 또 다른 용천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전설에 의하면 약수가 위쪽에 한곳 더 있었다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문화재적 가치

개인약수는 산록층 하부를 이동하는 지하수가 용출되는 광천약수로 알려져 있다. 약수는 다량의 하이드로탄산과 탄산가스를 포함하며, 많은 양의 철분을 포함하는 탄산천 광천의 독특한 산상을 보인다. 무기물이 풍부한 약수의 구성성분은 산록층 하부에 있는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호상편마암 암반에서 용출하는 암반 지하수가 기반암 상부에 형성되는 산록층 하부를 통과하던 상부 지하수와 혼합되어 용출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0m 이상 고지의 계곡에 위치하여 약수터와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경관도 자연유산적 가치를 높인다.

약간의 인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있으나 대체로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약수터 주변의 식생 발달 상태가 양호하고,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약수 수질오염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러나 계곡의 유량이 급증하면 침수의 가능성이 있고, 계곡의 구배가 크고 좁아 유수의 에너지가 높아져 약수터의 암설층을 훼손하거나 부근 시설물의 파손 가능성은 있다.

개인약수는 1891년 함경북도 출신의 지덕삼이라는 포수가 발견하였다 전해진다. 이 약수터 위에 아기장수가 혼자 마시던 장군약수라는 약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기장수가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덮어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29

Tracksite of Pterosaurs, Birds, and Dinosaurs in Hotan-dong, Jinju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4호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68번길 22(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내) | 지정면적 6,170m² | 지정일 2011년 10월 14일





문화재 현황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호탄동일원은 호수 주변부 지대에서 퇴적된 사암, 이암, 셰일 및 응회질 사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룡·새·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퇴적층은 주로 이암, 사암 및 셰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석회질을 띠고 있다. 이 퇴적층(화석산지)의 형성 시기는 중생대 전기 백악기 말에 해당하는 약 1억9백만 년 전(109Ma)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화석산지에서는 연흔(물결자국), 건열, 빗방울 자국과 같은 퇴적구조들과 익룡·새·공룡 발자국 외, 식물화석, 목재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s) 화석, 곤충화석, 저서성 갑각류 에스테리아(Estherites) 화석, 악어 발자국 및 수영 흔적 화석, 도마뱀·개구리·포유류 발자국 화석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암상, 퇴적구조, 화석)은 과거 이 지역이 온난한 건조지역의 얇은 호수에서 호수 주변부의 이질평원/사질평원 환경이었고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군집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주요 발자국 화석은 익룡발자국 2,486개, 새발자국 1,220개, 육식공룡 발자국 122개, 초식공룡 발자국 47개, 척추동물 발자국 11개 및 악어·도마뱀·개구리·포유류 발자국 등 약 4,000여개가 보고되었다. 특히 익룡발자국은 단일 장소에서 보고된 것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발자국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여러 종류의 익룡이 대규모로 서식하였다. 그리고 일부 익룡발자국 중에는 앞발자국에 물갈퀴가 있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익룡발자국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다수의 익룡발자국은 발가락 마디와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확인된 익룡 보행렬은 78개이고 이 중 앞·뒤발자국이 모두 찍힌 4족 보행렬이 33개 이상 보고되었다.



익룡발자국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는 익룡발자국 다음으로 중생대 새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대부분의 발자국은 물갈퀴가 없는 새발자국이나 2종 이상의 물갈퀴 새발자국도 보고되었다.

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과 함께 공룡 발자국이 다수 확인되었다. 초식공룡(조각류와 용각류) 및 육식공룡(수각류)의 발자국이 모두 나타나는데 육식공룡의 발자국이 가장 많다. 육식공룡 발자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육식공룡(랩터) 발자국이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 *Koreasaltipes jinjuensis*이 세계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도 보고되었다.

자연·인문환경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 사업 조성 공사 구역 내 화석분포 조사(입회 조사) 중 진주교육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새로운 층준에서 익룡발자국·새발자국·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대규모로 발견되어 긴급 구제 발굴과 보존 지역 외 화석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진주 혁신도시 개발 사업 부지 내 화석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진주혁신도시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0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되었다.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보호, 연구 및 교육 활용을 위해 2019년 11월 「진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주 익룡발자국 전시관이 건립·개관되었다. 3차에 걸쳐 발굴된 대다수의 화석 표본들은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상설전시 및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야외 중요 발자국 화석산지는 보호시설로 보존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이 매우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발견되어 중생대 백악기 당시 익룡의 행동특성(보행자세, 보행속도 등)연구와 익룡의 해부학적 특성(물갈퀴 여부, 비행 착지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 익룡의 대규모 서식지로서 한반도 익룡의 고생물지리와 고환경 연구에 있어 중요한 화석산지이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새발자국화석과 세계 최초로 보고된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 *Koreasaltipes jinjuensis* 및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발자국 화석 등은 중생대 전기 백악기 말의 고생물 진화와 고생태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새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조류 진화사 연구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 보고된 익룡·새·공룡·악어·도마뱀·개구리·포유류 등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과 식물·목재화석, 곤충화석, 저서성 갑각류 화석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등은 단일 지역 내 한반도 최고의 생물다양성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지구적인 백악기 공룡시대의 고생태와 고환경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연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다양한 학술적 가치 외에도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뛰어난 입지환경과 전시관을 갖추고 있어 자연유산 교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갖고 있다.



도마뱀 발자국



개구리 발자국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 화석

30

Nest of Theropod Dinosaur Eggs from Aphaedo Island, Sinan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5호 |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5(목포자연사박물관) | 지정면적 1점 | 지정일 2012년 6월 27일





문화재 현황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 후기(약 8,500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공룡 화석이 산출된 퇴적층은 붉은색의 이암과 렌즈상의 역암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역들의 원마도는 불량하고 평행층리를 보인다. 이암층은 수십 cm 내지 2m 내외 두께로 발달하고 층리는 관찰되지 않는다. 노두의 여러 곳에서 과거 하도(舊河道, old river channel)의 변화를 알려주는 역암층과 건조한 기후임을 지시하는 석회질 단괴(calcrete) 및 무척추동물의 흔적(burrows) 화석이 나타난다. 공룡알은 부분적으로 고토양 기원의 석회질을 띠는 붉은색 사질이암에서 발견되었다.

공룡알은 단일 수평층에 19개가 큰 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알들이 두개씩 쌍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있는 거의 완벽한 등지형태이다. 공룡알 등지의 규모는 직경 약 2.3m이며 등지에 보존된 공룡알들은 긴 타원형으로 가장 큰 알은 그 길이가 43c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알 중 가장 크다. 공룡알은 개체에 따라 38.5cm에서 43.0cm 사이 크기이며 알의 두께는 1.53mm~2.86mm로 매우 두껍다. 또한, 공룡알의 껍질 표면에는 독특한 특징적 무늬가 잘 발달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이 공룡알 등지가 육식공룡(수각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지시한다. 알의 상부 중앙이 깨어져 있고 알의 내부는 겉을 싸고 있는 암석과 같은 붉은색 사질이암으로 채워져 있으며 알 개체 주변에 많은 양의 알 껍데기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공룡알들은 이미 부화한 후 화석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공룡알 등지 화석은 ‘마크로엘롱카투리스(*Macroelongatoolithus*)’ 라는 학명의 공룡알 화석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보고되었으며 완벽한 공룡알 등지 형태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공룡알 등지 화석은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이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535호로 지정되었다.



자연·인문환경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은 2009년 9월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 연구원에 의해 압해대교 건설 공사로 노출된 산사면 절개지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도로에 낙석방지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쪽에 육식공룡(수각류)의 것으로 보이는 타원형의 공룡알 화석 일부와 알 껍데기 파편들이 겹겹이 쌓인 형태로 약 20여점 노출되어 있었다.

공룡알 등지 화석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장 학술조사와 발굴조사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실시되었다. 발굴된 공룡알 등지 화석은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실내 보존처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11년 5월 목포자연사박물관 내 상설전시관을 개관하여 공개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공룡알(또는 공룡알 등지) 화석은 경남 통영에서 보고된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육식공룡의 등지 화석을 제외하면 모두 초식공룡의 알(또는 등지) 화석이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은 지름 2.3m, 높이 0.6m, 무게 3톤에 보존상태가 좋은 19개의 육식공룡 알이 일정한 규칙을 보이며 잘 보존되어 있는데, 산출규모와 보존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된다. 이 공룡알 등지 화석과 유사한 화석은 중국에서만 보고되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히 산출되는 초식공룡의 알 등지 화석과 달리 육식공룡 알 등지 화석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발견된다. 특히 공룡 알 등지의 원형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고 공룡 알 크기(길이)가 40cm 이상 대형이며, 육식공룡의 알이라는 것은 이 공룡알 등지 화석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고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생대 백악기 후기 고지리, 고환경 및 육식공룡의 산란습성과 분포지역, 이동경로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공룡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은 우리나라 지질분야 천연기념물 중 처음으로 단일 개체가 지정된 사례이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Columnar Joint in Yangnam, Gyeongju

31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6호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공유수면 | 지정면적 130,011m² | 지정일 2012년 9월 25일





문화재 현황

백악기 퇴적암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역에 마이오세 초기에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응회암이 쌓이고 현무암질 용암도 흘러내렸다. 용암을 분출한 화산의 위치는 아직 확실하게 연구되지 않았으나, 현무암질 용암은 점성이 낮아 먼 거리까지 흘러 이동할 수 있어 양남 주상절리가 위치하는 일대 여러 곳에서 현무암의 노두를 볼 수 있다. 양남 주상절리는 이 현무암질 용암의 일부에 형성되어 있다.

주상절리는 비교적 균질하고 등방성이 강한 암석에서 잘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용암이나 응회암과 같은 화산암류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맥암과 같은 관입암에서도 간혹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화산암의 경우 여러 종류의 암종에서 나타나는데 유문암이나 안산암, 현무암 등에서 다양하게 발달하고, 응회암에서도 간혹 발달한다. 주상절리는 분출 초기에 수 백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의 용암이나 응결응회암과 같은 고온의 응회암이 서서히 냉각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냉각절리에 해당한다. 용암이나 응회암은 지표를 흘러내리거나 퇴적되므로 암층들은 보통 수평으로 형성 되고, 냉각은 암층의 바닥 쪽이나, 공기 중에 노출되는 위쪽으로부터 암체의 가운데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상절리를 형성하는 냉각절리는 냉각이 시작되는 면에 직각 방향으로 성장하여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상절리는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직 방향의 절리들로 인해 암체는 열주^{열주} 모양으로 보이게 되어 기둥모양의 절리라 하여 주상절리라 한다. 주상절리의 단면은 이론적으로는 육각형이나 흔히 오각형, 사각형을 이룬다. 이곳의 주상절리도 육각형보다는 오각형이나 사각형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대략 직경은 20cm에서 100cm에 이른다.

현재 양남 주상절리는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상절리의 발달 시기에는 해안선이 더 멀리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고온의 현무암이 물과 접촉하였다면 주상절리가 발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추론들은 주상절리가 형성되는 마이오세 초기 해안선의 위치를 추정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자연·인문환경

주상절리가 형성되는 현무암은 읍천향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대략 2km 구간에 분포하며 해안선에 연하여 있다. 부채꼴 형태의 주상절리의 발달이 가장 뚜렷한 곳은 그 가운데 읍천향으로부터 약 500m 남쪽에 위치한다. 그 외의 나머지 구간에서도 주상절리들이 잘 발달하고 있다.

주상절리는 배후에 절벽이 있는 조간대에 위치하여 있고, 해안단구의 형태를 보이는 절벽 상부에는 주민들의 주거지와 카페나 숙박시설 등 일반 상업시설들이 다수 형성되어 있다. 해안 절벽으로부터 100m 이내 서측에는 31번 국도가 해안선과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주상절리는 다양한 화산암류에서 흔히 발달하는데, 양남의 주상절리는 현무암에서 발달한다. 높은 온도의 현무암이 서서히 냉각되면서 주상절리가 형성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수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주상절리들은 흔히 알려지고 있으나, 양남 주상절리와 같은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 양남 주상절리는 수평 또는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어 다른 주상절리들과는 형태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이곳 현무암질 용암의 흔하지 않은 특별한 냉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양남 주상절리는 용암의 산출상태나 해수면 변동과 같은 과학적 연구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양남 주상절리는 인접 지역과는 해안단구 형태의 절벽으로 격리되어 있어 천연기념물이 인위적인 훼손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주상절리가 비록 조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파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모암이 풍화나 침식에 강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보존이 양호하여 높은 자연사적,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32

Basalt Gorge and Bidulginangpokpo Falls of Hantangang River, Pocheon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37호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산415-2 등 | 지정면적 31,619m² | 지정일 2012년 9월 25일





문화재 현황

서울에서 원주를 잇는 북북동 방향의 선형구조를 추가령지구조선 혹은 추가령지구조대라 한다. 이 추가령지구조선 상의 북한 지역 평강 검불랑 오리산에서 대략 20만년 전인 신생대 제4기 동안 많은 양의 현무암 용암을 분출시킨 화산 활동이 있었다. 이때 분출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철원 동송 일대에서는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고, 지금과는 다른 고#한탄강을 따라 흘러내리며 명우리를 지나 전곡으로 흘러내려갔다. 높은 온도의 현무암 용암은 점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멀리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고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의 일부가 이곳 대회산리에서 계곡의 낮은 지대로 흘러들면서 작은 현무암 대지를 형성하였다.

대회산리에 작은 용암대지가 형성된 후, 대회산리 일대에 집수되는 물, 특히 우기의 다량의 우수는 한탄강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유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둘기낭으로 유입되는 불무천 계류의 유로와 협곡을 보아, 이 새로운 소하천은 주로 기반암과 현무암의 경계부 부근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발달은 측방 침식과 더불어 하각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천의 하방 침식 작용은 하천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암석의 조직 혹은 지질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곳에 형성된 새로운 계류의 바닥에서는 활발한 하방침식작용이 일어났고, 이것이 비둘기낭 폭포와 협곡을 형성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둘기낭 폭포 부근의 현무암은 대략 상부와 하부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상부는 대체로 절리 간격이 넓은 괴상의 특징을 보이나, 하부 현무암에는 수직의 주상절리들이 잘 발달하고 있다. 이 주상절리들의 간격은 상대적으로 좁아 다른 지역에 발달하는 주상절리들에 비해 직경이 작은 기둥들을 형성하고 있다. 하천의 하각작용은 절리나 단열들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구조적 약대에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상부의 괴상 현무암에서는 쉽게 침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침식 면이 하부의 주상절리가 다수 치밀하게 발달하는 곳에 이르면서 더 빠른 침식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은 점진적으로 후퇴하면서 낙차가 발생하는 폭포를 만든 것이 비둘기낭 폭포다.

자연·인문환경

영중면과 영북면 사이에 있는 불무산에서 발원하여 대회산리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불무천은 계곡의 남단을 따라 발달되어 북서쪽으로 흘러 한탄강에 합류한다. 현무암 협곡은 한탄강 본류에 유입되는 불무천의 하구로부터 대략 150m 연장되며, 협곡의 상류 끝부분에 비둘기낭 폭포가 폭호와 함께 발달되어 있다. 협곡과 폭포의 동측은 한탄강변으로부터 계곡 안쪽으로 계곡을 충진한 현무암 용암이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용암대지의 형태를 보이며 저평한 분포를 보인다. 폭포 서쪽 산사면에는 능선을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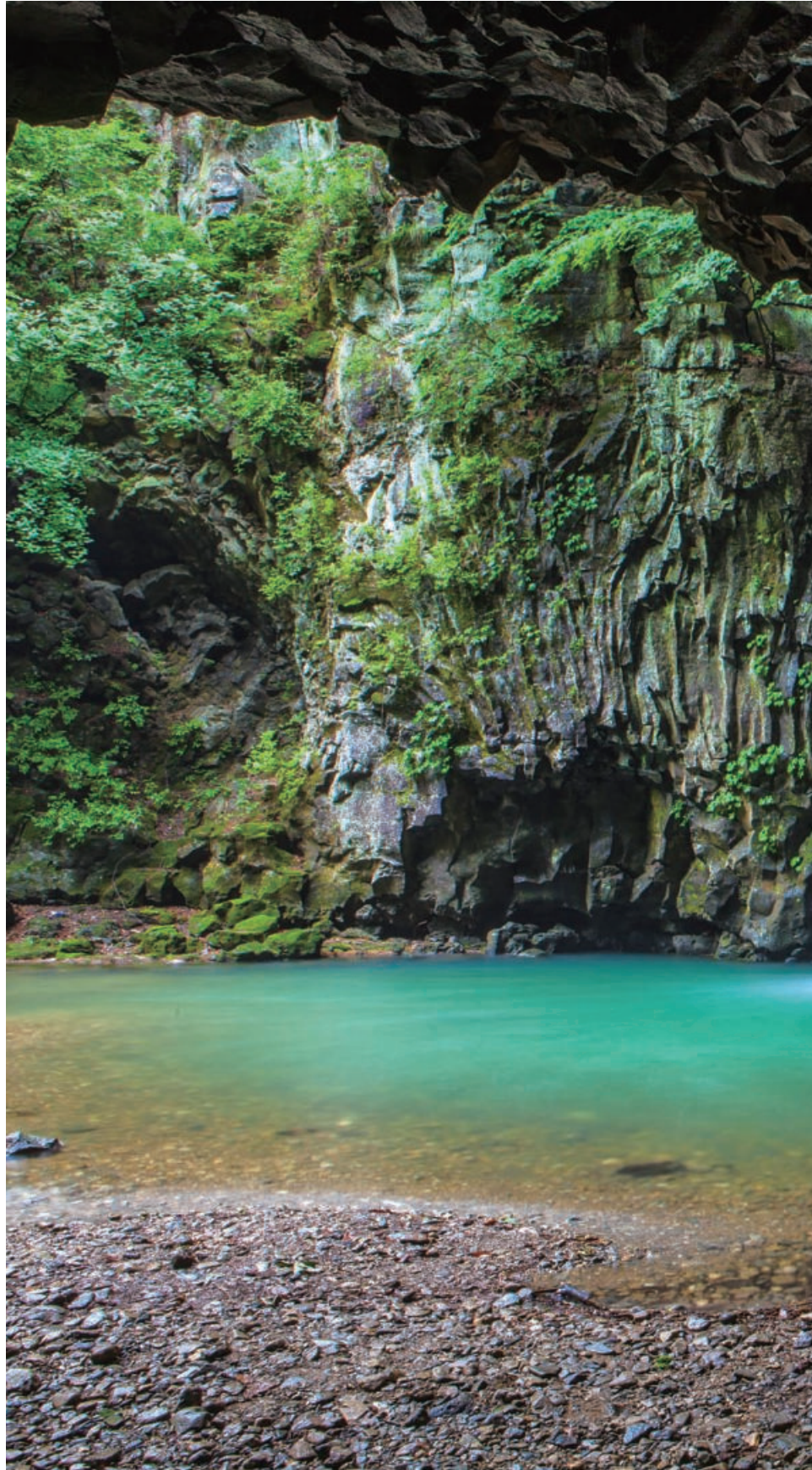
문화재적 가치

포천 비둘기낭 폭포
와 현무암 협곡은 규
모가 크지는 않으나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들을 보여준다. 현무암 용암의 유입과 새로운 하천의 형성이라든가 하천의 침식 작용과 침식 결과로 나타나는 포트홀이나 마식지형, 현무암 용암에 발달하는 주상절리, 폭포의 발달 기구, 협곡의 형성 등 이 지역의 지질과 지형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비둘기낭 폭포가 발달하는 현무암에는 수직 주상절리가 매우 치밀하게 발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인장단열들의 발달이 많다. 폭포의 형성이 그러하듯 폭포의 하부는 이러한 지질구조적 취약성에 따라 지금도 활발한 침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기에 하천의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유수에 의한, 혹은 유수에 동반되는 사력이나 암괴에 의한 물리적 파손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 진화과정에 속한다. 불무천 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가능성은 폭포와 협곡의 자연유산적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둘기낭이라는 명칭은 폭호와 함께 폭포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이 마치 비둘기 둥지와 같은 형상이라 하여 불려오던 이름이며, 과거에는 실제로 많은 비둘기가 이곳에 깃들어 살았다고 전해진다.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Pillow Lava in Auraji, Pocheon

33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2호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98 등
지정면적 문화재구역 18,146m², 문화재보호구역 128,770m² | 지정일 2013년 2월 12일





문화재 현황

베개용암은 용암이 지표면을 흘러가는 과정에서 흐름의 앞부분에서 형성되기도 하나, 가장 흔한 경우가 용암이 수중에서 분출되거나, 육상에서 분출된 용암이 물속으로 흘러들면서 형성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베개용암은 대서양 중앙해령과 같은 해저 화산지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해저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은 해수와 접하면서 폭발적 급냉쇄설화(quickench-fragmentation) 현상이 일어나기도하나 덩어리 모양으로 쌓이기도 한다. 이렇게 쌓인 용암의 덩어리가 마치 베개모양을 이룬다하여 이 용암 덩어리들을 베개용암이라 한다. 따라서 베개용암은 용암의 성분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다. 서울-원주 간의 추가령지구조대 중간에 위치하는 평강 검불랑 오리산에서 대략 20만년전 신생대 제4기 동안 많은 양의 현무암 용암을 분출한 화산활동이 있었다. 높은 온도의 용암은 점도가 낮아 멀리까지 흘러내릴 수 있다. 이 용암이 지금과는 다른 고#한탄강을 따라 철원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내리며, 아우라지에서 영중면으로부터 흘러온 고영평천을 만난다. 고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의 일부는 이곳에서 고영평천으로 역류하여 작은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다. 용암이 고영평천합류지점에 도착한 초기에 용암이 고영평천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수와 만나 물속으로 유입되었다. 용암의 덩어리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쌓여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을 형성하였다.

베개용암의 형태적 특징은 상부면은 완만한 볼록한 면을 이루나 아랫면은 하위의 모양에 따라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다. 베개용암의 형성 시기에 용암과 물과의 큰 온도차로 인하여 급냉쇄설화 과정에서 발달하는 쇄설물들이 흔히 베개용암 사이 간극을 채운다. 그러나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한탄강변의 공격사면에 노출되어 있어 간극을 채우고 있던 쇄설물들이 대부분 유실되고 빈 공간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과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용암이 만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베개용암의 표면은 세립화 되어 있거나 유리질로 되어 있어 치밀하고 매끈한 모양을 이루고, 급속 냉각에 따른 단열들이 발달되기도 한다. 베개용암의 단면에서는 방사상 단열들이 발달되거나 동심원상의 조직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연·인문환경

영평천이 한탄강에 합류하는 영평천 하구의 북쪽에 위치한다. 베개용암의 분포는 한탄강 동남쪽 하안단애의 아랫부분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베개용암의 상위는 주상절리들이 발달하는 두터운 현무암 용암으로 덮혀있다. 합류지점으로부터 대략 250m 내외 구간에 한정적으로 분포하며, 하부로도 현재의 한탄강 강바닥 밑으로는 연장되지 않으며 하상으로도 연장 분포하지 않는다. 한탄강을 따라 상류나 하류로도 더 이상 분포하지 않으며, 영평천을 따라 상류로도 발달 하지 않고 있어 주상절리를 발달시키는 상부 현무암 속으로도 분포 연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적 가치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용암이 물과 접하면서 형성되는 대부분의 베개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이 많은 수증화산이나 용암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역에서 흔하게 형성된다.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형성과 관계되는 물의 종류가 바닷물이 아닌 담수라는 것에 특별함이 있다. 육지 하천환경에서 형성된 베개용암이라는 점이 흔히 발견되는 해양성 베개용암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특별한 성인을 가지는 베개용암은 국내나 국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드문 경우이다.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형성시기의 고한탄강과 고영평천의 고하천의 유로를 복원한다든가, 한탄강이나 영평천의 하천 진화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 베개용암의 상부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두터운 현무암 용암층이 발달하고 있어 용암의 분출량이나 분출 주기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베개용암이 하안에 발달하는 절벽 하부에 위치하고, 앞으로는 한탄강으로 차단되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인위적인 훼손 가능성이 낮아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다만 베개용암이 견고하게 서로 교착되어 있다고 하나, 한탄강 유로의 공격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으로 인한 침식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Potholes on Yoseonam Rock in Mureung-ri, Yeongwol

34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3호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1423 | 지정면적 35,927.5m² | 지정일 2013년 4월 11일





문화재 현황

하천이 발달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하천을 이루는 유량이나 유속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천이 형성되는 지점의 지질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토양의 심도나 암석의 종류, 암석의 조직, 지질구조 등이 하천의 발달과 형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 하천은 측방 침식과 하각작용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확장하거나 깊이를 증가시킨다. 하천의 하각작용은 하상을 침식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하각작용으로 하천 바닥에 돌개구멍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요지^{凹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형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하천에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돌개구멍은 하천뿐 아니라 해안 파식지에서도 형성되는데, 유수의 침식으로 형성되는 원형 혹은 타원형 구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돌개구멍은 하천의 상류에서 잘 만들어지는데, 유속이 빠르고 하상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에 만들어진다. 하천을 따라 움직이던 모래나 자갈들이 하상의 요지에 갇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면서 물이 일으키는 와동류에 의해 회전하면서 지속적

으로 바닥을 갈아내어 만들어진다. 돌개구멍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상의 암반 강도가 높고 균질하거나 등방성이 강한 암석이어야 잘 형성된다. 층리나 절리구조 등의 발달이 많거나 강한 편리를 보이는 암석에서는 돌개구멍이 형성되기 어렵다. 보통 돌개구멍의 크기는 다양하여 수cm에서 크게는 수m에 이르고, 형태는 보통 상부가 하부보다 넓거나 같은 단면을 가지는데, 상부가 하부보다 좁은 항아리 모양을 이루기도 한다.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은 남한강의 지류인 서강의 상류 주천강의 일부 구간에 하천의 하각작용이 하상에 남긴 흔적이다. 주변은 주라기 화강암과 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류들이 접하는 곳으로, 요선암은 화강암이 하상에 노출된 곳에 해당한다. 돌개구멍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된 경우도 있고, 돌개구멍들이 커가면서 서로 간섭현상이 일어나 형태가 파괴되거나 겹쳐진 모습을 이루기도 한다. 일부 돌개구멍 속에는 원마도가 양호한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 있는데 이 사력들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돌개구멍 안쪽을 마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인문환경

주천강은 요선암에 이르기 직전 수주면 법흥리에서 내려온 법흥천과 합류하여 요선암으로 흐른다. 합류지점으로부터 약 150m 아래 주천강 하상 약 300m 정도 구간에 화강암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이 가운데 대략 200m 구간에서 하천의 하각작용으로 형성된 돌개구멍이 집중되어 나타난다. 돌개구멍은 하상 암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요선암 남쪽 설구산이나 북쪽의 요선정과 미륵암이 있는 지역도 동일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돌개구멍이 형성될 수 없다. 요선암 상류의 주천강 하상도 동일한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돌개구멍이 국부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요선암과 같이 특징적인 발달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문화재적 가치

하천 바닥에 형성되는 여러 형태의 돌개구멍은 우리나라 하천에서 크기에 상관없이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발달하여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돌개구멍은 하천의 하각작용의 하나로 하상을 마모와 침식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특별한 형태이다. 요선암 돌개구멍은 형태적으로 독립형이나 하도형을 보이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돌개구멍이 배열되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돌개구멍의 크기는 대부분 직경 1m 이내이나 크게는 직경 1.5m에 이르며 깊이도 2m에 이르는 대형 돌개구멍도 있다. 이와 같이 크기와 형태가 다른 다수의 돌개구멍들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하천의 발달이나 유수에 의한 하방침식작용, 돌개구멍의 형성 기작, 돌개구멍의 진화 등을 연구 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돌개구멍들이 집단적으로 발달하는 독특한 하천 경관은 자연유산으로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요선암은 돌개구멍이 발달하는 하상에 드러난 암반을 말하며 특이한 형상으로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졌다. 돌개구멍들이 하천에 발달하고 있어 인위적인 훼손이 없어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Green Earth Pigment (Celadonite) Site in Noeseongsan Mountain, Pohang

35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7호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 지정면적 2,841m² | 지정일 2013년 12월 16일





문화재 현황

우리나라 전통 단청에서 옥색을 내기 위하여 사용하던 안료의 재료로 뇌록이 흔히 사용되었다. 뇌록은 단일성분의 광물이 아니고 집합광물이다. 단청 안료로 쓰기 위해서는 뇌록을 가루로 만들고 물에 침수시켜 앙금을 만든 후, 이것을 다시 말려서 녹인 아교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도 로마시대로부터 안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록을 구성하는 광물 중 주성분 광물은 쉘라도나이트(Celadonite) 혹은 스비탈스카이트(Svitalskite)라 하는 일종의 점토광물로, 결정형은 이중팔면체형(Dioctahedral)으로 운모류 광물이며 단사정계에 속한다. 일반적인 쉘라도나이트의 광물 성분은 $KFe^{+3}(Mg, Fe^{+2})[Si_4O_{10}](OH)_2$ 로 표현된다. 간혹 퇴적환경에서도 산출되나 전형적인 현무암의 열수변질광물로 흔히 현무암질 암류의 단열과 같은 공극에서 산출된다.

국내에서도 흔하게 산출되지 않는 희귀한 광물이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뇌성산에서 산출되며, 황해도 풍천군, 평안도 가산군에서도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포항 뇌성산에서 산출되는 뇌록은 주성분광물인 쉘라도나이트와 소량의 녹니석(Chlorite)과 스멕타이트(Smectite) 혼합층광물, 모데나이트(Mordenite), 단백석(Opal)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쉘라도나이트는 석영이나 담백석을 수반하고 적철석이나 자철석, 방해석 등과 함께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는 현무암과 현무암질 화산쇄설암에 발달하는 단열들을 따라 맥상으로 또는 간극충진상으로 산출된다. 역사 기록에는 많은 양의 뇌록을 이곳에서 채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나 현재에는 극히 제한된 양만 발견되고 있다. 노두에서 간극충진 형태로 산출되는 뇌록은 폭이 4cm 내외에 이르는 부분도 있으나 매우 불규칙하고, 남아 있는 맥상의 뇌록은 폭이 수mm에 불과하여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취하기는 어렵다. 뇌성산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뇌록이 산출되며, 뇌성산 북쪽 성동리 광정산 남쪽에서도 뇌록의 산출이 확인된다. 뇌록의 안료로의 기능성은 광물 입자 $71\mu m$ 이하에서 잘 나타나며 가장 우수한 것은 $32\mu m$ 이하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다.



자연·인문환경

포항시 장기면 뇌성산 일대 대부분 지역은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의 화산쇄설성퇴적암으로 이루어진다. 뇌록은 이들 중에 포함되는 분출 현무암의 분포지에서 산출된다. 뇌성산 일대 여러 곳과 인접한 광정산 일대에서도 뇌록의 산출이 확인된다. 그러나 대부분 산출량이 미미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출지에서 뇌록의 산출이 가장 뚜렷하고, 과거 이곳에서 채취된 뇌록이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 안료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뇌록의 채굴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수m에 불과하지만 뇌록이 산출되는 광맥을 따라 소규모로 굴진한 흔적도 남아있다.

문화재적 가치

전형적인 뇌록은 현무암의 열수변질광물이므로 포항 장기리 뇌성산 뇌록도 현무암에서 발견된다. 현무암에 발달하는 주상절리와 인장 단열로 형성되는 틈들을 뇌록이 충전하고 있다. 맥상으로 산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망상의 열수광맥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뇌록은 우리나라 전통단청에서 옥색을 내기 위하여 사용하던 중요한 안료의 재료이나 산출지와 산출량이 극히 제한적인 희귀한 광물이다. 우리나라 남부에서는 뇌성산이 유일한 산출지이며 북부에서도 산출지로 황해도 풍천군, 평안도 가산군 정도로 알려진다.

뇌성산 뇌록산지는 과거 뇌록을 채취하였던 생산현장이었다. 따라서 뇌록 생산과정에서 자연지형은 크게 변형되었다. 지금은 자연의 복원과정에서 따라 부분적으로 식생이 발달하고 있으나 역사성을 가지는 산업현장으로서의 비교적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인다.

조선시대 궁궐이나 사묘, 성곽의 문루 등 국가 주요시설의 단청에 사용되는 전통안료의 공급지 역할을 한 역사 문화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2008년 송례문이 소실되고, 2010년 복원작업이 시작되면서 송례문 복원에 사용할 우리 전통단청 재료가 부각되면서 뇌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뇌성산 뇌록산지가 재조명되었으나 충분한 뇌록을 채취할 수 없어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36

Tracksite of Dinosaurs and Pterosaurs in Sanbuk-dong, Gunsan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8호 |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47-17 | 지정면적 4,109m² | 지정일 2014년 6월 11일





문화재 현황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 산북동일원은 충적평원 내지 호수 주변부의 평원지대에서 퇴적된 사암, 이암, 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룡과 익룡발자국이 발견된 퇴적층은 주로 셰일과 실트암 및 세립질 사암이 반복해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공룡과 익룡발자국은 밝은 회색의 실트질 이암층에서 관찰된다.

화석산지와 그 주변 퇴적층에서는 연흔(물결자국), 견열, 빗방울 자국과 같은 퇴적구조들과 무척추동물의 흔적, 저서성 갑각류인 에스테리아^{Estherites} 화석 및 구과상 나자식물인 송백류^{Coniferopsida}에 속하는 식물화석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암상, 퇴적구조, 화석)은 과거 이 지역이 온난한 온대지역의 얕은 호수 환경이었고 강수에 따라 수위 변화가 잦았으며 시대는 중생대 백악기 전 기임을 지시한다.



화석산지에서는 초식 및 육식공룡의 발자국 외 익룡발자국이 함께 발견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발자국은 화석산지 내 3개 층준에서 공룡 발자국 425개와 익룡발자국 26개이다.

공룡 발자국은 80% 이상이 초식공룡인 조각류의 발자국으로 발자국의 크기(길이)는 약 32cm~51cm로 대형이며 층석학적, 고지리학적 위치와 국내에서 발견된 골격들을 근거로 이 발자국을 남긴 조각류 공룡은 ‘원시 하드로사우루스상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화석산지에 보존된 초식공룡의 발자국은 이 공룡들이 매우 천천히 무리지어 두 방향(북서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이는데 당시 이 지역에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북동 화석산지에서 발견되는 초식공룡 조각류 발자국은 둥글고 큰 발꿈치 자국과 짧고 넓은 발가락 자국, 길이가 너비보다 긴 형태 등의 생존분류학적 특징으로 볼 때 ‘카리리크니움(*Caririchnium*)’의 발자국에 속한다.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카리리크니움(*Caririchnium*) 발자국은 국내 최대 크기이다. 화석산지에서는 10여개의 초식공룡 조각류가 남긴 보행렬이 관찰되며 이 중 39개의 연속된 발자국으로 이루어진 보행렬은 그 길이가 약 39m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보행렬 중 가장 길다.

육식공룡(수각류)의 발자국은 소형 발자국과 대형 발자국이 확인되었다. 발자국 길이 40cm 이상의 대형 육식공룡 발자국은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이 발자국은 전기 백악기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된 ‘아크로켄토사우르(*Acrocantbosaurus*)’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이레네사우리푸스(*Irenesauripus*)’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화석산지 내 보존된 육식공룡 발자국으로 보아 대형 육식공룡은 화석산지의 동쪽으로 혼자 이동하였고, 소형 육식공룡들은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행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인문환경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군산시 군산국가산업단지 도로건설로 드러난 사면에서 2013년 7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군산 지질도폭 제작을 위한 현지 조사 중 발견되었다.

화석산지를 포함한 이 일대는 과거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지역이었으나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으로 육지화 되었으며 현재는 넓은 평야지대이다. 화석산지는 낮은 구릉의 형태로 대규모 산업단지에 인접하고 논과 농가로 둘러싸인 고립된 작은 노두(퇴적암반)이며 이 노두의 크기는 약 720m²(16m×45m내외) 규모이다. 북서-남동 방향 도로변의 남서측에 약 10m 정도의 높이로 위치한 화석산지는 북동 방향으로 약 22°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화석산지 사면 하단의 도로변 암반 노출면에서도 초식공룡 조각류의 발자국 6개가 보행렬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이 발자국 화석은 발굴되어 지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대형 수각류 보행렬

문화재적 가치

지금까지 전북지역에서 보고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제외하면 부안 격포리 해안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유일하다.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육식 및 초식 공룡발자국과 익룡발자국이 함께 산출되는 전북지역 최초의 화석산지로 중생대 백악기 당시 공룡의 행동특성과 고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석산지이다. 특히 좁은 공간(면적)에 군집행동을 보여주는 11개 이상의 초식공룡(조각류)의 보행렬과 국내에서 보고된 가장 긴 초식공룡 보행렬(39m) 및 국내 최대 크기 조각류(카리리크니움 *Caririchnium*) 발자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길이 40cm 이상의 대형 육식공룡 발자국은 한반도에 대형 육식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지시하는 증거이다. 또한, 이 화석산지는 한반도 전북 서해안 공룡 서식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기존 경상도~전남지역의 공룡화석산지와 경기지역 공룡화석산지를 연결하는 한반도 공룡시대의 고생물지리와 고환경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다양한 학술적 가치 외에도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뛰어난 입지환경(접근성, 도시 내 위치,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인 점 등)으로 인해 현장 교육 자료로서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갖고 있다.



초대형 조각류 발자국 화석



정선 용소동굴

Yongsodonggul Cave, Jeongseon

37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9호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산538-1 등 | 지정면적 36,443m² | 지정일 2015년 1월 16일





문화재 현황

정선 용소동굴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약 5억 2천만 년 전 사이, 전기 고생대에 해당하는 캄브리아기 중기에 퇴적된 대기층(풍촌층) 내에 분포한다. 대기층은 얇은 바다에서 퇴적되었으며 주 구성암석은 석회암이다. 국내 대부분의 석회동굴이 대기층의 석회암 내에 발달하고 있다. 석회동굴의 생성시기는 한반도가 형성된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2백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제4기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소동굴의 총 연장은 약 250m+ α 로 이중에서 육상구간이 약 30m이고 수평, 경사, 수직으로 이루어진 수중통로 구간이 약 220m+ α 로 대부분 수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중동굴이다. 동굴입구의 해발고도는 약 715m이며, 동굴 내 수중통로가 시작되는 호수지점의 해발고도는 약 711m이다. 이 지점에서 수심 약 50m(해발고도 약 660m)까지 조사된 동굴로서 용소동굴의 통로는 계속 연장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수심과 규모는 더 증가 될 수 있다. 동굴 내 육상구간의 일부 구간에 유석과 동굴산호가 소규모로 발달하며, 수중구간에는 동굴생물체가 없으나 석회암동굴의 형성과정과 석회암지대에서 지하수의 유동 등을 밝힐 수 있는 미지형 등이 관찰되고 동굴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나 수중에서 도롱뇽 등이 확인된다.



용소동굴 내 수중통로

자연·인문환경

용소동굴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마을 내 하천(평상시 건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약 715m의 산간지역에 분포한다. 주변으로는 소규모의 산간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민속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정선백전리물레방아'가 위치하고 있다. 동굴내부에 장축 약 3m 규모의 호수가 존재하며, 항상 동굴수가 채워져 있어서 집중호우시 입구로 동굴수가 흘러나온다. 동굴은 입구 뒤편의 산사면(남서쪽 방향)으로 발달하며, 동굴입구 주변으로 용출되는 지점이 여러 곳이다.

문화재적 가치

용소동굴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가운데 수심이 가장 깊으며, 수중구간의 연장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동굴이 가지는 특이한 환경의 가치가 매우 높아,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1년과 2012년에 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에서 수중탐사를 통해서 용소동굴의 가치가 알려졌으며, 문화재청에서 2013년 기초학술조사를 통해서 용소동굴의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제시되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38

Upper Lava Tubes of Geomunoreum Volcanic Cone
(Utsanjeongul, Bug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2호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 등 | 지정면적 446,189m² | 지정일 2017년 1월 4일



대림동굴 입구



문화재 현황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는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지금으로부터 약 200만~약 1만 년 전 사이의 지질 시대)에 해당되는 20만 년 전이라고 보고되었으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약 8천 년 내외에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를 따라 발달한 용암동굴들이다.

웃산전굴의 총연장은 약 2,385m이며, 동굴입구는 2개로 1입구(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약 680m 지점에 2입구가 위치하고 있다. 굴곡통로를 갖는 다층구조의 동굴로서, 동굴의 천장이나 벽면이 붕괴되어 낙석 및 낙반이 많이 쌓여 있거나, 바닥이 함몰된 형태로 나타난다. 무너진 낙석 및 낙반에 의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통로는 거의 볼 수 없으며, 용암의 흐름과 수위를 잘 보여주는 용암유선구조, 동굴 바닥의 승상용암(새끼줄용암 또는 밧줄용암), 용암교, 다층구조,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의 미지형이 관찰된다. 웃산전굴에는 용암종유석, 용암석순, 용암유석, 용암기포 등의 용암동굴생성물과 더불어 흰색, 암회색, 노란색을 띠고 있는 원뿔 형태, 팝콘 형태, 버섯 형태, 수지 형태 등 다양한 모양을 갖는 동굴산호가 발달한다.



웃산전굴 내부 통로



웃산전굴 내 발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2차 동굴생성물

북오름굴의 총연장은 약 220m이며, 굴곡통로를 갖는 동굴이다. 북오름굴은 옷산전굴의 하류 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동굴이었으나 통로가 무너짐으로써 옷산전굴과 분리되어 입구가 생긴 동굴이다. 북오름굴도 옷산전굴과 마찬가지로 동굴의 천장이나 벽면이 붕괴되어 원형의 모습이 많이 파괴되고 바닥면에는 낙석 및 낙반이 많이 쌓여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북오름굴에는 승상용암(새끼줄용암 또는 밧줄용암), 동굴-속-동굴 등의 미지형이 발달하며, 용암중유석, 용암유석 등의 용암동굴생성물과 더불어 흰색과 노란색을 띠는 동굴산호 등이 미약하게 발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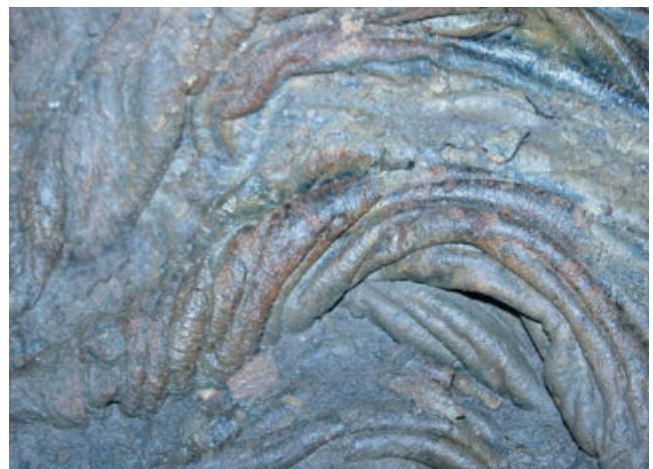
대림동굴의 총연장은 약 170m이며, 굴곡통로를 갖는 동굴이다. 대림동굴은 2개의 입구가 천장창 형태로 발달하며, 천장창 사이에는 용암교가 발달한다. 대림동굴의 상류방향인 남서쪽의 포장도



북오름굴 내부통로



북오름굴에 발달하는 용암미지형(동굴-속-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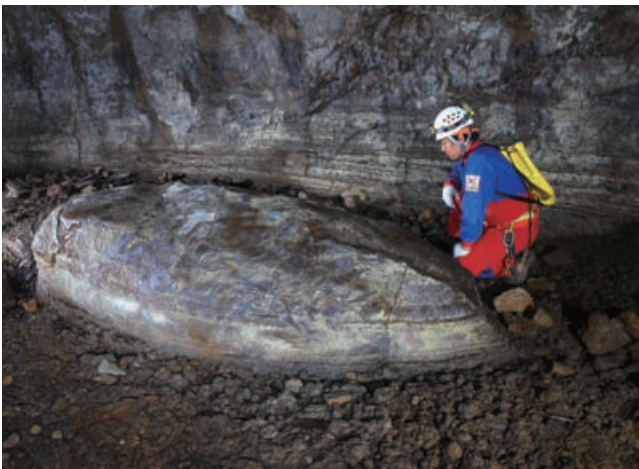
북오름굴에 발달하는 용암미지형(밧줄용암)

로 하부에도 동굴이 연장되고 있으나 붕괴위험이 있어 돌을 쌓아 메웠고 뚫려 있는 천장은 철판으로 막혀있다. 북오름굴에는 승상용암(새끼줄용암 또는 밧줄용암), 용암표석(용결낙반), 동굴-속-동굴, 찰흔 등의 미지형이 발달하며, 용암중유석, 용암중유관, 용암유석 등의 용암동굴생성물과 더불어 흰색과 노란색을 띠는 동굴산호 등이 미약하게 발달한다.

웃산전굴에는 꼬마먼지벌레류 외 30종, 북오름굴은 제주굴아기거미 외 38종, 대림굴은 뿔폴호마거미 외 32종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주도에서 확인된 동굴생물의 약 48%에 해당되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세 동굴에서 관박쥐, 큰발윗수염박쥐, 흰배윗수염박쥐, 큰집박쥐, 긴날개박쥐 등이 관찰되었다.



대림동굴 내부 통로



대림동굴에 발달하는 용암표석



대림동굴 내 발달하는 밧줄용암

자연·인문환경

거문오름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약 360여 개의 단성화산체 중의 하나이다. 제주도 동북사면의 해발 400m에 위치한 이 오름은 주변에 수 많은 동굴들이 집중되어 분포하는 곳이며, 이 화산체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가 경사진 지형을 따라 북북동의 방향으로 해안선까지 도달하면서 여러 개의 용암동굴을 포함하는 용암동굴계를 완성시킨 근원지이다. 거문오름에서부터 흘러나온 용암류를 따라 당처물동굴 주변의 바닷가까지 약 14km에 걸쳐 거의 직선으로 형성된 용암동굴계로 옷산전굴, 북오름굴, 대림동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이 이어져 있으며, 이중 거문오름에서 인접한 옷산전굴·북오름굴·대림동굴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에 해당된다.

문화재적 가치

용암동굴 내부에는 동굴이 형성될 당시의 지형이 잘 보존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용암동굴계의 진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는 용암동굴들이 가지는 매우 뛰어난 지질학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이 용암동굴계는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 위원회^{World Heritage Convention}에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와 함께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옷산전굴이 발견됨으로써 지리적 위치(거문오름이 근원지라는 증거)와 동굴 내에서 발견되는 여러 지질 및 지형적 가치가 중요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옷산전굴 내에 발달하는 용암유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지난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 중 하나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되었다. 등재 당시에도 유네스코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제주도 내 다른 동굴이나 화산적 특징을 추가로 등재할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도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어 거문오름의 경계지역이 기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인 거문오름, 빙뒤굴, 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에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인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까지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은 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있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보전이 잘 되어 있는데다 기존에 등재된 유산자원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 동굴계의 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Jurassic Conglomerate in Bongyang-ri, Jeongseon

39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6호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등 | 지정면적 138,668m² | 지정일 2019년 10월 2일





문화재 현황

역암은 퇴적암의 일종으로 여러 지질시대에 걸쳐 빈번하게 발달한다.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퇴적암이나 화산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흔하게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역암은 명승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안 마이산이 있다. 역암은 기존의 암석들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 작용에 의해 붕괴된 암석들이 이동되어 해안이나 얕은 바다 혹은 하천변이나 하천 바닥에 쌓이고, 이 자갈들이 오랜 지질시대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암석화 과정을 거쳐 다시 견고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암석화한 암석을 쇄설암이라 한다. 쇄설암은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모래 크기인 경우 사암이라하고, 자갈 크기의 것들을 역암이라 한다.

봉양리 쥐라기역암은 대략 34억년전 시생대로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번의 지각변동 가운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동안 있었던 송림변동으로 형성된 내륙퇴적분지에 퇴적된 쇄설성 퇴적물이 역암을 이룬 대표적인 육성퇴적암의 하나이다. 퇴적분지 형성 이전에 있었던 편마암이나 사암, 규암 등이 암편화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역암을 구성하는 역들도 이와 같은 종류의 암석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역의 성분이 다양한 역암을 복성역암으로 분류한다.

봉양리 역암을 이루는 역은 종류뿐 아니라 역의 모양이나 크기, 원마도, 분급도 매우 다양하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력들이 구형에 가까운 형태이거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원암으로부터 부서진 암석들이 하천을 따라 멀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바닥이나 혹은 암석 덩어리들 끼리 부딪치며 모서리가 마모되었기 때문으로, 마모의 정도를 원마도라 한다. 원마도가 높다면 구형이거나 타원형에 가까운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마도가 높은 역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먼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이해된다. 원마도가 아주 낮은 경우는 역암이라 하지 않고 따로 각력암이라 한다.

대부분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역들은 장축방향으로 배열된 모습을 보여주며, 판상을 이루는 역들은 역암층의 층리에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함께 비늘구조(imbrication)들이 발달하여 역암 퇴적 당시의 물의 흐름을 알려주기도 한다. 역의 크기는 장경이 대체로 1cm 이상 20cm 정도로 다양하지만 간혹 장경이 40cm 이상에 이르는 것도 발견되며, 역들의 사이는 입도가 가는 사질물질들로 채워져 있다. 역암에 입도가 다른 역과 모래입자들이 점이층리를 발달시켜 수류의 방향을 지시해주기도하는데, 이 점이층리를 이용하여 지층의 상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노두가 아닌 조양강 하천변에 흩어져 있는 암괴들도 상하를 판별할 수 있다.

자연·인문환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서쪽 약 1.5km 지점 정선터널 입구 주변 한강 상류인 조양강변으로부터 비봉산 정상까지 분포하며, 강을 따라 대략 500m 서쪽으로 가면 다시 역암이 강변을 따라 솔치재 터널 입구까지 분포한다. 분포 구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역암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일부는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노두의 발달이 가장 현저한 곳은 정선터널 입구쪽 도로와 하천이며, 하상에 있는 대형 암괴들은 유수에 의해 연마되어 역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적 가치

정선 봉양리 역암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구조운동의 하나인 송림변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육성퇴적분지에 발달한 쇄설성 퇴적암으로, 우리나라 중생대 지질계통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고생대퇴적층들과의 부정합 혹은 단층접촉 관계 등 특별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술적



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의 성분이 다양하여 복성역암으로 분류되는 봉양리 역암은 구성하고 있는 역의 종류뿐 아니라 모양, 크기, 원마도, 분급도 매우 다양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높은 원마도를 보이는 역들은 장경이 대략 1cm 이상 20cm 정도 되는 사암과 규암 성분의 역들과 일부 편마암 역으로 이루어진다.

흔히 발견되는 역암 노두에서는 풍화현상이나 이끼류 등의 식생 발달로 역암의 조직이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조양강변이나 하상에는 강물의 강한 마식작용에 따라 암석의 표면이 잘 연마된 전석들이 산재하여 뛰어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천과 연하여 있어 높은 경관적 가치도 자연유산적 가치를 상승시켜준다.





정선 화암동굴

Hwaamdonggul Cave, Jeongseon

40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57호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248 등 | 지정면적 3,010m² | 지정일 2019년 11월 1일





문화재 현황

정선 화암동굴의 지질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약 5억 2천만 년 전 사이, 전기 고생대에 해당하는 캄브리아기 중기에 퇴적된 대기층(풍촌층)이 분포한다. 대기층은 얇은 바다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 구성암석은 석회암이다. 대기층은 석회성분의 순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시멘트의 원료로 이용되며, 카르스트지형이 잘 발달하는 지층이기도 하다. 국내의 석회암동굴이 형성된 시기는 암석의 연령이 아닌 한반도가 형성된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2백만 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제4기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암동굴은 인공갱도 내 여러 지점에 동굴통로가 발달해 있으며, 총 연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략적인 규모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구간(대형광장)과 일부 확인된 미공개 구간을 포함해야 약 320m+ α 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규모는 더 증가될 수 있다. 화암동굴의 최하부에는 호수와 수로가 있으며, 수직과 수평통로로 이루어진 복합형태의 석회암동굴이다. 화암동굴 내에는 대형석주, 석순, 종유석, 종유관, 대형유석, 동굴산호,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다.



화암동굴 내 공개구간의 대형석순



화암동굴 내 공개구간의 유석

자연·인문환경

화암동굴 관광지 내에 동굴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주변으로 천포 금광촌, 정선군 지역 내 지질명소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 유산들을 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화암동굴 내 발달하는 동굴생성물들 중에서 석화와 곡석은 국내 다른 석회암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 크기를 나타내며, 곡석의 경우에는 크기와 밀집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학술적 및 자연유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암동굴은 외부와 연결되는 동굴입구가 없었으며,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채광하던 천포 광산 갱도 작업 중 1934년 3월에 발견되었다. 화암동굴은 1980년 2월 26일에 강원도기념물 제33호 지정되었으며, 1993년 3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관광동굴로서 활용되었다가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굴내부를 정비하기 위해 19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5월 3일까지 문을 닫았다. 2000년 6월 4일에 새롭게 단장된 테마형 화암동굴로 일반인들에게 다시 개방되었다. 화암동굴의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11월 1일에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화암동굴 내 공개구간의 종유석, 석화와 곡석



화암동굴 내 미공개구간의 석화와 곡석

명승 Scenic Site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태백 김룡소
대관령 옛길
영월 한반도 지형
영월 선돌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 서귀포 외돌개
진도 윤림산방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안동 만휴정 원림
사라오름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밀양 월연대 일원
거창 용암정 일원
화순 임대정 원림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 방선문
포천 화적연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설악산 토왕성폭포
설악산 대승폭포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설악산 울산바위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설악산 용아장성
설악산 공룡능선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청송 주산지 일원
강릉 용연계곡 일원
광주 환벽당 일원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괴산 화양구곡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화순 적벽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강진 백운동 원림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Goryeoseonwon Buddhist Garden of Cheongpyeongsa Temple, Chuncheon

41

지정번호 명승 제70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9-2 등 | 지정면적 1,091,247.15m² | 지정일 2010년 2월 5일





문화재 현황

청평사 고려선원은 이자현(1061~1125)이 청평산(오봉산) 남쪽 계곡을 선장^{禪場}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간적 틀이 마련되었다. 고려 말에는 원나라 황제 진종의 황비가 불경과 재물을 시주하였고, 조선 초 보우는 청평사를 현재와 같은 규모로 확장했다. 고려선원은 구송폭포, 영지, 청평사, 서천, 선동, 견성암 구역으로 구분되며 대표적 조경시설 영지는 청평산의 부용봉(688m)과 견성암이 못 속에 투영되는 절묘함을 보여주며 청평사 남쪽에 위치하여 남지^{南池}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형조건을 잘 활용하여 종교적 상징공간을 조화롭게 구축한 청평사 고려선원 권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회전문(보물 제164호), 청평사지(강원도 기념물 제5호), 3층석탑(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호) 등 유적이 분포한다. 아름다운 산수풍광이 아름다운 계곡을 끼고 자리한 청평사 고려선원은 영지^{影池}, 소^沼, 반석,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명승이다.

자연·인문환경

청평사 고려선원이 위치한 청평산은 다섯 봉우리가 발달하여 오봉산으로도 불린다. 마적산(785m), 오봉산(779m), 부용산(882m), 봉화산(736m)으로 이어지는 산봉우리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발달한다. 물에 의한 침식 및 퇴적지형이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단층 및 풍화지형이 나타나는 지질 구조인데, 폭포, 소, 반석, 판상절리, 암괴류 등이 승경을 이루고 있다. 식생구조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그리고 혼효림이 발달하는데, 500m 이하 산록부에는 소나무 군락이, 500m 이상에는 신갈나무가 커다란 군락을 이룬다.



고려 중기 김부철은 ‘청평산 문수원기’에서 “산수와 골짜기의 좋은 경치는 실로 뛰어나다.”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 성해응은 ‘동국명산기’에서 “절 서쪽 수백보 되는 곳에 서천이 있으니 굳고 매끄러운 반석 위로 맑은 물이 떠를 드리운 듯 흐른다. 부용산과 경운봉을 쳐다보면 기이하기 짝이 없고, 바른편으로 6, 7리 돌아들면 선동에 이르는데 작은 암자가 있다. 그 뒤 바위벼랑에 ‘청평식암’ 커다란 네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 이자현의 글씨라 한다. 암자 뒤로 깎아지른 암벽이 솟고 그 위가 송단이다.”라고 극찬하였다. 구송폭포는 소나무 아홉그루가 자라고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수직 암벽은 단정한 선비에 비유되고, 삼악산 등선폭포, 문배마을 구곡폭포와 함께 춘천의 3대 폭포로 손꼽힌다.

청평사 고려선원은 고려 973년(광종 24) 영현선사가 백암선원을 지으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1068년(문종 23) 이의가 백암선원 옛터에 보현원을 지었고, 1098년(선종 6) 이의의 아들 이자현이 36년간 은거하면서 산 이름을 경운산에서 청평산으로, 절 이름을 문수원으로 개칭하여 암廡, 당堂, 정亭, 헌軒 등 10여채를 건축했다. 조선 1557년(명종 12) 보우선사가 극락전, 구광전, 사성전, 회전문, 요사 등을 새로 짓고 능인전을 수선하여 ‘경운산 청평선사’라 하였다. 고려시대(이자현, 원진국사 승형, 문하시중 이암, 나옹왕사 등)와 조선시대(김시습, 보우, 환적당, 환성당 등)에 수많은 고승과 문인들이 수행하며 자연을 노래했다. 6·25전쟁 때 구광전과 사성전 등이 소실되었고, 극락보전과 삼성각, 능인전(대웅전) 등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층석탑, 영지影池, 문수원기비, 부도, 기우단, 천단과 제석단, 회전문 등은 청평사 고려선원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대표적 고려시대 조경유적 영지는 ‘유점사본말사지’의 부용봉영재芙蓉峯影在, ‘구당집 유청평산기(둘레는 수십보 되고, 표면으로 샘이 솟는다. 북쪽은 돌 벽돌로 둘러져 있고, 네모진 것은 땅을 형상하였다.)’, 그리고 ‘약현유고’와 ‘매월당시집’ 등을 통해 규모와 형태, 의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평사에는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화와 평양공주의 상사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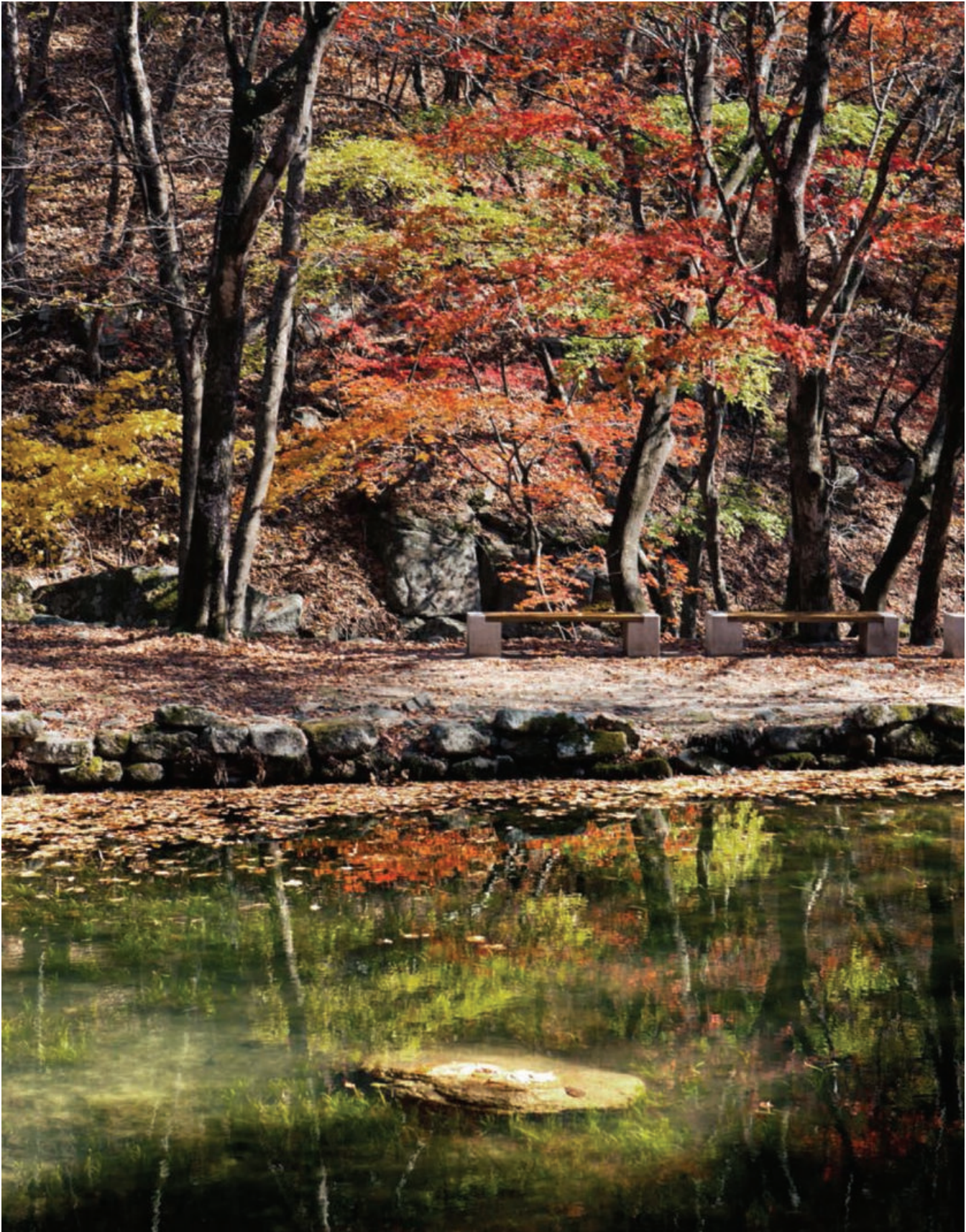
문화재적 가치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은 이자현(1061~1125)이 입산하여 청평산 남쪽계곡 일대에 조성한 선원으로, 영지를 비롯하여 선동지역의 정원유구와 바위글씨 등이 남아 있는 대표적 고려시대 정원양식이다. 고려 1089년(선종 6)에 이자현이 문수원을 중건하여 규모를 확장하였고, 지형지세를 잘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종교적 문화공간을 조화시킨 사례이다. ‘문수원기(김부철)’, ‘허응당집(보우)’, ‘구당집 유청평산기(박장원)’, ‘동국명산기(성해응)’ 등 고문헌이 전해지고, 승경을 예찬한 수많은 시문과 바위글씨, 고려시대 정원양식 등 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선원 권역에는 구송대와 구송폭포, 영지, 청평사, 청평선동, 청평식암, 견성암, 천단 등이 연속성을 이루며, 수려한 청평산 계류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절승 경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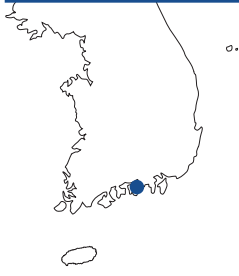
청평사 남쪽에 위치하는 영지는 고려시대 때 조성된 전통연못의 원형을 지닌 최고의 조경유적으로 평가된다. “네모난 못에 천 층의 봉우리 거꾸로 들어 있고”, “부용봉을 비추며芙蓉峯影在”, “땅을 형상화한 네모난 형태其方象地” 등의 관련 기록은 전통조경의 상징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Jukbangnyeom Fishing Facility at Jijok Strait, Namhae

42

지정번호 명승 제71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해협 | 지정면적 5,370,785m² | 지정일 2010년 8월 18일





문화재 현황

남해군의 섬 중에서 크기가 첫째, 둘째에 해당하는 남해도와 창선도 사이의 좁은 물목이 지족해협이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 물살이 매우 빠른 지족해협에는 두 섬을 연결하는 창선대교가 놓여있는데, 대교의 중간쯤에서 동쪽 해협을 바라보면 여러 개의 전통어로방식 죽방렴竹防簾이 설치되어 있는 전통 어업문화경관을 즐길 수 있다. 지족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죽방렴 경관은 거대한 V자형의 꺾쇠를 바다에 박아 놓은 것 같은 특이하고 신비한 풍경을 보여준다. 죽방렴은 대나무 어살, 또는 방전으로 불렸는데, 바닷물이 드나드는 좁은 물목에 대나무 발 그물을 세워 주로 멸치를 잡는다. 1469년(예종 1)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 남해현조’에 지족해협에서 행해지는 죽방렴을 기록하고 있다. 죽방렴은 ‘전통어로방식 어살’이란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2019)로도 지정되었다.

자연·인문환경

지족해협은 폭이 가장 넓은 곳은 약 2,700m, 좁은 곳은 약 375m이다. 조수간만의 차는 약 10m로 썰물 때에 가장 깊은 곳은 성인키를 넘지 않으나, 사리 때 수심은 10m 이상이며 유속은 시속 13~15km에 달한다. 해저는 진흙, 모래, 자갈 및 조개껍질 등이 혼합된 퇴적물로 죽방렴 설치에 좋은 조건이다. 지족해협 주변의 산지는 해발 100~300m에 이르는 장년기 지형에 해당된다. 외해와 연결된 사천만에서 서쪽의 내해인 강진만으로 밀물이 밀려드는 해류를 따라 멸치잡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죽방렴 방식 대나무 어살이 설치되어 있다. 죽방렴에서 잡히는 죽방멸치는 살아있는 것을 뜯쳐로 떠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획량은 적지만 신선도가 뛰어나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

지족해협의 창선교와 죽방렴 풍광은 오늘날 아름다운 남해12경의 제4경으로 선정되었다.

전통 어업방식 죽방렴은 참나무 말뚝 사이에 대나무로 발을 엮어 고기를 잡는데서 유래하는데, ‘대나무 어살’이라고 한다. 고려 때에는 그물눈이 큰 것을 사용하였고, 1496년(예종 원년) ‘경상도속찬지리지 남해현조’에 기록된 방전이 죽방렴으로 추정된다. 1938년에 간행된 죽방렴 관련 기록(和田長三, 漁のしるべ, 協同印刷社)을 통해 구체적인 어업 장소, 방식, 기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남해군 지족해협과 삼천포 지역에 있으며 조류가 극히 빠른 곳에 설치하는 특징이 있다. 지름 15cm의 참나무를 24cm 간격으로 세우고 사이에 쪼갠 대나무 발을 붙인 것이다. 멸치가 주 목적물이다. 참나무를 세우기 위해 가을의 썰물시에 참나무를 박고 밑 부분에 돌을 넣어 고정시키며 기둥의 중앙부위까지 돌을 쌓는다.”라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강이나 해안에 발을 설치하여 잡는 어량이 있었고, 통일신라 때 까지 행했다.”라는 내용도 죽방렴 관련기록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해안 지역의 죽방렴 존재를 확인해주는 문헌으로 ‘세종실록지리지’와 예종 원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이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도 방렴의 구체적인 숫자와 산출물 등의 기록이 전해진다.

문화재적 가치

지족해협 죽방렴은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는 지족해협 좁은 물목을 활용하여 전통 어업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곳이다. 오늘날 23개소가 존재하는데, 남해안의 전통적 어업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경관 사례이다. 죽방렴이란 명칭은 참나무 말목과 말목 사이에 대나무를 주재료로 발을 엮어 멸치를 주종으로 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 한다.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어살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었다가 건져내는 어업방식으로 이곳에서 잡힌 죽방멸치는 최고의 품질로 손꼽힌다.



오늘날 새롭게 명명된 남해12경^南 중에서 제4경(창선교와 남해지속해협 죽방렴)이며, 해양수산부 지정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2019)로도 지정되어있다. 『전통어로방식-어살(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된 죽방렴 방식은 자연환경과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보는 지식,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생활사, <어살>에서 다양한 <그물살>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가치가 잘 남아있으며, 김홍도의 풍속도화첩(보물 제527호)에도 남아있는 등 연안어업을 대표하는 어업방식이었다.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Hansingyegok Valley in Jirisan Mountain

43

지정번호 명승 제72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 지정면적 14,496,276.70m² | 지정일 2010년 8월 18일





문화재 현황

한신계곡은 상부 세석평전(細石平田)으로부터 발원하여 백무동으로 이어지는 10km 에 달하는 계곡으로서, 고운 물줄기와 바람폭포, 첫나들이폭포, 가네소폭포, 오층폭포, 한신평포 등의 수많은 폭포와 아름다운 소를 간직하고, 한신계곡 최상류의 영신봉, 촛대봉, 연하봉 등의 고봉들이 둘러싸고 있는 험준하면서도 수려한 계곡미를 보여준다. 지리산계곡 가운데 폭포를 가장 많이 끼고 있으며, 지리산 등반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인문환경

한신계곡 주위로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형성되어 있고, 백무동계곡은 크게 네 개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엄천으로 흘러 남강의 상류가 형성된다. 한신계곡은 촛대봉과 영신봉 사이의 협곡으로 만들어져 가네소폭포에서 한신계곡과 합류, 백무동으로 이어진다. 백무동에서 첫나들이폭포까지 2km 구간은 계곡과 절벽을 사이에 두고 평탄한 오솔길이 있는데 울창한 숲의 터널을 이뤄 계곡에서 울려오는 물줄기 소리와 어우러져 환상의 등산 코스로 불린다. 한신계곡의 계곡부에는 암석들이 형성되어 있고 수량이 풍부하며, 수목이 주변 경관과 잘 형성되어 있다. 신갈나무군락, 서어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사스레나무, 층층나무, 까치박달 등이 혼생하며 하층에서는 당단풍, 함박꽃나무, 쪽동백나무, 산벚나무, 팔배나무, 들메나무, 철쭉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자란다. 해발 1,400m에 이르면 구상나무의 울창한 숲이 해발 1,600m의 세석평전(細石平田)(잔돌밭이라는 뜻)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잣나무 당단풍, 마가목, 신갈나무, 개벚나무, 물푸레나무, 쪽동백나무들이 섞이고 높이 5m 이상 되는 철쭉꽃들도 많이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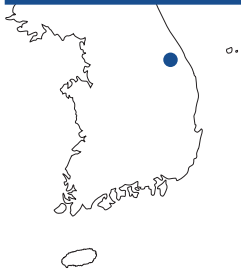
한신계곡에는 폭포 개수만큼 곳곳에 많은 이름들이 남아있다. 사철 수량이 변함없어 예로부터 기우제 장소로 이용되어왔는데,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 영험한 장소였다고 전해진다. 기우제는 부녀자들이 흘치마 바람으로 앉아 통곡하듯 방망이를 두드려 지리산의 산신인 마고할매의 통곡을 이끌어 그 눈물이 비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한 돼지를 잡아 피를 바위에 뿌리고 머리는 가네소에 던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산이 돼지 피로 더럽혀지면 산신이 이를 씻어내기 위해 비를 뿌릴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한여름에도 몸에 한기를 느낀다”고 해서 한신계곡이라 불렀으며, 계곡의 물이 차고 험난하며 굽이치는 곳이 많아 한산하다고 해서 한심계곡이라 불렀으나 발음이 변해서 한신계곡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가네소폭포는 지리산 도인이 도를 터득한 후 현재 가네소폭포 자리에서 외출을 건너가는 시험을 하는 데 마고 할매의 셋째 딸의 유혹에 넘어가 “도 닦은 것이 모두 틀려 버렸구나, 나는 그만 가네” 하고 지리산을 떠나버렸고 그 후 가네소폭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문화재적 가치

지리산 한신계곡은 영롱한 구슬이 구르듯 맑고 고운 물줄기가 사철 변함 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곡이다. 다수의 폭포와 울창한 신갈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등으로 이루어진 천연임상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영산봉, 촛대봉, 연하봉 등의 계곡을 감싸는 산봉우리가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경승지이기도 하다.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 여름의 더위를 씻는 차갑고 시원한 폭포들, 가을의 산과 계곡을 물들이는 울긋불긋한 단풍, 그리고 보는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눈 쌓인 겨울 등 네 계절에 걸쳐 지리산 계곡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 연중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지리산의 대표적인 경승지이다.





태백 검룡소

Geomnyongso Spring, Taebaek

44

지정번호 명승 제73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 등 | 지정면적 91,745m² | 지정일 2010년 8월 18일





문화재 현황

검룡소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해발 1,418m) 북서쪽 금대봉 골에 위치하며, 이 계곡을 흐르는 물줄기는 충주다목적댐을 거쳐 팔당호에서 북한강과 합류하고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앞에서 임진강과 합류한 후 하구까지 흘러 들어간다. 둘레 20여m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솟는 지하수가 하루 수천 톤이 용출하고 있으며 솟아나온 물은 곧바로 20여m의 암반을 타고 흘러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사실은, 1987년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오대천과 창죽천의 합수지점인 북면 나전리에서 도상 실측한 결과, 창죽천이 오대천보다 약 32km 길어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으로 공인되었다.

자연·인문환경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중추를 이루는 태백준령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검룡소는 백두대간 능선과 금대봉에서 분기하여 대덕산과 연결되는 산릉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악지형 속에 위치한다. 계곡의 폭이 좁고 깊이가 깊으며 산사면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용천으로 다량의 용천수가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며, 넘쳐흐르는 물이 계단처럼 층을 이룬 암반 사이를 힘차게 쏟아져 내리면서 계류 양쪽의 암반을 덮고 있는 이끼류의 초록색과 이루어내는 조화미가 아름답다.

검룡소의 일대에는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석회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평한 층리의 발달이 현저하여 검룡소 계곡의 하류 하상에서는 계단상으로 발달하는 층리를 볼 수 있다.



검룡소가 위치해있는 대덕산과 금대봉 지역은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상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1993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계곡 주변을 중심으로 교목층에는 8종의 단풍나무 속 수종들을 비롯하여 많은 낙엽활엽수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며, 계곡 주변에서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종인 물푸레나무와 귀룽나무, 까치박달의 서식면적이 넓다. 특히 봄철에 개화하는 한계령풀, 노랑무늬붓꽃, 모데미풀 등으로 구성되는 능선부 초지 식생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검룡소는 자연경관이 중심적인 명승으로 검룡소에서 흘러나오는 계류를 따라 진입하면서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데, 능선에서 계곡을 내려다보거나 계곡 내부에서 검룡소와 주변의 능선을 올려다보는 경관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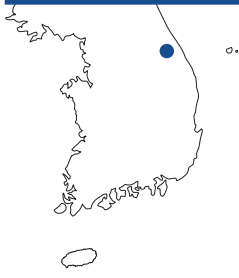
예로부터 용은 신성하며 초능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인식 되어왔으며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檢龍沼)에도 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온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한 이무기가 서해에서 살다가 용이 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발견하였다. 흡족한 이무기는 검룡소에 들어가 승천을 준비하고자 했고, 호수 속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몸부림 친 자국이 지금 검룡소에 쏟아지는 폭포라고 한다. 이무기는 인근에서 풀을 뜯다가 물 먹으러 오는 소를 잡아 먹기도 해 동네 사람들은 검룡소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진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문화재적 가치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고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 경승지이다.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하루 수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냉천(冷泉)으로 사계절 9℃정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20m 이상 계단상 폭포를 이루며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1.5m, 폭 1~2m의 암반이 폭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틀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강의 발원지라는 가치와 함께 주변 경관이 우수하여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







대관령 옛길

Old Path of Daegwallyeong Pass

45

지정번호 명승 제74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72 등
지정면적 519,156m² | 지정일 2010년 11월 15일





문화재 현황

대관령^{大關嶺}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성산면 사이에 있는 큰 고개이다.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의하면 강원도 영동의 진산으로 중앙과 지방,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지리적 관문이자 상징적 영역이었다. 한반도 동해안쪽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고갯마루(표고 832m) 13km 구간에 펼쳐진 대관령 옛길은 삼국시대 이래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로인데, 고개 너머 반정^{半程}에서 시작하여 대관령 박물관 옆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길을 말한다. 2005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계곡이 잘 어우러진 원형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옛길 주변에는 새롭게 들어선 대관령박물관, 자연휴양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용평리조트 등이 있으며, 강릉 보현사, 강릉 관음리 오층석탑, 명주군왕릉, 강릉 대공산성,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 등의 역사적 문화유산이 있다.

자연·인문환경

지형적으로 한반도의 백두대간은 동해안 가까이로 1,000m 이상의 험산준령을 따라 내려오다 대관령에 이르러 다소 낮아진다. 동해안의 중심도시 강릉과 가깝고 서쪽은 한강 상류와 연결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로 삼국시대 이래 오래전부터 활용되었다. 대관령 일대는 선자령, 발왕산, 황병산 등에 둘러싸인 완만한 지형이며, 북쪽으로 오대산국립공원이 가깝게 위치한다. 대관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흐르는 오십천은 강릉을 지나 동해로 흐르며, 서쪽은 송천의 지류가 되어 남한강으로 합수된다. 대관령 주변의 식생은 소나무(금강송)가 우점하고, 옛길을 따라 단풍나무, 신갈나무, 산벚나무, 신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등의 활엽수림이 상층을 형성한다. 진달래, 철쭉, 국수나무, 노린재나무, 산조팝나무, 참싸리, 조록싸리, 청미래덩굴, 개머루 등이 하층을 이룬다.

대관령 옛길은 숲 터널경관, 하천과 계곡의 회랑경관, 능선 아래로 펼쳐지는 파노라믹 경관 등 다양한 풍광미가 돋보이는데, 멀리 강릉 시내와 경포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동해의 광활한 조망경관은 청량하기 그지없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 체험이 가능하고, 가을의 단풍잎 어우러진 옛길 풍광은 환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서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른다 하여 붙여진 '대굴령', 또는 '큰 관문에 있는 고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신라 때 대령, 고려 때 대현, 조선시대 '태종실록'에 대령산 등으로 기록되었다. 대관령이란 명칭은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동의 진산으로 소개되었다. 고려 초 명주장군 김순식이 왕건을 돕기 위해 제단을 쌓고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고려사'에 전하고, 강릉출신 허균의 '대령산신찬병서'에는 1603년경 산신당이 있었으며 신라대장군 김유신을 모셨다고 전한다. 조선 중종 때 관찰사 고흥산이 산길을 확장하였고, 1824년(순조 24)에 이병화가 반정에 오두막을 지어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했는데, 감사의 뜻을 담은 '기관이병화유해불망비'가 전해진다. 대관령 북쪽 기슭에는 국사성황사와 산신당이 모셔져 있다. 고려 때부터 전승되는 강릉단오제(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국사성황신제와 산신제가 대관령 옛길을 거점

으로 전승된다. 국사성황신은 신라 헌강왕 때 강릉출신 승려인 범일이며, 산신당에 모셔진 신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왕순식, 또는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라 전해진다. 매월 당 김시습, 신사임당, 송강 정철 등 명인들이 수많은 시문을 남겼는데, 신사임당의 ‘유대관령망친정’이 저명하다.

문화재적 가치

강릉의 진산 대관령은 삼국시대 이래 관련 지명이 여러 기록으로 전해지는데, 대관령 옛길은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로이자 관문이다.

수많은 명인과 민중은 물론 보부상 등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백두대간 줄기의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된 명소이다.

대관령 옛길의 초입에 해당하는 국사성황사 및 산신당 권역의 신터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고,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가 행해지는 장소성을 갖는다. 강릉에서 조망되는 대관령은 거대한 장벽으로 신성시 되었으며, 내륙으로 가기 위해 험산준령을 넘어야 하는 관문이 었다. 명승으로 새롭게 조명된 대관령 옛길은 현대인의 기계적 삶을 잠시 잊게 하는 치유의 공간이자 느낌의 세계로 회귀하는 여유의 장소성을 갖는다.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독자성을 지닌 명승지로서, 전통시대 교통로라고 하는 소통 문화가 현대에 새롭게 조명된 대표적 문화경관 사례이다.







대관령 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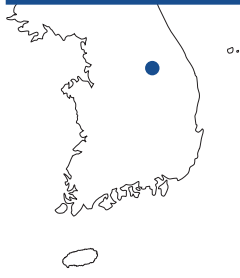


지금은 고속도로로 차가 다니고, 터널을 뚫어 열차로 편리하게 먼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산이 높아도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파른 곳을 피해서 굽이굽이 계곡 따라 고개를 넘어 다닌 곳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길이 바로 옛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 옛길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원래 이름은 ‘길이 가팔라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이었는데, 한자로 적으며 ‘대관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 중종 때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좁은 길을 넓혀 걷기 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길의 높은 곳에는 국사성황사가 있는데,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처녀가 샘에서 물을 길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바가지로 물을 뚫다. 그런데 바가지에 해가 담겨 있어 바가지 물을 버렸으나 계속 들어있어, 목마르던 터에 그 물을 마셨다. 그 후 처녀의 배는 점점 불러와 아이를 낳았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이를 산에 버려버렸다. 그러나 아이가 보고 싶어 다시 찾아가보니 산짐승과 들짐승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에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그 후 아이가 자라 일곱 살에 비로소 말을 하는데 첫마디가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다. 아이의 총명함을 눈여겨본 가족들은 아이를 큰 도시로 보내 공부를 시켰고 아이는 나라의 국사^{國師}가 되어 널리 이름을 알렸다고 한다. 국사는 바가지의 해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여 범일^{梵日}이라 불렸다. 범일은 한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자 대관령에 올라 도술을 부려 나무와 풀을 군사로 변하게 하여 물리쳤다고 한다. 이렇게 범일국사는 죽어서도 대관령을 지켜온다고 한다.



영월 한반도 지형

Miniature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Yeongwol

46

지정번호 명승 제75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웅정리 180 등 | 지정면적 330,627m² | 지정일 2011년 6월 10일





문화재 현황

강원도 영월군 선암마을 주변의 감입곡류 지형이다. 주천강에 평창강이 합류하는 물이 산을 깎고 모래톱을 쌓으며 만들어 낸 지형이 마치 한반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서강지역의 대표 명소이다. 한반도 지형의 절벽에는 자연동굴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전쟁 당시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한반도 지형 내부에는 각 도별로 구획한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주관하는 한반도 지형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한반도 지형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석회질 퇴적물의 암석화로 형성된 석회암지형으로 곡류하천에서 나타나는 하식에, 하안단구, 하식동굴 외에도 돌리네, 카렌, 석회동굴 등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있다. 특히 남동쪽으로 뻗은 한반도 지형은 곳곳에 자갈들이 분포하고, 하식동굴의 일부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문^{仙門}이 위치하고 있다.

석회암으로 구성된 바위절벽에는 돌단풍 군락이 생육하고 하천에는 쉬리, 어름치, 백로, 원앙, 수달 등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은 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참나무류와 혼효림을 형성하고 있다. 하천변 하부에는 버드나무류 관목과 수생 초본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가 가파른 장소에는 소나무, 노간주나무, 회양목, 바위손 등이 출현하였다. 특히 한반도 지형 숲 속에는 한국특산식물인 연잎평의다리 *Thalictrum coreanum*가 서식하고 있어 식생경관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한반도 지형은 오간재전망대에서 남산재를 방향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한반도 형태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고, 킹콩 얼굴바위, 바람바위, 신선바위, 피난바위 등이 경관요소에 포함된다. 이외에 평창강을 따라 뗏목을 이용하여 한반도 지형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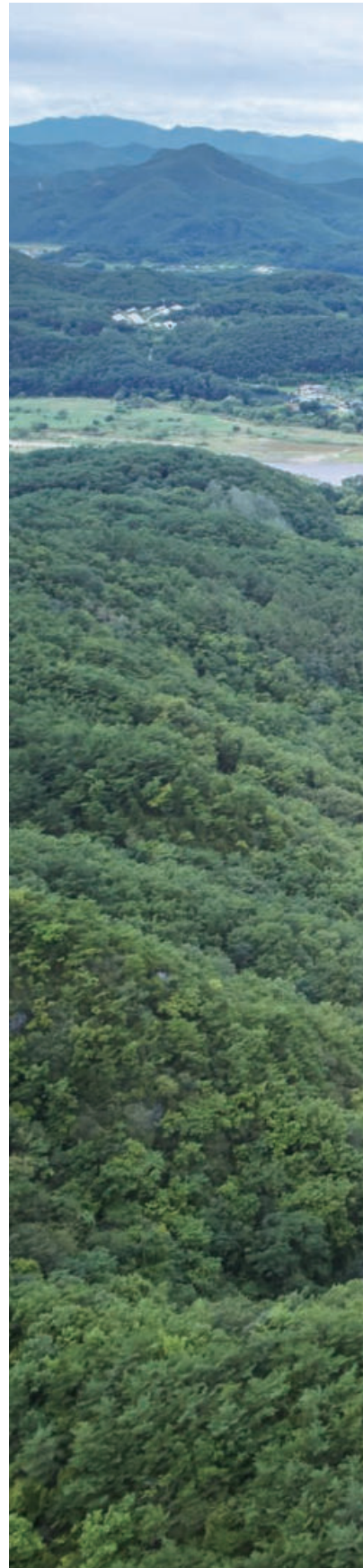
영월 한반도 지형은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평창강 협곡에 형성된 감입곡류 지형이 한반도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여 명명되었다. 인근에 위치한 선암마을에서는 평창강을 선유하는 뗏목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의 백두대간 탐방길에는 신선바위, 바람바위 등 독특한 형상의 지형요소들이 분포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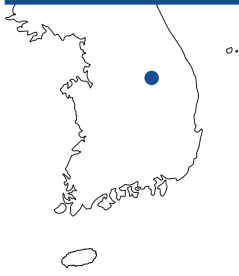
영월 한반도 지형은 과거 영월군 옹정리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멀리 보이는 장소였으나 1999년 쓰레기 매립장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형태로 조망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곳은 평창강과 주천강의 합수지점에서 선암마을을 돌아 흐르는 감입곡류 지형으로 한반도 형상의 독특한 경관을 지닌다. 또한 석회동굴, 카렌, 돌리네 등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이 발달하여 지형·지질의 학술적 가치가 큰 장소이다.

협곡의 하천형 절벽지형에는 하천식생, 암벽식생, 산지식생 등 다양한 층위의 식물이 생육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으며, 인위적인 식물종의 유입과 외래종의 침입이 낮아 식생경관의 명승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2015년 한반도 지형 주변의 습지는 한반도습지^{韓半島濕地}라는 명칭의 랍사르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성이 풍부한 하천경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영월 선돌

Seondol Rock Pillar, Yeongwol

47

지정번호 명승 제76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철리 산122 등 | 지정면적 222,774m² | 지정일 2011년 6월 10일





문화재 현황

영월 선돌은 강원도 영월 방절리 서강가의 절벽에 위치하며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갠 듯한 형상을 가진 높이 약 70m 정도로서 있는 돌로써 신선암^{神仙岩}이라고도 불리며, 푸른 강물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다. 영월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쉬운 영월 서강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단종이 영월 청령포(명승 제50호)로 가는 길에 선돌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어 가며,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하여 ‘선^仙돌’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 등이 담겨있다.



자연·인문환경

선돌은 기반암인 석회암이 물에 녹아 틈이 생기며 형성된 침식지형으로 하안단구를 포함하여 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깎아지른 단애 위에 설치된 선돌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방절리 언덕의 지형이 암벽으로 연결되어 끝부분에서 솟아오른 강변 석벽이 좌측으로 보이고, 그 우측으로는 세로 방향으로 길게 갈라진 빈 공간이 보이며, 다시 그 우측으로는 곧게 버티고 선 선돌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암벽과 선돌 사이로 서강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 세로로 깊게 파인 암벽과 선돌의 가장자리 벽면은 액자와 같은 풍경의 틀을 만들고, 이 틀을 통해 길게 뻗은 서강의 푸른 물길을 볼 수 있다.

영월 선돌은 서강의 물길을 따라 병풍처럼 길게 둘러 형성되어있는 석벽(石壁)의 일부분으로, 이 암벽의 모습을 잘 보려면 강 건너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서강 건너편의 강가로 난 길을 따라 하류 방향으로 내려가면 강변 석벽의 연속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영월 선돌을 지나가는 옛길은 본래 강변 석벽의 아래로 나 있었다. 이 길은 옛날에 걸어서 다니던 길이었는데, 1905년(고종 42) 목탄차가 다닐 수 있도록 시멘트와 석벽을 쌓아 넓혔다. 지금은 폐도(廢道)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로의 선형을 알 수 있는 유구를 볼 수 있으며, 당시에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남아있다.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은 왕 단종은 영월 청령포(명승 제50호)로 유배 가는 길에 선돌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어 가게 되었는데, 선돌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쉬면서 보니 그 봉우리 하나만 우뚝서 있는 것이 참 신선같이 보였다. 그래서 주위의 신하들에게 “이게 바로 신선이 아니냐?”라고 물어 보았고, 그 후로 선(仙)돌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온다.

1820년(순조 20) 문신 홍이간(洪履簡)(1753~1827)이 영월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문신이자 학자인 오희상(吳熙常)(1763~1833)과 홍직필(洪直弼)(1776~1852)이 홍이간을 찾아와 구름에 싸인 선돌의 경관에 반해 시를 읊고, 암벽에 ‘운장벽(雲莊壁)’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고 붉은 주색을 칠하였다. 이 각자는 지금도 남아있다.

선돌 아래 깊은 소에 위치한 자라바위 전설에 의하면, 남애마을에 태어난 장수가 적과 싸우다 패하여 자라바위에서 투신했는데 그가 변하여 선돌이 되었다고 하며, 그 후로 선돌에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하여 오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선돌은 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의 형성으로 석회암 분포지에 발달한 침식지형이다. 단종 관련 이야기와 전설도 있고 암벽에 각자가 새겨져 있는 등 역사문화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뛰어나다.





제주 서귀포 산방산

Sanbangsan Mountain in Seogwipo, Jeju

48

지정번호 명승 제77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등
지정면적 1,003,165.7m² | 지정일 2011년 6월 30일





문화재 현황

제주 서남부에 위치한 산방산은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 3대 산으로 꼽힌다. 산 전체가 절벽으로 이루어진 돌산으로 타원의 둘레 약 6.1km, 높이 395m 규모의 돔형^{Dome} 화산이다. 산방산 암벽에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들은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천연기념물 제376호)로 지정되어 있고 산방산 남쪽 해발 150m 지점에는 영주십이경 중 하나인 산방굴사가 있다. 산방굴에서 바라보는 용머리해안 풍경과 해안경관이 빼어나 산방산과 연계된 탐방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산방산은 산정부의 절리가 발달한 평탄면과 급경사면의 산록, 직선으로 펼쳐진 애추사면으로 구성된 용암원정구 중 하나로 제주도의 으뜸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곳으로 꼽힌다. 산방산 남서쪽 사면에는 폭 2m, 높이 100m에 달하는 수직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암벽에는 여러 형상의 타포니(tafoeni)가 형성되어 있다. 독특한 지형의 산방산은 해발고도와 사면의 방위에 따라 생육하는 수종이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곳에는 곶솔, 까마귀쪽나무, 돈나무, 산호수, 상동나무, 제주십자고사리 등이 분포하고, 해발고도 150~300m에는 급경사에 개서어나무, 구실잣밤나무, 상산, 담쟁이, 제주십자고사리, 콩짜개란 등이 자라나고 있다. 해발고도 300m 이상에서는 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 군락이 우점하고 초본류가 거의 없다. 해발고도 350m 이상 정상부는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상동나무, 미치광이풀, 큰천남성 등 난대원시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일조가 확보되어 초본류가 다시 확인된



다. 북사면 해발 200m 지점에서는 제주 자생특산식물이자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가시딸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산방굴사 외부 서측에는 제주도 희귀수종인 지네발난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유일한 섬회양목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산방굴로 가는 길에 데크로 조성된 계단에서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산방굴사에서는 해상의 형제섬과 가파도, 마라도가 멀리 조망되고, 가까이에는 용머리해안과 인접하여 빼어난 해안 조망 경관을 이룬다.

산방산은 옛날 한 사냥꾼이 한라산에서 사슴을 잡으려다 실수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려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진 것이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가 뽑힌 자리는 백록담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산에는 제왕이 태어날 땃자리가 있는데, 일반인이 이곳에 묘를 쓰면 산방산 인근에 가뭄이 든다 하여 금장지^{禁葬地}로 삼았다. 예로부터 마을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먼저 금장지에 묘를 썼는지를 찾아보았다고 한다.

이외에 산방덕이라는 여신이 인간세계에 내려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미모 때문에 남편이 관리에게 살인누명을 쓰고 죽은 뒤 산방덕이는 다시 산방굴로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도 산방굴에서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이 산방덕이의 눈물이라고 전한다.

문화재적 가치

산방산은 제주 서남부 지역의 평탄지에 우뚝 솟은 타원형의 조면암으로 구성된 용암돔^{lava dome}으로 암벽지대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사면의 방위와 해발고도에 따라 여러 식생구조들이 나타난다. 산방산 하부에 위치한 산방굴은 산방덕이의 설화와 함께 고려시대 고승 혜일이 수도한 곳으로 전하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용머리해안과 해안쪽 조망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산방산은 주상절리와 풍화혈 구조^{tafoni}의 발달이 두드러지며, 특히 산방산 남측 사면은 거의 수직의 단애를 형성하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주상절리를 이루고 있고, 돔^{dome} 모양의 암석 덩어리로 국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화산지형이다.

산방산은 산방굴사를 제외하고는 산 전체가 공개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제주 서귀포 쇠소깍

Soesokkak River Pool in Seogwipo, Jeju

49

지정번호 명승 제78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459 등
지정면적 47,130m² | 지정일 2011년 6월 30일





문화재 현황

쇠소깍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효돈천 하류지역에 위치한다. 하천을 따라 흐르던 지하수는 이곳에서 용천수가 되어 솟구쳐 오르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가 된다.

한라산 남부 앞자락에 위치한 하효동은 감귤 주산지로 밀감꽃과 밀감 등이 계절별 경관을 형성하고, 겨울철 국내에서 가장 따뜻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효돈천 일대의 살아있는 자연생태와 쇠소깍의 해안절경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쇠소깍은 깊은 수심과 하안의 기암괴석, 효돈천의 하식작용으로 형성된 하식지형, 하구 해안의 해식지형, 그리고 울창한 소나무숲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직·관상절리가 발달한 조면암류·조면현무암류에 하천(효

돈천)이 흐르면서 하식작용을 일으켜 선형의 하도를 형성하고 있다. 쇠소깍의 양쪽 하안에는 사자바위, 기원바위, 부엉이바위, 코끼리바위, 큰바위얼굴, 사랑바위, 장군바위, 독수리바위 등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형상의 기암들이 발달하였다.

효돈천은 작은 규모의 폭포가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고, 하천수는 용암지대 하부로 스며들어 쇠소깍 상부지점에서 용천수로 솟아오르기도 한다. 쇠소깍의 수계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만 물은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형태가 대부분이나, 효돈천을 따라 흐르던 지하수가 하류 부근에서 솟구쳐 오르는 지대는 수심이 깊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암벽 위의 식생은 상록침엽, 상록활엽, 낙엽활엽이 혼재된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측 수림은 곰솔이 우점하고, 동측 수림은 조엽수림대의 특징이 나타난다. 교목층에는 곰솔, 구지뽕나무, 까마귀죽나무 등이 주로 확인되고 관목에는 사스레피나무와 광나무, 상산이 우점하고 있다. 초본류에는 지정구역 전반에 걸쳐 다습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제주십자고사리가 널리 분포하고, 교목과 바위 주변에 착생식물들이 확인된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계곡의 낙엽들이 모여진 것을 보면 계곡부 식물들이 담수에 이끌려온 증거가 된다.

쇠소깍은 주로 중경으로 조망되며, 양쪽 언덕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는 형태이다. 현재 쇠소깍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는 관람데크와 연결된 전망대를 설치하여 좁고 긴 형태의 쇠소깍을 연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관람환경을 조성하였다.

‘쇠소깍’ 명칭은 쇠소깍 주변 지세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는 ‘쇠소’와 ‘끝’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 ‘깍’이 접미사로 붙어서 불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쇠소깍의 단어를 풀어보면 ‘쇠’는 ‘소’의 순우리말, ‘소_ㅅ’는 웅덩이, ‘깍’은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계곡물과 바다가 만나 하나가 되는 쇠소깍은 비를 내려주는 용이 살고 있다하여 용소_{龍沼}라 불리며, 딸과 가난한 며슴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신당이 마을 동쪽에 있다. 현재에도 이 사당은 ‘할망당’ 또는 ‘여드레당’이라 불리며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효돈천 하류에 위치한 쇠소깍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하천지형으로 하식작용에 의한 제주 특유의 용암지형과 기암괴석, 양안의 상록수림 등이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이다. 특히 효돈천 하구에 형성된 다수의 포트홀 군과 한라산 산록에서 기원한 지하수가 용출하는 호수, 바다와 맞닿은 곳의 협곡과 내부의 풍화혈, 하식에 등이 지형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쇠소깍의 암벽에는 으름난초, 한란 등 희귀수종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고란초, 풍란 등 착생식물들과 최근 하천에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제주 서귀포 외돌개

Oedolgae Sea Stack in Seogwipo, Jeju

50

지정번호 명승 제79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790-4 등
지정면적 7,931m²(해역부 88,607m²) | 지정일 2011년 6월 30일





문화재 현황

서귀포 칠십리 해안가에 위치한 외돌개는 서귀포 시내에서 서쪽 2km 떨어진 삼매봉(153m) 산자락의 수려한 해안에 우뚝 서 있는 절벽기암으로 해수의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어 절경을 이룬다.

외돌개라는 이름은 홀로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다 하여 명명되었으며, 범섬, 문섬, 섭섬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일몰 경관이 빼어나다. 외돌개와 주변 해안지형에는 외돌개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밖에 ‘남주^{南州}의 해금강’으로 이름난 서귀포 칠십리 해안의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외돌개 주변에는 해안절벽을 따라 올레길이 형성되어 있어 제주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제43호) 등 주변 자연유산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자연·인문환경

외돌개는 화산이 폭발해 분출하면서 형성된 조면암산암 용암지대의 해석이 해수의 차별침식을 받아 형성된 시스택(암석해안에서 파도의 침식으로 기반암이 육지에서 분리되어 발달한 수직 기둥 형태의 암석)에

해당한다. 외돌개는 삼매봉에서 바다 방향으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높이 20m, 폭 7~10m 규모의 수직 돌기둥이다. 외돌개 주변으로는 10~20m 높이의 주상절리 형태의 해식애와 해식동, 파식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소규모 만입지에는 자갈 및 거력해안이 발달해 있다. 외돌개 동측에는



높이 10~15m 가량의 고파식대가 넓게 발달해 있는데, 상부면은 용암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지닌 것이 특징이며, 상부지역 일부는 주상절리의 수축면이 관찰되기도 한다.

외돌개의 해안을 따라 생육하는 식물들은 곰솔, 까마귀쪽나무 등이 교목층을 우점하고 있고, 돈나무, 백화 등의 관목, 제주십자고사리, 죽도리풀 등 초본류가 생육하고 있다. 대체로 고온다습한 해안가에 면하여 염해에 잘 견딜 수 있는 내염성 수종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외돌개의 꼭대기에는 곰솔, 해당화, 사철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외돌개는 해안절벽을 따라 지정구역 외곽의 올레길 7코스 전망대 및 관람데크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조망이 가능하며, 해안 방향으로 멀리 범섬이 원경으로 조망된다.

고려 말기 탐라(제주도)에 살던 몽골족의 목자^{牧子}들은 고려에서 중국 명^明나라에 제주마를 보내기 위해 말을 징집하는 폐해가 자주 일어나자 목호^{牧胡}의 난을 일으켰다. 목자들은 범섬으로 도망하여 버텼는데 최영 장군이 외돌개를 장군의 형상으로 치장하고 최후의 격전을 벌였다. 목자들이 외돌개를 대장군으로 알고 놀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며, 이때부터 장군석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바위가 되었다는 할망(할머니)바위 전설도 있다. 그리고 외돌개 바로 밑에는 물 위로 떠오른 할아버지가 바위로 변하였다고 한다. 이 주위로는 선녀바위라는 기암절벽이 돌로 변해버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감싸 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외돌개는 해안절벽에 우뚝 솟은 바위기둥이 아름다운 곳으로 해식애가 차별침식을 받아 형성된 시스택^{Sea stack}*으로 상부에는 곰솔과 단자엽류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주변의 수직 해식절벽·해식동굴과 어우러진 독특한 해안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 고려시대 최영장군과 관련한 장군석 전설과 할망바위 전설이 깃든 곳으로 양안의 올레길 7코스와 연계되어 남측을 제외한 3면의 다양한 각도에서 외돌개의 조망이 가능하다.

* 바위가 파도에 씻겨 생긴 굴뚝 모양의 지형





진도 운림산방

Ullimsanbang Villa and Garden, Jindo

51

지정번호 명승 제80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315 등 | 지정면적 1,367,620m² | 지정일 2011년 8월 8일





문화재 현황

첨찰산은 해발 485m로 진도군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진도읍에서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으로 진도읍, 의신면, 고군면 등 3개 읍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첨찰산 남쪽 사면의 끝자락에 ‘운림산방^{雲林山房}’이 위치하고 있다. 첨찰산의 쌍계사 계곡에는 예부터 상록수림이 발달하여 1962년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상록수림을 비롯한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빼어난 자태의 첨찰산을 배경으로 운림산방이 조성되었다.

운림산방은 소치^{小痴} 허련^{許鍊}(1807-1890)이 기거하기 시작한 곳이다. 운림산방이라는 당호를 가진 소치 화실이 가장 앞에 자리하고 있고, 그 뒤에는 소치가 태어났다는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소치 생가 뒤로는 소치의 영정 그림을 봉안한 운림사^{雲林寺}가 위치하고 있어, 소치화실(운림산방), 소치생가, 운림사가 나란히 첨찰산 남사면의 종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운림산방 앞에는 넓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자연·인문환경

윤림산방은 소치가 1858년(철종 8) 그의 스승 추사 김정희가 죽은 후 고향인 진도에 내려와 초가를 짓고 기거하기 시작한 곳이다. 소치는 이 초가의 이름을 윤림각雲林閣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또한 윤림각 마당에는 연못을 파고, 연못 주변에는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들었다. 소치는 이곳에서 만년을 보내며 그림을 그렸다. 오늘날 윤림산방이 남종화의 터전으로 의미를 갖게 된 연유이다.

윤림산방은 그 이름처럼 자연경계가 아름다우며 수목으로 그린 소치의 산수화처럼 운무가 깃드는 유현하고 그윽한 곳이다. 소치화실, 소치생가, 윤림사 등 소치와 직접 관련된 건물들이 축선 상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윤림산방의 건물군은 윤림사 우측의 사천사斜川祠를 포함하고 있다. 사천사斜川祠는 진도로 입향한 양천 허씨 입향조를 비롯한 문중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윤림산방의 앞마당에는 방지원도方池圓島 형태의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방지원도는 외곽의 형태가 네모이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위치한 외방내원外方內圓의 형상으로 음양설에 바탕을 둔 구조이다. 방지원도 연못의 네모는 땅을 의미하고 동그라미는 하늘을 상징한다. 방지원도의 연못은 조선시대 정원에 많이 조성된 수법이다. 연못가운데 위치한 섬에는 허련이 심었다고 하는 배롱나무가 자라고 있다. 연못 남측에서 바라보는 연못에 비친 침찰산과 윤림산방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소치는 문인화의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왕유王維의 이름을 따서 허유許維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명을 허련許練이라 했다. 소치小痴는 중국 송나라 말기부터 원 시대를 살았던 문인화의 대가 대치大痴 황공망의 아호에서 비롯되었는데, 소치의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지어준 호이다. 추사는 “압록강 동쪽에는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소치의 화재를 높이 평가했다. 소치 허련이 사망한 후 화맥은 그의 아들 미산 허형이 이었는데 미산은 소치의 화재에 못 미쳤다고 한다.

미산 허형이 진도를 떠나면서 윤림산방은 가옥과 정원 모두가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 후 허형의 아들 허윤대가 다시 윤림산방을 사들였다. 그리고 허형의 아들 남농 허건이 1992년부터 2년 동안 윤림산방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소치 허련은 남종화의 맥을 이은 문인화의 대가로서 한국산수화의 일가를 이룬 조종이다. 소치 허련이 기거하기 시작한 윤림산방은 방지원도의 연못을 비롯해 소치화실, 소치생가, 윤림사, 사천사 등의 한옥 건물이 한국 고유의 전통원림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윤림산방은 배후에 상록수림을 비롯한 수림대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으며, 우뚝한 모습의 침찰산이 함께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윤림산방의 조영과 관련하여 소치실록小痴實錄, 윤림잡저雲林雜著 등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소치의 산수화 선면산수도扇面山水圖는 윤림산방을 그린 그림으로 침찰산의 모습, 연못, 배롱나무 등 윤림산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윤림산방의 전통원림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윤림산방은 원림의 물리적 형태를 비롯해 역사 문화경관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명승이다.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Yonggyejeong Pavilion and Deokdongsup Grove, Pohang

52

지정번호 명승 제81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26 등 | 지정면적 15,332m² | 지정일 2011년 8월 8일





문화재 현황

‘용계정과 덕동숲’은 포항시 기북면의 덕동문화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형산강의 지류인 기계천 상류(용계천)에 용계정이 자리하고 있고, 덕동마을의 마을숲인 덕동숲은 용계천을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송계숲, 섬솔밭, 정계숲으로 이어지며, 이 덕동숲 안에 안온한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덕동마을이다.

덕동마을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의 지명이 유래된 곳이다. 또한 덕동마을은 용계정 뒤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을 의미하는 삼연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포근한 느낌을 주는 환경조건으로부터 덕협(德峽)이란 명칭이 연유되기도 했다.

921번 도로에서 덕동마을로 진입하면 오른쪽에 울창한 솔숲과 용계정, 덕연구곡, 호산지당이 위치하고 있다. 용계정과 덕동숲이 어우러진 용계천 계곡에는 수통연(水通淵), 막애대(邁埃臺), 서천폭포(西川瀑布), 도송(島松), 연어대(鰲臺), 합류대(合流臺), 운등연(雲騰淵), 와룡암(臥龍巖), 삽연(鑄淵) 등 연계경관으로 구성된 덕연구곡이 있다.



자연·인문환경

덕동숲은 덕동마을의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숲으로 매우 울창하고 아름답다, 덕동마을의 마을경관요소로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덕동숲은 하천을 따라 정계숲, 섬솔밭, 송계숲이 길게 이어진 형태의 선형숲을 이룬다. 용계정 입구의 통허교는 민가와 접해 있고, 입구에 위치한 향나무 2주를 비롯해 은행나무, 배롱나무, 향나무 등이 용계정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벗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덕동마을 마을숲에는 감나무, 왕대, 엄나무, 호두나무, 두릅나무, 태산목, 자목련, 사철나무, 산수유 등이 식재되어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참나무가 섞여있다. 용계정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면, 용계천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용계정 북쪽에는 원곡, 가곡1지, 가곡2지, 왜두들, 가곡3지 등의 계곡에서 계류가 오덕리로 흘러내리며, 이 물줄기는 서쪽 계곡인 탐정에서 흘러온 물줄기와 합류하여 울산리, 대곡리를 거쳐 기계천으로 유입된다.

용계정은 1546년(명종 1)에 처음으로 건립된 정자이다.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鄭文學(1656~1624)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정문부는 이 정자를 손자사위인 이강李綱(1621~1688)에게 물려주었다. 용계정은 처음에 사의당四宜堂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사의당이라는 호를 가진 이강에 의해 붙여진 당호이다. 이강은 1687년 새 건물을 착공하였으며 그의 손자 이시중李時中(1667~1738)이 1690년경에 완성하였다. 용계정이라는 명칭은 이시중이 새 건물을 완공한 후에 명명한 이름이다.

정조 이후에는 세덕사世德祠의 부속건물인 강당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고종 시절 서원철폐가 시행되었을 때 용계정은 세덕사와 분리하는 담장을 쌓아서 훼손을 면했다. 용계정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누정으로서, 익공계 팔작지붕의 목조건축물이다. 가구는 5량고주의 겹처마로 구성되어 있고, 방 4칸 마루 6칸으로 용계천에서 보면 된 누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용계정의 건물 뒤편은 후원으로 연결되고, 건물의 앞 쪽은 계곡의 기암절벽과 마주하고 있다. 용계정의 본제는 덕동마을 산자락에 위치한 사유당 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용계정은 1546년에 처음으로 건립된 후 사의당(四宜堂)으로 불리다 1690년 새롭게 지어진 누정으로서, 정문부가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정자와 원림을 경영해온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별서 원림이다. 용계정은 덕연구곡의 연어대, 합류대, 와룡담 등 구곡경관 요소들과 잘 어우러져 매우 빼어난 경승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용계정이 위치한 용계천 계류부분은 기암과 석벽, 계류와 누정이 함께 어울려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마을의 풍수적 길지조성의 수단으로 조성된 덕동숲은 수구막이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마을숲으로서, 고목의 울창한 숲이 마을을 한층 안온하게 하고 위요해 주고 있다. 정계숲, 섬솔밭, 송계숲으로 이어지는 덕동숲은 덕연구곡의 연어대, 합류대, 와룡담 등과 조화를 이루어 문화경관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용계정과 덕동숲은 자연경관요소와 문화경관요소가 복합되어 명승가치를 높여주는 명승이다.





안동 만휴정 원림

Manhyujeong Garden, Andong

53

지정번호 명승 제82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하리길 42 등 | 지정면적 42,336m² | 지정일 2011년 8월 8일





문화재 현황

‘만휴정 원림’은 길안천의 지류인 송암계곡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원림이다.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를 흐르는 길안천에 놓인 하리교를 건너 작은 지류를 거슬러 가면 송암계곡으로 이어진다. 송암계곡의 입구를 지나면 암벽의 단애 위로 흰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송암폭포의 시원한 모습이 보이며, 폭포 위로 올라 암반 위를 흐르는 물길을 건너면 움푹 패여 들어간 곳에 만휴정이 위치하고 있다. 만휴정은 길안면 묵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백당 종택(묵계종택)에서 경영한 별장이다. 만휴정은 보백당 김계행(金係行)(1431~1521)이 조정에 출사봉공을 한 후 고향에 내려와 만년을 보내기 위해 송천의 가장 깊숙한 곳인 송암폭포 위에 지은 정자다. 만휴정은 정자 건물 외에는 인공적 원림요소가 극히 절제된 소박한 형태의 정자원림이다.

자연·인문환경

만휴정은 송암폭포 위의 크고 둥근 반석 가장자리에 지어져 있다. 반석 위를 흐르는 물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 만휴정은 물길로부터 조금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공지 안에 세워져 있다. 만휴정은 계류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치 외나무다리처럼 길고 좁은 폭의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다. 만휴정 원림은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낮은 담장으로 구획을 했다. 다리 건너에서 보는 만휴정은 긴 담장 위로 우뚝한 모습을 보여준다.



만휴정의 담장 안에는 열녀목, 매실나무,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담장 밖에는 배롱나무, 가중나무, 율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만휴정 주변에는 소나무, 노간주나무, 상수리나무, 붉나무, 병꽃나무, 물푸레나무, 산조팝나무 등이 계류 가장자리로부터 주변 지형에 자라고 있어 경관이 매우 수려한 모습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만휴정은 삼면이 개방된 누마루형식으로 정자 주위 3면에는 계사 난간을 돌렸으며, 기둥 상부에는 연봉장식이 가미된 2익공 양식의 촛가지가 돌출되어 있다. 정자의 지붕은 흘처마 팔작으로 처마 양곡과 안허리가 매우 날카로워 정자의 맛을 잘 살리고 있다.



만휴정의 마루에서는 담장 너머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계곡과 앞산으로 연결되는 전망이 아름답게 바라보이며, 위쪽으로는 암반 위를 흘러내려 이룬 소와 계류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고졸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 쪽 바위 위에는 “보백당만휴정천석^{寶白堂晩休亭泉石}”이라는 글자가 암각되어 있다.

“늦은 나이에 쉰다.”는 뜻을 지닌 만휴정은 김계행이 만년에 얻은 정자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명칭이다. 김계행은 연산군 조에 정사가 어지럽게 되자 벼슬을 사직하고 길안의 목계리로 낙향했다. 김계행은 조선의 선비들이 지향했던 삶의 전형을 보여준 강직한 인물로서, 청백리의 정신을 후손에 남겼다. “나의 집에는 보물이 없다. 오로지 청백이 있을 뿐이다.”^[吾家無寶物 寶物有清白]라는 정신을 담은 보

백당^{寶白堂}(목계종택)은 만휴정 별서원림의 본제^{本第}*이다.

김계행은 보백당에서 도보로 왕래할 수 있는 위치에 별서원림으로 만휴정 원림을 조성했다. 만휴정은 김계행의 장인 김전^{金腆}이 처음으로 지었으며, 당초에는 쌍청헌^{雙淸軒}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김계행이 만년에 이곳을 은거생활의 장소로 즐겨 사용하면서 만휴정이라는 정자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
고향에 있는 본 집



문화재적 가치

만휴정은 인공적 원림요소가 극히 절제된 구성을 지니고 있는 원림이다. 만휴정을 짓기 위해 축조한 담장, 소박한 정자,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아주 적게 식재된 수목이 전부이다. 우리나라 고정원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는 원림은 구획된 경계 안에 오로지 인공으로만 조성되는 일본의 정원이나 과장된 중국의 민가정원과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고정원이다.

계원^{溪園}, 혹은 계곡원림^{溪谷園林}이라 정의되는 별서원림은 정자와 같은 간소한 건물을 비롯해 최소한의 인공적 원림요소를 자연 속에 첨가하고, 오히려 주변을 두르고 있는 자연요소를 그대로 차용해서 원림요소로 활용하는 우리 특유의 원림양식이다.

만휴정 원림은 이러한 소박한 계원^{溪園}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고정원으로, 만년에 자연 속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겼던 은일생활 공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통원림이라 할 수 있다.



사라오름

Saraoreum Volcanic Cone

54

지정번호 명승 제83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지정면적 62,863m² | 지정일 2011년 10월 13일





문화재 현황

사라오름은 둘레 2,481m, 면적 약 444,000m² 규모의 오름으로 한라산 정상 백록담 동쪽 해발 1,32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라오름을 중심으로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의 경계가 나뉜다. 사라오름은 세숫대야처럼 생긴 분화구에 물이 고여 산정호수가 형성된 곳으로 제주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발달한 산정화구호이다. 성판악 등산로를 따라 한라산 정상과 성남계곡, 물참나무 숲을 연결하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산정호와 주변의 능선을 조망할 수 있고 성판악 등산로에서 한라산 정상부를 올려다 볼 수 있다.

자연·인문환경

사라오름은 한라산이 분화하면서 공중에 방출된 화산쇄설물이 화구 주변에 쌓여 형성된 원추형 화산체이다. 사라오름 내부의 산정호수인 사라호는 백록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화구호로, 둘레가 약 250m의 접시모양의 형태이다. 제주도 대부분의 분석구(화산쇄설물이 가파르게 쌓여 만들어진 원뿔형의 화산체)가 투수성이 높은 스크리아^{scoria}로 이루어져 비가 내릴 때에만 물이 차는 반면, 사라오름은 사계절 내내 사라호에 물이 차 있다.

고지대에 위치한 사라오름은 광량과 바람으로 북사면과 남사면의 식생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사면에는 1988년 산불 발생 이후 강한 바람에 작게 자라는 제주조릿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북사면에는 내음성이 좋은 주목이나 당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분화구 내부에는 수변을 따라 노린재나무가 넓게 분포하고, 교목 하부에는 주로 제주조릿대가 자라고 있다. 사라호 주변에는 습지식물들이 자생하며, 남사면의 능선부에 민백미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 사라오름 진입로에서는 사라오름과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동쪽 전망대에서는 주변의 오름과 산지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사라오름의 '사라'는 불교용어로 '깨달음',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곳에 뿔자리를 쓰면 왕이 나온다는 풍수적 길지였기 때문에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풍수로 이름난 호종단^{胡宗旦}이 이곳의 지맥을 끊으려 했다고 하며, 사라오름의 분화구에 수중릉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다.

문화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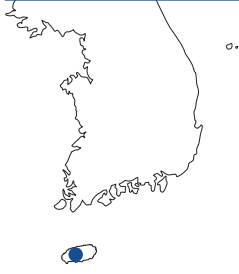
사라오름의 산정호와 주변을 둘러싼 능선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지형 경관이다. 능선부의 전망데크에서 한라산 정상부를 올려다 볼 수 있으며, 산정호를 따라 걷다보면 사라오름 호수의 연속된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노루와 식생경관 등도 우수하다.

사라오름은 한라산 동북사면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으며, 오름 정상부에 둘레 약 250m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로서 오름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분화구 내에는 노루가 모여 살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한라산 고지대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한라산 동쪽 기슭의 오름 군락은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Yeongsilgiam Cliff and Obaengnahan Rock Pillars

55

지정번호 명승 제84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4 등
지정면적 969,914m² | 지정일 2011년 10월 13일





문화재 현황

영실기암은 한라산 서남쪽 해발 약 1,600m 위치에서 아래로 약 250m 길이의 수직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싼 지형을 말한다.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내부를 가로지르는 도순천은 영실기암에서 선작지왓 탐방로 일원에서 발원하여 강정천과 합류한 뒤 남쪽 바다로 흘러간다. 영실기암은 영주12경 중 제9경으로 춘화, 녹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며 울창한 주변 수림지와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이다. 주변에 영실기암 일원의 남서쪽에 커다란 말굽형 분화구인 오백장군 오름이 있고, 서남쪽으로 존자암, 존자오름, 불레오름 등이 위치한다. 탐방로를 따라 영실 북동쪽으로 한라산 정상이 조망된다.

자연·인문환경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은 화산분출물이 침식되어 기암괴석을 이루는 지역으로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이 한라산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범정동조면현무암이 감싸는 지형이다.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일원에서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수직경사를 이루고, 경사지에 돌출된 주상절리 바위를 오백나한상이라고 부른다.

영실기암 일원의 식생특징으로 상부에는 제주해안 전역에 해송이 분포하는 것과 달리 적송이 생육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조릿대 군락을 비롯한 관목 및 초본류가 분포한다. 이 지역은 한대성 기후대 성격을 지니며 약 450종의 희귀식물이 자생한다. 주요 식물상으로 개버찌나무, 구상나무, 당단풍나무, 마가목, 분단나무 등 교목층이 있으며, 주요 관목층은 노린재나무, 마삭줄, 바위수국, 보리수나무, 붉은병꽃나무, 산철쭉, 섬매발톱나무, 섬쥐똥나무, 시로미, 윤노리나무, 제주조릿대, 청가시덩굴, 털진달래 등이 분포하고 있다.



영실기암의 동북쪽 수직절벽은 1,200여 개의 다양한 형태를 지닌 기암괴석이 빙 둘러져 하늘을 받치는 기둥처럼 솟아있으며,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영산^{靈山}의 모습과 같다 하여 영실^{靈室}이라 불렀다고 한다. 수직으로 뻗은 주상절리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병풍을 쳐 놓은 것 같아 ‘병풍바위’라고도 불렸으며, 설법을 경청하는 불제자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오백나한’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또한 억센 장군들과 같다 하여 오백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85년 『제주도 전설지』에는 5백명의 아들을 데리고 살던 홀어머니가 돌로 변했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다.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일원은 김상헌^{金尙憲}(1570~1652), 위백규^{魏伯珪}(1727~1798) 등의 기문과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 「영주산대총도^{嶺州山大總圖}」 등의 옛 그림에서 전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일원은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화산지형으로 주상절리가 오백나한의 형상을 하고 있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영실기암 일원에 흐르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온대와 한대가 나뉘는 식생한계선 특수지역으로 영실 소나무림은 제주도에서도 큰 균락을 이루는 대표 식생경관으로 유명하다. 이곳에 형성된 식생은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의 혼효림이 발달하였으며, 특산식물 및 희귀식물 등 약 450여 종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Yongchupokpo Falls in Simjin-dong, Hamyang

56

지정번호 명승 제85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6-4 등 | 지정면적 20,271m² | 지정일 2012년 2월 8일





문화재 현황

용추폭포가 있는 계곡 전체를 지금은 용추계곡으로 부르는데, 옛날에는 안의삼동(安義三洞)의 하나로 심진동(尋眞洞)이라 하였다. 용추계곡, 심진동 혹은 심원정(尋源亭) 계곡으로도 불리는 이 계곡에는 깎지소를 비롯해 용소, 매바위, 심원정, 상사바위와 상사폭 등이 있는데, 대부분 장수사(長水寺) 일주문 아래쪽에 있다. 지금은 없어진 장수사에서 유일하게 남은 일주문을 지나 계곡 상류지점에 용추사(龍湫寺)사찰이 있고 절 마당 아래로 난 길을 따라 계곡으로 내려가면 용추폭포가 있다. 또 용추사에서 2.6km 더 올라가면 용추사 자연휴양림이 있어 한여름의 계곡 피서지로 활용되고 있다. 용추계곡 상류에는 기백산 국립공원과 용추자연휴양림이 있고, 서북쪽 산 정상에는 정유재란 때 왜군과의 혈전이 벌어졌던 함양 황석산성(사적 322호)이 있다.

자연·인문환경

심진동 일원에 대한 지형 현황을 살펴보면 북동쪽에 위치한 기백산(1,331m)의 연봉들이 남서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 남동방면의 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과 남서쪽의 거망산(1,245m), 황석산(1,190m)의 연봉이 북동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 심진동 일원의 초입부(360m)에서 장수사 일주문(495m), 용추폭포(595m)로 이어지는 계곡 지형을 따라 북동방면으로 지형이 높아진다. 용추계곡 내부에 대



한 경사도는 용추폭포에서 남강천으로 유입되는 하류까지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으나,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사면들이 전체적으로 급경사를 형성하고 있다. 계곡을 따라 백악기 화강암류의 암괴가 노출되며, 소나무류, 참나무류, 단풍나무류의 울창한 식생들로 둘러싸여 경관이 빼어나고, 용추에서 떨어지는 우레와 같은 폭포수, 그 아래의 깊은 호수의 모습은 구곡동천(九曲洞天)의 전형이다. 용추폭포는 높이가 약 30m이고 호소의 직경이 약 25m이며 깊이는 매우 깊다.

용추폭포는 안의삼동(화림동, 심진동, 원학동)의 제1경으로 맑은 물, 푸른 숲, 높은 하늘, 시원한 바람이 웅장한 폭포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다. 계곡을 휘감아 돌아 달려온 물이 너럭바위를 미끄러지면서 높이 약 20여m 아래로 쏟아지는 물줄기는 크기와 수량에서 용추(龍湫)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의 수많은 폭포 가운데 제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폭포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고 거제수나무가 많아서 그 수액이 위장병, 부인병, 신경통, 성인병 등에 효험이 있다 하여 이른 봄이 되면 폭포 주위에 모여들어 휴식을 취하며 거제수 수액을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용추폭포의 아래 용소에는 용이 되려던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어느 날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용이 하늘로 오른다’라고 큰 소리를 치자 이무기는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 뒤부터 장수사의 파계승이 생기면 이 용소로 유인하여 징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사문학의 대가 박인로(朴仁老)(1561~1642)는 심진동과 용추를 중국 송나라 때 정호, 정이 형제가 주야불식(晝夜不息)하며 살던 풍광 좋은 곳, 낙수이천(落水伊川)에 비유하여 노래했고, 조선 중기 학자 이현량(李顯良)(1679~1737)은 “용추”라는 시를 남겼다.

우리나라 명승 중에 이곳이 최고라네, 금강폭포, 송악박연도 이보다 못하리,
 천길 옥산이 땅으로 붕괴하듯 백층 은옥이 허공중에 솟구친 듯...
 천광석화처럼 쏟아져 두 눈이 아찔, 천둥소리처럼 요란해 두 귀가 멍멍...
 밤비에 물 불어 하얀 물결 더하니, 오늘의 장대한 구경 천공에 의지했네

문화재적 가치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는 우리나라 동천구곡의 대표격인 안의삼동(安義三洞)의 하나인 심진동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심진동 상류에 있는 용추폭포를 유람하면 안의삼동의 명승유람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으며, ‘용추폭포’라는 이름의 수많은 폭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명소이다. 용추폭포는 높이 약 15m, 호소의 직경이 약 25m로 지우천 상류에 형성된 좁은 골짜기를 따라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의 울창한 삼림과 암반 위를 흐르는 맑은 계류, 용추에서 떨어지는 우레와 같은 폭포수, 그 아래의 깊은 호수 등이 어우러진 명승지이다.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Geoyeon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in Hwarimdong, Hamyang

57

지정번호 명승 제86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582 등 | 지정면적 20,143m² | 지정일 2012년 2월 8일





문화재 현황

화림동은 안의에서 장수방향으로 난 옥십령 고개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계곡이다. 화림동 계곡의 상류에 위치한 거연정은 화림동 계곡이 넓은 폭으로 이루어진 골짜기에 조성된 정자다. 동천이나 구곡은 일반적으로 좁은 협곡의 기이하고 특별한 경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거연정은 상대적으로 넓은 골짜기의 기암괴석에 자리하고 있는 정자다.

거연정은 화림동 계곡의 하천 한 가운데 암반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교(虹橋)(무지개다리) 형태의 화림교를 건너야만 진입할 수 있다. 화림동 계곡의 청량하고 풍부한 물줄기가 만든 깊고 푸른 못과 너럭바위, 우뚝 솟은 기암괴석, 기암 위의 분재와 같은 형상의 소나무와 날렵하게 자리한 정자가 절묘하게 한 폭의 산수화를 이루는 절승의 경치가 바로 ‘거연정 일원’이다.

자연·인문환경

화림동은 안의삼동 중 하나의 동천(洞天)으로 신선의 세계이다. 화림동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승경이 연계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곳곳의 절승에 정자들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요산요수하며 음풍농월을 즐기던 안의 지방의 선비들이 맑은 계곡과 수정 같은 옥수 곁에 지은 정자들이다.

거연정은 조선시대 중기에 화림재 전시서(全時敍)가 지은 정자다. 화림동 계곡을 흐르는 남강천 암반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거연정은 매우 특별하고 수려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거연정은 중층으로 된 누각 형태의 정자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서 내부에는 판재로 벽체를 구성한 1칸의 판방을 갖추고 있는 유실형(有室形) 정자다. 굴곡이 심한 천연의 암반 위에 조성된 정자로서, 암반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정자의 아랫부분은 주초를 세운 후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바위 표면이 높은 곳은 주초 없이 기둥을 세우기도 했다. 이 정자는 자연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옛사람들의 자연친화적 건축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거연정은 선인들의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정자다.

거연(居然)이란 주자의 시 정사잡영(精舍雜詠) 12수 중 ‘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에서 따온 것으로 ‘물과 돌이 어울린 자연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거연정 맞은 편 기슭의 바위에 ‘방수천(訪澗川)’이라는 각자가 있다. 이것은 북송의 성리학자 정명도(程明道)의 시 ‘방화수유과전천(訪花隨柳過前川)’의 구절을 줄여 바위에 새긴 것으로 꽃피는 봄철 거연정 경치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경치의 의미를 함축한 글이다.

화림동 계곡의 풍광은 ‘팔정팔담(八亭八潭)’이라 한다. 안의삼동에는 정자가 매우 많다. 이곳에 이렇게 정자가 많은 것은 사화와 당쟁으로 영남의 선비들이 산수 간에 은둔하고 시와 서를 논하며 풍류를 즐겼기 때문이다. 현재 화림동 계곡에는 거연정(居然亭)을 비롯해 군자정(君子亭), 동호정(東湖亭)과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근래에 복원된 농월정(弄月亭) 등이 남아 있다.

거연정은 우리나라 별서정원의 전통적 형식이라 할 수 있는 계원(溪園)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자다. 계원이란 계곡의 자연 지세와 계류를 이용해 조성한 정원형식을 의미한다.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동 정원처럼 계곡 주위에 정자와 더불어 약간의 정원시설을 설치한 고



정원의 형태가 곧 계원^{溪園}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계원의 원형은 정자에서 비롯된다. 아름다운 산수 속에 위치하고 있는 소박한 정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거연정 일원은 하나의 계원이다. 또한 거연정을 비롯해 화림동 계곡에 줄지어 있는 정자들은 하나하나의 작은 계원을 계속 연결하고 있어, 화림동천을 거대한 하나의 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명승의 가치를 판단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조망지점에서 바라보이는 명승의 아름다움이다. 일반적으로 밖의 조망지점에서 정자를 중심으로 한 계원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든 계원은 대단히 아름다운 조망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계류를 끼고 있는 기암괴석의 절승에 정자가 자리하고 있는 계원은 더욱 아름답다. 화림동 계곡에 남아 있는 정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정자는 거연정이 유일하다. 맑은 계류가 깊은 못을 이룬 계곡에 기암괴석, 수려한 소나무와 함께 정자가 어울려 절승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 거연정 일원은 신선의 세계라고 일컫는 동천의 모습이다.





밀양 월연대 일원

Woryeondae Pavilion and Surroundings, Miryang

58

지정번호 명승 제87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 330-7 등 | 지정면적 72,796m² | 지정일 2012년 2월 8일





문화재 현황

‘월연대 일원’은 추화산(249m) 동편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방향에서 흘러오는 단장천과 서북방향에서 내려오는 밀양강이 합류하는 강변에 자리한 월연대는 폭넓은 밀양강의 풍광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밀양강과 단장천이 합류되는 지점은 수량이 많아 큰 못을 이루고 너른 백사장과 강변 초지가 발달하여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이루고 있고, 밀양강 건너 강안에는 긴늘이라는 명칭의 소나무 숲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강물이 합류해 만든 월연대 앞의 큰 못이 월연(月淵)이다. 월연에는 보름달이 떴을 때 강물에 달이 비쳐 월주(月柱)가 서는데 이러한 풍경을 월주경(月柱景)이라 한다. 월연대 일원은 특히 월주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며, 바위에 새겨진 암각글씨와 월연12경 등 다양한 문화경관 요소를 지니고 있는 명승이다.

자연·인문환경

월연대 일원은 쌍경당(雙鏡堂), 제헌(霽軒), 월연대(月淵臺) 등의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연대는 월연 이태(1483~1536)가 월영사(月影寺)라고 하는 절이 있던 곳에 지은 정자다. 임진왜란 때 월연대 일원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 1757년 쌍경당이 중건되었고 1950년 제헌과 함께 다른 건물이 모두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연대 일원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경관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자 앞을 흐르는 밀양강은 매우 인접한 경관요소인데 이곳에 넓은 못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이 못 위에 월주경(月柱景)이 서서 긴 수경 축을 만든다. 월주가 서는 기망일(既望日)*에 월연대에서는 시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월연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대상으로 월연정 12경을 구성했는데 그 중 제1경이 징담제월(澄潭霽月)로 월주경을 의미한다.

* 음력으로 열셋째 날



쌍경당과 월연대 사이에는 영월간迎月澗이라는 실개천이 흘러내린다. 월연대 일원의 경관요소로는 동천, 밀양강, 영월간과 같은 수경요소를 비롯해 쌍청교雙淸橋, 수조대垂釣臺, 탁족암濯足巖, 행단杏壇, 죽오竹塢, 한림이공대翰林李公臺 등이 있다.

월연대의 초창자인 이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엘리트 관료들을 지칭하는 한림8학사(8한림)에 들었던 젊고 유능한 관료였으나 기묘사화가 발생하자 곧 밀양으로 낙향했다. 1520년(중종 15) 쌍경당과 월연대를 짓고 월연주인月淵主人, 금서자琴書子로 스스로 호를 지었다. 월연대에 관한 기록으로 유후조柳厚祚의 증견기를 보면, 월연月淵은 ‘마음이 달처럼 빛나고 마음이 깊은 못과 같다.’는 의미라고 한다. 월연대12경은 징담제월澄潭霽月, 적벽광풍赤壁光風, 용강수죽龍岡脩竹, 호탄장교虎灘長橋, 이연어적梨淵漁笛, 백곡초구柏谷樵謳, 기암홍화妓巖紅花, 금교황운琴郊黃雲, 양장모우羊場暮雨, 앵수조하鶯岫朝霞, 백석수조白石垂釣, 전강어화前江漁火 등으로서 월연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연대 일원의 조망 축은 셋이다. 제1축은 월연대 12경 중 제3경 용강수죽龍岡脩竹의 대상지인 용두산을 향하는 축이고, 제2축은 남쪽의 금오산을 조망대상으로 하는 축이다. 제3축은 앵수조하鶯岫朝霞의 대상지로거 북동방향의 피꼬리봉을 향하는 조망 축이다.



문화재적 가치

월연대 일원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43호에서 승격 지정된 명승이다. 조선조 중종 시절 지조와 청명^{淸名}으로 이름난 월연 이태가 관직을 물러나 은일자로서 자연에 회귀하여 유유자적한 은일생활을 즐기고자 지은 별서원림이다.

밀양강과 동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월연대에서 조망되는 강변풍경과 함께 보름달이 떴을 때 잔잔한 밀양강의 넓은 못 위에 서는 월주경은 월연대 경관의 백미를 이룬다.

월연대 일원은 추화산을 배경으로 하는 배산임수의 탁월한 지형조건, 밀양강의 다양한 수경요소, 월연대, 제헌, 쌍경당 등 전통한옥 건물, 바위에 새겨진 암각글씨, 월주경을 바탕으로 하는 시회 등 자연경관요소와 문화경관요소가 풍부한 명승이다.





거창 용암정 일원

Yongam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Geochang

59

지정번호 명승 제88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 등 | 지정면적 10,996m² | 지정일 2012년 4월 10일





문화재 현황

1801년(순조 1)에 지어진 용암정은 평평한 바위 위에 건립된 정자이며, 정자에서 바라보이는 요수원 계곡은 계류, 급류, 소 등이 이어져 아름다운 수경관을 보여준다. 용암정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모두 여섯 칸으로 구성된 정자로서, 후면의 중앙에 한 칸의 방을 들인 유실형^{有室形} 정자다. 방을 가지고 있는 용암정은 별서^{別墅}로, 또한 학문하는 장소로 사용된 정자다.

용암정에는 환학란^{喚鶴欄}, 반선헌^{伴仙軒}, 청원문^{聽猿門} 등의 편액이 걸려있어 동천을 의미하는 용암정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용암정 주위에는 강선대^{降仙臺}, 환선대^{喚仙臺}, 수승대^{搜勝臺}, 척수대^{澈愁臺}와 같이 신선과 관련된 장소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용암정을 포함한 원학동이 신선의 세계임을 상징하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용암정은 원학동 골짜기의 계곡을 따라 흐르는 위천 변에 세워진 정자다. 원학동 계곡의 명승으로 잘 알려진 수승대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km 정도 올라간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덕유산에서 발원된 소정천과 남덕유산에서 시작되는 월성천이 북상면 소재지에서 합류되어 위천을 이루는데, 이 위천이 시작되어 수승대로 향하는 계곡이 요수원계곡이다. 요수원계곡은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골짜기이며, 용암정은 이 계곡의 남쪽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용암정은 갈계 마을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온 용암^{龍巖} 임석형^{林碩馨}(1751~1816)이 1801년(순조 1)에 지은 정자다. 선대 어른들이 소요하기를 즐겨했던 용암에 임석형이 친척들과 함께 용암정을 지었

* 아름다운 경치



다. 임석형의 가문에서는 대대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풍조가 있었다. 이러한 가풍의 영향으로 임석형 또한 출사**를 생각하지 않고, 원학동 요수원계곡의 동천 안에서 일생동안 안빈낙도를 즐기며 선유^{仙遊}한 인물이다.

** 벼슬을 하여 관직에 나아감

정자를 두르고 있는 자연은 산과 물^{山水}이다. 산수가 빼어난 정자에는 대부분 다수의 편액이 걸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자의 명칭, 창건 및 중건의 내용, 정자에서 읊은 시 정자제영^{亭子題詠}을 새긴 액자이다. 용암정은 정자의 주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환학란^{喚鶴欄}, 반선헌^{伴仙軒}, 청원문^{聽猿門} 세 글자를 가로 쓴 편액이 정자 안에 걸려 있다. 환학^{喚鶴}, 반선^{伴仙}, 청원^{聽猿}의 의미는 모두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용암정 일원은 곧 동천의 세계임을 상징한다.

용암정의 남쪽에는 학담^{鶴潭}이 위치하고 있다. 학담은 천상의 새, 청학이 깃든 못을 의미한다. 환학란^{喚鶴欄}은 ‘청학을 부르는 난간’이란 의미로 용암정의 난간을 뜻한다. 또한 정자의 서쪽으로는 십이지의 하나인 잔나비를 상징하는 금원산^{金猿山}이 우뚝하게 솟아 있다. 용암정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그 의미의 상징을 금원산으로부터 가져왔다. 용암정의 주변에는 문화경관적 의미를 지닌 다양한 경물^{景物}들이 흩어져 있다. 거북이 머리^{龜頭}, 자라^鼈, 병풍^屏, 우산^傘, 도장^印, 사자^獅, 새끼 용^螭, 토끼^兔 등을 상징하는 바위들이 정자 주변 이곳저곳에 위치하고 있어 용암정 일원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용암정을 찾는 이들에게는 관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용암정은 안의삼동^{安義三洞}(심진동, 화림동, 원학동)이라는 동천에 지어진 정자다. 안의 삼동의 동^洞은 동천^{洞天}을 뜻한다. 동천은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은일처사들이 산수가 빼어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한 후, 그가 속한 산수자연에 명명한 어휘이다. 조선시대 안의현은 산수가 수려한 곳이 많아 3동천(심진, 화림, 원학)을 지니게 된 곳이다.

덕유산 아래 깊은 계곡의 물가에 위치한 용암정 일원은 안의삼동의 동천경관을 대표하는 장소 중의 하나다. 요수원계곡의 산자수명한 골짜기에 위치하여 굽이치는 계류와 수려한 자연을 두르고 있는 용암정은 자연환경 조건도 매우 우수하며, 환학^{喚鶴}, 반선^{伴仙}, 청원^{聽猿} 등의 편액이 신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함은 물론 학담^{鶴潭}, 거북이 머리^{龜頭}, 자라^鼈, 병풍^屏, 우산^傘, 도장^印, 사자^獅, 새끼 용^螭, 토끼^兔 등을 상징하는 경물들이 용암정 일원의 문화적 의미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용암팔경’으로 제영되어 읊어지기도 하는 용암정 일원은 신선의 세계를 의미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명승이다.



志保村



화순 임대정 원림

Imdaejeong Garden, Hwasun

60

지정번호 명승 제89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01 등 | 지정면적 11,027m² | 지정일 2012년 4월 10일





문화재 현황

화순읍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정도 떨어진 사평리에 위치한 ‘임대정 원림’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진다. 정자가 위치하고 있는 상원은 지대가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고, 하천 방향의 낮은 지대에는 지당 중심의 하원이 조성되어 있다.

상원에는 남쪽 끝부분에 임대정이 위치하고, 정자 앞으로는 사애선생장구지소(沙厓先生杖屨之所)라고 각자된 입석이 서있고, 입석의 우측에는 작은 규모의 사각형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하원은 상지와 하지 2개의 연못으로 조성되어 있다. 하원의 연못은 자연형 연못으로 산지에 2개소, 하지에 1개소의 중도(中島)가 만들어져 있다. 섬 안에는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고,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대나무 숲이 원림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는 동북현(同福縣)에 속해 있었던 사평촌을 돌아 흐르는 외남천 변에 임대정 원림이 자리하고 있다. 외남천에 놓인 사평교 다리를 건너 우측방향으로 난 사평길을 따라 500여m 정도 내려가면 임대정 원림이 위치하고 있다. 임대정 원림의 상원으로 진입하면 자연석이 입석으로 세워져 있다. 입석에는 ‘사애선생장구지소(沙厓先生杖屨之所)’라고 쓰여 있다. 장구(杖屨)라 함은 지팡이(杖)와 신발(屨)을 의미하는 글자로서, 장구지소(杖屨之所)는 사애 민주현이 즐겨 찾던 곳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임대정 원림은 16세기 후반 남언기가 조성한 고반원에서 유래한다. 고반(考槃)이란 「시경(詩經) 위풍(衛風) 고반(考槃)편에 “고(考)는 이룬다는 뜻이고, 반(槃)은 머뭇거리 멀리 떠나지 않는 모양이니 은거할 집을 이룬다는 말이다. [考成也 槃盤桓之意 言成其隱處之室也]”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고반은 은일자가 은거할 집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19세기 후반 민주현(閔貞顯)(1808~1882)이 귀향하여 이 고반원의 옛터에 정자를 건립하고 임대정(臨對亭)이라 명명했다. 임대정(臨對亭)은 주돈이(周敦頤)(1017~1073)*가 그의 향촌생활 모습을 ‘새벽 물가에 임하여 여산을 바라보네(終朝臨水對廬山)’라고 묘사한 시구에서 취한 명칭이다.

임대정 원림의 상원은 정자를 중심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높은 지반에 조성되어 있지만 매우 평평하다. 임대정이 남쪽으로 위치해 있고 그 앞에는 작은 규모의 사각형 연못(방지)이 있으며, 못 속에는 둥근 섬(원도)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지당은 우리의 선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음양의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방지 안의 섬 정면에는 조그마한 입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에는 세심(洗心)이라는 글이 새겨 있다. 방지 앞으로는 지당에 붙여 평평한 돌을 놓아두었는데, 이 평석은 3면에 음각으로 각자가 되어 있다. 앞면에는 기입석(鼓臨石)이라해 ‘걸쳐 앉는 돌’이라는 뜻의 각자이고, 오른쪽 면에는 피향지(披香池)라고 쓰여 ‘연꽃의 향기가 멀리 흩어지는 것’을 뜻하며, 왼쪽 면에는 읍청당(擘淸塘)이라 각자되어 ‘연꽃의 맑은 향기를 붙잡아 당긴다.’는 의미다. 피향지(披香池)와 읍청당(擘淸塘)은 각기 향(香)과 청(淸)이라는 글자가 중간자가 되어 구성된 어휘인데, 이것은 주돈이의 애련설의 한 구절인 ‘향기는 멀리 있을수록 더욱 맑다(香遠益淸)’는 글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임대정 원림에 새겨진 이러한 각자들은 모두 조선의 유림으로서 민주현이 따르고자 하는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로 우주의 근원(태극, 음양오행)과 군자의 삶에 대한 글을 남긴 수필 애련설(愛蓮說)을 통하여 연꽃을 군자의 삶에 빗대었음.

상원의 방지는 산골짜기에서 끌어들인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지를 넘친 물은 흙통(飛溝)을 통해 폭포처럼 하원의 지대로 떨어진다. 하원은 낮은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지와 하지 2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못은 자연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두 연못 사이는 수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상원에서 부감되는 하원의 모습은 배롱나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림이 연못과 어울려 아름다운 원림경관을 보여준다.

문화재적 가치

임대정 원림은 매우 아름다운 별서정원이다. 임대정 원림 외에도 호남지방에는 이러한 고정원이 많다. 담양의 소쇄원, 명옥헌 원림을 비롯해 보길도의 부용동 원림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고정원이 호남지방에 보존되고 있다.

시서화(詩書畵)를 즐기고 풍류와 전통을 지키려 하는 남도 사람들의 오랜 문화에서 유래된 전통이다.

임대정 원림은 풍수적으로 학(鶴)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는 지형을 잘 활용하여 조성한 원림으로서 상원, 하원으로 구획된 정원구역에 각기 방지, 상지, 하지의 연못을 조성하고 다수의 각자를 통해 원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별서정원이다.







한라산 백록담

Baengnokdam Crater Lake on Hallasan Mountain

61

지정번호 명승 제90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 지정면적 210,230m² | 지정일 2012년 11월 23일





문화재 현황

백록담이 위치한 한라산은 해발 1,950m로 남한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제주도 전역이 한라산 권역에 해당한다. 신생대 화산작용으로 조성된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으며, 높이 약 140m, 긴 면 585m, 짧은 면 375m의 규모로 한라산의 중앙화구이다.

백록담 분화구(깊이 108m, 직경 약 550m)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지니는데 서쪽 외륜은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동쪽 외륜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부는 침식방지를 위한 녹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백록담 동측부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백록담 조망이 용이하다. 과거에는 약 5~10m 깊이의 수심을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담수능력이 약해져 수심이 낮아지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백록담은 화산체 백록담조면현무암의 스킨리아층 및 용암류를 분출시켜 형성된 산정 화구호로 화구 내에 화구호가 있는 독특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다. 백록담에는 서쪽 사면의 한라산조면암과 동쪽 백록담조면현무암이 서로 다른 암상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화산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백록담의 지형은 서쪽과 북쪽의 급경사지와 동쪽의 완만한 경사지가 발달해 있고, 남쪽 사면에서는 절벽 상부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백록담 분화구를 중심으로 분화구 사면에 방사상 또는 동심원상의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한라산 정상부와 삼각봉 사이에 한라산 정상부에서 떨어져 나온 애추성 역암으로 구성된 협곡이 펼쳐져 있다.

백록담은 연중 운무가 자욱하고 습윤한 기후가 대부분이고,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으로 지중식물이 약 70%에 가까운 전형적인 고산식물 자생지의 특성이 나타난다. 제주산버들, 섬매발톱나무 등 28종의 특산식물과 흰그늘용담, 시로미, 설앵초 등 30종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백록담의 사면에는 토양환경이 양호한 분화구 남서측을 중심으로 구상나무가 주로 자라나고 북동사면 토층에는 흰그늘용담이 우점하는 초본류 위주의 식생이 발달했다.

백록담은 신선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백록주를 마시고 놀았다는 전설과 흰 사슴으로 변한 선녀의 전설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한다. 『탐라지초본』 하권에는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 꼭대기에서 사슴을 쏘았는데, 잘못하여 옥황상제天帝의 배꼽을 쏘게 되었다. 이에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주봉柱峰을 뽑아 던졌는데, 이때 뽑힌 주봉의 자리가 백록담白鹿潭이 되고 산정부가 던져진 곳은 대정현 남쪽지역으로 산방山房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갔으며, 특히 1578년 임제林檎(1549~1587)는 ‘구덩이와 같이 함몰되어 못이 되고, 둘레는 7~8리이다.’라고 기록하였고, 1601년 김상헌金尙憲(1570~1652)이 ‘정상은 함몰되어 솔의 형상으로 사면에는 향기로운 풀로 뒤덮여 있으며 가운데에 두 개의 못이 있고, 얇은 곳은 종아리가 빠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 빠진다.’라고 하여 백록담 일대의 경관을 자세히 묘사한 바 있다.

문화재적 가치

한라산 백록담은 제주 화산체 중에서 화구 내에 화구호가 존재하는 희귀한 자연경관으로 연중 습윤한 기후와 거센 바람에 견디는 고산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28종의 특산식물과 30종의 희귀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겨울에 쌓인 눈이 여름철까지 남아 영주 제1경인 녹담만설(綠潭晩雪)의 대상지가 되며, 한라산 정상을 다녀간 김창흡(金昌翕)(1653~1722), 허목(許穆)(1595~1682), 송시열(宋時烈)(1607~1689) 등 당대 유명 인사들이 다녀간 유람록과 정상부 동벽과 북벽에 새겨진 최익현(崔益鉉)(1833~1906), 이익(李瀾)(1579~1624) 등이 새긴 마애석각 등의 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다.

한라산 백록담



백록담에 담긴 많은 설화 중 선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한라산 정상 못(호수)에는 매년 북날이 되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였습니다. 7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때면, 한라산에 지내는 산신령은 방선문으로 내려가 있다가, 선녀들이 목욕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후 다시 한라산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북날 미쳐 방선문으로 내려가지 못한 산신령은, 한라산 정상 호수에서 목욕하고 있는 선녀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때, 산신령을 발견한 선녀는 기겁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노한 옥황상제는 산신령을 흰 사슴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매년 북날이면 ‘흰 사슴’로 변한 산신령이 이 못에 나타나 슬피 울었으며, 이 못을 ‘흰 사슴 못’ 즉, 백록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라산 선작지왓

Seonjakjiwat Plain on Hallasan Mountain

62

지정번호 명승 제91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등 | 지정면적 632,485m² | 지정일 2012년 12월 17일





문화재 현황

선작지왓은 한라산의 초원지대 중 해발 1,500~1,700m 지점의 너른 평탄지로 되어 있다. 영실기암 상부로부터 북쪽까지는 윗세오름이라 부르고, 동쪽에 방애오름과 연결되어 있다. 예로부터 선작지왓은 넓은 초지와 수계가 위치하여 목축지로 활용되었으며, 선작지왓을 흐르는 노루샘은 고내봉(173m) 남쪽 '보섭코지'에서 이어지는 샘으로 갈수기에도 항상 수원이 풍부한 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작지왓은 고원지대의 자연특성과 털진달래 군락과 산철쭉이 우점하는 봄철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며 평원을 따라 올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선작지왓의 평원에서 내려가며 한라산의 빼어난 조망이 이루어진다.

자연·인문환경

선작지왓은 한라산의 아고산대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순상화산의 특징이 나타난다. 선작지왓은 법정동조면현무암, 윗세오름조면현무암, 백록담조면현무암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록담조면현무암은 한라산 정상에서는 유리지응회암 혹은 스킨리아층으로 피복되어 있으나 한라산조면암 특질로 생성된 붉은오름역암이 윗세오름에서 나타난다. 윗세오름조면현무암의 북단부는 윗세붉은오름이며, 남단부는 영실 남측과 이어진다. 윗세붉은오름 능선부에는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은 용암언덕이 형성되어 있으며, 암질은 휘석, 사장석, 감람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윗세오름 중봉인 누운오름 자락에 위치한 노루샘은 가뭄이 심할 때를 제외하면 연중 물이 흘러 선작지왓 일대의 동물과 식물의 생육에 중요한 요소이다.

선작지왓은 털진달래와 산철쭉 군락, 눈향나무, 시로미 등 포복성 고산식물 군락으로 나뉘는데,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국내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군락지이며, 한라산 중 최대면적의 눈향나무 자생지가 위치한다. 이곳에는 구름떡쭈, 금방망이, 흰땃딸기, 두메대국, 손바닥난초, 제주달구지풀, 한라돌창포 등의 특산식물과 희귀식물이 있으며, 털진달래와 철쭉 사이에는 시로미와 눈향나무 등 관목류가 자라나고 백리향, 한라구절초, 설앵초, 구름송이풀 등 다양한 꽃들이 계절별로 꽃을 피워 식생경관을 이룬다.

선작지왓은 제주도 방언으로 '선'은 '서 있다', '작지'는 '돌', '왓'은 '밭'을 뜻하여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선작지왓에는 청사초, 제주조릿대 등 가축의 먹이와 연중 마르지 않는 노루샘이 위치하여 방목이 가능했기 때문에 마을 위에 산이 있다는 의미로 '상산^산'이라 부르기도 했고 제주 특유의 목축문화가 행해졌던 곳이다. 이곳은 주변 목자들 사이에 질서를 지키며 '상산방목' 문화를 유지했던 제주의 대표 방목지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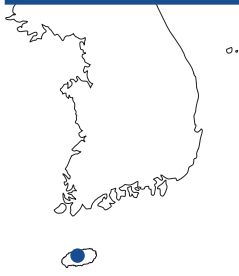
정지용 鄭芝溶(1902~1950)은 선작지왓 부근에서 소의 출산 장면을 묘사하였으며, 암소가 산길을 이용해 서귀포로 돌아갔다는 내용에서 산남지역으로부터 상산으로 올린 가축임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 전해진다.

문화재적 가치

선작지왓은 화산지형인 분석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완경사에 해당하는 남사면에는 암괴원이 위치한다. 선작지왓의 암괴원은 국내에 분포하는 암괴원 중에서도 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토양포행 현상에 의해 암석이 이동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선작지왓의 너른 초지에 4월부터 6월까지 분홍색으로 뒤덮인 털진달래 및 산철쭉 군락의 경관이 빼어나며, 겨울철 흰 눈으로 뒤덮인 설원과 이를 배경으로 한라산 정상이 조망되는 곳이다. 선작지왓은 한라산의 초원지대 중 교목이 거의 없는 고산평원지역에 낮은 관목류가 널리 분포하는 특징을 지니며, 옷세누운오름과 옷세붉은오름 사이의 노루샘에서 용천한 고원습지가 발달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제주 방선문

Bangseonmun Natural Arch, Jeju

63

지정번호 명승 제92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등 | 지정면적 15,353m² | 지정일 2013년 1월 4일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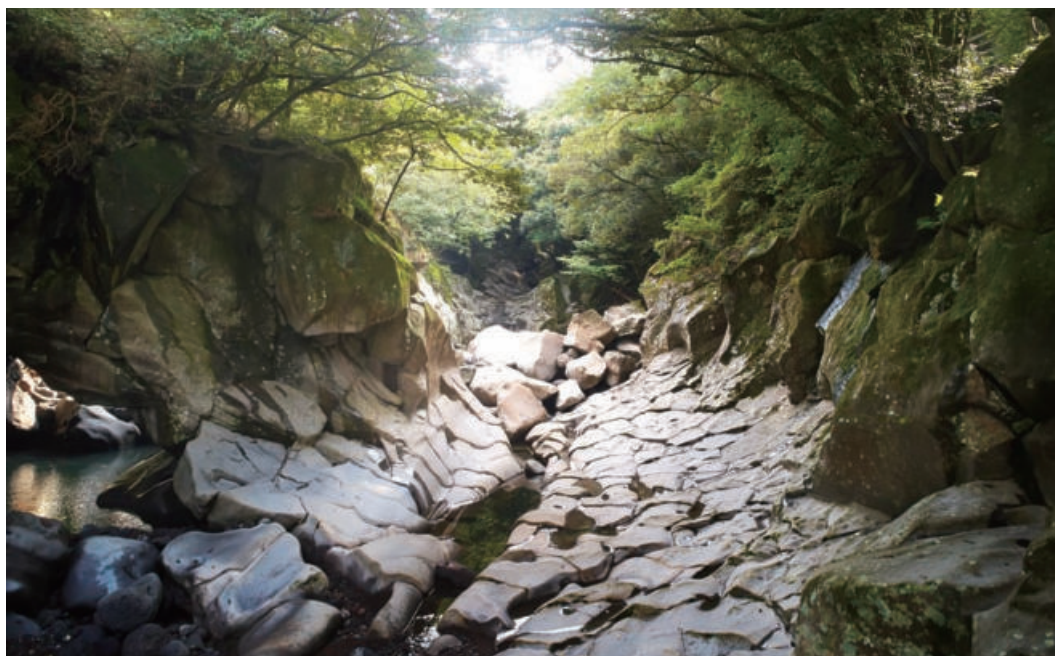
방선문이 위치한 한천은 길이 20.18km의 제주도 내 가장 긴 하천으로, 제주시의 3대 하천 중 으뜸으로 꼽힌다. 한천은 한라산 백록담 북측에서 발원하여 용담동 용연^{龍淵}까지 급한 경사를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천 대부분은 건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우기에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흘러 일부 구간에 유수의 차별침식으로 소^澗가 형성되어 있다.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의 방선문^{訪仙門}에는 시대별로 이곳을 다녀간 인물들의 바위각자가 다수 새겨져 있다.

자연·인문환경

방선문은 앞뒤가 트여있고 상부에는 지붕처럼 수림이 덮여 있는 모습이 마치 대문을 열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두 계곡이 합쳐지는 지역에서 현무암질 용암류^{溶岩流}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일부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식동굴 일부가 남아있는 일종의 용암교^{溶岩橋} 또는 자연교^{自然橋} 형태이다.

방선문은 아치형의 지형경관이 대표적이며, 방선문 주변은 유수의 차별침식으로 U자형 건천을 이루고 곳곳에 바람, 물, 중력 등에 의한 마모로 형성된 포트홀이 확인된다. 방선문 계곡 하부에는 우기에 형성된 다양한 크기의 모래와 자갈이 산재해 있다.

방선문 주변 계곡은 계층구조와 종구성이 다양한 온대 극상림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교목층에는 구실잣밤나무와 가시나무류, 후박나무, 감탕나무, 먼나무, 동백나무, 녹나무 등 상록활엽수종들이 방선문을 중심으로 수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부에 광나무, 담쟁이덩굴, 마삭줄 등이 생육하고 있다. 초화류로는 콩짜개란, 제주십자고사리 등 상록활엽수림 내 어둡고 축축한 기후에 적응하여 바위와 나무줄기에 착생하는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갑작스런 호우나 태풍 피해 등에 의한 바위의 균열 등을 고려하여 방선문 주변의 관람은 통제하고 하천 위에 설치된 관람동선에서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방선문은 예로부터 등영구, 들렁귀(들렁계), 환선문, 거암곡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특히 들렁귀(들렁계)는 ‘속이 비어 툇 트임’이라는 뜻의 ‘들렁’과 입구를 뜻하는 ‘귀(계)’가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방선문^{訪仙門}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가는 문’, ‘신선이 사는 영산(한라산)으로 오르는 곳’이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영주 12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瀛邱春花}의 경승지로 제주 봄놀이의 명소이다.

이곳에 관한 전설로는 선녀의 목욕을 훔쳐보던 산신령이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 흰 사슴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방선문 일원은 대표적 한국 고전문학인 배비장전의 배경이기도 하다. 방선문은 예부터 한라산의 북쪽 지역에서 산을 오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으로 제주읍성-한천-탐라계곡-백록담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익태, 이형상, 이해조, 이원조 등 당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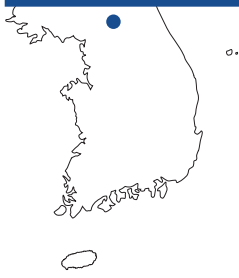


명인사와 시인묵객墨客, 제주에 유배 온 적객諫客,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부임했던 인물들이 이곳을 찾아 자신의 이름이나 이곳에 방문한 감회를 시문으로 남기고 글을 새기기도 하였으며, 현재 방선문의 바위에 새겨진 이름은 최익현, 심원택, 김몽규 등 60개가 넘는다.

문화재적 가치

방선문은 예로부터 영주 12경 중 영구춘화라 하여 명소로 꼽았던 곳으로 두꺼운 용암류溶巖流의 관상절리가 침식작용으로 아치 형태를 이루는 독특한 형상을 지니며, 방선문 계곡이 위치한 한천의 중류에는 U자형 협곡을 중심으로 하식에, 포트홀 등이 발달하였다. 주변에 우거진 상록활엽수림에 둘러싸인 방선문 계곡은 많은 시인묵객들과 제주목사, 제주에 유배 온 적객 등이 즐겨 찾았던 곳으로 지금도 이들의 바위각자가 남아있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포천 화적연

Hwajeogyeon Pool, Pocheon

64

지정번호 명승 제93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 등 | 지정면적 213,473m² | 지정일 2013년 1월 4일





문화재 현황

화적연은 강원도 평강군 장암산으로부터 발원하는 한탄강 본류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와 관인면 사정리 경계부에 위치한다. 협곡 사이로 흐르는 한탄강이 감입곡류하면서 침식작용에 의해 소궤를 형성한 화강암 일대를 지칭한다. 조선후기 『여지도서』에는 화적연을 ‘영평현 관아 북쪽 25리에 있고, 강원도 철원부의 경계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적연을 소재로 한 겸재 정선의 그림과 함께 많은 시들도 전해온다.

자연·인문환경

화적연은 한탄강의 감입곡류 지형에 위치한 13m 높이의 바위로 벼단을 쌓아둔 형태로, 거북이, 낙타 물혹 등 여러 형태로 연상되며, 배경이 되는 소나무숲과 조화를 이룬다. 한탄강의 깊은 물길은 주변의 백사장과 대비를 이루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고 있다.

화적연의 경관은 조선 후기 미수 眉叟 허목 許穆(1595~1682)의 「화적연기禾積淵記」에 “동쪽 강 언덕은 길게 이어진 절벽에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고 그 아래에 넓은 돌 마당인데 모두 흰 돌이다. 북쪽으로 물 가운데에 높이가 100척인 돌 봉우리가 서 있으며, 그 봉우리 정상에는 지극히 정靜한 약수가 있어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 곁에는 용혈 龍穴이 있고 석봉 아래의 넓은 강물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강물은 굽이쳐 감돌아 흐르고 남쪽 강 언덕에 이르러서는 푸른 절벽이 연못 속에 잠겨 있다. 강의 절벽 위로는 소나무숲이 우거져 있다.”라고 하여 조선시대 백색의 화강암 암반과 소나무숲을 돌아 흐르는 한탄강 등 화적연 주변의 경관구성요소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화강암이 위치한 남동쪽은 해발 400m 이하의 척박한 지형으로 소나무가 우점하였으나,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의 낙엽활엽수림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다. ‘화적禾積’은 우리말 ‘벼가리’의 한자말이고, 우뚝 솟은 화강암 재질의 큰 바위가 흡사 벼단을 쌓은 모습과 같아 화적연이라 불리었으며, 「영평팔경」 중 1경으로 꼽히는 영천(지금의 포천)지역의 명승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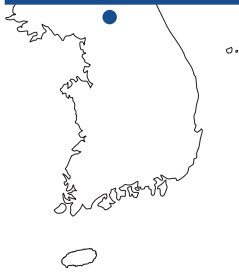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평가받는 겸재謙齋 정선鄭愼(1676~1759)이 금강산 초행길에 이곳에 들러 화폭에 옮겼으며 ‘해악전신첩’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동행했던 겸재의 스승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1653~1722)과 지기인 사천(佐川) 이병연李秉淵(1671~1751)은 그 그림에 시를 붙였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화적연 상단부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만들어 수해나 가뭄이 심하게 들면 폐백을 올려 중사中社를 지내기도 하였다.

문화재적 가치

화적연은 한탄강의 하천지형 중 대보화강암을 뒤덮은 현무

암층, 현무암 주상절리, 화강암 암반 등 다양한 지형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겸재의 그림과 동행했던 인물들의 제화시題畫詩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및 『여지도서』 등에서도 화적연의 경관을 기록한 여러 문헌들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하다.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Meonguri Gorge of Hantangang River, Pocheon

65

지정번호 명승 제94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7-3 등 | 지정면적 744,559m² | 지정일 2013년 2월 6일





문화재 현황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강원도 평강 장암산에서 발원한 한탄강이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부터 관인면 사정리를 지나며 형성된 협곡 일대를 지칭한다. 명우리협곡 일대에 흐르는 한탄강의 하식작용과 주상절리의 침식정도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하식지형들이 약 4km 구간에 걸쳐 발달하여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을 연상케하는 장관을 이룬다.

자연·인문환경

명우리 협곡은 한탄강의 다른 협곡들과 달리 변성암류와 현무암질 용암류의 부정합과 주상절리, 하식에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지질지형들이 연속으로 확인되는 20~30m 높이의 주상절리 협곡이다. 한탄강이 흐르면서 협곡에 발달한 주상절리의 약한 부분을 침식시켜 만들어진 하식동굴이 약 30기 이상 형성되어 있다. 변성암류와 화강암류가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비탈면의 모래톱을 형성하여 기반암이 지표면에 돌출된 경관을 이루고 있어 협곡 능선을 따라 한탄강 일대의 연속조망이 이루어진다.

명우리 협곡을 지나는 한탄강 유역은 과거 영평지역(지금의 포천)의 명승지인 「영평팔경」의 중심 지역으로, 절벽 상단에는 주로 소나무 군락이 우점하고 있으며, 이외에 참나무류의 활엽수 군락과 혼효림을 이루고 있다. 협곡의 하단에는 버드나무류의 아교목층과 초본층 두 개의 층위구조에서 초본식생이 발달하는 단층구조로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우리는 ‘명’과 ‘울리’가 합쳐진 지명으로 ‘명’은 ‘온몸이 황금빛 털로 덮힌 수달’을 가리키고, ‘울리’는 명우리 일원의 지형이 한자역의 ‘울’자와 같이 곡류하는 형태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따라서 명우리 지명은 ‘황금빛 털을 가진 수달이 사는, 강물이 휘어지며 흐르는 곳’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한탄강변 절벽이 험하여 걷다가 넘어지게 되면 ‘몸에 명우리진다’고 하여 ‘명우리 협곡’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또한 명우리 협곡을 지나는 ‘한탄강’의 명칭 또한 수직절벽 아래로 강이 깊어 농업용수를 얻지 못하고 농작지가 황무지로 방치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농부들이 ‘한탄했다’는 지명유래에서도 협곡 내 지형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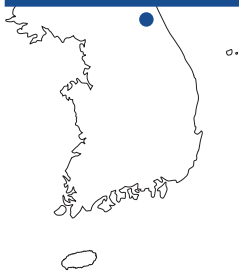
문화재적 가치

명우리 협곡 일원은 1990년대 초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 지역에 포함되어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다. 명우리 협곡 일대에는 수달, 원앙, 어름치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중요하며, 지표면과 하천수면의 고저차가 큰 한탄강의 협곡을 따라 주상절리, 하식동, 하식에 등 다양한 지형요소가 발달하여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협곡의 고지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하천경관이 빼어나며, 협곡을 따라 30개 이상의 하식동굴을 조망할 수 있는 레프팅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66

Biryongpokpo Falls and Surroundings in Seoraksan Mountain

지정번호 명승 제95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 지정면적 215,00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비룡폭포와 육담폭포는 외설악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지류를 따라 화채봉 북쪽 기슭에 만들어진 높이 약 16m를 이루는 폭포이다. 토왕골 계곡의 6개 폭포와 크고 작은 담과 소로 이루어진 육담폭포를 지나 1km 정도 오르면 비룡폭포가 있으며, 마치 용이 암벽을 타고 굽이쳐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절경을 보여주고 있다.

비룡폭포 계곡 진입공간인 설악동 입구에는 천연기념물 제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등이 있다.



자연·인문환경

울산바위 서쪽에서 시작하는 내원암골이 쌍천에 합류하는 지역의 동남쪽 피안에 화채봉의 북쪽 연장에서 시작하는 작은 계류 하나가 합류하는데 이 계류 중간에 비룡폭포가 형성되어 있고, 상류에 토왕성 폭포가 발달한다. 계류의 폭이 좁아 폭포의 폭도 넓지 못하다. 계곡은 좁으나 이에 반해 비교적 넓은 집수 유역을 가지고 있다. 폭포의 높이는 16m, 폭포 경사도는 44°, 고도는 370m, 폭포의 너비는 16m이다. 비룡폭포는 설악산의 지형 형성 과정과 그 시작이 맞물려 있다. 비룡폭포의 기반암인 설악산 화강암은 중생대 말인 백악기 초엽 즉 약 2억 1천만 년 전에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를 관입한 암석이다. 지질형성 결과 토왕골이 발달하였고 지질학적 기준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침식과 풍화는 곳곳에 발달된 절리를 따라 이루어지며 절리에 의해 암석들은 차별 침식을 받고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식생은 다양한 수종이 층위 구조를 형성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주로 남부지방에서 발견되는 사람주나무가 많은 면적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으며, 신갈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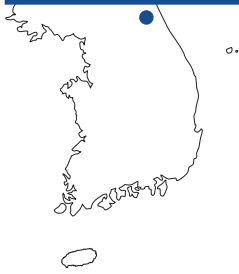
전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다릅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시달나무, 쪽동백나무, 층층나무, 함박꽃나무, 병꽃나무, 생강나무, 좁작살나무 등이 서식한다.

설악산 주 출입구인 설악동 일대와 화채봉으로부터 시작되는 화채능선 끝자락의 토왕골 및 토왕성 폭포와 그 아래에 현존하는 비룡폭포로 접근하는 계곡을 따라 길게 형성된 자연경관자원이 특징적이며, 비룡폭포 계곡 법정 탐방로를 따라 형성된 조망경관은 일반 탐방객들이 설악동 내에서 가장 쉽게 근접할 수 있다.

이곳에는 용에 관한 전설이 있다. 양양 향성리(지금의 속초)에 살던 사람들은 매년 비룡폭포 앞에서 산제 겸 기우제를 지낼 때 숫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딸을 낳은 부모들이 어린 딸을 시집보내거나 마을을 떠나기 시작해 처녀 없이 제를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효험이 없어 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되어 모두 굶어 죽게 되자 돈을 모아 처녀를 사서 제사를 지내려할 때 사방에서 비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한다. 비가 그칠 무렵 자욱한 안개 속에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며 그때부터는 처녀를 바치지 않아도 물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들지 않자 하늘로 올라간 용을 위해 제를 지내며 폭포 이름도 비룡폭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편, 육담폭포는 6개의 폭포와 담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김창흡(1653~1722)의 『설악일기(雪岳日記)』, 김몽화(1723~1792)의 『유설악록(遊雪岳錄)』에 설악산 일대의 여러 폭포 등 비경이 묘사되어 있다.

문화재적 가치

비룡폭포 계곡일원에는 육담폭포의 크고 작은 담과 소가 토왕골 계곡을 따라 비룡폭포를 정점으로 비경을 연출하며, 주변지형과 계곡, 담과 소, 식생들이 숲길을 따라 계속 이어져 절경을 이루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폭포로서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주변 바위 봉우리들 아래 이리저리 굽어 흐르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내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설악산 토왕성폭포

Towangseongpokpo Falls in Seoraksan Mountain

67

지정번호 명승 제96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 지정면적 338,74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토왕성폭포는 외설악 비룡폭포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폭포로서, 화채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이다. 화채봉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으로,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널어놓은 듯이 아름답다.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와 합류 쌍천^{雙川}으로 흐른다.



자연·인문환경

화채봉 북쪽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는 계곡은 토왕성폭포와 하류에 비룡폭포를 형성한다. 서쪽으로 화채봉과 접선봉을 연결하는 산릉과 동쪽으로 화채봉으로부터 시작하는 또 하나의 능선을 경계로 하는 계곡은 그리 넓지 못한 집수구역을 형성하고 있으나 토왕성폭포의 수량은 비교적 고르게 유지된다. 토왕성폭포는 설악산화강암이 분포하는 곳에 발달하고 있다. 폭포의 상, 하류가 모두 설악산화강암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상류 화채봉 인근은 대청봉화강암이 분포한다. 암석은 일반적으로 조립질이며 다홍색을 띠는데, 부분적으로는 짙은 홍색을 띄기도 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기도 한다. 계곡주변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수변환경을 좋아하는 물푸레나무가 넓은 면적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버드나무, 당단풍나무, 싸리속 식물, 철쭉이 주로 서식하고 있다. 희귀식물로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동시에 특산식물인 연잎평의다리, 희귀 및 특산식물인 금강봄맞이와 산쑥다리, 희귀식물인 바람꽃과 금마타리가 서식한다. 화채봉과 칠성봉 사이에 광폭의 암벽으로 개방되는 공간이 형성되어 설악동 진입 구간 중 상당 부분 구간에서 조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비룡폭포 계곡 일원의 법정탐방로에서는 계곡을 조망할 수 없으나 비룡폭포를 지나면 개방적인 조망이 펼쳐진다.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며, 석가봉, 문수봉, 보현봉, 노적봉, 취적봉, 문필봉 등의 기암괴봉 등이 발달하여 폭포를 둘러싸고 있다.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 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을 쌓았다고 한다. 폭포가 있는데, 석벽사이로 천 길이나 날아 떨어진다.”고 기록되어있다. 일명 신광神光폭포라고 한다.

성해응成海應(1760~1839)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서 토왕성폭포의 웅장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토왕성 폭포는 식당 아래 10여리에 있다. 커다란 절벽이 구름에 닿아 있는데, 폭포는 그 가운데를 쪼개고 흐른다. 내려갈수록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다. 동쪽으로 바다와의 거리가 20리는 된다.” 김창흡金昌翊(1653~1722)의 「설악일기雪岳日記」에서 토왕성폭포를 중국의 ‘여산’보다 낫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폭포가 넓은 절벽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흐르는데 형세가 매우 기이하고 웅장하였다. 만약 그 북쪽 산등성이에다 관람용 누대를 만든다면 위로 솟구쳐 부는 바람만 이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아래이지는 않을 것이다.(대가 높아 모든 것이 대 아래에 있다는 뜻) 비록 ‘여산’이라도 또한 이 곳보다 반드시 낮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재적 가치

토왕성폭포는 토왕계곡 맨위쪽의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이며, 상단폭포의 길이 150m, 중단 폭포 80m, 하단폭포 90m 등 총 320m의 국내 최대 길이의 웅장한 연폭포^{連瀑}이다. 토왕성폭포는 그 규모와 경관을 고려할 때,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평가된다. 폭포에서 장쾌하게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는 마치 흰 비단을 내린 듯 아름다우며, 폭포 상류의 지형이 많은 물을 담아두기에 충분치 않아 가장 장엄한 모습은 큰비가 내린 뒤 며칠 동안에 감상하기 좋다. 해발 860m에서 3단으로 나뉘어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의 길이가 300m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로 알려져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설악산 대승폭포

Daeseungpokpo Falls in Seoraksan Mountain

68

지정번호 명승 제97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 지정면적 495,93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설악산 대승폭포는 내설악에 있으며, 한계령 아래 장수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북쪽 대승령 방향으로 1km 떨어진 해발 740m 계곡에 위치한다. 높이 약 88m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 3대 폭포의 하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웅장한 폭포 물줄기와 넓고 기다란 수직 절벽 위 소나무군락은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너른 직벽을 따라 수직으로 낙하하며, 주변의 암벽과 자연식생, 폭포 상부로 연결되는 산 지형이 서로 어울려 매우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의 옥녀탕이나 소승폭포와 더불어 설악산 장수지역의 대표적인 화강암 지형 경관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자연·인문환경

미시령과 진부령에서 흘러내리는 북천과 합수되어 소양강으로 흐르는 한계천의 중류 부근에 근접하는 대승폭포는 안산과 큰감투봉이 만드는 동남동 방향의 서북능선으로 불리는 산체의 남사면 여러 곳에 대략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는 작은 계곡들 가운데 하나에 발달한다. 대승폭포의 상류는 대승령으로 연결되며, 대승령을 분기점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대승폭포 계곡이 발달하고 북쪽으로는 흑선동계곡이 발달하여 구곡담계곡을 거쳐 서향하는 수렴동계곡과 합쳐져 황장폭포를 거쳐 백담계곡에 이른다. 한계천을 경계로 해서 북사면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하여 대승폭포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절벽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면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는 요소들이 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대승폭포 일대의 지질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북쪽에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와 백악기 퇴적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입구 장수대 부근에는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좌수향^{左手向} 주향이동단층인 한계령 단층이 발달했다. 한계령 단층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의 수계는 화강암 내에 발달한 수직 절리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폭포와 깊은 협곡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하류에는 사중폭포가 있다.

식생은 신갈나무, 당단풍, 소나무가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계곡 주변은 신갈나무가 높은 수관 밀도를 나타낸다. 관목으로는 조록싸리, 진달래, 참조팝나무, 철쭉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희귀식물인 등칠향, 금마타리와 특산식물인 숙은노루오줌 등도 발견된다.

대승폭포 전망대에 오르면 한계령 단층곡을 따라 흐르는 한계천과 한계령이 한 눈에 조망되며, 삼형제봉(해발 1,232m)과 주걱봉(해발 1,386m), 가리봉(해발 1,518m) 등 내설악 주봉과 이를 잇는 산릉이 넓게 펼쳐진 전망을 보이고 있다.

대승폭포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대승이라는 총각이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런데 절벽 위에서 “대승아! 대승아!” 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없고 동아줄에 신작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에게 위험을 가르쳐준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친다 하여 「대승폭포」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이곳에서 비가 많이 오면 ‘대승’을 부르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승폭포 전망대가 있는 반석에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글귀가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는 조선 선조 때의 풍수가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1837년(헌종 3) 강원감사 홍치규^{洪趾圭}가 썼다는 주장도 있다.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1624~1701)의 유곡연기^{遊曲淵記}, 김창협^{金昌協}(1651~1708)의 동정기^{東征記}, 조선말기의 여류시인 금원 김씨^{錦園金氏}(1817~미상)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조선후기의 문신인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 등은 설악산을 유람하며 대승폭포에 대한 경치를 극찬하였다. 대승폭포에 대한 한시^{漢詩}로 이명한^{李明漢}(1595~1645)의 한계폭포^{寒溪瀑布} 증옥상인^{贈玉上人} 등 11명의 11수가 전해져 역사경관적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너른 직벽을 따라 수직으로 낙하하는 폭포와 주변의 암벽·자연식생은 물론, 폭포 상부로 연결되는 산 지형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폭포 맞은편의 조망지점에는 암반 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각자가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유람기에도 등장하는 명소이기도 한 경승지다.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Sibiseonnyeotang Potholes and Surroundings in Seoraksan Mountain

69

지정번호 명승 제98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산12-21 | 지정면적 2,051,46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인제군 용대리 북면 윗남교에서 진부령과 미시령에서 흘러내리는 북천에 합수되는 십이선녀탕계곡은 탕수동계곡으로도 불리며, 설악산 서북능선의 서쪽 끝인 대승령(1,260m)과 안산(1,430m)에서 발원한다. 약 8km에 걸쳐 응봉폭포, 용탕폭포, 두문폭포 등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발달했고 각각 폭호를 형성하며, 하도에는 독탕, 북탕, 무지개탕, 복숭아탕, 용탕의 명칭이 있는 것들 이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소가 형성되어 수려한 경관을 자아낸다.

자연·인문환경

탕으로 불리는 곳들은 모두 균질한 화강암류 암반에 발달하는 돌개구멍의 발달로 형성되나, 소의 경우는 절리의 발달이나 차별침식 등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에 따라 발달한다. 십이선녀탕 계곡에는 폭포, 폭호, 돌개구멍, 담소, 암석하상, 자갈하상, 등이 이어져 있고, 돌개구멍은 해발 690m와 해발 800m 사이의 설악산 화강암에 2개의 폭포(용탕폭포, 용탕폭포)와 함께 밀집되어 발달하였다. 용탕폭포 상류 해발 930m에는 편마암과 화강암류 경계부에 두문폭포가 발달하며, 그 아래는 큰 폭호가 있다. 응봉폭포 부근은 쥐라기 화강암을 관입한 중성 암맥을 따라 차별침식에 의하여 계곡이 발달하였다. 식생은 잣나무와 박달나무, 소나무 등 거목들이 우거져 절경을 이루며, 설악산의 대표적인 금강송



림과 참나무림, 서어나무림 등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가을철 단풍은 더욱 그윽하고 경치가 뛰어나다. 십이선녀탕 입구인 독탕에서는 우수한 조망이 가능하고 주요 조망점에서는 계곡과 숲 그리고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십이선녀탕 복숭아탕 전망대와 용탕폭포 전망대에서 조망되는 경관은 협곡의 형태로 폐쇄적이다.

십이선녀탕은 하늘의 열 두 선녀들이 밤에 계곡으로 내려와 동이 뜨기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 하나의 구전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12개의 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2년 만에 12개를 다 만들었지만 4명의 선녀가 힘이 들고 지쳐 네 개의 탕만 만들어서 8개만 남았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김수증은 용처럼 생긴 폭포 밑에 탕이 세 개가 있다고 표현하고, 김창흡은 아홉 개의 탕이 있다고 했으며, 이은상은 8개의 탕이 있다고 했다. 이은상은 탕에 대한 이름을 분류했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름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남교리에서 탐방로를 따라 십이선녀탕 계곡의 8개탕 중에서 처음 만나는 탕을 독탕(瓮湯)이라 했는데, 이는 그 모양이 항아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 번째 탕은 그 모양이 베틀을 짤 때 실꾸리를 넣어 오가는 베틀북을 닮았다 하여 북탕(篋湯)이라 부른다. 세 번째 탕은 십이선녀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모습이 복숭아처럼 생겼다고 해서 복숭아탕으로 알려진 탕으로 이은상은 무지개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서 무지개탕(虹湯)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암벽을 올라서면 이름 없는 폭포가 이어지고 안산(해발고도 1,430m) 방향에서 내려오는 폭포 아래 탕을 용탕(龍湯)이라 하였다. 이는 물의 신으로 알려진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 유래되었다고 한다. 용탕전망대에서 법정탐방로를 따라 약 110m 올라가면 오른쪽에 두문폭포(杜門瀑布)가 있다. ‘문을 닫아걸다’라는 뜻의 두문폭포는 십이선녀탕의 절경을 이룬다. 조선 정조 때 성해응(1760~1839)은 ‘동국명산기’에서 설악산의 여러 명소 중 십이선녀탕을 첫손으로 꼽았고, 1960년 한찬석씨가 펴낸 ‘설악산탐승인도지’에서는 “설악산 중에 최고 승지가 어디메뇨 누가 묻거든 십이탕의 절경을 듣기 전에는 아예 설악의 진수를 논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옛 문헌자료에도 명승적 가치가 뛰어난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문학자료도 풍부하여 명승적 가치가 높으며,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다. 가을에는 십이선녀탕 계곡의 최고의 경치를 느낄 수 있으며, 계곡 사이로 짙게 물든 단풍과 암벽이 옥빛의 계곡수와 조화를 이루며 내설악의 장관을 연출한다. 겨울에는 탕을 연결하는 폭포들이 흰 얼음기둥, 혹은 넓은 얼음벽으로 변해 겨울 풍경이 아름답다. 십이선녀탕 계곡은 설악산의 여러 계곡들 중에서도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계곡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70

Suryeomdonggyegok and Gugokdamgyegok Valleys in
Seoraksan Mountain

지정번호 명승 제99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지정면적 1,394,77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백담계곡에서 수렴동계곡을 지나 구곡담계곡에 이르는 지역은 진부령과 미시령에서 흘러내리는 북천에 합수되는 영실천의 상류부에 위치한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 북서쪽에서 발원하는 가야동계곡과 중청봉에서 발원하는 계곡이 옥녀봉 북서단에서 합류하면서 구곡담계곡을 형성하고 계속 북서향으로 흐르면서 수렴동계곡을 만들고 있다. 수렴동계곡은 계속하여 곰골계곡과 작은귀때기봉계곡을 합류하고, 갈골계곡을 합류하면서 백담계곡으로 연장된다. 수렴동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에 백담사와 영시암이 있으며, 영시암 위 능선부에서 오세암으로 가는 길과 봉정암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며, 봉정암으로 가는 구곡담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만수폭포, 관음폭포, 용손폭포, 쌍용폭포 등을 볼 수 있다.

자연·인문환경

구곡담계곡은 모두 화강암 지역을 통과하며 강한 하방침식작용으로 하곡은 좁고 깊은 계곡을 형성하는 갑입곡류의 형태를 보이고, 수렴동계곡도 하천의 형태는 역시 갑입곡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구곡담계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다. 수렴동계곡은 구곡담계곡에 비해 하상에 발달하는 반석 지형이나 폭포 또는 소의 발달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다. 구곡담계곡은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가리봉 화강암과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 및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 지대를 지나는 영실천의 하식작용으로 기다란 계곡이 형성되었으며, 도처에 암석하상, 자갈하상, 담소, 소규모 폭포 등이 발달하여 수려한 경관을 이룬다. 계곡의 암석하상을 이루는 노두에서는 관입구조, 단층구조, 퇴적구조 등의 다양한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같이 뾰족한 바위 봉우리, 암석능선, 토르, 협곡, 기암괴석 등이 발달한 험준한 지형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수려한 계곡과 풍부한 수량, 우거진 삼림, 역사성이 있는 백담사와 영시암, 숲 속을 지나는 탐방로, 백담탐방 안내소, 수렴동 대피소 등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백담사에서 구곡담에 이르는 숲길 가로 영시암과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와 폭호, 바위 봉우리 등이 수려한 경



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설악산의 대표적인 금강송림과 참나무림, 서어나무림 등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가을철 단풍은 더욱 그윽하고 경치가 뛰어나다. 좌우에 첩첩히 중첩되어 있는 용아장성 산봉우리와 내설악 서북능선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폭포·암반·담·식물 상의 경관이 연속적으로 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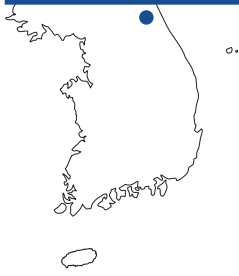
영시동 동남쪽 골짜기의 폭포로 그 모양이 발^발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명칭은 금강산의 수렴동계곡에서 따왔다. 수렴동계곡이라 불리는 곳의 원래 위치는 수렴동대피소에서부터 귀태기청봉까지였으며, 지금의 구곡담계곡 일부와 백운동계곡을 포함한 지역이다. 수렴폭포가 백운동계곡 초입에 있어서 그 일대를 예전에는 수렴동계곡이라고 불렀다 한다. 수렴동에 관한 옛 문헌 기록으로 김창흡^{金昌翕}(1653~1722)이 설악산탐방 소회를 적은 동유소기^{東遊小記}에서 “...일찍이 나는 천하의 기이한 경관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오직 황산을 그린 그림이 이것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동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있어 일출을 볼 수 있으며, 아래에는 만길되는 수렴동과 폭포가 있으니 빼어난 경관을 다 갖추고 있는 점에서 황산은 여기에 까마득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태유^{洪泰猷}(1672~1715)는 유설악기^{遊雪嶽記}에서 “인제의 승경은 곡백담과 심원사와 삼연정과 12폭의 폭포와 봉정암과 폐문암인데 모두 내가 이이 자세히 본 것들이다. 만약 높은 봉우리와 천석의 기이함을 논하자면 수렴동의 12폭이 최고이다. 나는 명산을 많이 보았는데 오직 금강산이 설악과 더불어 서로 백중이다. 다른 산들은 설악과 더불어 맞설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피력함으로써 수렴동의 계곡과 폭포들을 극찬하였다. 이복원^{李福源}(1719~1792)은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에서 “12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니, 폭포수는 매달리지도 늪지도 않으면서 어지러이 휘몰아쳐 소용돌이치며 흐르는데, 그 모양이 각각 따로따로다. 봉우리 암벽은 수렴동과 같아 한걸음 내딛을 수록 환상적인 모습이 갈수록 더욱 기이하였다. 현지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 뒤로 끊이지 않았고, 통인^{通印}과 흡창^{吸唱}들* 또한 박수치며 혀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여 수렴동의 폭포와 암벽의 뛰어난 경관을 극찬하였다.

* 창고를 관리하던 직책 중 하나

문화재적 가치

수렴동계곡과 구곡담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 계곡으로서 전체적으로 경사가 매우 완만한데, 백담계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맛과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으며 경치가 수려하고 빼어나다. 특히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는 계곡의 절경은 이 길을 설악산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단풍길로 만들어주며, 셀 수 없을 만큼의 소^소와 담^담이 계곡을 따라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준다. 계곡에는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와 폭호, 바위 봉우리 등이 수려한 경관을 연출한다. 수렴동에 관한 옛 문헌 기록으로 김창흡^{金昌翕}(1653~1722), 홍태유^{洪泰猷}(1672~1715) 등이 있으며, 수렴동 계곡과 폭포를 중국의 황산보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여 역사문화적 명승적 가치를 높여준다.





설악산 울산바위

Ulsanbawi Rock in Seoraksan Mountain

71

지정번호 명승 제100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2 등
지정면적 631,09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둘레 4km, 해발 873m의 거대한 화강암체인 울산바위는 속초시 설악동과 고성군 토성면의 경계를 이루며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가까이에서 보면 더욱 아름답다.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 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으로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속초 시내와 동해안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형이 주변 봉우리들과 대조되어 더욱 장엄하다.



자연·인문환경

울산바위는 둘레 4km로, 6개의 주요 바위 봉우리를 이루는 거대한 바위군을 형성하였으며, 박리돔^{exfoliation dome}, 성곽형 토피어^{castle koppie}, 바위가 깎여 수직으로 서있는 토르^{tor}, 암석이 화학적으로 풍화되어 표면에 접시모양 구멍이 된 나마^{gnamma}, weathering pit, 그루브^{groove}와 같은 화강암 미지형들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있다. 돌출한 암체는 판상절리를 따라 암석이 양과깍질처럼 벗겨져 나가는 박리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박리돔이 만들어진다. 울산바위는 이러한 박리현상으로 진전되고 수직 절리를 따라 개석이 심하게 일어나 만들어진 지형이다.

울산바위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속초 화강암이 분포한다. 공룡능선이나 용아장성과 같은 날카롭고 험준한 암석 능선의 지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나 화학적 풍화가 깊게 진행된 후, 풍화 산물인 마사토층^{saprolite}은 침식되어 제거되고 돔^{dome} 모양의 암반들이 지표에 노출된 보른하르트^{bornhardt}가 발달하였다.

식생은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금마타리를 포함한 일부 초본류가 암반에 착생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참조팝나무를 포함한 일부 관목류 만이 암벽의 틈새에 있는 제한된 토양층에 서식하고 있다.

울산바위 전체의 조망은 속초 시내 전역과 속초에서 미시령터널 등에서 가능하며, 바위 봉우리의 크기로 인해 대상지에 근접할수록 조망 범위가 좁아진다. 중간 지점인 흔들바위 근처에서 전체 조망이 이루어지며 근접할수록 바위의 크기 때문에 전체 조망의 범위는 좁아지나 웅장한 화강암체의 암반을 근경에서 조망할 수 있다. 정상에 올라서 보면 대청봉이 멀리 보이면서 외설악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또한 동해 바다가 그림처럼 조망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울산바위는 이산부^{理山府} 북쪽 63리 쌍성호^{雙城湖} 서쪽에 있는데 곧 대관령 동쪽 가닥을 말한다. 기이한 봉오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울산^{蔚山}이라고 이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도 등의 고지도에는 천후산^{天吼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위가 많은 산에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 것을 하늘이 울고 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 때, 경상도 울산지방의 거대한 바위가 금강산으로 찾아가다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울산바위라고 했다고도 한다. 울산바위 명칭에 관해서는 울타리같이 생겨서 울산바위, 우는 산이라는 뜻의 울산바위^{天吼山}, 경남 울산에서 왔다고 하여 울산바위라는 3가지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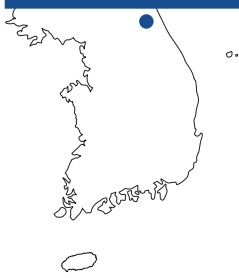
조선시대 문인 주세붕(1495~1554), 최연(1503~1549), 허적(1503~1549), 이경석(1595~1671), 채평윤(1669~1731), 정범조(1723~1801) 등의 천후산 기행문에서 그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산수화의 대가 김홍도(1745~1810)의 금강사군첩 중의 그림으로 전하는 <계조굴^{繼祖窟}>에는 울산바위가 압도적인 규모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계조굴과 주변의 경관을 담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주세붕, 최연, 허적 등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그 웅장함과 훌륭한 경치를 노래하였으며, 바위 아래에는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과 신흥사가 있어 문화적 의미가 더해진다. 수많은 고시문이 전하며, 김홍도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러 편이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커 명승적 가치가 높다. 울산바위는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의 하나로 그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형이 주변의 다른 산체들과 비교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울산바위자체가 가지는 명승적 가치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점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72

Biseondaе Flat Rock and Cheonbuldonggyegok Valley in Seoraksan Mountain

지정번호 명승 제101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 지정면적 1,495,36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내설악에 있으며 탕수동계곡이라고도 하며, 대승령(1,260m)과 안산(1,430m)에서 발원하여 약 8km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으로 있으며, 인제 남교리에서 북천개울을 건너 안산을 보고 40분쯤 들어가면, 탕수동골을 오르면서 처음 승소(僧沼)를 만나게 되고, 칠음대(七音臺), 구선대(九仙臺), 응봉(1,221m)아래 응봉폭포를 지나 독탕, 북탕, 무지개탕, 북송아탕, 용탕 등이 나오며, 위로 가면 두문폭포 등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아낸다.



자연·인문환경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 그리고 상류에는 이들과 부정합을 이루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와 다시 이들 모두를 관입한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한다. 지각의 용기작용, 풍화작용,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의 침식작용으로 매우 수려한 경관을 이룬다. 와선대는 하천의 마식작용으로 널따란 반석이 발달한 곳이고, 비선대는 암석하상과 2단폭포, 폭호와 돌개구멍에 의하여 형성된 소로 구성되며, 수직 절벽과 바위 봉우리가 발달하여 절경을 이룬다.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가는 길목에서 비선대 앞 장군봉(미륵봉) 아래와 단애 중간에 있는 금강굴은 절리를 따라 발달한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천불동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 코스의 중간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臥仙臺)를 비롯하여 비선대·문주담(文珠潭)·이호담(二湖潭)·귀면암(鬼面岩)·오련폭포(五連瀑布)·양폭(陽瀑)·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우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식생은 신갈나무가 넓게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천불동 계곡 상부에는 고산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잣나무와 거제수, 박달나무가, 저지대인 비선대 주변에서는 졸참나무가 넓은 서식공간을 차지하



고 있다. 그 밖에도 당단풍나무를 비롯하여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함박꽃나무 등의 많은 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주나무가 비선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경관은 비선대·와선대 등 관람대, 문수담·이호담 등 맑은 못, 오련폭포·양폭·음폭·천당폭포·염주폭포 등의 폭포 조망과 미륵봉에 있는 금강굴을 비롯해 귀면암 등 기암절벽·식생·협곡·계류 등이 연속 경관으로 이어진다.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은 외설악의 기암절벽·담·폭포·식생 등이 어우러져 설악산 법정탐방로 구간 중 가장 많은 조망점을 갖고 있는 구간 중의 하나로, 특히 비선대를 찾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명승 기문 해석은 명승 경관의 가치를 높이며, 금강굴에서 동쪽의 화채능선과 서쪽 공룡능선 사이에 펼쳐져 있는 천불동 계곡은 최고의 조망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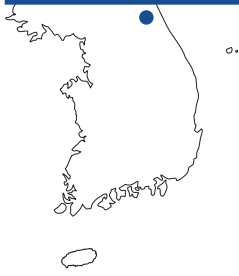
비선대 명칭은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졌다.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하며,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불동이라는 명칭은 천불폭포에서 딴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奇觀을 구현한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비선대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하며, 일찍이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온다.

김창흡金昌翕의 「설악일기雪岳日記」에서 비선대와 천불동계곡을 “화산에 창룡암이 있는데 험난함은 비길 바가 없다고 하는 말을 예전에 들었는데 이곳과 비교하면 어떠할지 모르겠다. 어렵게 십 리쯤을 가 식당암에 이르렀다. 암석이 평평하고 반들반들하여 앉을 만하였다. 좌우로 뻣뻣하고 빼어난 봉우리와 절벽이 매우 많았다. 그 중에 금강굴이 최고로 기이하였는데 곁에 매우 아름다운 붉은 절벽이 있어 우러러보고 굽어보며 깊은 숨을 몰아쉬니 정신과 마음속이 시원해졌다.”라고 하여 비선대 주변의 경관을 극찬하였다.

문화재적 가치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하며, 비선대의 경치를 노래하였으며, 비선대의 풍치가 너무도 우아하여 와선대로부터 석계반석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잘 조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아내는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이다. 천불동계곡은 지리산 칠선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 중 하나로 지각의 용기작용, 풍화작용,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의 침식작용으로 매우수려한 경관을 나타내며, 문주담文珠潭·이호담二湖潭·귀면암鬼面岩·오련폭포五連瀑布·양폭陽瀑·천당폭포天堂瀑布 등이 어우러진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내며, 유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명승적 가치가 뛰어난 계곡이다.





설악산 용아장성

Yongajangseong Ridge in Seoraksan Mountain

73

지정번호 명승 제102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지정면적 757,09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내설악의 중심에 자리한 설악산 용아장성은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가야동계곡과 만경대, 공룡능선을 거느리고 서로는 수렴동 계곡, 구곡담 계곡을 끼고 서북 주릉^{主稜}이 장대하고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주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능선이다. 소청봉에서 봉정암 뒤를 지나 1,224m 높이의 봉우리가 있고, 칠형제봉을 지나 옥녀봉에 이르기까지 능선이 파노라마하듯 연결되는데 20여 개의 크고 작은 흰 화강암 바위 봉우리들이 마치 용의 이빨 모양처럼 뽀족뽀족 올라와 있고 성처럼 연이어 길게 둘러쳐져 있어서 용아장성^{龍牙長城}이라고 한다. 용아장성은 운해^{雲海}가 바위들을 휘감을 때면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듯 신비롭고 경이로운 비경을 보여주며, 특히 가을철 단풍이 울긋불긋 물이 들면 더욱 화려한 경관을 보여준다.

자연·인문환경

중청봉과 소청봉을 지나 북서 방향으로 옥녀봉에 이르는 산릉으로 양측에 가야동계곡과 구곡담계곡이 발달해있다. 두 계곡은 모두 감입곡류하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용아장성과 더불어 아름다운 명승 경관을 구성한다. 산릉은 설악산화강암 분포지역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과 같이 암반의 노출이 심하고 식생이 두껍지 못한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절리들이 잘 발달하는 암괴는 단애를 형성하고, 산정에 토르를 형성하기도 한다. 절리에 따라 암체들은 판상을 이루거나 압주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특히 수직에 가까운 고각도 절리면들은 절벽을 형성하여 식생의 발달을 저해한다. 용아장성 능선이 시작되는 소청봉 일대에는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나, 나머지 산릉은 모두 설악산 화강암의 단일 암종으로 이루어진다. 설악산화강암은 암색이 다홍색을 띄어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한다.

용아장성의 능선은 바위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목층에서는 소나무가, 아교목층에서는 당단풍나무가 우점종을 이루고 있다. 능선의 암반층에서는 구절초가 산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용아장성 능선의 자연경관 특징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중청봉에서 봉정암 오층석탑구간이며, 공룡능선에서는 원경으로 조망되고, 만경대에서는 원경과 근경이 같이 조망된다. 수렴동계곡 탐방로에서는 기암괴석과 식생들이 부분 조망되면서 근경과 중경으로 조망할 수 있다.

처음으로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1943년 ‘조선산악회’ 소속이었던 이이야마 다스오(飯山達雄, 1904~1994)의 <조선의 산(朝鮮の山)>이라는 등반안내책자에서 지도에 ‘용아장성’과 ‘천불동’이라는 단어가 현재까지 기록으로는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설악산은 청봉이 최고봉이고, 서쪽 방향으로는 중청봉을 거쳐 상어이빨 모양의 용아장성이 성곽처럼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설악산 관련 책자 또는 지도에서 용아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용아장성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명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용의 이빨로 된 기다란 성곽’이라는 뜻으로 이름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적 가치

용아장성은 바위 봉우리와 수림이 시시각각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비경을 연출하는 경승지이다. 또한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가야동계곡과 만경대, 오세폭포, 공룡능선을 거느리고 서로는 수렴동, 구곡담계곡을 끼고 서북주능선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으며, 백운동계곡을 상류에 두고 쌍룡폭, 관음폭, 용손폭포, 만수폭포 등이 장관을 이루어 백담사 앞을 흐르는 백담계곡까지 흘러서 내설악 계곡미의 대표적 풍치를 만들어주고 있어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설악산 공룡능선

Gongnyong Ridge in Seoraksan Mountain

74

지정번호 명승 제103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등
지정면적 1,313,08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 이어진 약 7km 길이의 능선으로 속초시와 인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거대한 공룡의 등줄기와 같이 뾰족뾰족 힘있게 솟아오른 1,257봉 바위 봉우리들이 능선 줄기를 만들고 내설악과 외설악의 경계를 이루는 설악의 중심 능선이다.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구름이 자주 끼고 기상이 시시각각 변한다.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 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솟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름이 휘감은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경치의 절정이다. 우리나라의 산 능선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지니고 있다.





자연·인문환경

공룡능선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수직절리에 의한 급경사의 암반경사^{rock slope}를 갖는 험준한 바위 봉우리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룬다.

다양한 모습으로 가파르게 갈라진 바위의 발달과 심한 차별침식, 기계적풍화가 주도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경관으로, 산체의 정상부나 암석단애에는 식생이 잘 발달하지 못하고 암석노두가 드러나 경이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부분적으로는 압력의 해소로 형성된 판상절리^{unloading joint}로 추정되는 저각도 절리의 발달로 암괴들이 마치 층상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절벽에는 서로 교차하는 여러 조의 절리들의 발달을 볼 수 있다. 조립질 홍색장석의 함량이 높은 설악산화강암으로 구성되고 부분적으로는 홍색장석이 반정의 형태를 이루어 반암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공룡능선에서 교목층을 대표하는 수종은 분비나무와 신갈나무, 잣나무이고, 아교목층은 당단풍나무와 사스래나무가 주요 수종이다. 관목층의 주요 종은 눈썹백과 털진달래이며, 초본류의 주요 종으로는 처녀치마와 산부추, 투구꽃, 과남풀 등이 있다.

공룡능선의 자연경관 특징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대청봉에서 소청봉구간이며, 원경으로 조망된다. 금강굴에서는 공룡능선 북쪽 끝자락에서 대청봉으로 뻗어 나간 능선들이 조망되고, 만경대에서는 중경과 원경이 같이 조망된다. 공룡능선 내부에서는 외설악과 내설악이 같이 조망되며, 내부의 기암괴석 및 자연식생들을 같이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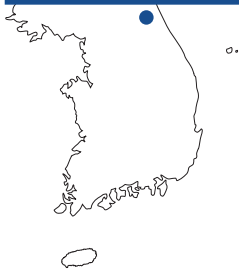


앞서 설악산 용아장성과 같이 처음으로 명칭이 등장한 시기는 1943년 ‘조선산악회’소속이었던 이 이야마 다스오(飯山達雄(1904~1994)의 <조선의 산(朝鮮の山)>이라는 등반안내책자에서 지도에 ‘공룡릉(공룡능선)’이라는 단어가 현재까지 기록으로는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한 <속초의 지명>에 1963년 겨울 선우중옥(鮮于仲玉(1940~), 정규현(鄭奎鉉(1942~), 채태웅팀이 처음으로 공룡능선을 완등 함으로써 공룡능선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하였고, 지금은 법정탐방로가 생겨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

설악산의 지형을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金鷄抱卵)’의 산세라 하는데, 대청봉은 닭의 머리, 죽음의 계곡은 닭의 목, 화채 능선은 닭의 오른쪽 날개, 서북능선은 닭의 왼쪽 날개이고, 공룡능선이 닭의 몸통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적 가치

공룡능선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넘어 보고 싶은 등산길이기도 하며, 주변 산세와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 아름답고 웅장하여 신선의 경지를 방불케 하는 경관을 보여주어 명승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청봉-증청봉-소청봉-희운각대피소 구간에서 원경으로 조망되는 명승 경관은 가치를 더욱 높이며, 백두대간의 산악줄기 형태를 조망하는 경관 구도는 매우 우수하다. 또한 내설악과 외설악의 기암과 바위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대상지이다.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Mangyeongdae Cliff in Seoraksan Mountain

75

지정번호 명승 제104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등 | 지정면적 134,640m² | 지정일 2013년 3월 11일





문화재 현황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는 만경대는, 신라 643년(선덕여왕 12)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이라 하였다가 허물어진 것을 1643년(인조 21)에 설정^{雪淨}이 다시 세운 오세암^{五歲菴} 바로 앞에 있는, 해발 922m인 봉우리이다. 용아장성,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등의 일만 가지 절경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조망지점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설악산의 명소이다.

자연·인문환경

만경대 정상은 전형적인 화강암 풍화현상으로 나타나는 완만한 곡선 표면을 이루며 구형의 토르^{tor}들도 발달한다. 만경대를 포함하는 가야동계곡의 북사면은 설악산화강암이 흔히 보여주는 급경사의 절벽들을 형성한다. 만경대 북쪽에 나타나는 선형구조는 가야동단층의 궤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 단층은 백담사 부근에서부터 동남동 방향으로 전개되어 만경대 북쪽을 통과하여 가야동계곡에 이른다. 만경대를 구성하는 설악산화강암은 상대적으로 험준한 지형을 만들며 분포하고, 설악산화강암에 비해 고기화강암체인 가리봉화강암이나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는 만경대의 서쪽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지형을 형성한다. 만경대의 설악산화강암은 다른 곳에 비해 홍색을 띠는 정도가 약한 특성을 보인다.





식생의 경우 우점종(優占種)은 신갈나무이나 암반의 아교목(亞喬木)층에서는 주로 소나무와 노간주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암반이 많이 노출된 산봉우리와 능선부에는 소나무가 주로 자라고 있다. 따라서 만경대 일원 능선부에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계곡부에는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신갈나무-소나무 혼효림이 형성되어 있다.

만경대는 내설악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원경으로는 대청봉과 귀뚜기청봉이 조망되며, 공룡능선도 서쪽의 지형을 파악할 정도의 원경과 중경으로 조망할 수 있다. 중경과 근경으로는 용아장성의 북쪽능선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고, 가야동계곡의 천왕문과 오세폭포를 조망할 수 있으며, 오세암이 바로 아래 보인다. 북쪽으로는 이름 없는 무명봉이 기암의 형상을 하고 있다. 내설악 만경대(萬景臺)는 이곳에 오르면 일만(一萬)가지 모든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하여 만경대(萬景臺)라고 하며, 많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만경대(望景臺)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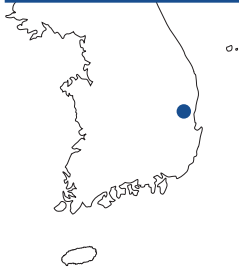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협(金昌協)(1651~1708)은 「동정기(東征記)」에서 병자년(1696) 8월 30일에 만경대에 올라 만경대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30일에 아침을 먹고 나쳐 가마에 올라 만경대(萬景臺)로 향하였다. 만경대는 대승암 남쪽 5리쯤에 있는데, 하나의 바위 봉우리였다. 가장 앞에 있는 바위 벼랑은 매우 높고 기팔라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땅이 보이지 않고, 위로는 더욱 깎아지른 듯하여 겨우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었다. 올라가 산속을 보니, 여러 바위 골짜기들이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흰히 보였다. 마침 흰 안개가 마치 큰 바다처럼 가득히 피어나, 주위의 경물을 삼켰다. 토해내고 생겨났다 사라지곤 하면서 순식간에 천 가지 모습으로 변화였다. 한참 동안 앉아 보다가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 어려움은 어찌 걸었던 길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어찌는 오르막이었고 오늘은 내리막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5리를 가쳐 비로소 남여에 올라 한계사(寒溪寺)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무렵에 읍으로 돌아왔다.

그 외에도 조선 중기의 문신 조문수(曹文秀)(1590~1647)와 조선 후기의 문신 이의숙(李義肅)(1733~1807) 등이 만경대의 경관을 묘사한 글을 남겼다.

문화재적 가치

만경대 바로 앞의 오세암의 경우 주변에 마모된 석물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매월당 김시습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여 그의 별호 오세신동(五歲神童)을 따서 오세암이라 했다는 설이 있고, 신라 때 매월(每月)대사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지냈는데, 늦은 겨울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그 이듬해 봄이 된 뒤 돌아와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살아있으므로 다섯 살 된 아이가 불도에 통한 것이라는 뜻으로 오세암(五歲庵)이라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어 인문경관적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청송 주산지 일원

Jusanji Reservoir and Surroundings in Cheongsong

76

지정번호 명승 제105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산41-1 등
지정면적 2,417,996m² | 지정일 2013년 3월 21일





문화재 현황

청송 주산지는 1720년 8월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1721년 10월에 만들었으며, 입구 바위에는 1771년(영조 47) 월성이씨 이진표(李震杓)공 후손들과 조세만(趙世萬)이 세운 주산지 제언(堤堰)에 공이 큰 이진표공의 공덕비가 있다.

주산지는 동쪽 고개인 주산재(주산령)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만든 저수지에서 유래한다. 주왕산 남서쪽 주산지리 마을로 부터 약 3km 떨어진 주산지는 주산천 지류의 발원지이며 주왕산국립공원 권역에 포함된다. 지형적으로 저수지의 입구는 협곡인데, 1721년 준공 당시 둘레가 1,180척, 수심이 8척이었다. 수차례의 보수공사를 거쳐 오늘날 제방길이 63m, 제방높이 15m, 평균수심 8m, 총저수량 105,000톤, 관개면적 13.7ha규모이다.

저수지 기반조각이 치밀한 용결응회암 위로 퇴적층이 쌓여 준공 이후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한다. 150년 이상 된 왕버들이 물속에 뿌리를 내려 자생하고, 아름다운 산수 자연경관이 물속에 투영되는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오늘날 주산지 입구에서 1km 구간이 자연관찰 탐방로로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수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광 또한 뛰어나다.

자연·인문환경

청송 주산지는 주왕산의 울창한 수림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별바위로부터 시작하는 계곡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계를 형성한다. 저수지 기반은 화산재가 엉겨 붙어 만들어진 단단한 용결응회암 위로 비용결응회암과 퇴적암이 쌓여 큰 그릇 같은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물이 유입되고 비가 오면 용결응회암 암반층에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물을 흘려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수달, 솔부엉이, 소쩍새, 원앙 등을 비롯하여 고라니, 너구리, 오리류 등이 주산지 일대에서 서식한다. 넓은 저수지 수면위에 떠 있는 듯 한 모습의 오래된 왕버들 경관은 한적하면서도 신비로운 별천지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주산지 일대의 풍광은 봄철의 신록과 가을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 수백년된 왕버들을 핵심경관으로 저수지 주변 활엽수 총림(참나무류, 단풍나무 등)과 소나무 형체가 거울처럼 드리어진 수면 경관, 그리고 단풍과 저녁노을, 주왕산 별바위의 조망경관 등 비경이 펼쳐진다. 주산지 생태경관의 대표적 생물자원 왕버들은 축조당시부터 생육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1980년대 독높이 공사로 수위가 높아져 수세 약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인근 낙동강변에서 4주를 이식하는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주산지는 조선시대 마을주민 66명에 의해 1720년(숙종 46) 8월에 착공하여 1721년(경종 원년) 10월에 준공한 농업용 저수지인데, 축조 당시 둘레는 1,180척(약 357.6m), 수심은 8척(2.4m)이었다. 1771년(영조 47)에 월성(경주) 이씨 이진표공 후손들과 조세만이 주산지 축조에 크게 기여한 이진표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주산지 입구 바위 위에 송덕비를 세웠다. 송덕비에는 “독을 쌓아 물을 막고 만인에게 혜택을 베푸니, 그 뜻을 잊지 않도록 돌조각을 세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주산지는 1931년에 크게 증축했고, 1983년에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제방 길이 63m, 높이 15m이며, 동서 길이 약 200m, 남북으로 100m, 평균 수심은 7.8m, 만수 면적은 2.8ha, 저수량은 108,000t 규모이다. 2013년에는 저수지 수위 조절을 위해 경사면에 설치한 노후화된 사통 장치를 교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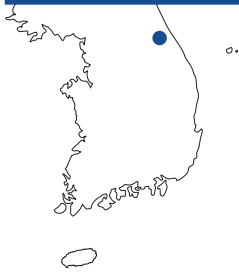
마을사람들은 주산지의 물로 벼농사를 짓고, 전국에서 이름난 과실수(배, 청송사과)를 생산하여 왔는데, 매년 음력 3월 산신과 주산지를 축조한 선조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낸다. 오늘날 주산지 절경은 사진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대이며 주왕산 국립공원과 함께 청송지역의 대표적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청송 주산지는 조선시대 1721년(경종 원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인데, 독을 막아 물을 가두어 혜택을 베풀었던 이진표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771년(영조 47)에 세워진 송덕비가 입구 쪽 바위에 남아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펼쳐지는 지형조건은 저수지를 감싸 안은 형상인데, 농업문화가 어우러져 전통적 실존경관의 가치를 높여준다. 주산지 맑은 물은 별바위 봉우리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뻗친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왕버들과 어우러져 한적하면서도 아늑한 별천지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15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왕버들은 새벽녘 물안개와 어우러져 몽환적 신비경을 선사하고, 저수지에 거울처럼 투영되는 자연풍광과 주왕산 별바위 등은 거대한 풍경미학으로 다가온다. 주산지는 저수지 농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 등이 뛰어나고, 2017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수리명소이다.





강릉 용연계곡 일원

Yongyeongyegok Valley, Gangneung

77

지정번호 명승 제106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 등 | 지정면적 9,258,692m² | 지정일 2013년 3월 21일





문화재 현황

용연계곡은 운계봉(530m)과 황변산 자락 천마봉(1,015m) 사이의 용수골에 위치하며 사천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길이는 약 2.2km에 달한다. 용연계곡 전체는 하류에서 상류부까지 약 6km정도이며, 계곡 최상류에는 높이 약 20m의 2단으로 형성된 수려한 ‘양지폭포’가 있어 계곡의 절정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계곡 하류를 향하여 계속되는 수많은 소와 폭포는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며, 가을에는 계곡 암반사이로 씩씩이 흐르는 초록빛 맑은 물과 계곡 주변의 짙게 물든 단풍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아 자연의 모습을 훼손 없이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계곡 주변의 소나무와 기암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자연·인문환경

용연계곡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하는 계곡의 하나로 사천천의 상류이다. 사천천은 태백산맥의 매봉과 근신봉 사이의 동사면에서 발원하는 여러 개의 계곡들이 무릉대를 거쳐 용수골에서 합류하여 동북동 방향으로 흘러 동해로 계곡 남, 북쪽의 연봉들의 산세는 백두대간을 향하여 험해지나 하류부에 가면서 점차 구릉형 산지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용연계곡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고 하천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화강암 지형이 발달하였다. 소규모 폭포, 폭호(瀑湖), 담(潭), 소(沼) 등의 하천지형들과 암석하상이나 자갈하상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화강암 지대의 전형적인 하천지형을 이룸으로써 주변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류변에 활엽수들과 함께 우뚝우뚝 서 있는 소나무의 거목들과 굴참나무, 졸참나무, 말채나무, 신갈나무, 가래나무, 피나무 등의 활엽수들이 혼생함으로써 계곡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계곡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넓은 개방형을 이루나, 상류로 가면서 점차 협곡의 형태를 이루거나 좁은 개방형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경관도 협곡을 이루는 곳에서는 극히 제한되는 시계로 인해 밀폐형 경관 형태를 이루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개방감이 강하다. 용연계곡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며, 핵석(核石; corestone)이 잘 나타나고 토르(tor)가 발달하였다. 차별침식과 강한 물리적 풍화에 따라 암괴의 이탈이 촉진되어 흔히 산정이나 사면에서 집단적인 암괴미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주변의 수림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용연계곡에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용연사가 위치하고 있다. 용연사의 이름은 옛날 이 마을에 못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는 '용연(龍淵)'의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계류를 따라 옛길이 상당 구간에 걸쳐 남아 있고, 옛사람들이 사기를 굽고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용연계곡 내에는 다수의 사기막 도요지가 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용연계곡을 상징하는 중요한 하나의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용연계곡 일원에는 불교문화, 사기막리 일원의 요업문화, 용연계곡의 용소에서 마을제의 전통제례문화행사 등 역사 인문학적 요소와 자연 경관적 요소가 잘 보존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용연계곡 일원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고 하천의 침식·운반·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화강암 지형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규모가 큰 양지폭포가 있고, 소규모의 폭포(瀑瀾, 담潭, 소沼) 등의 하천지형들과 암석하상이나 자갈하상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화강암 지대의 전형적인 하천지형을 이룸으로써 주변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설악산이나 월출산의 뾰족한 바위 봉우리나 폭포 등이 발달한 지형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주변의 문화자원으로는 용연사와 사기막골과 가마터, 용소 등이 산재해 있어 인문환경으로서의 명승 가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광주 환벽당 일원

Hwanbyeokdang Pavilion and Surroundings, Gwangju

78

지정번호 명승 제107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환벽당길 10 등 | 지정면적 26,832m² | 지정일 2013년 11월 6일





문화재 현황

‘환벽당 일원’은 증암천(창계천) 상류 계곡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댐이 조성되어 호수가 된 광주호의 상부에 자리한다. 증암천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담양 소재원과 식영정이 위치하고, 증암천의 남쪽 동산 기슭에 환벽당이 세워져 있다. 환벽당과 소재원, 식영정은 일동삼승(一洞三勝)으로 불리는 경승이다. 환벽당은 정면3칸 측면2칸의 유실형(有室形) 정자로 자연석 석축기단 위에 후방의 측면에 2칸의 방이 위치하고 4칸의 마루가 ㄱ자형의 평면을 갖는 정자다. 정자 아래에는 방지형 연못이 남아 있고, 환벽당 담장 너머로는 조대(釣臺), 용소(龍沼), 쌍송(雙松)이 위치하고 있다. 증암천은 자미탄(紫薇灘)이라 불리는 하천으로 광주호가 생기기 전에 이 개울은 배롱나무(紫薇)가 여울을 따라 줄지어 있던 하천이다. 환벽당으로 이어지는 자미탄에 한여름 자미가 빨갛게 군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환벽당 일원이 동천의 경관임을 의미한다.

자연·인문환경

환벽당은 무등산에서 북쪽 능선으로 흘러내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무등산 북쪽 원효계곡에서 흘러온 계류가 창계천을 이루고 창계천 변에 형성된 충효마을의 북쪽 산기슭에 환벽당이 자리하고 있다. 환벽당이 위치한 언덕 주변으로는 무등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식물군락이 배후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환벽당 근처에는 대나무 숲이 정자원림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환벽당은 충효마을에서 태어난 사촌(沙村) 김윤제(金允濟)(1501~1572)가 1540년대 초 자연을 벗 삼아 후학을 양성하고자 지은 유실형 정자다. 유실형 정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머무르거나 학문을 하는 장소로 쓰인 정자이다.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의 본제(본가)의 후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벽당 원림은 환벽당 앞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연못 등을 조성하고 둘레에 담장을 쌓아 조성하였다. 환벽당 원림의 공간구조는 담장 안의 내원과 담장 밖 가시권에 있는 창계천, 조대(釣臺), 용소(龍沼) 등의 외원으로 구성된다.

환벽당 원림은 고문(古文)과 고시(古詩), 가사문학의 산실이 된 정자원림 중의 하나이다. 조선 중기 호남가단을 이루었던 사류들이 증암천의 일동삼승을 비롯한 다수의 정자에서 많은 문학작품을 남기고 있다. 환벽당은 식영정, 면양정, 송강정, 독수정, 소재원과 같은 자미탄(창계천)을 중심으로 위치한 다수의 정자원림에서 사촌 김윤제와 함께 석천 임억령, 서하당 김성원, 면양정 송순, 소재공 양산보, 송강 정철 등이 호남가단(湖南歌壇)을 이루어 한국문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환벽당 원림은 당대 최고의 석학과 시인묵객들이 드나들던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시문과 가사를 지으며 풍류문화의 절정을 이루어 조선시대 사림문화를 발전시킨 대표적 별서원림이다. 환벽당과 관련된 시로는 석천 임억령의 환벽당을 소재로 한 7수와 사촌 김윤제에게 주는 시 24수가 있고, 면양정 송순,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외 수많은 문인들이 환벽당 시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를 지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특히 석천 임억령의 시는 비운 뒤 환벽당의 정취를 낭만적으로 노래한 시로서 환벽당 원림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환벽당 원림은 호남가단^{湖南歌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문사들을 배출하고, 당대 유명한 문사들이 교류하던 장소로서 자미탄을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정자원림을 대표하는 하나의 별서원림이다. 특히 담양의 소쇄원, 식영정과 함께 환벽당은 일동삼승^{一洞三勝}으로 일컬어지는 자미탄 여울의 대표적 경승이다.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자미탄, 조대^{釣臺}, 용소^{龍沼}, 쌍송^{雙松}, 소나무림, 대나무 숲이 환벽당의 당호와 같이 푸르름을 두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환벽당 원림은 호남의 대표적인 정자문화를 보여주는 별서원림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원림이라 할 수 있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Gyeongpodae Pavilion and Gyeongpoho Lagoon, Gangneung

79

지정번호 명승 제108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365 등 | 지정면적 1,038,952m² | 지정일 2013년 12월 30일





문화재 현황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경포호는 관동팔경의 하나다.

경포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호^{巖湖}인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이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남긴 시와 그림, 유람기 등이 전하고 있는 경승지이다. 경포대와 경포호의 자연풍광을 비유한 경포팔경과 호해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 김극기의 강릉팔영 등이 전해져 오고 있는 장소로서, 빼어난 자연경관이 조망되고 다양한 문화경관적 요소가 풍부하게 깃들어 있는 명소이다.

자연·인문환경

경포대는 동해안의 연안류에 의해 형성된 석호^{巖湖}중의 하나인 경포호 호수가에 세워진 누정이다. 석호는 바다로부터 분리된 연안에 나타나는 수심이 얇은 호수로 사주^{沙柱}, 사취^{砂嘴} 등에 의해 바다와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는 호수다. 동해안에는 다수의 석호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포호는 가장 잘 알려진 석호이다. 운정천(뒷내), 죽현천(앞내), 안현천 등이 경포호로 흘러드는 하천이었으나 지금은 유로가 변경되어 경포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없는 상태이다.

경포호 주변에는 경포대를 중심으로 많은 정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경포호 중앙의 월파정을 비롯하여 주변에 경호정, 상명정, 금란정, 방해정, 석란정, 호해정, 해운정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선교장과 오죽헌이 자리하고 있다. 경포대 주변에 조성된 소나무숲은 매우 울창하여 바닷바람을 막아주기도 하며, 특히 아름다운 경관요소로서 경포호의 경승 가치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경포대는 32개의 기둥을 가진 30칸(정면 6칸, 측면 5칸)의 거대한 누정이다. 지방관아에서 지은 공루公樓들이 대부분 6칸~8칸의 규모로 지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경포대는 매우 거대한 누정이다. 안축안軸이 지은 「경포대신정기鏡浦臺新亭記」에는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바람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혹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쓰여 있어 경포대의 창건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이곳이 예로부터 전망이 좋은 경승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포대에는 울곡 이이가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鏡浦臺賦」가 관각되어 걸려 있으며, 숙종의 어제시御製詩와 다수의 기문記文과 시판詩板이 걸려있다. 경포대는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관동존무사關東存撫使 박숙정朴淑貞이 신라의 사선四仙 놀았다는 방해정 북쪽 인월사 터에 세웠으며, 1508년(중종 3)에 부사府使 한급韓汲이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릉지방에서는 경포호 주변의 아름다운 장소를 경포팔경으로 불렀는데, 경포팔경은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와 낙조, 달맞이, 밤바다의 고기잡이 배, 노송 속의 강문동,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초당동 등을 의미한다. 또한 경포호에는 4개의 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하늘에 뜨는 달과 함께 바다에 비친 달, 호수에 빠진 달, 그리고 술잔에 담긴 달이라 하여 경포호의 문화적 의미를 한층 높여주는 경포호 경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적 가치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경포대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경포호와 함께 동해안의 절승지로 매우 아름다운 경승지이다. 동해안의 석호(潟湖) 중에서도 일반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호수이며, 경포호는 호수 안에, 호수주변에, 인근 지역에 수많은 정자와 전통한옥이 위치하고 있는 호수이다. 경포호의 배후에는 해안을 따라 길게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어 경포호의 모습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한다.

경포대와 경포호에는 다양한 문화경관적 요소가 존재한다. 경포대에는 다수의 기문과 시문이 각자 되어 편액으로 걸려 있어 경포대에 관한 역사와 승경에 관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경포대 주변의 경관을 집경한 경포팔경과 경포대에서 조망되는 4개의 달로 상징되는 경포호의 야경은 경포호의 경관을 신선의 세계로 승화시킨다. 단원 김홍도의 진경산수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경포대와 경포호는 옛 명사들의 시서화(詩書畵)의 대상이 되기도 한 곳으로서,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명승이다.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Sujongsa Temple in Ungilsan Mountain, Namyangju

80

지정번호 명승 제109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등 | 지정면적 502,980.67m² | 지정일 2014년 3월 12일





문화재 현황

운길산 수종사 일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양수리)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저명한 전망지점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두 강물이 머리를 맞대듯이 만나 하나의 강이 되어 흐르는 두물머리 물길과 운길산 일대의 풍광은 계절에 따라 신록, 녹음, 단풍, 설경 등은 물론 시간과 날씨에 따라 일출, 일몰, 운무 등 신비로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경관이다.

운길산(해발 610m) 중턱에 자리한 수종사 일원에서 바라본 높고 낮은 산봉우리와 한강으로 합류하기 직전의 두물머리 물길 풍광은 대자연의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시와 그림을 남겼는데, 조선시대 문인 서거정은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칭송하였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군자유삼락(君子有三樂)에 견주었고, 다선(茶仙) 초의선사가 정약용을 찾아 차를 마시며 풍광을 즐긴 장소로서 차 문화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겸재 정선(1676~1759)의 ‘경교명승첩’중 독백탄(獨柏潭)은 두물머리의 옛 경관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조선시대 승경과 현재의 명승경관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자연·인문환경

운길산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40km,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는 양수리에서 서북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하는데, 동-서로 발달한 능선을 기점으로 물길이 북류하거나 남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고, 팔당호가 생기면서 두물머리 주변에 양수리 습지, 개미기도랑, 용늪, 용담리 습지 등이 발달해있다.

운길산 수종사 경내는 자연식생과 문화경관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1960년대까지 느티나무 등 노거수가 여러 그루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라지고 수령 500년 이상의 은행나무 두 그루(경기도 보호수)가 대표적 상징수목으로 존재한다.

수종사 후면 일대는 오랜 세월 사찰림으로 보호되어 온 식생권역으로 굴참나무군락과 소나무를 비롯해서 팔배나무, 고로쇠나무 등의 거목들이 드물게 서식하고, 사찰 입구 주변의 굴참나무와 느티나무, 전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등은 과거 잠재식생을 짐작하게 한다. 운길산 일대에는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소나무가 혼효림을 형성하며, 상층목(신갈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당단풍 등)과 하층목(개웃나무, 귀룽나무, 털팽나무, 개암나무, 작살나무, 조록싸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운길산(雲吉山)은 “바람이 가다가 산에 멈춘다.” 또는 “구름이 지나가다 산에 걸려 멈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廣州牧)에 “주 동쪽 30리에 운길산이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에 “광주부에 속해 있고, 양주 천마산에서 산줄기가 뺏어 나오며, 으뜸 되는 산줄기를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종사는 1458년 세조가 금강산을 다녀오다 이수두(水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굴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나와 절을 짓고 수종사라고 하였다 전해온다.

수종사에서 바라본 두물머리의 조망경관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서거정(1420~1488)은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칭송하였고, 한음 이덕형(1561~1613), 추사 김정희(1786~1856), 정

조의 부마 홍현주(1793~1865) 등이 즐겨 찾았던 명소이다. 정약용(1762~1836)은 ‘군자유삼락’으로 극찬하였으며, 초의선사(1786~1866)가 정약용을 찾아 즐기던 차 문화 부흥의 산실이었다. 겸재 정선(1676~1759)의 ‘경교명승첩 독백탄’ 그림은 조선시대 두물머리 일대의 승경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회화적 사료이다.



문화재적 가치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대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양수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저명한 전망지점으로 경이로운 대자연의 풍경과 인간 삶의 문화가 그림처럼 어우러진 명소경관이다.

수종사 일원의 명승적 가치를 대변해 주듯이 조선 초기의 문인 서거정은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칭송했다. 사계절 내내 신록·단풍·설경이 아름답고, 일출·일몰·운무 등 신비로운 풍광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조망지점으로 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





괴산 화양구곡

Hwayanggugok Valley, Goesan

81

지정번호 명승 제110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 | 지정면적 30,282m² | 지정일 2014년 8월 28일





문화재 현황

괴산 화양구곡은 청화산(984m)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화양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계곡 3km 구간 좌우에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 송시열(1607~1689)이 머물던 화양동에 수제자인 권상하(1641~1721)와 민진원(1664~1736)이 아홉구비 물줄기를 구곡의 명칭으로 확정하여 바위에 새겼다. 조선시대 성행한 성리학 사상을 대표하는 문화경관 사례로, 제1곡 경천벽으로부터 제9곡 파천(파곳)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산수풍광이 보존된 명소경관이다.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파곳)으로 명명된 구곡은 바위, 담, 절벽 등 수석이 어우러진 계곡경관이 탁월하고, 우암 관련 유적과 바위 글씨 등 문화경관 요소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자연·인문환경

산수풍광이 수려한 화양구곡은 청화산을 중심으로 가령산, 도명산, 낙영산, 조봉산이 둘러싸듯 펼쳐진 화양동 계곡을 일컫는다. 아홉 구비 물줄기 화양구곡은 청천면 소재지로부터 송면리 방향 9km 지점에서 3km 구간에 걸쳐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에 분포한다. 화양동의 지질은 계곡수가 흐르면서 화강암을 침식시킴에 따라 기암괴석과 절벽, 바위, 소, 담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수석경관을 형성한다. 주변의 식생은 소나무군락, 소나무와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군락, 단풍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화양천 하류에서 상류로 이어지는 1곡부터 9곡까지의 영역은 암서재, 화양서원과 만동묘 등을 포함하는 제3곡 읍궁암과 제4곡 금사담 권역을 중심으로 커다란 선적^{線的} 경관체계를 형성한다. 기암괴석이 하늘을 떠받치는 경천벽, 구름 그림자가 맑게 비치는 운영담, 우암이 효종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침마다 통곡했다는 읍궁암, 금빛 모래가 펼쳐진 금사담, 층층이 쌓인 바위 모습의 침성대, 구름을 찌를 듯 솟아있는 능운대, 넓은 바위가 용처럼 꿈틀거리는 와룡암, 학^鶴이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운 학소대, 옥처럼 깨끗한 물이 뱀처럼 흘러가는 하양구곡 최고의 절경 파천 등 명소경관이 펼쳐진다.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이 괴산 화양동에서 1666년부터 1686년까지 은거하면서 도학(성리학)을 수행하던 거점에 제자들이 구곡을 설정한 한국의 대표적 문화경관 사례이다. 우암은 한국의 유학자 가운데 도통을 이은 성인을 의미하는 자^子 칭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황양목(회양목)이 많아 황양동이라 불리던 이름을 우암이 화양으로 고쳤다 하는데, 우암 사후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가 화양구곡을 설정하였고, 단암 민진원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 하며, 화양구곡의 범위와 명칭을 확정한 시기는 1720년대로 추정된다.

구곡의 명칭은 제1곡 경천벽, 제2곡 운영담, 제3곡 읍궁암, 제4곡 금사담, 제5곡 침성대, 제6곡 능운대, 제7곡 와룡암, 제8곡 학소대, 제9곡 파천이다. 경천벽 바위에 우암의 ‘화양동문^{華陽洞門}’ 글씨가 새겨져 있고, 읍궁암 옆에 임진왜란 때 파병을 해준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신 만동묘가 있으며, 금사담 권역은 우암이 머물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심취했던 암서재와 수많은 바위글씨가 산재하는데, 구곡의 핵심경관요소이다.

‘화양지’(1744)에 화양구곡의 연유와 풍광, 화양동, 만동묘, 화양서원 등의 설명과 “계곡 물이 바위를 꿰고 흐르는 것이 큰 뱀과 같기 때문에 파곳이라 이름 했다. 이곳은 화양동의 첫째가는 절경이다”라고 기록하였다. 한편, 화양구곡의 실경을 그린 화양구곡도 그림 2점이 전해지는데, 1756년 권신응, 1809년 이형부의 그림이다.

문화재적 가치

괴산 화양구곡은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의 화양동 은거지를 중심으로 제자 권상하, 민진원 등에 의해 설정된 구곡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경관 사례이다. 속리산에 포함된 화양천을 중심으로 3km 구간에 걸쳐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산수경관이 빼어난 아홉 구비 물줄기에 구곡이 분포하고 있다. 1곡(경천벽)으로부터 9곡(파천)까지 화양구곡 풍광은 구곡 계류, 바위, 소^澗, 절벽 등 자연경관과 성리학적 가치를 대입시킨 문화경관(암서재, 화양서원, 만동묘, 그리고 바위 글씨 화양동문, 비례부동, 화양서원, 만절필동 등) 등 복합문화경관의 진수가 펼쳐진다.

우리나라 구곡 가운데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는데, 화양동 계곡에 하류 쪽 제1곡으로부터 상류에 해당하는 제9곡까지의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성리학적 이념이 잘 반영되어 역사적, 사상적, 교육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탁월한 문화경관 사례이다.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Saseongam Hermitage and Surroundings, Gurye

82

지정번호 명승 제111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 등
지정면적 71,129m² | 지정일 2014년 8월 28일





문화재 현황

자라 모습을 하고 있는 오산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마주보고 있는데,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와 구례읍, 지리산 연봉들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경관관찰점이다.

구례 오산 사성암은 오산 정상부(해발 531m)의 깎아지른 암벽을 활용하여 조성한 사찰로 백제 544년(성왕 22)에 연기조사가 창건하여 처음에는 오산암(龜山庵)이라 하였다. 이곳에서 4명의 고승(의상·원효대사, 도선·진각국사)이 수도하였다 하여 사성암(四聖庵)으로 불려진다. 사성암을 중심으로 오산12대[※]의 비경이 펼쳐지는데, 1경 신선대, 2경 관음대, 3경 좌선대, 4경 우선대, 5경 배석대, 6경 향로대, 7경 풍월대, 8경 괘불대, 9경 양천대, 10경 낙조대, 11경 영자대, 12경 왕천대이다. 좌선대와 우선대는 13세기 ‘원감국사문집(圓鑑國師文集)’에 “오산 정상에서 참선을 행하기에 알맞은 바위가 있는데, 도선·진각 양 국사가 연좌 수도 했던 곳”이라 적혀있다.

자연·인문환경

사성암은 왕시루봉(1,212m)과 등지리봉(690m) 사이를 관통하는 섬진강이 동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구례분지 남측의 오산(530m) 정상부에 위치한다. 기암괴석 바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오산 일대의 암반조식은 안삼암 및 유문암질 화산암인데, 절리의 발달과 암괴노출이 심하다. 표층풍화 현상에 따라 정상부로 올라갈수록 암괴의 노출이 심하고,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사찰암자가 접속되



어 절묘한 경관을 보여준다. 즉, 경관적으로 오산 사성암 일대는 굽이쳐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 등 7개면, 그리고 지리산 연봉들을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경관 조망점이며, 사찰 건물과 기암괴석 바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오산 일대에는 암반에 기대어 소나무 상층부 식생과 조릿대 하층부 식생이 우점하고, 사성암 경내에는 수령 80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위용을 자랑하며 대표적인 자연문화경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례향교 발간 ‘봉성지’(1800)에서 사성암의 경관은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로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 극찬하였다.

사성암은 1630년(인조 8)에 중건과정을 거쳤고, 1939년에 이용산 스님이 암자를 대대적으로 중창하여 수직암벽에 기댄 독특한 건축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사성암의 도선굴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구례현의 남쪽 15리에 있다. 산 정상에 바위 하나가 있고 바위에 틈이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전하기를 중 도선이 이 산에 살면서 천하의 지리를 그렸다.”라고 하였다. 약사전을 나와 마당 왼쪽 계단을 타고 오르면 조릿대 군락이 자생하고 수령 800년 이상의 귀목나무(느티나무),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원바위(남편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숨을 거둔 남편의 애절한 사랑전설이 깃든 뽕바위) 등이 자리한다.

문화재적 가치

사성암은 넓은 마당이 없는 대신 공간적 활용도를 극대화한 건축기술, 암벽에 매달린 형상의 수직 돌계단과 건물의 상승감, 대자연의 경

이로움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경관기법 등이 돋보인다.

오산은 해발 530m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사성암을 중심으로 기암괴석과 주변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뛰어난 경관관찰지점이다. 오산 정상부로 향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조망 경관은 섬진강 하류가 굽이돌아 흐르는 물길, 서시천 일대의 구례분지와 너른 들, 지리산 서남부 권역에 연이어진 산봉우리 등 대자연의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화순 적벽

Jeokbyeok Cliff, Hwasun

83

지정번호 명승 제112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 | 지정면적 242,119m² | 지정일 2017년 2월 9일





문화재 현황

화순 적벽은 웅성산 서쪽 약 80m 높이의 절벽으로 영신천과 창랑천의 합류지점에 약 7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특히 노루목적벽은 화순 적벽의 대표 경관으로 꼽히며, 창랑리의 창랑적벽, 물염마을의 물염적벽도 주요 경관지점에 해당한다. 동북댐의 호수 물에 반사되는 절벽의 아름다움도 수몰마을의 정자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 같은 모래나 점토 크기의 입자가 층층이 굳은 퇴적암

자연·인문환경

화순 적벽 일원은 화순군 동북부에 위치하며 절벽지형은 자줏빛 응회암과 셰일^{Sh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성강 상류 동북천 연안에는 자줏빛 지층으로 이루어진 물염절벽, 보산적벽, 노루목적벽 등이 있어 대체로 붉은색을 띠고 있다. 화순 적벽 주변의 암석들은 백악기 오랜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응회암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조망할 수 있는 동북천 사행 구간은 수직에 가까운 하안 단애를 이루고 있다. 현재 화순적벽은 동북댐 건설 이후 인공호수와 하식에의 절벽이 어우러진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화산암 풍화혈 등이 관찰되는 등 화산지형이 분포하고 있다.

화순 적벽과 주변의 산림은 소나무군락이 우점하며, 일부 소나무-상수리군락과 소나무-떡갈나무군락이 혼재해 있다. 동북호 주변에는 갈대군락, 대나무군락 등이 확인된다.

화순 적벽은 '적벽'으로 불리다가, 신재 최산두(1483~1536)가 적벽이라 명명한데서 유래되었다. 이 적벽은 중국 송대 문인인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서 기원하였으며, 소동파를 흠모한 여러 시인묵객들에게 명소가 되어 왔다.

과거 화순 적벽에는 지역 사립들이 약 70여 개의 누정들이 있었으며, 김성일, 김인후, 임억령, 이하곤, 조정만 등 유명인사의 방문·후학양성을 통해 '적벽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화순 적벽에는 물염정^{勿染亭}, 망미정^{望美亭}, 송석정^{松石亭}, 망향정^{望鄕亭} 등이 남아있는데, 특히 송구^{宋駒}가 건립한 물염정은 김삿갓으로 불리던 김병연이 즐겨 찾았던 장소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망미정은 1646년 의병장 정지준이 조성한 정자였으나, 동북댐이 들어서면서 1985년 현재의 위치로 이축했으며, 송석정은 1687년 김한명^{金漢鳴}이 세운 정자로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이후 2003년 복원되었다. 망향정은 동북댐 완성 이후 실향민들을 위해 조성한 정자로 매년 시제와 천제를 지내고 있다.

문화재적 가치

화순 적벽은 동북천 상류와 영신천에 걸쳐 위치한 수직 절벽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어 '적벽^{赤壁}'이라 명명되었으며, 주변의 하천과 절벽, 산림이 조화를 이루는 경승지이다. 노루목적벽과 창랑적벽, 물염적벽은 1979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 화순적벽으로 지정되었으나, 1985년 동북댐의 건설로 절벽 일부가 수몰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구간을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물염적벽 건너편의 언덕 위에는 물염정, 망미정 등 여러 정자에서 화순 적벽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조선 중종 때 적벽이라 불린 이후 소동파의 고사를 따라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또한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에 많은 누정이 세워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편액, 상량문, 시문, 기문 등 다양한 문헌 자료가 전해지고 있어 화순 적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증명해 준다.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MangJubong Peak and Surroundings on Seonyudo Island, Gunsan

84

지정번호 명승 제113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1길 106-4 등
지정면적 문화재구역 152,915m², 문화재보호구역 19,845m² | 지정일 2018년 6월 4일





문화재 현황

선유도는 군산 앞바다의 크고 작은 섬 가운데 신선이 노니는(仙遊) 아름다운 섬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군산시 중심에서 45km 떨어져 있으며, 고군산군도 63개의 섬(유인도 16개와 무인도 47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선유도의 중심경관 망주봉(望主峰)은 그 옛날 억울하게 유배된 한 충신이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풍광이 아름다운 선유팔경이 전해지는데,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는 제1경 '선유낙조'를 조망 할 수 있는 명소이다. 선유팔경 중 6경(망주봉, 선유낙조, 삼도귀범, 명사십리, 무산12봉, 평사낙안)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데, 망주봉에서 바라본 선유낙조는 서해의 낙조기관(落照奇觀) 중 으뜸 경관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 망주봉 정상에서 압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의 비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근처의 솔섬은 다리를 건너 들어갈 수 있다.







자연·인문환경

고군산군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이 관할하는 섬의 무리로 3개의 중심 섬(선유도, 신시도, 무녀도)과 장자도, 야미도, 대장도 등은 오늘날 새만금방조제 및 고군산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군산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유도는 북섬과 남섬이 긴 사주로 연결되어 있다. 남섬은 0.9km², 북섬은 1.2km² 크기이며, 북섬에는 망주봉(104.5m)과 남악산(155.6m), 남섬에는 선유봉(111m)이 솟아있다. 지리적으로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의 물줄기가 모이는 새만금해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섬에 진말^{鱻里}과 통개마을^{通里}이 있고, 북섬에 새터, 월전, 남악 등 작은 마을이 있다. 선유도 북쪽에 위치한 망주봉은 두 개의 바위 봉우리로 중생대 백악기 산성 화강암류에 해당되는 지질구조인데, 양쪽으로 남악산과 선유봉이 위치하며 전면으로 1.3km에 달하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솔섬과 연결되어 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고군산진지도’(1872)에 나타나는 명소이며, 투명하고 깨끗한 백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어 선유팔경의 하나로 저명하다.

식물상으로는 곰솔, 소나무, 노간주나무, 사스레피나무, 자귀나무, 예덕나무, 팽나무, 소사나무, 보리밥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 졸참나무, 팔배나무, 진달래, 으름덩굴, 싸리나무, 짚레, 마삭줄, 쥐똥나무, 역새 등이 분포하는데, 퇴적 토양층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곰솔, 노간주나무, 소사나무 등이 비교적 큰 규모의 식생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고군산도는 바다위의 크고 작은 섬이 무리지어 산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군산群山으로부터 유래한다. 고려 때부터 활용되던 수군기지가 조선 세종 때 육지로 이전하면서 ‘군산’ 이름 앞에 ‘고’^古자가 붙었다. 조선시대 정유년(1597년) 9월 21일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고군산도’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왜구의 침략, 전라수영水營의 운영, 유배지 등 관련 기록이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만경현조에 “섬 안에 큰 무덤이 있는데 마치 군왕의 능과 같다.”는 기록과 ‘동여비고’ 군산도 지도에 큰 무덤과 왕릉이 표기되어 있는데, 삼별초군에 가담한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유도는 고려시대 여·송 무역로의 기항지였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공 일행을 영접하여 행사를 치른 곳이며, 진포해전에서 왜구를 물리친 최무선의 군사기지였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후 전열을 재정비한 함선의 수군기지이기도 하다.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기록된 망주봉 권역에는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룡묘(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19호)가 현존하고, 선유도 고려유적(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으로 송나라 사신일행을 영접했던 송산행궁(객관)과 군산정(정자), 그리고 자복사(사찰) 터가 남아 있다. 망주봉은 누명을 쓰고 유배된 충신이 바위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오룡묘는 선유도와 수군의 무사안녕, 뱃길의 안전 등을 기원하는 당제와 별신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문화재적 가치

군산 앞바다의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을 고군산군도라고 한다. 고군산군도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 하여 붙여진 선유도의 중심경관은 망주봉이다. 역사적으로 선유도는 백제와 고려시대 외교 및 무역선들이 경유하는 항구이자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시대 세금으로 걷은 쌀과 같은 물품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경유지였다. 망주봉 남쪽과 서쪽에는 고려 때 송나라 사신 서공 일행의 영접 행사가 열린 군산정과 송산행궁(객관), 동쪽 산봉우리 중단부에는 당제와 별신제를 지내던 오룡묘와 자복사 터가 남아있다. 망주봉 일원에서 바라본 선유팔경의 명소경관 ‘선유낙조’는 하늘과 바다, 해안선이 모두 붉은 색조로 변하여 황홀한 풍광으로 조망되는데, 서해의 낙조기관落照奇觀으로 저명하다. 선유도 망주봉 일원은 선유8경 중 동서남북 4방향에 펼쳐진 6경(망주봉, 선유낙조, 삼도귀범, 명사십리, 무산12봉, 평사낙안)을 모두 감상할 수 있으며, 비가 오면 망주봉 정상에서 압벽을 타고 흐르는 여러 개의 물줄기 폭포 절경을 조망할 수 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85

Columnar Joints on Gyubong Peak and Jigong Stony Slope in
Mudeungsan Mountain

지정번호 명승 제114호 | 유형 자연명승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원길 40-28 | 지정면적 350,000m² | 지정일 2018년 12월 20일





문화재 현황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무등산의 해발 950m 정도에 분포한다. 규봉은 입석대, 서석대와 더불어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냉각, 수축되어 형성된 주상절리로 저명한데, 깎아지른 100여개의 돌기둥은 울창한 수림과 규봉암 사찰이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규봉의 신비로운 주상절리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열 개의 대^臺가 있는데, 송하·광석·풍혈·장추·청학·송광·능엄·법화·설법·은신이라 이름 한다.”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 김극기의 시에 “이상한 모양이라 이름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萬像}이 공평하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라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라고 하여 경이로운 형체의 풍광을 노래했다.

지공너덜은 주상절리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 깨어져 경사면을 타고 내려 모여진 파편으로 주상절리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주로 무등산 정상부에서 규봉으로 이어지는 암괴능선 하부에 존재한다. 인도의 승려 지공대사가 이곳에 석실^{石室}을 만들고 좌선 수도하면서 법력으로 억 만 개의 돌을 깔았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자연·인문환경

무등산은 지리산에서 영암 월출산, 해남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북서측 연변부에 속하는 산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이다. 무등산 규봉의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은 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1km 거리에 있으며, 해발 950m 권역에 분포한다. 규봉의 광석대는 서석대, 입석대와 함께 무등산 3대 주상절리의 하나로 가장 규모가 크다. 100여개의 주상절리가 길이 약 80m, 높이 30~40m로 길게 늘어서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무등산의 해발고도 400m 이상 권역에는 용결응회암이 분포하고,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석영반암, 미문상화강암 등이 관입되어 있으며, 수직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해발고도 400m 이하 권역에는 주로 화순안산암이 분포한다. 무등산 일대에는 마삭줄, 차나무, 개산초, 송악 등 상록활엽수가 서식하고, 곰솔, 예덕나무, 나도밤나무, 풍계나무, 층층나무, 노각나무, 생강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철쭉, 억새 등 비교적 다양한 식물상이 분포한다.

무등산은 백제 때 무진악, 신라 때 무악, 고려 때 서석산 등으로 불렸다. 광주의 옛 지명 무들 또는 암설(너덜)이 많아 무돌산으로 불리던 것이 무등산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규봉암 옆에 세 개의 돌이 있는데, 높이가 수백 척이 되어 삼존석이라 한다. 규봉은 열 개의 대^臺가 있다.”, “진산^{鎭山}이며, 제주도의 한라산, 경상도의 남해, 거제도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산 서쪽 양지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높이가 백 척이나 된다. 산 이름 서석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 초 김극기는 “이상한 모양이라 이름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이 공평하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라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라고 주상절리 풍광을 노래했다. 지공너덜은 인도 승려 지공대사가 석실을 만들고 좌선 수도하며 법

력으로 억만개의 돌을 깔았다는 신비로운 유래가 전해진다.

규봉암은 무등산 동남쪽 광석대 기슭에 위치하는데, 후사면에 발달한 주상절리 풍광과 잘 어우러진다. 규봉암 관련 사료로 1439년(세종 21) 때 전라감사 최극화는 “의상대사의 창건”이라 하였고, 제봉고경명의 ‘유서석록’(1574)에 “신라의 명필 김생이 쓴 ‘규봉암圭峯庵’ 현판이 있었으나 절취되었다.”라고 하였다. 현재 관음전과 요사채 등 규봉암 암자는 한국전쟁 때 전소된 것을 1957년 이후 신축한 것이다.

규봉에서의 조망은 근경(무등산 산세), 중경(화순 산악지역의 낙타봉과 이서면의 마을 풍경, 화순적벽), 그리고 원경(소백산맥의 능선 일출경관)이 모두 탁월하다. 외부에서 규봉 주상절리 등을 조망하는 시점으로는 안양산과 낙타봉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답다.

지공너덜은 무등산 정상부에서 규봉으로 이어지는 암괴능선 하부에 주로 분포한다. 상부의 주상절리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 깨어져 능선을 타고 내려 모여진 파편으로 가로와 세로가 약 300m×200m 크기이며, 면적은 약 42,000m²이다.



문화재적 가치

무등산 규봉은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냉각·수축되어 형성된 주상절리와 지공너덜로 유명하다. 울창한 수림 사이로 깎아지른 약 100여개의 돌기둥 주상절리와 규봉암 사찰이 잘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기록된 규봉과 지공너덜은 오늘날 잘 보존되어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문화경관 사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규봉은 열 개의 대^臺가 있는데, 송하^{松下}·광석^{廣石}·풍혈^{風穴}·장추^{藏秋}·청학^{靑鶴}·송광^{松廣}·능엄^{楞嚴}·법화^{法華}·설법^{說法}·은신^{隱身}이라 한다.”라고 하여 각각의 돌기둥에 상징성 짙은 이름을 붙였고, 김극기의 시에 “이상한 모양이라 이름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이 공평하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라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라고 하여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풍광을 극찬했다.

지공너덜은 주상절리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깨어져 산 능선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모인 돌무더기로 주상절리와 초기 형성과정을 같이한다. 인도의 승려 지공대사가 이 곳에 석실을 만들고 좌선 수도하면서 법력으로 억 만개의 돌을 깔았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강진 백운동 원림

Baegundong Garden, Gangjin

86

지정번호 명승 제115호 | 유형 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 등
지정면적 문화재구역 10,755m², 문화재보호구역 58,345m² | 지정일 2019년 3월 11일





* 100그루의 매화나무를 심었다는 화단(화오花塢)으로, 정약용이 3경(三景) 백매암항(百梅暗嶂)으로 꼽았다. 현재는 2그루의 흰 매화가 있다

문화재 현황

‘백운동 원림’은 월출산 자락에 조성된 조선시대 후기의 고정원이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이담로(李聃老)(1627~1701)가 들어와 은거하기 위해 별서를 조영한 후 그의 후손들에 의해 확장되고 개수되어 오늘의 백운동 원림을 이루고 있다.

월출산의 남측 계곡에 위치한 백운동 원림은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원공간은 초정과 못, 화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정 공간, 전정에서 후정에 이르는 측정(側庭) 공간, 사당 영역인 후정 공간으로 구별된다. 외원공간은 별서의 시설구역 주변에 조영된 원림 공간으로서, 진입 공간, 계변(溪邊) 공간, 정선대 공간, 운당원 공간, 백매오(百梅塢)* 공간 등으로 나뉜다.

백운동 원림은 내원이 숲에 둘러싸여 있는 안온한 정원으로서, 정선대에서 조망하면 내원의 전경과 월출산의 원경이 연결되어 한 폭의 산수화를 이루는 차경경관이 매우 뛰어난 별서정원이다.

자연·인문환경

백운동 원림은 진입로에서 계곡에 이르기까지 동백나무 숲이 터널을 이루고 있으며,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이 동백나무 숲을 지나면 내원에 이르게 된다. 원림 내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 각자된 바위와 창하벽(蒼霞壁), 정유강(貞莸岡), 정선대(停仙臺), 풍단(楓壇), 운당원(雲堂園) 등의 경물(景物)이 위치하고 있고, 특히 내원에는 계곡의 물을 끌어 들여 곡수(曲水)가 흐르는 수로와 못을 만들어 곡수연(曲水宴)을 즐기기도 한 곳으로서, ‘유상곡수(流觴曲水)’라는 글자를 각자한 바위가 자리하고 있다.

백운동 원림에는 건물과 내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화계가 조성되었으며, 이 화계는 경사지를 3단으로 처리하여 구성하였다. 현재 기반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산의 모란채(牡丹砌)는 이 기반을 이용해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하벽은 계곡에 면한 절벽을 이루는 바위이며, 창하벽의 위쪽이 정유강이라는 언덕이다. 이 언덕 위에 정선대(정자)를 세웠으며, 정선대에서 조망되는 백운동 원림의 조망경관은 산수원림(山水園林)의 절경을 보여준다.

이곳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까지 백운암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17세기에 이담로가 별서를 조성하고 은거를 시작한 별서원림이다. 이담로는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에서 백운동 원림을 ‘구양수의 저주(濔州)와 유중원의 우계(愚溪)를 볼 수 있다(永叔之於濔 子厚之於愚 有見于是否)’고 하여 당송8대가**와 성리학자들을 존송하는 뜻을 원림경관에 사의(寫意)하고 있다.

백운동 원림이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세기 중엽 이시헌(李時憲)(1803~1860) 대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헌이 지은 「백운세수첩(白雲世手帖)」에는 백운동의 역사와 백운동의 경승을 노래한 연작시가 수록되어 있다. 백운동 원림에는 다산 정약용이 직접 방문해 12곳의 경승을 ‘경승과 영담(景勝과 瑩談)’으로 칭송한 「백운동12승사(白雲洞十二勝事)」의 연작시를 지었으며, 또한 정약용은 그의 제자 초의선사에게 백운동도(白雲洞圖)를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친필시를 직접 쓴 「백운첩(白雲帖)」을 남겨 백운동 원림의 옛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시헌은 강진에서 다산에게 수학하며 제다(製茶)를 배웠고, 고향에 돌아 간 후에도 계속차를 만들었다. 백운동 원림은 차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별서원림이다.

** 중국 당나라의 한유(韓愈), 송나라의 구양수(歐陽修) 등 8명의 유명한 산문작가



문화재적 가치

백운동 원림은 조선 성리학자가 조성한 이상적인 별서원림이다. 계류를 끌어와 구곡을 만들고 유상곡수를 즐기는 정원시설은 왕희지의 난정^{蘭亭} 고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조경 시설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담로의 별서 조성을 시작으로 이시헌에 의해 완성된 백운동 원림은 13대에 걸쳐 후손에게 전해짐으로써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별서원림이다.

특히 백운동 원림은 이담로의 「백운동유서기^{白雲洞幽棲記}」와 「견한록^{遣閑錄}」, 이시헌의 「백운세수첩^{白雲世手帖}」, 다산 정약용의 「백운동12승사^{白雲洞十二勝事}」, 초의선사의 「백운첩^{白雲帖}」 등 많은 문헌 및 그림 자료가 전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명승이다.

백운동 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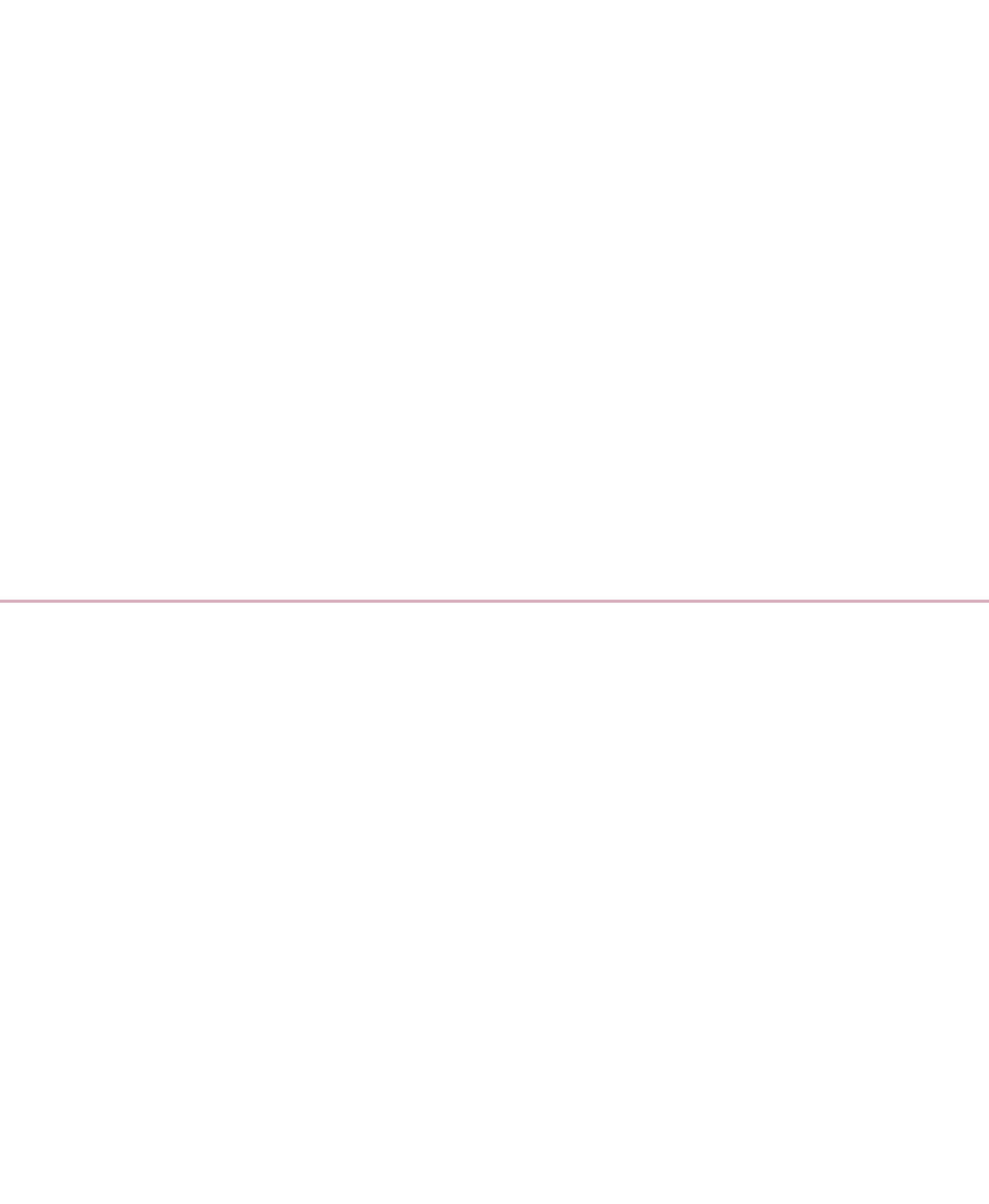


바위가 뾰족뾰족한 월출산의 남녘에 강진 백운동 원림이 있습니다. 이곳은 1690년대 이담로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오던 곳입니다. 백운동 원림을 만든 이담로는 자신을 백운동에 은거해 산다는 뜻의 백운동은^{白雲洞隱}으로 호를 삼고, ‘이 정원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후손이 아니다’는 유언을 남겨, 후손들이 지금껏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1805년에는 강진에서 유배중이던 다산 정약용이 월출산 방문길에 이 정원을 본 후 감동하여 12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시에 제자인 초의선사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여 『백운첩』(학고대박물관 소장)으로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당시 주인이던 이시헌에게 떡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백운동 원림은 초의선사, 추사김정희, 백련사 혜장스님 등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며 차 문화를 이끌어 우리나라 남도 차문화의 원류를 이루게 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부록 Appendix



최근 6년간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실적(2020. 12. 31. 기준)

구분	신규지정건수							지정현황
	'15이전	'16	'17	'18	'19	'20	계	
천연기념물	456(1)	1	1	2	4(2)	3(1)	467(4)	463
명승	109	-	1	2	1	3(1)	116(1)	115
계	565	1	2	4	5	6	583	578

| 2015년 지정 및 해제 내역 |

천연기념물(총 3건)

- 지정 : 제549호 정선 용소동굴('15.01.16.)
- 지정 : 제550호 제주 흑돼지('15.03.17.)
- 해제 : 제506호 서울 영취원 산사나무('15.03.12.)

| 2016년 지정 내역 |

천연기념물(총 1건)

- 지정 :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16.09.06.)

| 2017년 지정 내역 |

천연기념물(총 1건)

- 지정 : 제552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17.01.04.)

명승(총 1건)

- 지정 : 제112호 화순 적벽('17.02.09.)

| 2018년 지정 내역 |

천연기념물(총 2건)

- 지정 : 제553호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18.05.03.)
- 지정 : 제554호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18.08.29.)

명승(총 2건)

- 지정 :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18.06.04.)
- 지정 :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18.12.20.)

| 2019년 지정 및 해제 내역 |

천연기념물(총 6건)

- 해제 : 제338호 완도 예약도 감탕나무('19.07.05.)
- 지정 : 제555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19.09.05.)
- 지정 :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19.10.02.)
- 지정 :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19.11.01.)
- 해제 : 제521호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19.11.01.)
- 지정 : 제558호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탕자나무('19.12.27.)

명승(총 1건)

- 지정 : 제115호 강진 백운동 원림('19.03.11.)

| 2020년 지정 및 해제 내역 |

천연기념물(총 4건)

- 지정 : 제559호 상주 두곡리 뽕나무('20.02.03.)
- 해제 :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20.02.03.)
- 지정 : 제560호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20.11.09.)
- 지정 : 제561호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20.12.07.)

명승(총 4건)

- 지정 : 제116호 부안 직소폭포('20.04.20.)
- 지정 : 제117호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20.09.02.)
- 해제 : 제35호 성락원('20.09.02.)
- 지정 : 제118호 서울 성북동 별서('20.09.02.)

천연기념물 동물 지정현황(2020. 12. 31. 기준)

| 동물 : 101건 |

종류	지정건수
동물 서식지	11
동물 도래지	6
동물 번식지	14
동물 조류	46
동물 포유류	7
축양동물	7
동물 어류	4
동물 곤충	3
파충류	1
해양동물	2
계	101

| 천연기념물(동물) 지역별 현황 |

구분	지정 건수	천연기념물(동물)									
		동물서식지	동물도래지	동물번식지	동물 조류	동물포유류	축양동물	동물어류	동물곤충	파충류	해양동물
서울	1							1			
부산	1		1								
대구											
인천	2			2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	2	1	1							
강원	5	2	1	2							
충북	2	1		1							
충남	3	1		1			1				
전북	1	1									
전남	6		1	4			1				
경북	4	2					2				
경남	3		1	2							
제주	6	2		1			3				
전국	63		1		46	7		3	3	1	2
계	101	11	6	14	46	7	7	4	3	1	2

서식지 : 11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1	광릉 크낙새 서식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62.12.07.
2	2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천지연 폭포	'62.12.07.
3	73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	'62.12.07.
4	74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	'62.12.07.
5	237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사리 214	'71.12.14.
6	238	금강의 여름치	충청북도 옥천군 아원면으로부터 금강상류	'72.05.01.
7	322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411하천, 청량리 1398 하천 일원	'82.11.16.
8	412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	'99.09.18.
9	44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송악산 해역	'04.12.13.
10	532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11.09.05.
11	533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청양군 장편면	'11.09.05.

도래지 : 6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01	진도 고니류 도래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류리	'62.12.07.
2	126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	전국(강원, 경북, 경남, 울산 해안)	'62.12.07.
3	179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66.07.13.
4	227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	'70.10.30.
5	245	철원 철새 도래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73.07.10.
6	250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김포시 강변의 총적퇴적지역	'75.02.21.

번식지 : 1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3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충청북도 진천군 아월면 노원리 960	'62.12.07.
2	209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285	'68.07.18.
3	211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63	'68.07.18.
4	229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70.11.05.
5	233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	'71.09.13.
6	248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산186-2	'73.10.01.
7	332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 (바다제비·습새·칼새) 번식지	전라남도 신안군 칠발도	'82.11.16.
8	333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습새) 번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82.11.16.
9	334	태안 난도 갯이갈매기 번식지	충청남도 태안군 난도	'82.11.16.
10	335	통영 흥도 갯이갈매기 번식지	경상남도 통영시 흥도	'82.11.16.
11	341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 (빨쇠오리·바다제비·습새) 번식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2	'84.08.13.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2	360	웅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꿩이갈매기 번식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신도 전역	'88.08.23.
13	389	영광 칠산도 꿩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62	'97.12.30.
14	419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00.07.06.

조류 : 46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97	크낙새	전국	'68.05.31.
2	198	따오기	전국	'68.05.31.
3	199	황새	전국	'68.05.30.
4	200	먹황새	전국	'68.05.31.
5	201-1	고니류	고니	'68.05.31. (세분류 '05.03.17.) (각각 분류적용/ '14.02.)
6	201-2		큰고니	
7	201-3		흑고니	
8	202	두루미	전국	'68.05.31.
9	203	재두루미	전국	'68.05.31.
10	204	팔색조	전국	'68.05.30.
11	205-1	저어새류	저어새	'68.05.31. (세분류 '05.03.17.)
12	205-2		노랑부리저어새	
13	206	느시(들칠면조)	전국	'68.05.31.
14	215	흑비둘기	전국	'68.11.22.
15	228	흑두루미	전국	'70.11.02.
16	242	까막딱따구리	전국	'73.04.12.
17	243-1	수리류	독수리	'73.04.12. (세분류 '05.03.17.)
18	243-2		검독수리	
19	243-3		참수리	
20	243-4		흰꼬리수리	
21	323-1	매류	참매	'82.11.16. (세분류 '05.03.17.)
22	323-2		붉은배새매	
23	323-3		개구리매	
24	323-4		새매	
25	323-5		알락개구리매	
26	323-6		젓빛개구리매	
27	323-7		매	
28	323-8		황조롱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29	324-1	올빼미· 부엉이류	올빼미	전국	'82.11.16. (세분류 '05.03.17.)
30	324-2		수리부엉이		
31	324-3		솔부엉이		
32	324-4		쇠부엉이		
33	324-5		참부엉이		
34	324-6		소쩍새		
35	324-7		큰소쩍새		
36	325-1	기러기류	개리	전국	'82.11.16. (세분류 '05.03.17.)
37	325-2		흑기러기		
38	326	검은머리물떼새		전국	'82.11.16.
39	327	원앙		전국	'82.11.16.
40	361	노랑부리백로		전국	'88.08.23.
41	446	뜸부기		전국	'05.03.17.
42	447	두견		전국	'05.03.17.
43	448	호사비오리		전국	'05.03.17.
44	449	호사도요		전국	'05.03.17.
45	450	뿔쇠오리		전국	'05.03.17.
46	451	검은목두루미		전국	'05.03.17.

포유류 : 7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16	사향노루	전국	'68.11.22.
2	217	산양	전국	'68.11.22.
3	328	하늘다람쥐	전국	'82.11.16.
4	329	반달가슴곰	전국	'82.11.16.
5	330	수달	전국	'82.11.16.
6	331	점박이물범	동해, 서해, 남해	'82.11.16.
7	452	붉은박쥐	전국	'05.03.17.

축양동물 : 7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53	진도의 진도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 본도	'62.12.07.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2	265	연산 화악리의 오계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307	'80.04.01.
3	347	제주의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봉개동, 용강동	'86.02.08.
4	368	경산의 삼살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리 810	'92.03.10.
5	540	경주개 동경이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38-14	'12.11.06.
6	546	제주 흑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비마을길 13(제주축산진흥원 내)	'13.07.22.
7	550	제주 흑돼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비마을길 13(제주축산진흥원 내)	'15.03.17.

어류 : 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90	한강의 황쏘가리	한강 일원	'67.07.18.
2	259	어름치	전국	'78.08.18.
3	454	미호종개	금강 일원	'05.03.17.
4	455	꼬치동자개	낙동강 일원	'05.03.17.

곤충 : 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18	장수하늘소	전국	'68.11.22.
2	458	산골뚝나비	한라산고도 1,300m이상의 초지	'05.03.17.
3	496	비단벌레	중남부 해안지역	'08.10.08.

파충류 : 1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53	남생이	전국	'05.03.17.

해양동물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56	해송	전국	'05.03.17.
2	457	긴가지해송	전국	'05.03.17.

천연기념물 식물 지정현황(2020. 12. 31. 기준)

| 식물 : 266건 |

계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266	172	25	23	19	14	13

| 천연기념물(식물) 지역별 지정현황 |

구분	지정건수	천연기념물(식물)					
		노거수	수림지	마을숲	희귀식물	자생지	분포한계지
서울	11	11					
부산	5	3	1	1			
대구	1					1	
인천	6	5					1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3	1	2				
세종	1	1					
경기	12	12					
강원	18	15		2		1	
충북	18	11			5	2	
충남	12	9	1		1		1
전북	27	17	2		3		5
전남	46	23	9	8	2	1	3
경북	56	38	2	9	3	4	
경남	27	19		4		4	
제주	21	5	7		5	1	3
계	266	172	24	24	19	14	13

노거수 : 총 172건

순번	수종별	지정건수
1	은행나무	23
2	느티나무	18
3	소나무	15
4	백송	5
5	반송	6
6	곰솔	6
7	처진 소나무	4
8	향나무	11

순번	수종별	지정건수
9	이팝나무	6
10	회화나무	5
11	굴참나무	4
12	후박나무	4
13	매실나무	4
14	푸조나무	3
15	비자나무	3
16	왕버들	4
17	음나무	3
18	등나무	2
19	망개나무	2
20	팽나무	2
21	탱자나무	3
22	청실배나무	2
23	물푸레나무	2
24	무궁화	1
25	전나무	1
26	산돌배나무	2
27	뽕나무	2
28	노거수 단목	29
계		172

은행나무 : 2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0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6-1	'62.12.07.
2	59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62.12.07.
3	64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등	'62.12.07.
4	76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등	'62.12.07.
5	84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등	'62.12.07.
6	165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	'64.01.31.
7	16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등	'64.01.31.
8	167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 등	'64.01.31.
9	175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 등	'66.01.13.
10	223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508 등	'70.04.27.
11	225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74 등	'70.06.03.
12	300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51 등	'82.11.09.
13	301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638 등	'82.11.09.
14	302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2 등	'82.11.09.
15	303	화순 아사리 은행나무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아사리 182-1 등	'82.11.09.
16	304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186 등	'82.11.09.
17	320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148-3 등	'82.11.09.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8	365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09 등	'90.08.02.
19	385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등	'97.12.30.
20	402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리 산217 등	'98.12.23.
21	406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 등	'99.04.06.
22	482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1043-3 등	'07.08.09.
23	551	당진 면천 은행나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72-1 등	'16.09.06.

느티나무 : 18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95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87-2	'62.12.07.
2	161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1-2 등	'64.01.31.
3	192	청송 신기리 느티나무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1079 등	'67.07.18.
4	273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185-4 등	'82.11.09.
5	274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95 등	'82.11.09.
6	275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257-1 등	'82.11.09.
7	278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경기도 양주군 남면 황방리 136 등	'82.11.09.
8	27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 등	'82.11.09.
9	280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230-2 등	'82.11.09.
10	281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산23-1 등	'82.11.09.
11	283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747-2 등	'82.11.09.
12	284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88	'82.11.09.
13	382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등	'96.12.30.
14	396	장수 봉덕리 느티나무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336 등	'98.12.23.
15	407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윤림리 27-1 등	'99.04.06.
16	478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 등	'07.08.09.
17	493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2 등	'08.03.12.
18	545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13.07.17.

소나무 : 15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03	보은 속리 정이품송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등	'62.12.07.
2	289	합천 화양리 소나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1 등	'82.11.09.
3	294	예천 천향리 석송령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82.11.09.
4	349	영월 청령포 관음송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88.04.30.
5	351	속초 설악동 소나무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0-5 등	'88.04.30.
6	352	보은 서원리 소나무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등	'88.04.30.
7	358	함양 목현리 구송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6-3 등	'88.04.30.
8	359	의령 성황리 소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	'88.04.30.
9	381	이천 도립리 반룡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 등	'96.12.30.
10	383	괴산 적석리 소나무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1-1	'96.12.30.
11	397	장수 장수리 의암송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98.12.23.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2	410	거창 당산리 당송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31 등	'99.04.06.
13	424	지리산 천년송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111	'00.10.13.
14	426	문경 대하리 소나무	경상남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6	'00.10.13.
15	491	하동 축지리 문암송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산83-1 등	'08.03.12.

백송 : 5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8	서울 재동 백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3	'62.12.07.
2	9	서울 조계사 백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4 등	'62.12.07.
3	60	고양 송포 백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00-8 등	'62.12.07.
4	106	예산 용궁리 백송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73-28	'62.12.07.
5	253	이천 신대리 백송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등	'76.06.28.

반송 : 6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91	무주 삼공리 반송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31	'82.11.09.
2	292	문경 화산리 반송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 등	'82.11.09.
3	293	상주 상현리 반송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50-1 등	'82.11.09.
4	354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97 등	'88.04.30.
5	357	구미 독동리 반송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539 등	'88.04.30.
6	399	영양 답곡리 만지송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산159 등	'98.12.23.

곰솔 : 6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60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75-1 등	'64.01.31.
2	270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 등	'82.11.09.
3	355	전주 삼천동 곰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32-5 등	'88.04.30.
4	356	장흥 옥당리 효자송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6-1 등	'88.04.30.
5	430	해남 성내리 수성송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	'01.09.11.
6	441	제주 수산리 곰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 등	'04.05.14.

처진 소나무 : 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80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등	'66.08.25.
2	295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51-1 등	'82.11.09.
3	409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2 등	'99.04.06.
4	460	포천 직두리 부부송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1 등	'05.06.13.

향나무 : 11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88	순천 송광사 천자암쌍향수(급향나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	'62.12.07.
2	158	울진 후정리 향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7-2 등	'64.01.31.
3	194	창덕궁 향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68.03.09.
4	232	양주 양지리 향나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32-1 등	'70.12.24.
5	240	서울 선농단 향나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	'72.08.02.
6	312	울진 화성리 향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산190 등	'82.11.09.
7	313	청송 장전리 향나무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18 등	'82.11.09.
8	314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등	'82.11.09.
9	321	연기 봉산동 향나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 등	'82.11.09.
10	427	천안 양령리 향나무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394-9 등	'00.12.08.
11	553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4	'18.05.03.

이팝나무 : 6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6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산35	'62.12.07.
2	183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3-1 등	'67.02.17.
3	185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503 등	'67.07.18.
4	214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등	'68.11.20.
5	234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98-1 등	'71.09.13.
6	307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95-3 등	'82.11.09.

회화나무 : 5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15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1-7 등	'82.11.09.
2	317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53-4 등	'82.11.09.
3	318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428 등	'82.11.09.
4	319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4 등	'82.11.09.
5	472	창덕궁 회화나무 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창덕궁 내)	'06.04.06.

굴참나무 : 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96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1	'62.12.07.
2	271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21-2	'82.11.09.
3	288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등	'82.11.09.
4	461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5 등	'05.07.19.

후박나무 : 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12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456 등	'68.11.20.
2	299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70-3 등	'82.11.09.
3	345	통영 추도 후박나무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 등	'84.11.25.
4	481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324-8 등	'07.08.09.

매실나무 : 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84	강릉 오죽헌 울곡매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01	'07.10.08.
2	485	구례 화엄사 매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07.10.08.
3	486	장성 백양사 고불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07.10.08.
4	488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07.11.26.

푸조나무 : 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5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등	'62.12.07.
2	268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289-2 등	'82.11.09.
3	311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71 등	'82.11.09.

비자나무 : 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9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76 등	'62.12.07.
2	111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81-1 등	'62.12.07.
3	287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1	'82.11.09.

왕버들 : 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93	청송 관리 왕버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리 939-17 등	'68.03.09.
2	296	김제 종덕리 왕버들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299-1 등	'82.11.04.
3	298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561-1 등	'82.11.04.
4	539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 등	'12.10.05.

음나무 : 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64	창원 신방리 음나무 군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신방리 산652	'64.01.31.
2	305	청주 공북리 음나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318-2	'82.11.09.
3	363	삼척 궁촌리 음나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등	'89.09.16.

등나무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89	경주 오류리 등나무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4 등	'62.12.07.
2	254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06-11	'76.08.10.

망개나무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07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68.06.27.
2	337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46-1	'83.08.23.

팽나무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00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96 등	'98.12.23.
2	494	고창 수동리 팽나무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446 등	'08.05.01.

탱자나무 : 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78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5	'62.12.07.
2	79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10 등	'62.12.07.
3	558	문경 장수항씨 종택 탱자나무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등	'19.12.27.

청실배나무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86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 등	'97.12.30.
2	497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1493	'08.12.11.

물푸레나무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86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등	'82.11.09.
2	470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9-2	'06.04.04.

무궁화 : 1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520	강릉 방동리 무궁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46	'11.01.13.

전나무 : 1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95	진안 천황사 전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69-4 등	'08.06.16.

산들배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08	울진 쌍전리 산들배나무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146-1	'99.04.06.
2	519	영양 무창리 산들배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10.11.22.

뽕나무 : 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471	창덕궁 뽕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등	'06.04.06.
2	559	상주 두곡리 뽕나무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등	'20.02.03.

노거수 단목 : 29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38	구례 화엄사 울벚나무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62.12.07.
2	115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62.12.07.
3	168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73-28	'65.04.07.
4	174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100-7 등	'66.01.13.
5	251	창덕궁 다래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75.09.05.
6	255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06-11	'76.08.10.
7	285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338	'82.11.09.
8	344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경상남도 통영시 욱지면 연화리 203 등	'84.11.19.
9	348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	강원도 정선군 북면 고양리, 여량리, 봉정리	'86.04.17.
10	367	고창 삼인리 송악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 등	'91.11.27.
11	398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641-6 등	'98.12.23.
12	401	청송 흥원리 개오동나무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흥원리 547 등	'98.12.23.
13	433	정선 두위봉 주목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	'02.06.29.
14	459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7-1	'05.04.30.
15	479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48-1 등	'07.08.09.
16	492	의령 백곡리 감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76-1 등	'08.03.12.
17	498	평창 운교리 밤나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등	'08.12.11.
18	502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09.09.16.
19	503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전라북도 고창군 교촌읍 교촌리 275-3	'09.09.16.
20	504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	'09.09.16.
21	515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130	'09.12.30.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22	516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2 등	'09.12.30.
23	518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등	'10.11.22.
24	522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7	'11.01.13.
25	523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2244-2 등	'11.01.13.
26	538	독도 사철나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	'12.10.05.
27	544	제주 강정동 담팔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	'13.04.26.
28	554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 등	'18.08.29.
29	555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 등	'19.09.05.

수립지 : 총 2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8	완도 주도 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62.12.07.
2	65	울주 목도 상록수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62.12.07.
3	107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33 등	'62.12.07.
4	136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등	'62.12.07.
5	15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 등	'62.12.07.
6	172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산191 등	'66.01.13.
7	176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산2-1 등	'66.01.13.
8	184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	'67.02.18.
9	189	울릉 성인봉 원시림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67.07.18.
10	239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등	'72.08.02.
11	241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27-1	'72.08.02.
12	362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1	'89.01.14.
13	371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92.12.23.
14	374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등	'93.08.19.
15	375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57-1 등	'93.08.19.
16	37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93.08.19.
17	377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	'93.08.19.
18	378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등	'93.08.19.
19	379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73 등	'93.08.19.
20	462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232-2 등,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가지산 일원	'05.08.19.
21	463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 등	'05.09.09.
22	483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산151 등	'07.08.09.
23	489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등	'07.12.17.
24	517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 등	'10.10.28.

마을숲 : 총 2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29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121 등	'62.12.07.
2	40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등	'62.12.07.
3	82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면 365-2 등	'62.12.07.
4	93	원성 성남리 성황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1 등	'62.12.07.
5	108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948-1 등	'62.12.07.
6	150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39-3	'62.12.07.
7	154	함양상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등	'62.12.07.
8	235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등	'71.09.13.
9	272	삼척 갈전리 당숲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9-1 등	'82.11.09.
10	309	부산 구포동 당숲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06-23 등	'82.11.09.
11	339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91~산300 사이 지적에 면한 해역	'83.08.23.
12	340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등	'83.08.23.
13	366	담양 관방제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 등	'91.11.27.
14	403	성주 경산리 성박숲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등	'99.04.06.
15	404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 등	'99.04.06.
16	405	의성 사촌리 가로숲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56 등	'99.04.06.
17	445	하동 송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등	'05.02.18.
18	468	포항 북송리 복천수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477 등	'06.03.28.
19	469	예천 금당실 송림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42-1 등	'06.03.28.
20	473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등	'06.11.27.
21	476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솔나무 숲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등	'07.02.21.
22	480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85	'07.08.09.
23	514	영덕 도천리 도천숲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등	'09.12.30.
24	561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29-6 등	'20.12.07.

희귀종 : 총 19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50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 및 너도밤나무군락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1-1 등	'62.12.07.
2	51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당강나무군락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	'62.12.07.
3	52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20-1	'62.12.07.
4	138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면 승연리 1318-7 등	'62.12.07.
5	147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13	'62.12.07.
6	156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등	'64.01.31.
7	159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2	'64.01.31.
8	173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24-1	'66.01.13.
9	191	제주의 한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67.07.18.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0	220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70.01.09.
11	221	괴산 울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울지리 산19-1	'70.01.09.
12	266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등	'80.10.04.
13	364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9 등	'90.08.02.
14	370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9-4 등	'92.10.26.
15	387	임실 덕천리 가침박달군락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7 등	'97.12.30.
16	388	임실 덕천리 산개나리군락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36	'97.12.30.
17	428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등	'01.05.07.
18	429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4 등	'01.09.11.
19	432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616 등	'02.02.02.

식물 자생지 : 총 14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180	'62.12.07.
2	48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	'62.12.07.
3	49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1	'62.12.07.
4	62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1 등	'62.12.07.
5	63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51 등	'62.12.07.
6	114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산171	'62.12.07.
7	152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1	'62.12.07.
8	162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등	'64.01.31.
9	244	소백산 주목군락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73.06.20.
10	252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75.09.27.
11	343	통영 옥지면 모밀자뽕나무 숲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동항리 108-1 등	'84.11.19.
12	346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84.11.19.
13	372	양구 개느삼 자생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한천리 산54 등	'92.12.23.
14	560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 등	'20.11.09.

분포한계지 : 총 13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8	제주특별자치도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	'62.12.07.
2	19	제주특별자치도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85	'62.12.07.
3	66	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 산268 등	'62.12.07.
4	91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	'62.12.07.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5	110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복한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산12-2 등	'62.12.07.
6	112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복한지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62.12.07.
7	122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6 등	'62.12.07.
8	123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4 등	'62.12.07.
9	124	부안 중계리 광광나무군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5 등	'62.12.07.
10	153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등	'62.12.07.
11	163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	'64.01.31.
12	169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1	'65.04.07.
13	380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7	'93.08.19.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2020. 12. 31. 기준)

|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시도별 지정현황 : 11건 |

구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정건수	3	1	1	1	5	11

| 천연보호구역 세부현황 |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70	홍도천연보호구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 등	'65.04.07.
2	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부	'65.11.05.
3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66.10.12.
4	246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 일부	'73.07.10.
5	247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일부, 고성군 간성읍 일부	'73.07.10.
6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82.11.16.
7	420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등	'00.07.18.
8	42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산4 및 법환동 산1-3 등	'00.07.18.
9	422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 등	'00.07.18.
10	423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00.07.18.
11	524	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11.01.13.

천연기념물 지형·지질 지정현황(2020. 12. 31. 기준)

| 지질 |

계	화석	암석·광물	지형·지질일반	천연동굴
85	22	7	35	21

| 천연기념물(지질) 지역별 지정현황 |

구분	지정건수	천연기념물			
		화석	암석·광물	지형·지질일반	천연동굴
서울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5	1	1	3	
광주	1			1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	1		3	
강원	18	1	1	8	8
충북	3				3
충남	2			2	
전라북도	4	1	1	1	1
전남	8	5	1	2	
경북	9	3	2	3	1
경남	12	8		4	
제주	17	2		7	8
전국					
계	85	22	7	35	21

화석 : 22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46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산28-3 등	'62.12.07.
2	19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 43 등	'68.05.29.
3	222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 산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산4 등	'70.04.27.
4	373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산111-3 등	'93.06.01.
5	390	진주 유수리 백악기 화석 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495 등	'97.12.30.
6	394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 등	'98.10.17.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7	395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5-18 등	'98.12.23.
8	411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 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65 등	'99.09.14.
9	414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00.03.21.
10	416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42-2 등	'00.04.28.
11	418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45-1 등	'00.04.28.
12	434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03.02.04.
13	464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 발자국화석 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26-2 등 해안일대	'05.09.08.
14	474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 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산33-2	'06.12.05.
15	477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 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6 등	'07.05.07.
16	487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47-5 등	'07.11.09.
17	499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60-20 등	'08.12.29.
18	508	웅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부위	인천광역시 웅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 등	'09.11.10.
19	512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00-1(대구가톨릭대학교 내)	'09.12.11.
20	534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68번길 22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내)	'11.10.14.
21	535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5(목포자연사박물관)	'12.06.27.
22	548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47-17	'14.06.11.

암석·광물 : 7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69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산17 등	'62.12.07.
2	249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66 등	'74.09.10.
3	267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102-15 등	'80.10.27.
4	393	웅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97.12.30.
5	505	진도 동거차도 구상 페페라이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산1-4 등	'09.10.09.
6	547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산7-2	'13.12.16.
7	556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19 등	'19.10.02.

지형·지질일반 : 35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96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16-3 등	'68.05.29.
2	224	밀양 남명리 얼음골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1 등	'70.04.27.
3	263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등	'79.06.21.
4	391	웅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38-3 등에 인접한 공유수면	'97.12.30.
5	392	웅진 백령도 남포리 쿵돌해안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남포리 26-3 등	'97.12.30.
6	413	영월 문곡리 건물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 등	'00.03.16.
7	415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 등	'00.04.28.
8	4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0-1 등	'00.04.28.
9	43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등	'01.11.30.
10	435	달성 비슬산 암괴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 등	'03.12.13.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1	436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 등	'04.02.23.
12	437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60 등	'04.04.09.
13	43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65-1 등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04.04.09.
14	439	제주 비양도 호니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28-2 등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04.04.09.
15	440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등	'04.04.09.
16	443	제주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63 등	'05.01.06.
17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05.01.06.
18	465	무등산 주상절리대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05.12.16.
19	475	고성 계승사 백악기퇴적구조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등	'06.12.05.
20	500	목포 갯바위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산86-24 인접해역	'09.04.27.
21	501	군산 말도 습곡구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90-1 등	'09.06.09.
22	507	웅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82-1 등	'09.11.10.
23	511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89 등	'09.12.11.
24	513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 등	'09.12.11.
25	525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78 등	'11.01.13.
26	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등	'11.01.13.
27	527	의성 빙계리 얼음골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등	'11.01.13.
28	528	밀양 만어산 암괴류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구리 산16-1 등	'11.01.13.
29	52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등	'11.01.13.
30	530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11.01.13.
31	531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11.01.13.
32	536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공유수면	'12.09.25.
33	537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산415-2 등	'12.09.25.
34	542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98 등	'13.02.12.
35	543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1423	'13.04.11.

천연동굴 : 21건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9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41-27 등	'62.12.07.
2	155	울진 성류굴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 등	'63.05.10.
3	177	익산 천호동굴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1 등	'66.03.02.
4	178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17 등	'66.06.17.
5	219	영월 고씨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 등	'69.06.05.
6	226	삼척 초당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380 등	'70.09.19.
7	236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71.10.04.
8	256	단양 고수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 등	'76.09.24.
9	260	평창 백룡동굴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등	'79.02.14.
10	261	단양 온달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 등	'79.06.21.
11	262	단양 노동동굴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 등	'79.06.21.
12	342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84.08.14.
13	384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등	'96.12.30.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4	466	제주 용천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등	'06.02.07.
15	467	제주 수산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등	'06.02.07.
16	490	제주 선흘리 뱀뒤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 등	'08.01.15.
17	509	정선 산호동굴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 등	'09.12.15.
18	510	평창 섭동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20 등	'09.12.15.
19	549	정선 용소동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산538-1 등	'15.01.16.
20	55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 등	'17.01.04.
21	557	정선 화암동굴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산248 등	'19.11.01.

명승 지정현황(2020. 12. 31. 기준)

| 명승 시도별 지정현황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정건수	3	2	1	1	4	25	10	3	8	22	15	12	9	115

| 명승 : 115건 |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1	명주 청학동 소금강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0 등	'70.11.23.
2	2	거제 해금강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 등	'71.03.23.
3	3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1 등 및 해역부	'72.07.26.
4	6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등	'79.12.14.
5	7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 등	'79.12.14.
6	8	웅진 백령도 두무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55-1 등	'97.12.30.
7	9	진도의 바닷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의신면 등 해역부	'00.03.14.
8	10	삼각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등	'03.10.31.
9	11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등	'03.10.31.
10	12	진안 마이산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127-1 등	'03.10.31.
11	13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04.11.17.
12	14	영월 어라연 일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04.12.07.
13	15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777 등	'05.01.03.
14	16	예천 회룡포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883-18 등	'05.08.23.
15	17	부산 영도 태종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24	'05.11.01.
16	18	소매물도 등대섬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 등	'06.08.24.
17	19	예천 선몽대 일원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 등	'06.11.16.
18	20	제천 의림지와 제림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 등	'06.12.04.
19	21	공주 고마나루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산22-1 등	'06.12.04.
20	22	영광 법성진 숲쟁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821-1 등	'07.02.01.
21	23	봉화 청량산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 등	'07.03.13.
22	24	부산 오륙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 등	'07.10.01.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23	25	순천 초연정 원림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766 등	'07.12.07.
24	26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 등	'07.12.07.
25	27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5-2 등	'07.12.07.
26	28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 등	'07.12.07.
27	29	구룡령 옛길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07.12.17.
28	30	죽령 옛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산86-2 등	'07.12.17.
29	31	문경 토끼비리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41 등	'07.12.17.
30	32	문경새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42-8 등	'07.12.17.
31	33	광한루원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등	'08.01.08.
32	34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항길 57 등	'08.01.08.
33	36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 등	'08.01.08.
34	37	동해무릉계곡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산267 등	'08.02.05.
35	38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 등	'08.02.05.
36	39	남해 금산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7-3 등	'08.05.02.
37	40	담양 소쇄원	전라남도 담양군 소쇄원길 17	'08.05.02.
38	41	순천만	전라남도 순천시 안평동 1176 등	'08.06.16.
39	42	충주 탄금대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산1-1 등	'08.07.09.
40	43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등	'08.08.08.
41	44	단양 도담삼봉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195 등	'08.09.09.
42	45	단양 석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0-35 등	'08.09.09.
43	46	단양 구담봉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32 등	'08.09.09.
44	47	단양 사인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산27	'08.09.09.
45	48	제천 옥순봉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산9 등	'08.09.09.
46	49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8 등	'08.12.26.
47	50	영월 청령포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등	'08.12.26.
48	51	예천 초간정 원림	경상북도 예천시 용문면 죽림리 350 등	'08.12.26.
49	52	구미 채미정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249 등	'08.12.26.
50	53	거창 수승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	'08.12.26.
51	54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등	'09.09.18.
52	55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1868-30 등	'09.09.18.
53	56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13-2 등	'09.09.18.
54	57	담양 식영정 일원	전라남도 담양군 기사문학면 지곡리 산75-1 등	'09.09.18.
55	58	담양 명옥헌 원림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후산길 103 등	'09.09.18.
56	59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 등	'09.09.18.
57	60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 등	'09.12.09.
58	61	속리산 법주사 일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등	'09.12.09.
59	62	가야산 해인사 일원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등	'09.12.09.
60	63	부여 구드래 일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 등	'09.12.09.
61	64	지리산 화엄사 일원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등	'09.12.09.
62	65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 등	'09.12.09.
63	66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 등	'09.12.09.
64	67	서울 백악산 일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2-27 등	'09.12.09.
65	68	양양 하조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조준길 99 등	'09.12.09.
66	69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바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 등	'09.12.09.
67	70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9-2 등	'10.02.05.
68	71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해협	'10.08.18.
69	72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10.08.18.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70	73	태백 검룡소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 등	'10.08.18.
71	74	대관령 옛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72 등	'10.11.15.
72	75	영월 한반도 지형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웅정리 180 등	'11.06.10.
73	76	영월 선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22 등	'11.06.10.
74	77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등	'11.06.30.
75	78	제주 서귀포 쇠소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459 등	'11.06.30.
76	79	제주 서귀포 외돌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790-4 등	'11.06.30.
77	80	진도 윤림산방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윤림산방로 315 등	'11.08.08.
78	81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26 등	'11.08.08.
79	82	안동 만휴정 원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목계하리길 42 등	'11.08.08.
80	83	사라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11.10.13.
81	84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4 등	'11.10.13.
82	85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6-4 등	'12.02.08.
83	86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582 등	'12.02.08.
84	87	밀양 월연대 일원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 330-7 등	'12.02.08.
85	88	거창 용암정 일원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 등	'12.04.10.
86	89	화순 임대정 원림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01 등	'12.04.10.
87	90	한라산 백록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12.11.23.
88	91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남동 산1-1 등	'12.12.17.
89	92	제주 방선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 등	'13.01.04.
90	93	포천 화적연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 등	'13.01.04.
91	94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7-3 등	'13.02.06.
92	95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13.03.11.
93	96	설악산 토왕성 폭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13.03.11.
94	97	설악산 대승폭포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13.03.11.
95	98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산12-21	'13.03.11.
96	99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13.03.11.
97	100	설악산 울산바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2 등	'13.03.11.
98	101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13.03.11.
99	102	설악산 용아장성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13.03.11.
100	103	설악산 공룡능선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등	'13.03.11.
101	104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등	'13.03.11.
102	105	청송 주산지 일원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산41-1 등	'13.03.21.
103	106	강릉 용연계곡 일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 등	'13.03.21.
104	107	광주 환벽당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환벽당길 10 등	'13.11.06.
105	108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365 등	'13.12.30.
106	109	남양주 운길산 수증사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433번길 186 등	'14.03.12.
107	110	괴산 화양구곡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	'14.08.28.
108	111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 등	'14.08.28.
109	112	화순 적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	'17.02.09.
110	113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1길 106-4 등	'18.06.04.
111	114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원길 40-28	'18.12.20.
112	115	강진 백운동 원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 등	'19.03.11.
113	116	부안 직소폭포 일원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등	'20.04.20.
114	117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등	'20.09.02.
115	118	서울 성북동 별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성락원)	'20.09.02.

시·도별 천연기념물·명승 위치도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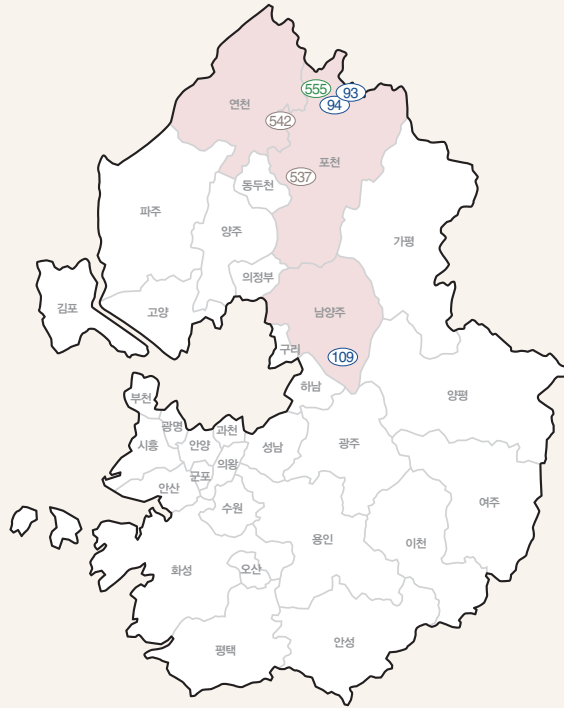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637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천연기념물 642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천연기념물 655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명승 93
포천 화적연



명승 94
포천 한탄강 멧우리
협곡



명승 109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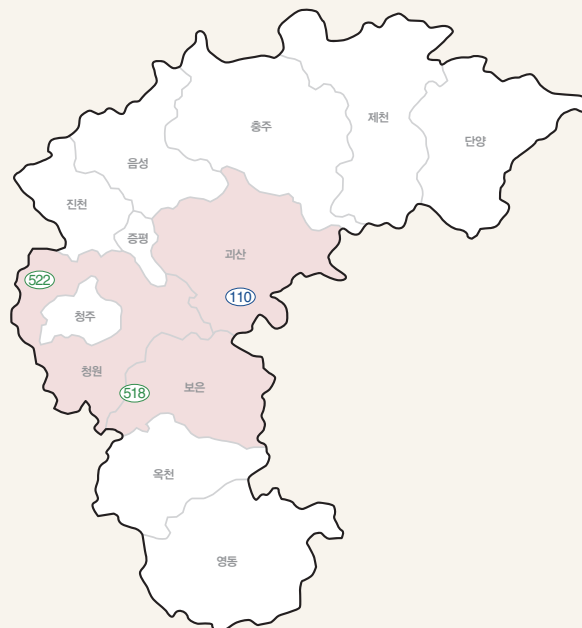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618
보은 용곡리 곶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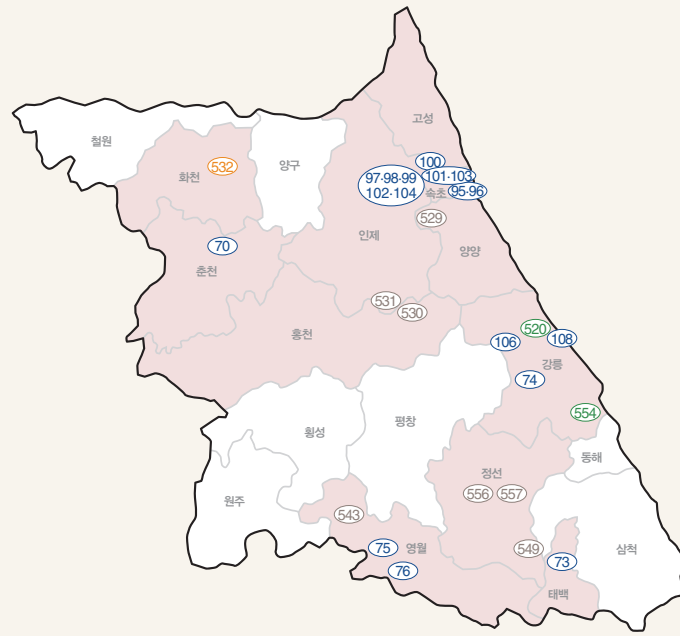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622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명승 110
괴산 화양구곡



강원도



천연기념물 520
강릉 방동리 무궁화



천연기념물 52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천연기념물 530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천연기념물 531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천연기념물 532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천연기념물 543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549
정선 용소동굴



천연기념물 554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556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천연기념물 557
정선 화암동굴



명승 70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명승 73
태백 검룡소



명승 74
대관령 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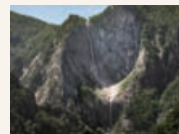
명승 75
영월 한반도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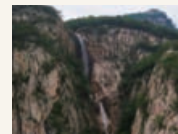
명승 76
영월 선돌



명승 95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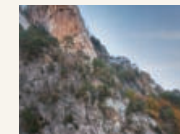
명승 96
설악산 토왕성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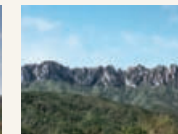
명승 97
설악산 대승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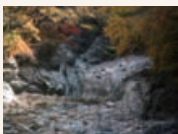
명승 98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명승 99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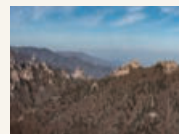
명승 100
설악산 울산바위



명승 101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명승 102
설악산 용아장성



명승 103
설악산 공룡능선



명승 104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명승 106
강릉 용연계곡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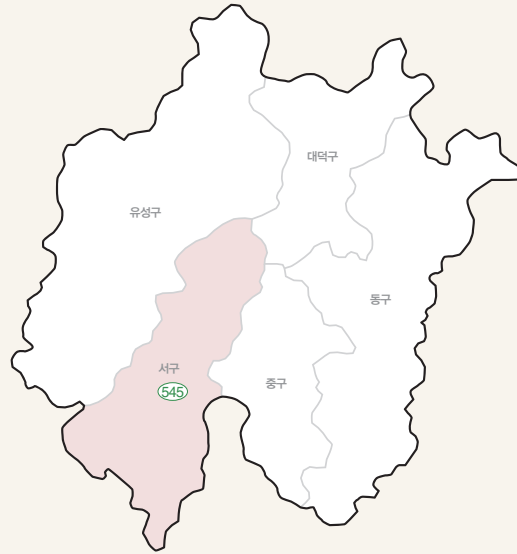


명승 108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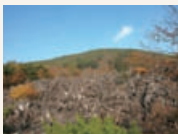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545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경상남도



천연기념물 524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528
밀양 만어산 암괴류



천연기념물 534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명승 71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명승 72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명승 85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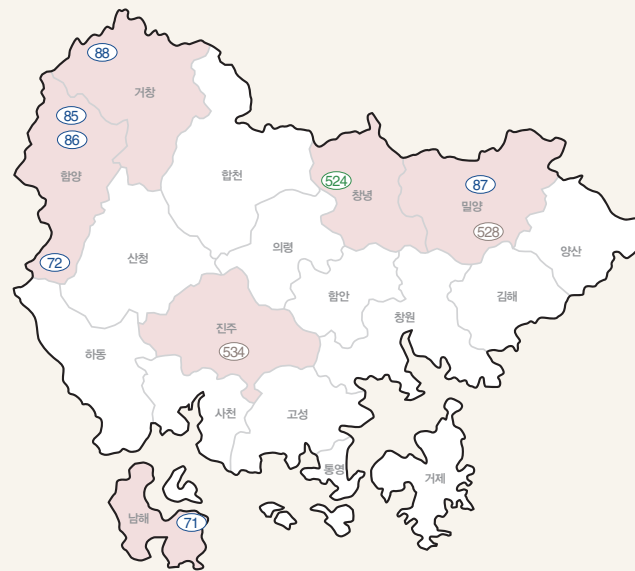
명승 86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명승 87
밀양 율연대 일원



명승 88
거창 용암정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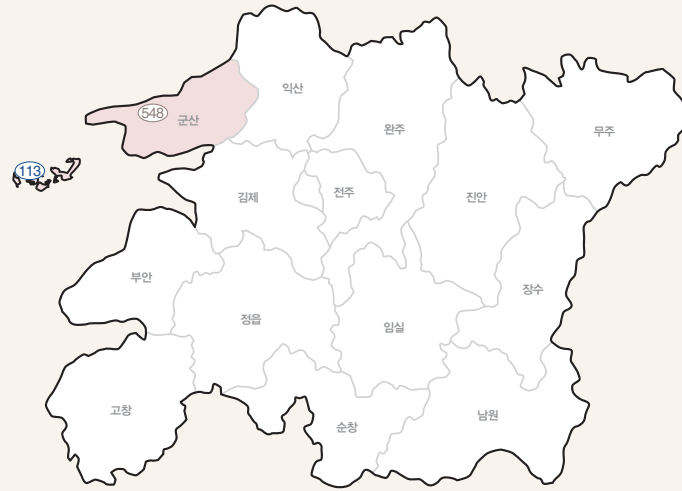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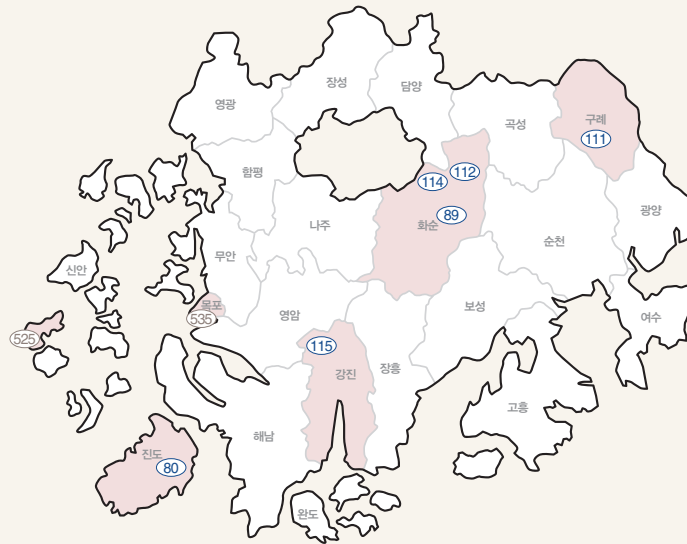
명승 113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천연기념물 548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라남도



천연기념물 625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명승 114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천연기념물 635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 화석



명승 80
진도 윤림산방



명승 89
화순 임대정 원림



명승 111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명승 112
화순 적벽



명승 115
강진 백운동 원림

광주광역시



명승 107
광주 환벽당 일원



천연기념물 539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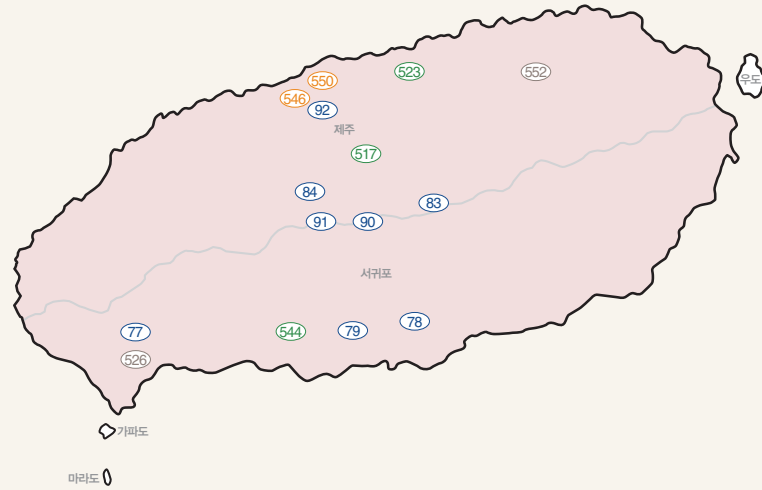
제주도



천연기념물 517
제주 물장오리 오름



천연기념물 523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명승 90
한라산 백록담



천연기념물 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천연기념물 546
제주 흑우



명승 78
제주 서귀포 쇠소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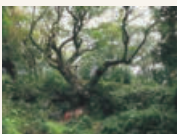
명승 79
제주 서귀포 외돌개



명승 83
사라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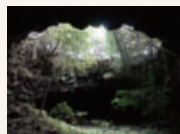
명승 91
한라산 선작지왓



천연기념물 544
제주 강정동 담팔수



천연기념물 550
제주 흑돼지



천연기념물 55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명승 77
제주 서귀포 산방산



명승 84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명승 92
제주 방선문

자연유산대관
**천연기념물
명승**

Overview of Korean Natural Heritage
**Natural Monument
Scenic Site**

인쇄일 2020년 12월 09일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4982 Fax. 042-481-4999

번 역 위너스

디자인 디자인공방

명승촬영 스튜디오 다홍

인 쇄 (주)태웅씨엔피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550000-001980-01

ISBN 978-89-299-2037-1 96600

© 문화재청, 2020

※ 이 도록의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대관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사용권한은 문화재청과 사진 제공처,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Overview of Korean
Natural Heritage

Natural Monument
Scenic Site